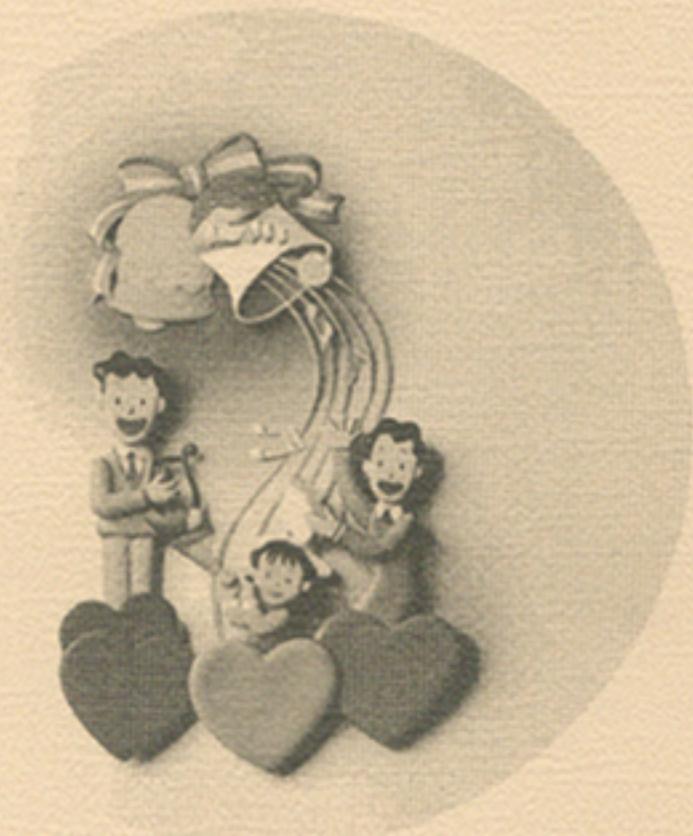


“한 가정에서 한 아이를 보살핀다면...”

우리집은 대안가정이에요!

- 대안가정 일기모음집 -



이화사단법인 대안가정운동본부



온 우주보다 귀한 생명, 우리 아이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에 추운 날씨 속에서 맞이하는 하얀 눈꽃은
정결하고 감춰진 따뜻함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우리 아이들!

온 우주보다 더 귀한 소중한 생명인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대안가정 식구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큰 행운이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출간하기 위해 모은 대안가정 일기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처음 아이를 맞이하는 설레임의 순간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가 새 가정에 적응해 가는 과정들과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아이를 키우면서 얻게 되는 지혜들을 보면서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 1년 동안 한 아이를 키우면서 쓴 글들을 다시 보니,

아이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마음에 생생합니다.

부디 착한 사람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를 통하여 지난 4년간 삼십여 명의 소중한 영혼들이
대안가정에서 양육되게 된 것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양육일기를 쓰셨습니다.

때로는 양육일기에 아이를 맡긴 친엄마, 친아빠가 글을 남기기도 했었지요.

우리가 출간하는 이 책이 있는 그대로 표현된 우리 삶의 진실한 모습,

사랑의 오케스트라가 되어 함께한 모든 이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시고

이 사회를 더욱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소중한 밑알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5년 12월 30일

사단법인 대안가정운동본부 이사장 이수영



축사

사랑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는 사회

배성우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 가정이 한 아이를 보살핀다면...”이라는 원대하고도 야심에 찬 꿈을 몸소 실천하고자 불철주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은 대안가정운동본부의 그간의 노력들이 이제 작은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보살핌으로 변해가는 아이들의 모습,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바뀌어가는 대안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아이를 대안가정에 보낸 부모의 마음이 진하게 묻어 나는 대안가정일기를 읽어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안가정의 부모들이 엄청난 부를 소유하거나 대단한 권력을 지닌 특수계층이 아니라 우리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생활인이며 아주 평범한 가족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지닌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우리사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많은 대안이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의 대안밖에 없어서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이 열어있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복지사회입니다. 살다가 장애인이 되면, 노인이 되어 치매성질환에 걸리면, 아이가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없게 되면 다양한 노력들이 제공되어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삶의 대안을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대안가정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지만 내가 다른 이의 대안이 될 수 있을 때, 우리가정이 다른 가족의 대안이 될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사회가 더 많은 대안을 가질 수 있을 때를 기대하면서 이 책이 대안가정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에게 따뜻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대안가정운동본부 운영진과 대안가정 가족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탁부모와 친부모의 교류의 장

한연희 (한국입양홍보회 회장)

일기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활동과 생각을 규칙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솔직하게 쓰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과 성격,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에서 펴내는 대안가정의 일기는 위탁부모와 위탁을 맡긴 친부모가 서로의 심정을 교환하는 장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기록을 뛰어넘어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대안가정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위탁사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 매일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아동의 성장과정을 관찰해서 글로 기록하는 행위는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좋은 유익을 끼치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친부모들이 위탁 후 고마움과 미안함이라는 양가감정 때문에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언제나 열람이 가능한 일기를 통해 자녀의 성장과정을 지켜봄으로써 위탁아동과 친부모간 재결합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동을 사랑으로 섬세하게 보살피고 낯선 환경에 조심스럽게 적응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간 대안가정 가족들의 모습, 위탁아동을 중심으로 양쪽 부모들이 서로 솔직하게 자기 입장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절제된 모습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글 속에서 울컥울컥 치솟는 눈물을 삼키면서 읽었습니다.

먼 훗날 위탁보호 되었던 많은 아이들이 이와 같은 기록을 대하게 된다면 어렵פות하게 짐작하던 그 사랑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될 것이며, 그 밑거름은 이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하는 빛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하는데 한 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탁을 의뢰한 사연도 다양하고 적응해 가는 과정도 다양하지만 동일하게 전해져 오는 감동은 탁월한 글 솜씨나 월등한 양육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교부리지 않은 글, 짧은 글 가운데에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과정이 아름답기에 진한 감동으로 단번에 다 읽어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출산을 꺼려하고 양육을 기피하는 이 시대에 위기에 처한 생명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보듬어 내고자 애쓰는 과정이 담긴 대안가정 일기를 펴내는 것은 어두운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처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아이들은 지금 친부모님과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귀한 자료가 한 권의 책으로 엮어져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안가정 일기를 써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우리집은 대안가정이에요!』를 읽기 전에

『우리집은 대안가정이에요!』는 위탁아동을 양육해온 대안가정의 일기를 재정리한 책이다.

대안가정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는 대안가정 일기에는 대안가정의 일상이 꾸밈없이 그려지고 있다. 또 아이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대안가정 일기의 주요 독자는 바로 아이를 대안가정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친부모이다. 친부모에게 대안가정 일기는 대안가정에 맡긴 자신의 아이를 언제든지 만나볼 수 있는 반가운 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일기가 뜬해지거나 사진이 올라오지 않으면 빨리 일기를 쓰라고, 사진 좀 올려달라고 독촉을 하는 친부모도 있을 정도다.

『우리집은 대안가정이에요!』를 발간하기 위해 각 대안가정의 일기를 정리하고 몇 차례의 교정을 보면서 나는 몇 번이나 울음을 삼켜야 했다. 자신에게 맡겨진 한 아이를 향한 가슴 저린 사랑과 그들의 소중한 노고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를 향한 그리움을 달래며 대안가정 일기를 읽고 또 읽고 있을 친부모의 애달픈 모습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02년 4월 대안가정운동본부가 창립된 이후 2005년 12월 말 현재까지 32명의 아동에게 대안가정을 찾아줄 수 있었다. 그중 14명(11가정)이 친가정으로 귀가하였고, 18명(15가정)이 아직도 대안가정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

『우리집은 대안가정이에요!』에는 총 16가정의 일기가 수록됐다. 아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와 일부 내용을 추려냈고, 일기에 등장하는 위탁아동의 이름도 모두 가명으로 바꾸었으며, 아동에 대한 간략한 소개마저 생략했다. 대안가정 일기의 참 맛을 느끼기에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나마 최소한의 장치가 아닐까 싶다.

대안가정 일기는 주로 대안가정 부모들이 썼지만, 사실은 주요 독자인 친부모와의 공동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신의 가정을 열어 한 아이를 맞아들이고,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대안가정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대안가정운동본부와 대안가정을 신뢰하고 따라준 친부모님들께도 감사와 격려를 하고 싶다.

『우리집은 대안가정이에요!』가 대안가정을 준비하는 많은 가정과 가정위탁에 동참하는 수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사단법인 대안가정운동본부 김명희 사무국장

① 발간사

②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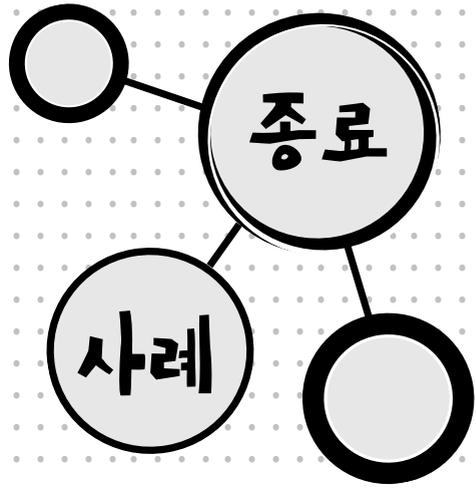
④ 일러두기

⑦ 종료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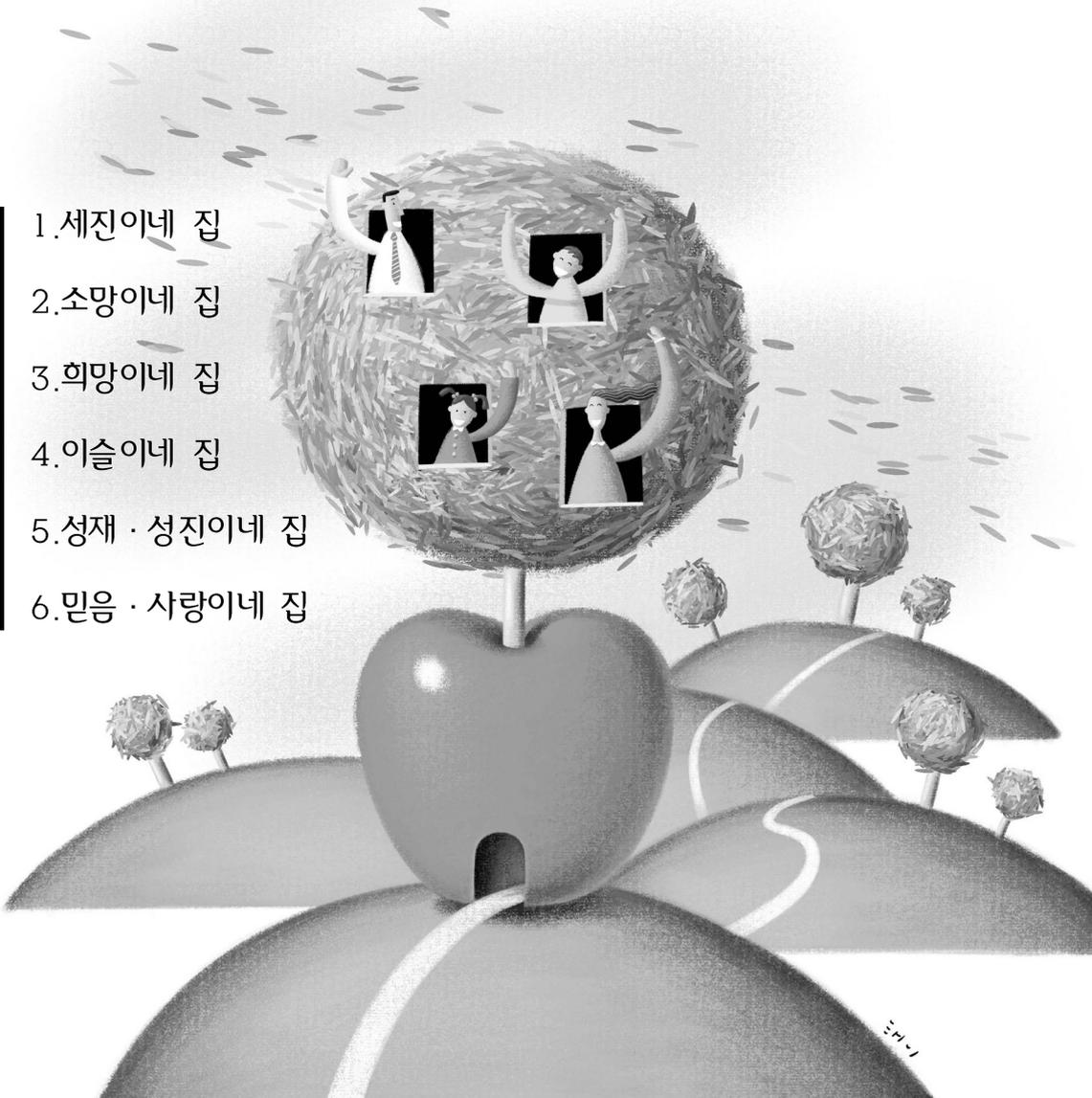
1. 세진이네집	-----	8
2. 소망이네집	-----	27
3. 희망이네집	-----	47
4. 이슬이네집	-----	54
5. 성재 · 성진이네집	-----	62
6. 믿음 · 사랑이네집	-----	74

⑧3 진행사례

1. 한울이네집	-----	84
2. 진솔이네집	-----	97
3. 새날이네집	-----	114
4. 보라네집	-----	125
5. 가람이네집	-----	140
6. 아름이네집	-----	146
7. 하늘이네집	-----	154
8. 새봄 · 초롱이네집	-----	159
9. 으뜸이네집	-----	164
10. 슬기네집	-----	167



- 1. 세진이네 집
- 2. 소망이네 집
- 3. 희망이네 집
- 4. 이슬이네 집
- 5. 성재 · 성진이네 집
- 6. 믿음 · 사랑이네 집



12월 들어서서부터 준이를 보내기까지의 마음을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잊었습니다. 엄마 곁으로 가는 게 당연하고 또 축하할 일임에 틀림 없지만 지난 10개월간 함께한 시간들이 이별을 받아들이기에 쉽지않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준아! 사랑한다. 행복해라! 멋진 아이로 자라거라!

세진이네집



♥ 세진을 기다린 1달 / 2003. 2. 12 / 대안가정 부

가족회의에서 세진을 키우기로 한지 한 달이 다 되간다. 그동안 양가 부모님의 이해를 구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이제 세진이만 오면 된다. 우리 가족은 일찍부터 대안가정운동에 동참을 해왔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예수님 가르침을 배우고 있었기에 세진을 맞이하는 데 무슨 특별한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다. 다만 어린 세진이가 친엄마와 떨어져서 잘 적응해낼지 조금 걱정되기도 한다. 온 가족이 세진과 친해질 때까지 각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지. 우리 애들은 둘 다 세진이가 오는 것에 기대가 큰 듯하니 잘 대해 주리라. 집사람도 케익을 준비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 같고. 그럼 난 뭐하지?

● ●
Re : 세진이를 기다린 한달 / 2003. 2. 12 / 김명희

대구역에 세진이와 엄마를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부터 만들고, 사무실로 와서 약정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우리집 딸내미들을 데리고 나가 함께 샌드위치와 과일주스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세진이 엄마가 굳이 사시겠다고 해서 괜히 폐를 끼친 것 같아 몹시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모처럼 샌드위치를 푸짐하게 먹어서 신이 납니다. 이모부님께서 마련해주신 선물을 세진이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세진이 엄마는 사무실을 나서며 기어 이 눈물을 흘리셨구요. 세진이는 지금 사무실에서 우리집 애들이랑 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울리게 했다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 세진이는 엄청 수줍음이 많습니다. 우리 혜진이 보다 더 한 것도 같고... 마두에서 샌드위치를 먹는데 거의 뒤로 돌아앉아서 먹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런다고 엄마가 그러네요. 우리 애들과 말은 한마디도 안하면서도 지금 게임을 하며 노는 걸 보니 반응은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주변의 정보는 민감하게 수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출발 전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 **환영파티 / 2003. 2. 13 / 김명희**

세진이가 대안가정에 온 날, 자그마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가는 동안 차에서 잠이 든 세진이는 두 시간 정도를 계속 잤습니다. 세진이가 잠에서 깬을 때는 전혀 다른 생소한 곳이어서 낯설어 했습니다. 안그래도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세진이는 입을 떼지 않고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금세 이모와 알까기놀이에 빠져 깔깔 웃으며 친해졌습니다. 누나가 학원에서 돌아와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케익에 불을 켜고 다 같이 환영축가를 부르며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알까기놀이에 빠진 세진이 때문에 오늘 세진이네 가족 잠들기는 틀린 것 같네요.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형석아! 해은아! 세진이 잘 부탁해!

♥♥ **모든 분들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 2003. 2. 14 / 친모**

안녕하세요. 먼저 모든 분들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사진을 봤는데, 세진이가 앞으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리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 년 후에 엄마 따라 서울로 안가겠다고 할까봐 은근히 걱정(?)입니다. 세진이는 엄마 외에는 다른 가족들의 사랑을 모르고 자랐어요. 세진이에게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는 눈물을 안 흘리려고 일부러 다른 생각도 하고 노력했는데... 이미 아셨겠지만 세진이는 저를 닮아 수줍음이 많습니다. 무척 내성적이고, 정도 많고, 빠지기도 잘 하고, 눈물도 많아요. 이번 기회에 전 세진이가 좀 강해졌으면 하는 욕심도 납니다. 그리고 세진이에게 학원도 보내주시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지... 기회가 된다면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께 돌려드리도록 노력하면 될까요? 세진이는 김치, 깍두기

를 특히 좋아하지만, 다른 음식도 거의 다 잘 먹습니다. 세진이 많이 먹는 거 보고 놀라실거예요. 과일은 사과, 배를 잘 먹고, 특히 수박을 좋아하고, 밤, 감, 토마토, 딸기는 잘 안먹으려고 해요. 고기는 삼겹살을 잘 먹어요. 야채는 잘 안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음식솜씨가 형편없어서 맛이 없어서 일거예요.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씩 들러볼게요. 사실 너무 자주 들르면 세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자꾸 눈물이 날까봐요. 우리 예쁜 세진이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세진이는 멋쟁이 / 2003. 2. 19 / 대안가정부

세진이는 모든 면에서 아주 잘 자란 아이입니다. 세진이 어머니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얼마나 세진을 잘 키웠는지 우리 식구는 물론 장모님이나 교회식구들까지 칭찬이 자자합니다. 우리집은 세진이가 온 이틀 동안 행복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첫날 처음 잠에서 깨어나 수줍어하던 세진이는 이모의 초코렛 공세에 곧 넘어갔고, 이어서 바둑알로 알까기게임을 하면서 금새 가족들과 친해졌습니다. 이제는 식구들이 나가면 꼭 몇 시에 들어오는지 묻고, 식구가 들어오면 반가와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특히 형아와 누나를 많이 좋아하는 걸 느낍니다. 요즘은 집안에서는 풍선으로 배구도 하고, 형아와 함께 집밖 놀이터에 나가 공차기도 하고 놀니다. 음식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해서 너무 기특하고 귀엽습니다.

세진이 어머니, 세진이와 떨어져 많이 섭섭하시지요. 잘 참으시고 하시는 일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진이도 한 번씩 엄마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잠들 때에는... 세진이 짐을 풀면서 '김○○'가 누구야 하니 우리엄마라고, 엄마는 미국가서 나중에 아빠하고 같이 온다고 합니다. 현재 세진이는 저희 집에서 할 말을 다 합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은 3월부터 유치원에 보내고, 세진이 나이에 적절한 미술, 음악, 운동경험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진이가 있어서 우리 집이 아주 재미있고 기쁩니다.

세진이 사랑해요 / 2003. 3. 6 / 친모

제가 부족한 게 많아 제대로 키우지도 못했는데, 우리세진이를 좋은 아이로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고맙습니다. 어제는 제대로 인사도 못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성경책을 펴보니, 아가 8:5-6 절 중 '저 여인은 누구인가?...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이라는 글들이 보이고, 고장난 수도꼭지마냥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에 다닌 적은 있지만, 저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세진이를 저에게 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렇겠지만 세진이는 저의 전부입니다. 이모부께서 쓰신 글을 보니 세진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웃을 때 세진이 정말 예쁘죠? 잠 잘 때 호랑이 인형을 안고 자곤 했는데... 세진이가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 세진이는 정상적으로 생활 / 2003. 2. 19 / 대안가정 부

세진이는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6살 남자아이로서 모든 생활이 적절하게 이루어집니다. 밤 10시에 잠들면 아침 8시 넘어 일어납니다. TV와 컴퓨터게임은 오전에 조금만 할 수 있고, 식구들이 들어오면 같이 외출을 하거나 놀이를 합니다. 같이 책을 보는 시간이 많고, 숫자와 한글공부도 합니다. 아마 곧 혼자서 책을 읽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숫자감각이 뛰어난 것 같아서 덧셈, 뺄셈을 시켜보는데 두 자리 덧셈까지도 곧잘 풀어냅니다. 가족 외출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옷을 챙겨 입고 나섭니다. 공중목욕탕에 한번 갔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매일 가자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이라고 얘기해도, 게임 같은 걸 하다가 자기가 이기면 하루씩 빨리 가자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주중에 한 번 더 시간을 내어야겠습니다. 제 차를 좋아하는데 앞자리에 타고 싶어 해서 원래는 안되는데 한번만 태워준다고 하면서 벌써 두 번이나 태워줬습니다. 주일날 교회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은 수줍음을 많이 타서 당분간은 제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른들 집에 두 번 갔었는데 두 분 모두 세진이가 귀엽다고 좋아하십니다. 할아버지는 세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며 몇 시간 놀다 오기도 했습니다. 우리집 애들은 특하면 서로 싸우는 데 세진이에게는 잘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야, 너희들 서로 세진이한테 하는 만큼 하면 싸울 일이 뭐가 있냐?”라고 합니다. 애들이 세진이 때문에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에 좋은 아이를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세진이 이야기 / 2003. 2. 21 / 대안가정 모

세진이 이모예요. 이제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듯합니다. 생각보다 세진이 적응이 빨랐고 주위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 힘이 납니다. 세진이를 데려오면서 그냥 우리아이처럼 하자 했는데 다행히 모든 성향이나 성격이 비슷해요.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잘 놀고... 세진이 엄마가 혼자서 힘들었겠지만 충분히 잘 키우셨더군요. 자립심도 있고 배려할 줄도 알고. 우리집에서 생활하다 이런 좋은 점들이 흐려질까 걱정입니다. 이것저것 물어도 보고 엄마애기도 자연스럽게 하는데 스스로는 엄마애기를 거의 안해요. 특별히 눈치를 보는 건 아니고 이 또래아이의 특성상 정말 잊어버렸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 세진이 이야기 1

같이 차를 타고 가다 신호가 걸려서 기다리는데 세진이 왈, “빨간불이야. 빨리 가.”합니다. 아니 빨간불에 가라니 처음엔 신호등을 모르나 했죠. 세진이 왈, “울 엄마는 초록불에 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빨강불이니 차가 가야지” 합니다. 세진이는 여기까지 스스로 생각한겁니다. 그 다음은 설명이 필요하죠. 사실은 세진이 신호는 어찌고저찌고... 좌회전은... 우회전은... 아직 다 이해는 못했지만 빨간불에 가자는 소리는 안해요.

* 세진이 이야기 2

우리 아들방에는 우주를 찍어놓은 액자가 걸려 있거든요. 세진이 왈, “형아 이거 형아가 비행기 타고 가서 찍었어?”



세진이 이야기 / 2003. 2. 25 / 대안가정 모

세진이 오늘 병원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누나 따라 갔는데 선생님께서 친절히 다 살펴주셨어요. 알레르기비염이 약간 있다고 처방전 받아서 왔는데요. 송현동에 있는 송광익 선생님 병원인데 어찌나 편안하고 꼼꼼하게 봐주시는지 정말 감사하네요. 세진이는 특별히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싫다는 말도 하고, 이모부 형아 누나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 인사하고, 할머니 가실 때 어찌다 놓치기라도 하면 현관문 열고 큰 소리로 인사해서 엘리베이터 안까지 들리게 합니다. 일요일, 할아버지께서 동네를 한 바퀴 자전거를 태우고 도셨습니다. 세진이 너무나 신나서 얼굴 가득 기쁨이 넘치고요. 드디어 할아버지께서 자전거를 사주마 약속하셨어요. 세진이는 그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진이 요즘 시계 보는 법 배우고 있거든요. 전자시계는 곧잘 보는데 숫자시계는 힘들거든요. 1은 5분 2는 10분... 크게 시계를 그려 놓고 하는데 “1시 59분 다음은?” 하면 한참을 생각하다 “1시 60분”합니다. 왜 60으로 잘려야하는지 영 이해가 안간다는 표정. 열심히 따라하다 세진이 왈, “아~ 힘들어” 그 때 모습, 코에 땀이 송송 맺히고 얼굴은 너무 심각하고, 우리는 막 웃고...



세진이의 자전거 / 2003. 2. 28 / 대안가정 모

세진이 오늘 자전거 샀어요. 할아버지께서 사주셨는데 빨강색 중고. 세진이랑 동네를 몇 바퀴 돌고 오셔서는 차도 한 잔 앉으시고 가셨습니다. 처음엔 힘든 일이라고 하시더니 지금은 세진이를 예뻐하십니다. 친정 엄마도 처음엔 ‘무슨 이런 일이’ 하시더니 지금은 예뻐하시구요. 우리 아들이 자전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세진이도 계속 타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때마다 크기에 맞게 사줬는데 세진이는 이게 처음인가 봅니다. 친구 자전거를 타 봤다고 하더군요. 풍요를 얘기하지만 가진자의 말사치 일 수 있음을 생각하고 맘이 아립니다. 세진이는 요즘 혼자 노는 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알까기도 혼자 하는 걸 싫어했는데 이제 분위기 파악하고 혼자서 흰 알은 착한 놈, 검은 알은 나쁜 놈 하면서 곧잘 놀입니다. 여전히 잘 먹고, 거의 매일 응가하고, 양치는 정말 꼼꼼히 하고, 형아 옆에서 끝까지 버티다 같이 자고, 형아 누나 보는 비디오 원어로 다보고... 내일은 우리가족 바다 보러 다녀올까 합니다. 아침 일찍 자전거 한번 타고 목욕 갔다가 바다로... 엄청 바쁠 것 같네요. 세진이 목욕탕 가는 것 엄청 좋아하거든요. 남탕이 처음이 아닐까 싶네요.

♥️ 즐거움이 가득찬 세진이를 만나고... / 2003. 3. 7 / 김명희

어제 저녁, 세진이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세진이는 내가 들어서자 함박웃음을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부끄러웠는지 다시 형과 누나에게로 가서 빠꼼히 봅니다. 안그래도 뽀얀 세진이는 더 뽀 예졌고, 키도 좀 큰 것 같았습니다. 즐거움이 가득찬 세진이 얼굴을 보면서 자꾸만 세진이에게 시선이 가서 들여다보며 이것저것 말을 시켰습니다. 밥도 잘 먹고, 가리는 것도 거의 없고, 또 많이 먹어서 이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답니다. 세진이가 특히 좋아하는 과일은 수박인데 이모부도 수박을 엄청 좋아해서 어제는 세진이 핑계를 대며 수박을 사들고 들어오셨답니다. 가족들이 모두 바짝 마른 체형이고, 딸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닮았네요.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이모랑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게 와서 알까기를 하자고 하는데 못해줘서 미안하네요. 요즘 바쁜 이모부가 밤 9시쯤 집에 들어오자 세진이는 거의 날다시피 해서 달려가서 안깁니다.

이모 : 세진이 이제 잘 시간이네.

이모부 : 조금만 놀다 자자.

이모 : 안돼요. 규칙을 지켜야지...

이모부 : 모든 규칙에는 예외란 게 있어요.

♥️ 세진이 이야기 / 2003. 3. 11 / 대안가정 모

지난 수요일부터 세진이는 미술학원을 다닙니다. 놀이터가 있는 넓은 어린이집을 원했는데 기다려야 한다는군요.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세진이란 얘기를 하니 미술학원이 가고 싶다더군요. 다행히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세진이가 좋아합니다. 세진이 이모부가 세진이 시간 보내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집에서 TV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피아노 학원을 가자고 몇 차례 설명을 하고 갔는데 싫다더군요. 그렇게 싫다는 걸 뭐하러 시키나 싶어 놀이터에서 실컷 놀고 왔죠. 한참을 추위에 떨었더니 정신이 멍하더군요. 사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여유있게 놀이터에서 논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어릴 땐 그래도 가끔씩 갔는데 유치원 다니고 부터는 뭐가 그리 바쁘고 할 게 많은지... 엄마 욕심이 있었겠지요. 아이들이 훌쩍 커버리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놀이터에서 충분히 놀릴걸, 자전거 타울걸... 그러면서도 지금은 또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세진인 수영도 싫다, 피아노도 싫다, 아직은 하고 싶은 걸 못 찾았지만 조금 여유있게 기다릴 겁니다. 세진이는 영리한 것 같아요. 말도 잘 통하고 기본 생활 습관도 잘 들어있고, 남의 집이라 그렇다기 보단 기본이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컴퓨터게임만 시간을 정해서 통제하고 있고요. 나머지 별반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주육 키워온 내 아이 같아요. 너무 잘 맞고 요즘은 외할머니랑 친해져서 가끔씩 응석도 부리고 합니다. 외할머니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워낙 끔찍했거든요. 그 사랑을 그대로 세진이에게 베풀답니다. 요즘은 이모부가 바쁜 때라 많이 못 놀아주지만 대신 우리 아들이 장난을 많이 칩니다. 둘이서 한참 놀다가 형아 공부한다 하면 '또

공부 해' 하면서 아쉬워하지요. 엄청 좋아해요. 형아를... 요즘은 형아랑 자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한참을 킁킁거리다 잠이 듭니다. 가끔씩 엄마 얘기를 시킵니다. 어색하지 않게 그냥 그런거야 하는 느낌이 들게... 크게 동요하는 모습은 아니고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어린것이 나름대로는 맘고생하겠지요. 아무렴 엄마만 할라구요. 그래도 좋은 추억 만들어주자 생각하며 함께 한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아마 세진이를 더 강하고 남을 배려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리라 생각하며...

잠간 / 2003. 3. 21 / 대안가정 부

그동안 바빠서 글을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바쁘지만 잠간 시간을 내었습니다. 세진이는 물론 안정되고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구요. 아침에 7시 넘으면 저 혼자 깨어납니다. 저녁에 보통 9시 조금 넘으면 자니까 잠은 충분한 편인 것 같습니다. 8시 반에 미술학원으로 가서 3시에 오면, 오후에는 피아노 배우러 다닙니다. 처음에는 피아노를 안 배우려 하더니, 새로 사귄 여자친구(수진)와 같이 배우자고 했더니 좋다고 해서 월요일부터 매일 다닙니다. 성악을 전공하신 수진이 어머니에게 노래와 함께 배우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내어준 한글숙제는 금방 다 해버리고 나서 놀입니다. 아마도 해야 될 일을 미루는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복잡한 퍼즐도 한 시간씩 끈기 있게 맞추는 것을 보면 집중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가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모두 우리 세진이 자랑 밖에 말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만 나면 TV를 많이 보는 데, 제 바람은 더 책을 좋아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마 곧 글자를 읽게 되면 바뀌리라 봅니다. 그동안 부산에도 갔다 왔고, 도자기체험도 하고 왔는데 바빠서 자세한 소식은 적지 못했습니다.

세진이랑, 내캉 / 2003. 3. 22 / 대안가정 형

안녕하세요~ 형식입니다. 중3에 재학중이고, 세진이와 같은 방을 쓰고 있습니다. 세진이는요, 너무 너무 저한테 붙어 다닌답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 "형아!"하며 퍽하고 치고 들어오고, 아침에도 일어나면 찰싹 붙어서 나보고 일어나랍니다. 오늘 제가 캠을 샀는데요. 사진 찍은 거 올릴게요. 내일쯤엔 동영상 하나 찍어서 올리구요. 그럼~

오늘 아침 / 2003. 4. 10 / 대안가정 부

오늘 아침 집사람과 함께 세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인데, 인근에서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좋다고 소문난 곳입니다. 오늘 가니 원장수녀님과 선생님들이 잘 맞아 주시고, 강당이랑 놀이터 시설이 훌륭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정원이 비지 않아서 한 달을 미술학원에 다녔었는데, 너무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5일에 제 친

구 가족들 모임으로 버스를 대절해서 경주, 감포에 다녀왔습니다. 경주 보문단지 벚꽃길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세진이는 보조바퀴있는 자전거였는데, 2인용 자전거를 탄 우리 부부 뒤를 따라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얼마나 신나게 탔는지 모릅니다. 2인용 자전거를 타는 걸 집사람이 너무 좋아해서 조만간에 다시 한 번 시간을 내야겠습니다. 4월부터 매 주일 저녁에 가족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공부, 회의, 용돈지급 시간이 있는데 세진이에게는 한 번에 천 원씩 용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가끔 어른들이 용돈을 주시면, 돈을 써보는 데 신기하고 재미있어 합니다.

세진이 이야기 / 2003. 4. 15 / 대안가정 이모

안녕하세요? 제가 누구냐구요? 예, 저는 세진이의 큰이모예요. 현재 세진이네와 아주 가까이 살고 있고, 세진이 이모의 언니예요. 두 달 전 서울에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세진이를 처음 봤을 때 속눈썹에 반했답니다. 우리 아이들도 참 예뻐하구요. 큰딸은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세진이 안부를 묻곤 하죠. 며칠 전 세진이 손을 잡고 걷는데 묻지도 않은 말도 곧 잘 하고, 두더지 잡는 게임을 해달래서 신나게 했었어요. 어린이집 가방이 무겁다고 벗어 주어서 제가 들어 주었어요. 이제는 제법 많이 친숙해졌답니다. 반듯하게 잘 자란 세진이가 이모네서는 물론이고 우리나 할머니께나 이쁨둥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세진이 어머님 건강하시구요. 이모나 이모부가 자주 소식 올리겠지만 저도 자주 들릴게요.

피아노 치는 세진이 / 2003. 4. 28 / 대안가정 모

세진이는 요즘 피아노 치는 걸 재미있어 합니다. 레슨가는 걸 좋아하지요. 학원에 보내기가 뭐해 망설이고 있었는데 교회 집사님께서 선뜻 승낙해 주셨어요. 세진이라도 엄청 이뻐하시고 주위에 산소를 공급하는 맑은 분이예요. 세진이는 숙제를 잘하는 편이예요. 놀다가 “숙제 할게”하면서 서재문을 잠그고 들어갑니다. 누나와 형이 늘 그러니까 숙제, 공부 이런 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운동을 하나 꾸준히 시키고 싶은데 싫어해요. 미술은 하고 싶다 하고... 해가 조금만 더 길어지면 격일로라도 미술학원을 보낼까 생각 중이예요. 우리 가족은 주일마다 가족예배를 드리는데 모두가 엄청 기다리는 시간이예요. 2부가 용돈 주는 시간이거든요. 세진이는 언제 예배 드리냐고 제일 기다리지요. 세진이라도 매주 천원을 받거든요. 형아 지갑을 하나 얻어서 돈을 모으며 좋아합니다.

병원과 약국 / 2003. 4. 28 / 대안가정 모

세진이 지난 토요일에 병원 다녀왔어요. 감기, 요즘 겁나잖아요. 세진이 주사 땀에 엄청 겁먹고 갔는데 선생님 말씀이 괜찮다고 그냥 약만 먹자네요. 송광익 선생님께서 약국에도 벌써 말씀을 해놓으셔서

약도 그냥 받고 음료수도 마시고 세진이 영양캔디도 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왔어요. 따뜻한 맘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구나, 좋은 일 하실 분들이 참 많겠구나,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구나...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난 토요일엔 우리 형님이 하시는 도예원에서 하루 종일 놀았는데, 진뚫개도 있고 마당도 넓고 흙도 마음껏 만지고 정말 좋더라구요. 장군이(진뚫개)보러 간다고 형아와 누나도 시험만 끝나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 세진이가 많이 큰 것 같아요 / 2003. 5. 1 / 친모

세진이 잘 보살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랑 있을 때 보다 더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 세진이라도 두 분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식구들이 모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세진이를 위해 좋은 추억 만들어 주느라 수고하는걸 보면 그렇게 실천하는 사랑이 정말 아름답다는 걸 느낍니다. 세진이보다도 더 어려운 아이들이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기회를 빼앗은 것 같아서 다른 아이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세진이가 슬슬 공부와 숙제하는 습관이 드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형아랑 누나를 보고 배웠겠지요. 사진을 보니 세진이가 애기티를 벗고 어느새 소년이 된 것 같아서, 좋기도 하고 기분이 좀 묘합니다. 표정이 많이 의젓해진 것 같아요. 키도 좀 큰 것 같고, 살도 좀 붙은 것도 같고... 모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건강 하십시오.

● Re : 세진이가 많이 큰 것 같아요 / 2003. 5. 3 / 대안가정 부

세진이 어머니 글을 반갑게 잘 읽었습니다. 세진이가 저희 집에 온 지 3달이 되었네요. 다행히 세진이가 잘 적응하고 우리 가족과 잘 맞아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내게 되어 무척 감사하답니다. 세진이는 무척 영리해서 자신의 환경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번씩 세진이에게 물어보면 엄마가 보고 싶고 또 집에도 가고 싶다고 합니다. 세진이가 정체성에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엄마와 집에 대해서 세진이와 얘기를 하곤 합니다. 세진이 나이가 한창 엄마 아빠를 인식할 때라 조심스럽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도예방을 하는 고모집에서 도자기 만들기 행사가 있는데 데려 가려 합니다. 도예방에 가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도예방에서 자기가 구운 꽃병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세진이 같이 예쁘고 영리한 아이를 두신 세진이 어머니께 축하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계획대로 세진이를 직접 돌보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괜찮으니 자주 글도 남기시고...

♡ 많이 바쁘시죠? / 2003. 5. 6 / 친모

안녕하세요. 이모님 이모부님 많이 바쁘시죠? 어제는 도예원에 다녀오시느라 힘드셨죠? 우리 세진이

가 흠을 만지며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저는 세진이를 키우며 많이 힘들었지만, 한 번도 세진이를 낳은 것을 후회해 본적이 없습니다. 세진이 때문에 전 더 행복했는걸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물질적인 것보다도, 세진이가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진이는 백일 때부터 놀이방을 다녔는데, 애기였을 때 같이 못 있어준 것도 정말 가슴 아프구요. 세진이는 다른 친구들이 가족, 친지들과 왕래하면서 지내는 것을 항상 부러워했답니다. 그런데 세진이에게 이런 가족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쁘고, 세진이가 너무 보고 싶지만 충분히 참을 수 있답니다. 저는 세진이를 일년 정도 대가로 유학보냈다고 생각한답니다. 요즘 저는 십자수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나중에 세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주려고 이모님 가족들이 올려주신 글을 토대로 해서 책을 만들며 세진이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세진이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세진이 / 2003. 5. 9 / 대안가정 부

어린이날 세진이는 도예원에서 작품을 만들고 신나게 놀았는데, 또래 아이들과 놀다가 싸움이 붙었다. 한 아이와 말다툼 끝에 싸우는데 머리 조르기, 주먹 휘두르기를 하면서 세진이가 하는 말, “키도 적은 게 까불고 있어!” 말리면서 얼마나 웃기든지... 어린이집이나 교회 유치부에서도 세진이가 가면 아이들이 우르루 나와 세진이를 반갑게 맞아주고 세진이도 활발하게 화답한다. 어디서나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외치는 세진이를 모두들 좋아한다. 처음에는 세진이에게 약간 수줍고 자신감이 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 타고난 성품이 우리 애들보다는 확실히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것 같다. 어린이날 용돈을 받고 좋아하는 세진이. 어버이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부, 이모 선물도 사서 칭찬 받은 세진이! 어버이날, “근데 우리 엄마는 나 만나러 6월에 오지.”라며 달력으로 가 6월이 될 날을 세어 보는 세진이! 그러면서도 “난 엄마도 좋지만 이모부, 이모, 형, 누나도 좋아!” 라고 말하며 우리를 배려하는 세진이! 그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편하게 반말을 쓰던 세진이가 이제 어른들께 존댓말을 쓰기로 약속했다. 실수할 때도 많지만 존댓말을 쓰려고 노력하는 세진이!

세진이가 좋아하는 것 / 2003. 5. 22 / 대안가정 모

세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 텔레비전 보는 겁니다. 레고든 퍼즐이든 모두가 둘썹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켜서 보고 끄는 편이라 세진이도 나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계속 같이 못 놀아 주니까 TV 보게 할 때가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혼자 심심해 하더라도 시간을 정확히 정할까 합니다. 세진이는 영리하면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끔씩은 어린이답지 않을 때가 있어 맘 아쁩니다. 세진이가 좋아하는 또 하나는 축구입니다. 밤에 두어 번 갔는데 어찌나 힘 있게 공을 몰고 다니는지 이걸 완전히 선수랍니다. 몇 번 넘어져서 운동장이 떠나가라 울었지만 이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달려가서 일으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냥 두고 보자니 안쓰럽고, 일으키자니 힘들 때마다 누가 세워

즐건가 스스로 이겨야지 싶고. 그래도 충분히 사랑받고 위로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세진이를 키우면서 늘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세진이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막창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된장과 밥도 잘 먹고... 막창하면 육하시는 분 많죠? 우리 아이들도 막창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세진이는 풋고추를 쌈장에 찍어서 잘 먹습니다. 오늘도 6개나 먹었어요. 이것도 우리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건데요. 식성이 우리 애들이랑 정말 꼭 같아요. 좌우간 6살이라고 하기엔 놀라운 일입니다.

♥ 세진이가 사랑하는 사람 순위 / 2003. 5. 23 / 대안가정 부

세진이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순위가 있다. 1위:엄마, 2위:자기, 3위:이모부, 4위:형아, 5위:누나, 6위:이모. 세진이에게 “왜 세진이는 자기 자신보다 엄마를 더 사랑해?”라고 물으면 자기는 엄마가 너무 너무 좋으니까 자신보다도 엄마를 더 사랑한다고 한다.

♥ 세진이 엄마 잘 가셨답니다 / 2003. 6. 9 / 김명희

세진이가 대안가정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엄마를 만났지요. 그새 세진이도 표정이 한결 밝아지고 엄마도 훨씬 좋아보였습니다. 헤어질 때 엄마가 뽀뽀하자는데 결국 안하더라고요. 부끄러워서 그러는지... 이모부랑 세진이가 돌아간 다음에 세진이 엄마랑 저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안가정 가족들에게 참 감사해 하셨습니다. 세진이 엄마가 손수 십자수를 놓아 만든 시계 저도 선물 받았습시다. 그집 거실에도 세진이 엄마가 만든 십자수 시계가 걸려있다면서요. 우리 집도 거실에 걸었습니다. 세진이 생각하면서 정성스레 만드신 것 같습니다. 세진이 엄마 그동안 참 성실하게 살아 오셨더라고요. 세진이 낳기 전에 모아둔 돈으로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세진이를 키워왔으니까요. 세진이 엄마가 감사하다고 전해 달랬어요.

♥ 세진이가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더군요 / 2003. 6. 10 / 친모

세진이가 없는 며칠, 좀 편히 보내셨나요? 처음 봤을 때, 낮설어하며 한동안 눈을 안마주치려 하더라고요. “엄마 안보고 싶었어?”하니 그제야 부끄러워하며 쳐다보구요. 그동안 엄마가 많이 그립긴 했는지, 갑자기 “엄마, 엄마, 엄마”하고 불러 보기도 하고 괜히 안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놀라운 것은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30분만 하라고 하니 “네!”하면서 약속을 잘 지키더라고요. 세진이가 저렇게 되기까지 이모님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 인내심이 필요했을까 너무 고맙고 죄송했습니다. 산수도 잘하고, 글도 많이 깨치고... 이모네 집이 더 재미있다고도 하고, 경상도 사투리 쓰는 게 어찌나 귀엽던지. 세진이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팍팍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님은 정말로 배려가 깊으시고 참 섬세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세진이 추울까봐 긴 옷도 준비해 주시고, 과자며 음료수, 잠옷, 여벌

웃, 휴지, 물수건까지...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세진을 안고 뽀뽀도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에 소원 풀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 세진은 지금... / 2003. 6. 10 / 대인가정 모

세진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랑 지내는 것도 좋고 여기도 좋고 그런가 봅니다. 그동안 엄마를 자연스럽게 여기게 하려고 얘기도 시키고 했는데 세진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 같고, 특별히 얘기할게 없을 정도로 그냥 삽니다. 엄마가 이모보다 크냐고 물었더니 크네요. 그러면서 이모는 왜 작냐고, 형아가 어떻게 이모보다 크냐고 합니다. 세진도 나중에 엄마보다 클 거라고 하니 놀라면서 그럼 형아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고 물어요. 그래서 이모부처럼 될 거라고 했더니 옥하고 놀랍니다. 엄마가 세진이 태권도 하길 원한다고 했더니 하겠다고 해서 6월 달부터 다닙니다. 재미있다고 매일 가는데 잘 합니다. 십자수 시계 고맙구요. 세진도 엄마가 선물한 거라고 아주 좋아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작은 거구요. 주님께서 우리 세진을 사랑하는 걸 알고, 세진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났으면 합니다. 세진은 요즘 이 곡을 흥얼거립니다.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 세진의 예방접종 / 2003. 6. 25 / 대인가정 모

6월 17일에 세진이 장티프스 접종했어요. 두 번째 주사인데 아주 잘 했어요. 엄청 싫어하더니 선생님과 나의 아이스크림 회유작전으로 넘어갔어요. 내일 또 오자하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싫다더군요. 그리고 세진이 어머니, 세진이 예방접종이요. 나이까진 다 했다고 들었는데 선생님 말씀이 경구용 소아마비, 디피티와 홍역 볼거리 풍진은 추가 접종 연령이 4~6세랍니다. 그래서 세진이가 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다구 정확히 알아야 한답니다. 이걸 중요하다는군요. 알려주세요. 세진은 7월을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를 만난다구요. 아닐 수도 있다고 해도 만나고 싶으니까 그렇게 믿고 싶나 봐요. 시간을 내야할 것 같아요. 잘 지내세요.

❤️ 예방접종이요 / 2003. 6. 26 / 친모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세진이 돌봐주시느라 힘드시죠? 세진이 예방접종은 모두 맞췄습니다. 날짜는 확인 못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확실합니다. 세진이 주사맞는 것 엄청 무서워하는데, 울고불고 난리인데 달래시느라 힘드셨죠. 그리고 다음 달에 세진을 볼 수 있다면 저에겐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괜찮으시다면 보고 싶습니다. 전에 세진이가 왔을 때, 노래 가르쳐준다면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위해 태어난 사람...'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던지요. 세진이 항상 밝은

웃음을 짓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 오늘 / 2003. 6. 29 / 대안가정 부

어제 오늘, 모처럼 시간이 나 세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세진이는 체스와 바둑게임을 좋아합니다. 체스를 하다가 이모부에게 계속 지면 속상해 하기도 하지요. 놀이터에 나가면 그네를 밀어 달라고 하는데 조심성이 많아서 많이 밀지는 못하게 합니다. 오후에는 자전거도 타고 축구도 하였습니 다. 햇볕에 세진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 한글공부도 하고 책도 읽어 보니 다. 아직 어려운 글자는 잘 못 읽지만, 쉬운 책은 한 번씩 읽습니다. 혼자 있으면 거의 TV앞에서 떨어 질 줄 모르지만 어른이 있을 때는 꼭 허락을 받고 봐야 합니다. 세진이! 방금 숙제를 끝내고 허락을 받아 TV를 보러 가네요.

♥️ 막창 아세요? / 2003. 7. 5 / 대안가정 모

우리 가족은 모두 막창을 좋아합니다. 작년에 캐나다 있을 때 먹고 싶은 음식 중 1위였지요. 우리가 가던 식당을 얘기하며 우리 아이들 엄청 기다렸죠. 해은인 주인 바뀌면 안된다고 그럼 맛이 달라진다고 걱정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 사람들 막창이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어제 막창 먹으러 갔는데 세진이 엄청 잘 먹어요. 된장에 실파를 넣어서 구운 마늘을 곁들여서 얼마나 잘 먹는지... 참 세진이 태권 도에서 노랑띠 땀어요. 이제 한 달인데 잘해요. 우리는 요즘 이번 여름을 어떻게 보낼까 계획 짜고 있어요. 아마 세 자식 모두를 버리고 둘이서만 중국으로 갈 것 같아요. 우리 신랑 여행이 취미거든요. 이번 엔 좀 힘든 여행이 될 것 같은데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모두들 여름 잘 지내세요.

♥️ 세진이 이야기 / 2003. 7. 16 / 대안가정 모

며칠 지나면 방학이네요. 아이들은 2학기 준비 하느라 여전히 바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침에 여유 를 가질 수 있는 게 어딥니까? 오늘 아침은 세진이가 방정리를 얼마나 잘해 놓고 갔는지 정말 대단해 요. 일찍 일어나서 내 옆에서 아침준비 하는 거 다 간섭하고, 형아 깨워서 준비시키고, 수저통 형아 누 나 챙겨 주고... 형아 이불 정리 했다기에 가보니 이불을 차곡차곡 올려놓고 인형도 놓고... 기분이 엄청 좋을 때 가끔씩 이럽니다. 매일 엄마 만날 날을 세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활이 어떻다는 건 아니고 잘하면서 엄마를 기다려요. 당연하지요. 어린 것이 잘 참고 있는 거지요. 엄마랑 세진이 좋은 시간 보내길 기도할게요.

♡♡ 세진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 2003. 7. 25 / 친모

한달만에 봐서 그런지, 세진이가 전보다는 엄마한테 덜 매달리네요. 지난번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한 티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네요. 그리고 이젠 뽕깡도 부리네요. 엄마가 만만하니까 그렇겠죠. 이모한테도 이러면 이모가 피곤하실텐데... 그리고 자꾸 자기 돈으로 엄마 뭐 사주겠다고 난리예요. 엄마 돈 없으면, 자기가 빌려 준데요. 엄마만 선물 사줄 거냐고 했더니, 조금 더 모아서 이모랑 이모부도 사줄 거래요. 이번에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은데, 세진이가 이모네 집에 가서도 저한테 하듯이 찡찡거리고 그동안 길러졌던 좋은 습관들이 망가질까봐 좀 걱정이네요. 제가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오늘 롯데월드에 가서 놀이기구도 타고, 연극도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모님, 이모부님, 세진이 걱정마시고 즐겁게 건강하게 좋은 여행되시기 바랍니다.

♡♡ 다시 돌아온 귀염둥이 / 2003. 8. 11 / 대안가정 부

토요일, 집에 들어서니 밤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 “이모부!” 하고 달려오는 세진이를 안고 한동안 장난을 치고 나서야 세진이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진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모습을 찍은 비디오킴을 보여 주었더니 갑자기 아기들로 나온 형아 누나를 보면서 어찌나 좋아 하든지... 세진이에게 엄마랑 재미있게 보냈는지 물었더니 엄마랑 뽀뽀를 억 억 번이나 했다고, 엄마를 무지무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섭섭해 할까봐 이모부도 이만큼(두 손을 벌려) 사랑한다고 하더군요. “그래, 세진아!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분이 엄마란다. 계속해서 엄마 많이 사랑해! 알았지!” 하면 알았다고 합니다.

♡♡ 엄마를 그리워하는 세진이 / 2003. 9. 7 / 대안가정 부

식사를 하고 들어오다가 세진이가 메일이 왔는지 봐야 한다며 박스를 뒤집습니다. 그러더니 “엄마는 왜 전화도 하지 않는 거야?” 하며 불평합니다. 그래서 세진이가 편지를 쓰면 부쳐주겠다고 하니 편지를 쓰겠다고 종이를 달라고 합니다. 뭘 쓰는지 보니 우리집 전화번호를 적고 전화하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테이프로 부쳐서 내게 줍니다. 세진이가 매일 메일박스를 뒤지는게 혹시 엄마편지를 기다리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내게 “이모부 우리 서울 가서 살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고 하니 서울 가면 롯데월드도 가까워서 좋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사는 그대로 서울로 가지고 가서 엄마랑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 엄마를 보고 싶어서...

♡ 지리산 / 2003. 9. 15 / 대안가정 부

세진이와 함께 추석을 보내고 저녁에 지리산으로 친지들이 함께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막히는 길을 겨우겨우 뚫고 민박집에 도착하니 밤 10시 반, 예정보다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비는 부슬부슬 오고, 태풍이 온다고도 하고... 도착한 민박집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고 주인아저씨도 매우 친절하신 분이 셧지요. 숯불을 피워 저녁을 먹고 마당에 비닐로 덮어 놓은 캠프파이어 나무에 불을 부쳤습니다. 비오는 밤에 어른 8명, 아이 9명 총 17명이 세대 간 노래시합을 하면서 불꽃놀이도 하고, 닭고기와 감자 고구마를 바베큐로 먹고 나니 새벽 3시였습니다. 그때까지 세진이도 불장난에 정신이 팔려 시간가는 줄 모르고 놀았지요. 무척 재미있었고 특히 세진이에게는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

♡ ^-^ / 2003. 9. 28 / 대안가정 누나

세진이가 우리 집에 오고도 벌써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네요. 이제 몇 달 있으면 세진이가 다시 엄마 곁으로 돌아가게 될텐데 많이 슬플 것 같습니다. 오늘 세진이가 갑자기 저에게 만 원짜리 지폐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형아한테도 줬다고 받으래요. 별로 잘해준 것도 없는 형아 누나한테 자신이 몇 달 동안 모아온 돈을 선뜻 선물하려는 세진이를 보니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수재민 돕기 성금을 거두는데 처음엔 5천 원 정도 낼까 하다 큰 맘 먹고 3만원을 넣었는데, 세진이 덕분인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 당당한 세진이 / 2003. 9. 30 / 대안가정 모

어제 세진이가 드디어 엄마 편지를 손에 넣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기분 좋아하는지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우편물 확인을 열심히 하더니 엄마 편지를 찾느라 그랬나 봅니다. 세진이가 잘 견디고 있는 있지만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에게 얼마나 견디기 힘든 시간일까 생각해 봅니다. 엄마라는 그리운 단어 그 큰 단어를 매일 불러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남들이 아들이냐고 물어서 그냥 그렇다고 하면 세진이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아들 아니라고 자기는 조카라고 꼭 얘기합니다. 세진이가 이 시간을 아픔으로 기억하지 않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했으면 하는데 욕심일까요. 세진이의 나날들이 축복으로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 세진이 엄마보세요 / 2003. 10. 10 / 대안가정 모

세진이 엄마! 사실 전 이 글을 쓸 때 세진이 엄마를 생각하며 씁니다. 얼마나 궁금하게 많겠어요. 무슨 일 있나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주 소식 전하려 하는데 그렇게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오

늘은 형아가 키보드를 태웠는데요. 우리 아들 하는 말이 엄청 잘 타더랍니다. 시험이 끝나서 요즘 우리 집은 씨끌벅적합니다. 세진이가 제일 좋아하지요. 우리 해은이도 친구들과 함께 세진이 실내 놀이터 데려갈 거라고 계획 중이고 일요일이면 할아버지께선 거의 세진이 자전거 태울 생각만 하십니다. 세진이는 신기할 정도로 편하게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보고 싶어는 하지만 울거나 힘들어 하지는 않구요. 자기가 보고 싶으면 본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엄마 사진을 자주 보고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엄마라고 으쓱거리며 예쁘다고 한마디 하면 아주 당당해지죠. 세진이 어머니! 걱정마시구요. 잘 지내세요.



내려가는 표 끊었어요 / 2003. 10. 13 / 친모

이모님께서 많은 것을 알려주시려고 바쁘신데도 자주 글 올려주시려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세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아마 세진이 평생에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다 해도 세진이가 이모네 집에 있을 때처럼 여러 가족에게 다양한 사랑받을 기회는 없을 테니까요. 이상하게도 세진이를 이모네 집으로 보낸 후에, 보고 싶은 것 빼고는 별로 세진이가 걱정되지 않더라고요. 세진이가 진짜로 이모네 식구처럼 느껴질 정도로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았거든요. 세진이가 엄마랑만 있게 되면 많이 외로워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길러졌던 좋은 습관과 밝은 성격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할텐데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많이 노력해야겠지요. 건강하세요.



세진이는 지금... / 2003. 11. 28 / 대안가정 모

세진이는 오늘 엄청 기분이 좋다. 매일 기다리던 엄마의 편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에도 엄마에게 편지 보냈냐고, 왜 답장이 안오냐고 기다렸는데, 어린이 집에서 올 때 난리가 났다. 엄마라고, 엄마가 편지 했다고. 스스로 읽어보라고 했는데 아직 다 못 읽었다. 세진이는 이제 엄마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모부도 좋지만 엄마가 좋단다. 세진이 엄마 편지를 보면 세진이를 정말 사랑하는 걸 느낄 수 있다. 세진이에게 우리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유익하게 작용하길 기도한다. 좋은 추억으로 남아 힘들 때 잘 견딜 수 있는 거름이 되길 감히 기도한다. 어떻게 보내다 보니 벌써 12월이고 세진이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처음엔 엄청 두려운 맘으로 시작했는데 다행히 너무나 착한 세진이를 만나 잘 보냈다. 세진이의 앞날에 축복가득하길 기도 한다.



이별 준비 / 2003. 12. 8 / 대안가정 모

세진이란 헤어질 날이 다가오네요. 저랑 우리 딸은 원래 못된 구석이 있어서 감정 표현도 절제도 가

능한데, 신랑과 아들은 맘이 어려서 조금 걱정됩니다. 주위에서는 헤어질 걸 생각하면 하기 힘들 것 같다는 얘길 하기도 합니다. 처음이라 쉽진 않겠지만 담담히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내고 새로운 사랑을 모우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세진이 짐을 조금씩 정리합니다. 일 년도 못 미치는 시간인데 그래도 뭐가 많네요. 돌아가서 쓸 것도 좀 챙기고, 세진이 멋진 외투를 맞추었습니다. 세진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 **Re : 이별 준비 / 2003. 12. 8 / 김명희**

뭐라 해야 할지... 온 가족이 세진이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아이를 보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면 떠난 이후를 자꾸 생각해보게 되지요. 아이가 가고 난 다음에도 아이의 흔적은 곳곳에 묻어있어 한동안은 마음으로부터 아이를 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세진이는 안전하게 엄마에게로 가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아름답게 기억되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세진이 12월 15일 친가정으로 귀가합니다 / 2003. 12. 8 / 김명희**

1년이 조금 못되네요. 하지만 그동안 세진이와 대안가정 식구들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나누며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진이를 보낼 때가 되면서 온 가족이 마음으로 앓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여린 구석이 있지요. 세진이 웃도 맞추고, 앨범도 만들고... 그리고 그동안 세진이를 예뻐해준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네 가족들과도 이별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엄마에게 가셔도 이모네 가족들이 많이 생각날 거예요. 그리워하겠지요. 15일 날 시간 맞춰 세진이 데리러 가겠습니다. 세진이 엄마! 열차표 예매하면 연락주세요.

♥ **그냥 이렇게 / 2003. 12. 9 / 대안가정 모**

그냥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처음엔 오히려 세진이가 돌아가서 생활을 잘 할까 걱정했는데 이젠 아니에요. 누구보다 세진이를 사랑하는 엄마에게 가잖아요. 사실 전 놀랍도록 맘이 편하고 걱정도 안됩니다. 올 때도 별반 갈등이 없었듯이 갈 때도 그냥 편합니다. 이래서 우리 신랑이 나보고 못 된 구석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나면 세진이를 위해 기도하겠지요.

♥ **정말 고맙습니다 / 2003. 12. 10 / 친모**

기차표 끊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세진이 잘 보살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진이가 이모 식구들에게 받은 사랑을 오래오래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세진이가 더 많이 성숙해 지리라 봅니다. 저 또한 이일을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꼭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서 나중에 제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해졌을 때 꼭 뵈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보다 더 불우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 길만이 제가 받은 사랑을 갚는 길일 것 같아요. 우리 세진이 또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사랑을 줄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에게 이별이란 항상 가슴 아픈 것이었는데, 이번 세진이의 이별은 정말로 특별하고 아름다운 이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진이가 좀 외롭겠지만 전 세진이랑 다시 살게 되서 너무 좋습니다. 이 글을 쓰는데 자꾸 눈물이 나네요. 이모부님, 이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형석군, 해은양, 그 이외의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몇 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진이 방금 엄마랑 열차 탔습니다 / 2003. 12. 15 / 김명희

밤 11시 9분 기차 탔답니다. 이모님이 세진이 짐을 미리 택배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가방이 몇 개가 되었지요. 세진이 어린이집 가방에 든 음식물도 확인시켰고, 세진이 손지갑도 엄마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새로 받은 선물이라곤 소지품이 든 가방 둘. 이모가 새로 맞춰준 코트를 입은 세진이 모습은 영국 신사처럼 멋있었습니다. 세진이는 아마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잠들 것 같았습니다. 도착해서 세진이 엄마가 마무리 글을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모두 애쓰셨습니다.



Re : 세진이 방금 엄마랑 열차 탔습니다 / 2003. 12. 16 / 친모

이모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과자와 떡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세진이가 이모집에서 헤어질 때 엄마 만난다고 많이 기뻐했다는데 많이 섭섭하셨죠? 남의 속도 모르고... 하지만 기차에 타자마자 세진이가 갑자기 전자사전을 달라고 하더니 무슨 글자를 열심히 찍기에 보니까 이모 이름부터 시작해서 식구들 이름을 차례로 찍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모네집에는 놀러 가면 안되냐고... 많이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나름대로 설명을 해줬는데도 영 이해가 안가는 표정이에요. 금방 택배를 받았습시다. 갈 때는 2박스였는데, 7박스나 되네요. 사랑이 그만큼 몇 배로 묻어온 것이라 생각하니... 정리하는데만도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보내주신 사랑을 되새기면서 세진이랑 같이 천천히 정리하려고요. 세진이 코트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몇 년 동안은 누구보다도 멋진 꼬마 신사가 될 것 같아요. 모든 분들 걱정 안되시게 세진이 잘 키울게요. 저희같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해드리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낙담하거나 아프지 말아야 하는데... 모든 분들, 정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 2003. 12. 13 / 대안가정 모

잘 도착했군요. 엄마 만난다고 좋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구요. 맘 편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잘 자라서 훌륭한 어른 되면 만나자 했습니다. 짐을 가볍게 할려고 했는데 우리 딸이 용돈 몽땅 털어서 세진이 가방을 사는 바람에 짐이 무거워졌어요. 학교 갈 때 쓰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당부당부 했지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요. 모두들 기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진이랑 좋은 시간 별 어려움 없이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진이와 세진이 엄마 앞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세진아! 잘가. 그리고 행복해 / 2003. 12. 17 / 한울이네 대안가정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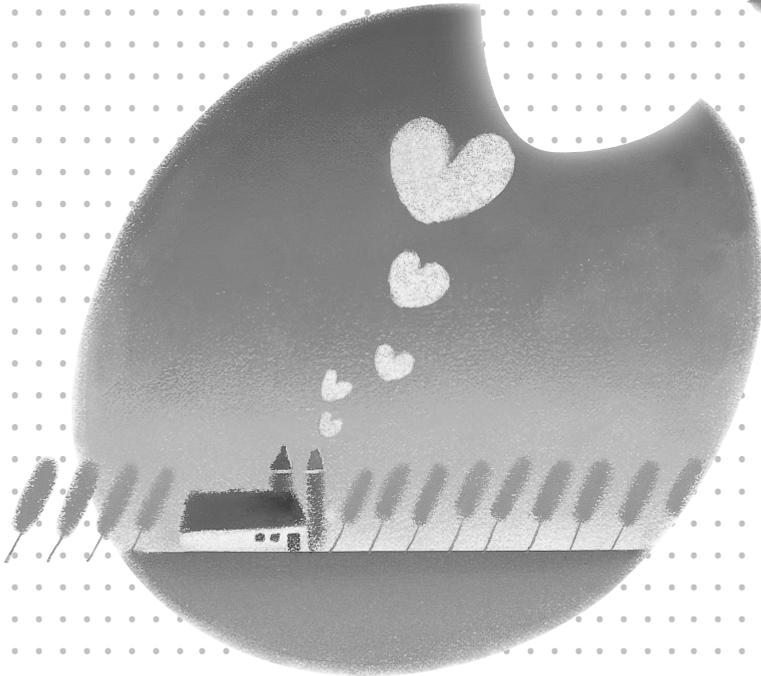
안녕하세요? 세진이의 라이벌 한울이네 입니다. 드디어 세진이가 그리던 엄마 품으로 돌아갔네요. 세진이 어머니께서 열심히 애쓰셔서 이렇게 빨리 세진이와 함께 살게 되어서 여간 다행이 아닙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바랄게요. 한울이와 세진이가 동갑이라 그동안 여러모로 자문도 받고 했었는데 조금은 아쉽네요. 뽀얀 피부에 서구적인 귀공자 세진이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세진아! / 2003. 12. 17 / 대안가정 부

12월 들어서서부터 세진이를 보내기까지의 마음을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있었습니 다. 엄마 곁으로 가는 게 당연하고 또 축하할 일임에 틀림없지만, 지난 10개월간 함께한 시간들이 이별을 받아들이기엔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진아! 사랑한다. 행복해라! 멋진 아이로 자라거라! 나중에 나중에 만날 수도 못 만날 수도 있겠지만 늘 세진이를 위해 기도할게! 세진이 어머니! 세진이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그마한 너의 반자리가 어찌 이리도 큰지 모르겠구나.
 아침에 일어나 너의 마음의 평화만을 빌며 항상 하느님 앞에서 살기를,
 하느님께서 항상 너의 따뜻한 동행이시길 빌고 또 바란다.
 이 엄마 아빠의 사랑이었고 기쁨이었던 소망아!
 이 엄마만큼 그리워하지 않기를,
 이 엄마만큼 힘들어하지 않기를,
 이 엄마만큼 눈물 흘리지 않기를,
 이 엄마만큼 아파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소망이네집



♡ 소망이 엄마! / 2002. 10. 31 / 김명희

소망이 엄마! 요즘 늦둥이 키우느라 정신없으시죠? 돌이 지난 소망이를 온 가족이 사랑으로 맞아 주시고 돌보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소망이로 인한 기쁨과 에피소드 등을 다른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곳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온 가족이 다 쓰시면 더 좋구요. 기대하겠습니다.

♡♡ 소망이의 나날 / 2002. 11. 14 / 대안가정 모

2002년 10월 16일

약간은 쌀쌀한 날씨에 양말도 신지 않고 잠든 모습으로 우리 집에 온 천사, 눈을 뜬 천사는 낮선이의 모습에 이마에 여덟자리를 그리고 입을 꼬옥 다문 채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재롱을 피워도 그 천사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다. 저녁에 퇴근해 들어오는 아빠의 얼굴을 보고 자지러지게 울었다. 잠시 후, 목욕을 시키려니 또 동네가 떠나가도록 우는 천사를 보고 우리 식구는 생각했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자랐나 보다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했다. 마음이 많이 아팠다.

2002년 10월 17일

어제에 이어 오늘도 천사를 가슴에 안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꼬옥 안아주며 “예쁘다. 사랑해.”를 연발했다. 오늘도 먹기는 뭐든지 자알 먹었다. 벽에 걸린 예수님과 성모님을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2002년 10월 18일

오늘 오후부터 천사가 얼굴에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조금은 안정이 되는가보다. 여전히 아빠는 경계 대상이다. 먹거리를 앞에 놓고 “하느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을 가르쳤다. 예상 외로 천사의 머리가 좋은 것 같다.

2002년 10월 19일

더 많이 웃었다. 뭐라고 소리도 냈다. 저녁에 아빠를 보고도 덜 울었다. 목욕도 적응이 되는 것 같다.

2002년 10월 21일

이젠 천사의 마음 완전히 풀린 것 같다. 하느님 감사 합니다. 아빠를 보고도 울지 않았고 목욕할 때 울지도 않았다. 먹는 것은 여전히 몸매를 무시하고 먹었다.

2002년 10월 26일

천사가 소화 테레사라는 이름으로 새로 태어났다. 앞으로는 하느님 안에서 밝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도록 기도했다. 유아 세례식 후에 신부님과 수녀님들과 기념 촬영도 했다. 축하한다. 소화 테레사! 앞으로는 마음 다치지 말고 평화롭게 자라기를...

2002년 10월27일

소화 데레사가 날 배신하기 시작했다. 아빠를 더 좋아한다. 목욕도 아빠 하고만 하려고 한다. 치! 이젠 완전히 재롱덩어리가 됐다. 우리 집의 베이비 코미디언이 되어버렸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 2002. 11. 7 / 친모

안녕하세요. 늦게 글을 올립니다. 아직 마땅한 연락처도 없고, 일자리를 겨우 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에 관한 글 잘 봤습니다. 많이 컸겠네요.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억제하지 않으면 제 스스로 감정 컨트롤이 안될까봐 소식 뜬했던 점 양해바랍니다. 우리 소망이가 많이 이뻐지고 밝아졌다니 천만 다행이군요. 모쪼록 지금처럼만 예쁘게 돌봐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날씨 추운데 몸조심들 하시구요. 다음에 또 글 올리겠습니다.

소망이의 나날 / 2002. 11. 12 / 대안가정 모

2002년 11월 1일

소망이 어머니 반갑습니다. 소망이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시고 재기에 힘쓰세요. 지금은 나 혼자만의 고통으로 곧 죽을 것같이 암담하겠으나 이 다음엔 지금의 이 고통이 많은 힘이 될 겁니다. 젊음과 건강함보다 더 큰 재산은 없습니다.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을 생각하고 힘을 내세요.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잊으세요. 그리고 지금은 헤어져 있는 가족들 생각만 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온가족이 만나 지난날의 아픔을 잊고 행복하게 살아갈 날만 꿈꾸며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2002년 11월 10일

요즈음 우리집 천사는 센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다. 잠이 오면서도 놀고 싶어 한다. 다리에 힘이 빠져 퍽퍽 쓰러지면서 말이다. 누가 잠자지 말라고 했다. 징징거리며 놀잔다. 자리에 눕히고 주기도문을 노래로 불러주면 1분도 안되서 꿈나라로 가면서... 웃기는 천사다.

내 신랑 돌리도! / 2002. 11. 30 / 대안가정 모

나는 요즈음 길거리에 똥굴며 몸부림치는 낙엽과 같이 몸부림을 친다. 내 신랑을 찾기 위해... 14개월 짜리 우리집 천사는 저녁마다 아빠 다리 위에 앉아 양팔로 아빠 목을 휘감고 뽀뽀를 한다. 다른 사람이 억지로 아빠 볼에 뽀뽀를 하면 이마에 여덟八자를 그리며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며 시위를 한다. 기가

막혀서... 그 아빠는 더 웃긴다. 즐겨보던 키폐깡도 무시하고 소망이와 동네가 시끄럽도록 떠들고 장난 치며 깔깔거린다. 내가 재롱 피울 때는 쳐다보지도 않더니... “요새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 봐” 한다. 흥! 하느님! 어찌해야 내 신랑을 되찾겠습니까요. 답 좀 가르쳐 주이소.

♥ 내 좀 살리주소 / 2002. 12. 4 / 대안가정 모

태어나 처음으로 세탁기 3통 연달아 돌렸다.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밤에 잠도 안재워 주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난다. 밤 12시쯤 억지로 자기 시작, 새벽 2시에 기상, 쭉~욱 놀다가 아침 7시에 우유 한 병 먹고는 열심히 잔다. 병원에 갔다 와서는 죽을 끓여줬더니 자~알 먹었다. 조금 후, 약 먹고 폭 자면 좋겠는데 또 토끼잠이다. 밤새 여기 저기 토하며 이불 다 버려놓고, 옷 갈아 입히는대로 다 버려놓고, 그리고 나니 아침에는 좀 편안한지 쫓아다닌다. 이 엄마는 3일째 잠을 못자 정신이 몽롱한데...

♥ 어제 반가웠어요^^* / 2002. 12. 8 / 김명희

어제 누추한 저희 집에 소망이랑 엄마 아빠가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소망이와 우리 지민이 몸무게 차이가 겨우 2Kg이라니... 지민이 그래도 2Kg 늘어난 게 그거니... 안그래도 체격 좋은 소망이가 그새 얼마나 몸이 좋아졌는지 예전 같으면 우량아 대회에 나가도 될 뻔 했어요. 짜식, 표정이 이전 아주 다양해졌더라고요. 소망 아빠가 소망이 안고 얼르고 하는 모습 보면서 ‘온 가족이 저러니 아이가 어찌 밝아지지 않겠는가’ 싶었어요. 그리고 소망 아빠! 다이어리 잘 쓰세요. 속이 딱 찬 너무 좋은 다이어리 선물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무실 상근자들 한권씩 나눠 쓰겠습니다. 시내 나오실 일 있으면 꼭 들려주세요. 향기로운 윈두커피 뽑아드릴게요.

♥ 소망이 너무 보고싶네요 / 2002. 12. 17 / 친모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고생 많으시죠? 우리 소망인 인제 거의 그 집 식구가 다 됐군요. 한참 이쁜짓 하고 엄마 손이 마니 필요할 때인데 저 대신 많은 걸 해주시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무엇보다 가정이 너무 화기애애하고 보기 좋네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다면 아마 우리 소망이두 밝고 이쁘게 크겠죠. 감기가 걸렸었다구요? 소망이 마니 보냈을텐데... 많이 힘드셨죠? 시간이 지나면 소망이 저 기억 못하겠죠? 아니다. 지금도 내가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그죠? 그땐 어떻게 하죠? 너무 보고 싶은데도 갈 수가 없네요. 전 아마 천벌 받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전해 주시겠어요? 무의식적으로라도 내 얼굴 기억해주길 바란다... 아니다.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네요. 건강하게만 아무 탈 없이 밝게만 자라 주길 바란다. 우리 아가.

 **못 말리는 천사 / 2003. 1. 6 / 대인가정 모**

음악만 나오면 온몸을 흔들어대는 우리집 천사. 허리가 어디인지 모르는 몸매를 가지고 음악만 나오면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엉덩이를 아주 유연하게 돌리더니 이를 전부터는 어깨까지... 양 주먹을 쥐고 가슴만큼 올리고 좌우 어깨를 교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동시에 엉덩이를 흔든다. 아이고, 기가 차브러... 참으로 못 말리는 천사랑게요. 덕분에 우리집은 매일 같이 시간 관계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입장으로 없는 댄스 파티장을 열고 있다. 천사야! 내 눈가의 주름도 좀 생각해 주라. 이대로 가다간 견적(주름성형) 엄청 나오겠다. 이제 좀 어지간히 웃겨다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셨나요? / 2003. 1. 22 / 친모**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인사 늦어서 죄송해요. 하는 일이 도무지 밤낮이 없다보니 짬 내기가 넘 힘들드네요. 시간되면 전화라도 드리고 싶은데 지은 죄가 많은지라 차마 전화를 선뜻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구미에는 눈이 엄청 왔어요. 눈 오니깐 우리 애들 더 생각나네요. 우리 애들이 각자 집에서 적응을 잘한다니 한편으론 다행이고 한편으론 왠지 모를 쓸쓸함이 드네요. 하루빨리 노력해서 찾지 않음 우리 애들 나란 존재 잊어버리겠구나... 그 원망을 누구한테 하랴. 별별 생각 다 드네요. 이런 거 보면 저 아직 철딱서니 없죠? 별 탈 없이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할 판에... 그저 내 생각뿐이니 제가 정말 한심스럽네요. 애들 보고 싶어도 참으려구요. 하루 빨리 힘내서 우리 애들 데려올 거예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구요. 만사형통 하시길 빕니다. 그럼 답에 또 글 올리죠.

 **천사라고 안 불러 줄거야! / 2003. 1. 28 / 대인가정 모**

비슬산을 비롯하여 며칠 동안 이곳저곳 바람을 쏘인 천사가 대문 안에만 들어서면 울기 시작하여 한참을 운다. 이제는 제법 엉엉 소리를 지르며... 남이 보면 죽도록 맞고 석대 더 맞은 아이처럼 말이다. 기가 차서... 하루 종일 잘 놀다가도 아빠나 언니 들어오면 옷도 못 갈아입게 징징거리다가 엎어져 악을 쓰고 한참을 울고... 웅가 마려우면 울고, 졸리면 울고... 갑자기 얼굴을 싹 바뀔 혼을 뺀다. 이젠 천사라고 안 불러 줄거야. 너!

 **너 엄마 약올리냐? / 2003. 2. 25 / 대인가정 모**

천사가 사흘 동안 감기를 했다. 애들은 아프고 나면 만 짓 한다더니 우리집 천사 웬일로 번기뚜껑을 열고 올라앉는다. 징징 거리지도 않고 웅가를 다하고 내려온다. 온 식구가 착하다고 머리 쓰다듬고 양 볼 쓰다듬어주고... 좌우지간 어제까지는 이랬다. 그런데 오늘은 밥 먹다 징징거리고, 우유 다 먹고 빈

병 열심히 빨다가 으웁! 왜 우유를 다 먹고 나면 우유병을 뺄 줄을 모를까? 그것도 모자라 기저귀에다
응가하고 엉덩이를 하늘로 향하고 있다. 맘매 해줘야지...

♥♥ 눈치가 백단? / 2003. 3. 8 / 대안가정 모

휴~!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한 느낌... 아직도 깨운한 몸 상태는 아니지만 머리가 조금은 맑아진 것
같다. 오빠와 언니의 학교 갈 준비로, 천사의 쉬지 않고 부리는 땡강에 엄마도 아빠도 모두 기진맥진...
언니 오빠 방학동안 모든 것이 엉망이던, 징징거리며 너무도 애를 먹이던 우리집 천사가 요 며칠 응원
군이 사라진 걸 눈치챘는지 말 안해도 다시 응가도 가리고 가끔 쉬도 가린다. 졸립다고 우는 것도 없고
응가하고 싶다고 우는 것도 없고... 그런데 목욕 하자고 하면 우는 것은 아직... 눈치가 백단쯤 되는 것
같다. 아무튼 알아서 고쳐줘서 고맙다 천사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동에 발전 있기를...

♥♥ 우아씨! / 2003. 3. 10 / 대안가정 모

요 며칠, 밤에만 잠시 보던 언니가 토요일이라 조금 일찍 집에 오니 금방 잠들었던 천사가 벌떡 일어
나 반갑다고 언니 치마를 붙들고 우우 거린다. 그리고는 같이 점심 먹는 것까진 좋았는데 갑자기 얼굴
을 돌려 빼죽거리더니 또 운다. 자야할 잠을 못 잤거든. 자고 싶으면 가서 자라고 하니, 악을 쓰며 더 운
다. 그 난리를 치고 잠들었는데 또 응원군이 왔다. 아빠가... 또 벌떡 일어나 아빠를 반기더니 울기 시
작. 으휴! 다시 재웠다. 얼마 후, 저녁식사를 하려고 갓나 싶어 방문을 살며시 열어보니 언제 일어났는
지 누워서 놀고 있다. “일어났어? 이리와. 밥 먹자” 하니 또 울기 시작이다. 오아~악! 돌아버리겠네. 며
칠 동안 울지 못한 것 한꺼번에 다 토해내는 것 같다. 그러면 그렇지 그 버릇을 쉽게 고치겠냐? 내가 속
았지, 내가 속았어.

♥♥ 우리집 멧쟁이 / 2003. 3. 19 / 대안가정 모

요즈음 우리집 천사는 거울 보며 멧 부리느라 정신이 없다. 머플러만 제 눈에 띄면 머리에 뒤집어쓰
고 거울을 본다. 머리띠, 모자, 머리핀 등등... (치이! 머리카락도 없으면서...) 언니가 초등학교 때 선물
받은 길다란 귀걸이를 꺼내주니 귀에 걸고 또 거울을 본다. 맘에 들었는지, 양손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
으며 하는 말, “아고! 아빠!” 잘 때는 빼고, 일어나면 귀걸이부터 찾아와 귀에 걸어달란다. 길어서 출렁
거리는 걸 얼마나 열심히 하고 다니는지. 가끔 빠지지는 않았는지 손으로 살짝 만져 확인도 해가며...
조금 전엔 언니 침대위에서 “엄마! 엄마! 아빠! 아빠!”하고 뒹굴며 놀다가 방바닥으로 팽! (납작 엎드린
채로...) 앙!앙!앙! 그 순간 난, 되게 아프겠다는 생각보다, 어! 코! 하며 천사를 얼른 안아 일으켰다. 아
이고 다행이다 더 망가진데가 없어서... 메롱! 메롱!

♥♥ 피 봤다~아! / 2003. 3. 24 / 대안가정모

욕상에 빨래를 널고 오니 아빠가 천사를 끌어안고 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천사아빠, 내 눈치를 슬슬 보면서 하는 말이, 큰일 날 뻔 했단다. 아빠가 목욕탕에서 나오는 걸 본 천사가 아빠 옷도리를 가져다주려고 안고 오다 옷에 걸려 넘어지면서 사각탁자 모서리에 눈을 다쳤다. 지혈제를 뿌려주며 보니 깊이 찌지진 않은 것 같아 경과를 보기로 했다. 나를 따돌리고 월권행위를 하더니, 둘이서 억수로 친한 척 할 때 알아봤다. 병원에 가보니 다행히 꿰메진 안아도 된단다. 으휴~! 한시를 났다. 하마터면 쌍꺼풀 수술까지 할 뻔 했다. 요새는 잘 걷지도 못하는 것이 공 튀듯 뛰는 것이 영~ 불안했는데...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시끄럽다. 시키지 않아도 엄마, 아빠 등도 두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준다. 여러분! 우리 동네 효녀 심청이 났어요.

♥♥ 4월 중순에 소망이 친부모 만남 / 2003. 4. 1 / 김명희

소망이 봉사활동 자주 시켜야겠네요. 고것이 돌아와서 딱 잠들어버렸다면서요. 잠투정도 생략, 올 시간도 없어 좋네요. 근데 소망이 봉사활동 뒤 수발 하는게 더 피곤한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이 아빠랑 어렵게 통화했습니다. 희망이 데려가고 통 소식이 없어서 게다가 연락마저 되지 않아서 여러 군데 수소문하여 겨우 통화했습니다. 소망이는 딸 아니냐고 소릴 질렀더니 웃습디다. 4월 중순에 한번 만나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답니다. 소망이가 엄마 아빠 얼굴 잊어먹었을 텐데 그 걱정을 대안 가정에서 하고 있으니... 부모라도 희망이 만큼 키운 정이 덜 들어서 그런지 좀 소원하다 싶네요. 그나저나 소망이 지네 엄마 아빠 만나서 울지나 않을런지... 그래도 만나야겠지요? 날짜 정해지면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황사 조심합시다.

♥♥ 천사의 신경정신과 상담결과 / 2003. 4. 14 / 대안가정모

한번 악쓰고 울기 시작하면 오랜 시간 땀을 줄줄 흘리며 울어대는 천사, 그럴 땐 아무리 달래도 막무가내다. 온몸이 땀에 젖도록 울은 후, 목욕시키고 나면 너무도 평온한 얼굴을 한다. 속이 후련하다는 듯한 표정... 하루도 안 빼고 약을 쓰며 우는데 너무 당혹스러워 신경 정신과 상담을 받아 보기로 했다. 결과는, '지난날의 아픔이 40%, 제 의사표시가 60%가 아니겠나' 하신다. 이렇게 건강하게 계속 커주면 지난일은 잊어버릴 거라고 하시며 일단, 밤에만 약을 먹여 보기로 했다. 일주일동안... 약값도 상담료도 받지 않으신 최애경 신경정신과 원장님! 친절하고 너무도 편안한 상담, 고맙습니다.

♥♥ 방금 소망이네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 2003. 4. 16 / 김명희

11시 30분 조금 넘어 엄마 아빠랑 희망이가 함께 왔답니다. 소망이가 희망이는 알아보네요. 둘이 금방 어울려서 놀고 과자도 나눠먹고... 그런데 엄마는 못 알아봅니다. 엄마가 안아주자 바둥대며 내리려고만 하고 급기야 울음을 터뜨려버렸습니다. 엄마는 좀 섭섭했을 거예요.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저녁때 돌아오면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침부터 소망이 나들이 준비시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참 희망이는 굉장히 말이 많아졌어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종알대고 얼굴도 새까맣게 타서 영락없는 말괄량이 소녀랍니다. 가족사진 찍어줬는데 나중에 한 장 보내 드릴게요.

♥️ 이제 약발도 안 받는겨! / 2003. 4. 24 / 대안가정 모

신경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한 우리집 천사가 약발인지는 몰라도 많이 안정을 되찾는 것 같다. 울지만 않으면 애교 만점인 천사. 아빠는 전에는 울어서 집이 시끄럽더니 이제는 웃는 소리에 집이 시끄럽다고 한다. 하루 종일 예쁜 짓만 하며 깔깔거렸다. 적어도 오늘 아침까지는... 오후부터 또다시 뼈죽거리기 시작하더니 저녁 잘 먹고 약을 쓰기 시작하는데 전에 하던 몸짓이 아니다. 발을 동동 구르더니 드러누워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우는소리도 아고 아고 오... 밖에서 들으면 몰매 맞고 우는 줄 알거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다. 울고 싶으면 실컷 울라고 하니까 “응!”하고 대답을 하며 또 운다. 설거지를 하다 보니 조용하다. 뒤돌아보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고 있다. 휴~!

♥️ 엄마, 아빠를 위한 천사의 축하공연 / 2003. 5. 3 / 대안가정 모

나의 반쪽과 찌지고 볶고 한지 21년, 벌써 21년이나...? 띠리링! 띠리링!... 전화기 건너 들려오는 말, “사모님! 21년을 축하드립니다” 나의 반쪽의 목소리... 이어서, “당신이 나한테 시집 왔는거가? 내가 당신한테 갔는거가?”한다. “내가 당신한테 시집갔지”하는 내말에 “그럼 내가 밥 사야지”한다. 좌우지간 기분 좋았다. 여기까지는... 저녁 잘 먹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오자마자 천사가 뼈죽거리더니 김밥을 달라고 한다. 김밥을 입에 넣어주니 씹지 않고 삼키려다 깼엑~! 뱀이라고 휴지를 들이대니 안 뱀는다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울다가 입안의 김밥이 튀어나왔다. 엉덩이를 방방 띄우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울면서 제 손으로 입안의 것을 다아 긁어낸다. 발을 동동 구르며 난리가 말이 아니다. 엄마 아빠의 21주년 결혼기념일 축하공연을 이렇게도 성대하게 치르다니... 국민 여러분~ 이정도면 우리 천사가 얼마나 효녀인줄 이젠 아시겠죠? 으휴~ 근데 천사야! 그런 축하는 두 번 다시 하지 마라. 내가 너무 버겁다. 잉.

♥️ 연구대상인 천사! / 2003. 5. 10 / 대안가정 모

이웃의 아줌마가 사탕 한 개를 줘서 살살 녹여 먹는데 다른 아줌마가, “소망아! 사탕 아줌마 줘”하고

손을 벌리니 몸을 획 돌리며 오도독 오도독 소리를 내며 금방 깨물어 먹어버리고는 “됐다!” 한다. 또 한 아줌나가 바나나킥 과자 한 봉지를 사줬더니 생전 처음 먹는 아이처럼 손놀림이 바쁘다. 옆에 있던 아줌마들이 또 너도 나도 ‘나 한 개만’ 하며 손을 내미니 과자봉지를 꼬옥 움켜지며 집에 가잔다. 집에 와서도 과자봉지를 다리 사이에 넣고 우유200미리 한 통과 순식간에 다 먹어 버렸다. 얼굴과 손을 씻겨 놓으니 눈을 감고 옆으로 넘어간다. 자고 싶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니 또 옆으로 넘어가고... 안고 제 이불에 눕히니 악을 쓰고 울며 몸을 굴리고 난리치는 것을 모른척하고 내 할 일만 하고 있으려니 어느새 잠들어 버렸다. 휴... 뭘 못 잊어 못 자는거야. 도대체... 조용히 좀 살자. 하여튼 연구 대상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으휴!

 **누가 이기나 함 보자 / 2003. 6. 2 / 대안가정 모**

어제는 자기 울음에 아빠와 내가 무표정, 무반응을 보이니 거실 카펫에 토하고 방으로 들어가 제 이불에 토해 놓는다. 기가 막혀서 정말... 그래도 아무런 반응 없이 옷 갈아입히고 이불 걷어내고 새 이불 깔아주니 조금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요새는 자기 울음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똥을 싸가면서 운다. 제 탄엔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같다. 나 지금 카펫 빨고, 이불 빨다가 열 받아서 일기장에 고발 할라고 들았시유. 씨~익씩. 아고 죽갔네~ 자기는 지금 동요비디오 보면서 열심히 과자 먹고 있어요. 으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함 보자.

 **축하합니다 ^^* / 2003. 5. 24 / 김명희**

소망이가 3일 동안 예쁘게 잘 지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매주 정신과 상담 받으러 다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꾸준히 잘 해오셨고,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신 최애경 선생님도 너무 고맙습니다. 소망이가 안정을 찾아가는 건 대안가정 가족들의 노력의 성과라 생각합니다. 최애경 선생님 말처럼 소망이가 영리한 아이라 고집이 센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애착하는 건 당연한 현상이겠지요. 하지만 애착과정에서 가족을 너무 힘들게 하네요. 소망이네 가족들이 지금 소망이에게 쏟아놓은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한 두 차례 과거의 행동습성으로 회귀할 지도 모릅니다. 그 고비만 잘 넘기면 소망이는 자신에게 별 소득이 없는 불필요한 습성을 포기할 것입니다. 정말 수고가 크십니다. 그리고 왜 이리 죄송한지...

 **김명희쌤! 드디어 열흘째 입니다요. 양!양! / 2003. 6. 5 / 대안가정 모**

소망이가 마음의 평화를 찾은지 열흘째입니다. 그동안의 아픔을 토해내느라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악을 쓰며 울어댔는지 못 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어른들의 무관심이 이 어린것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내어놨던지... 밥만 먹여주면 살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사랑도 듬뿍 받아야지요. 태어나 1년간의 상처가 일곱 달 만에 치유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몸부림을 지켜보며 염려 해주시고 애써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소망이가 더욱더 사랑으로, 행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소망아! 사랑해~ ^*^

♥ 정말 대단한 엄마와 딸입니다 / 2003. 6. 4 / 김명희

이제 소망이가 안정을 찾은 지 보름이 되었네요. 5단 케익이든지 시루떡이든지 빨리 해서 가야하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려고 있습니다. 말이 쉬워 정신과 치료지 그게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경험해 본 저는 압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소망아! 매일 매일 방시 방시 예쁜 미소로 엄마 아빠 오빠 언니에게 기쁨이 되거라...

♥ 잘지내시죠? / 2003. 6. 6 / 친모

잘들 지내시죠? 연락이 안돼서 죄송해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핸드폰을 정지 시켰습니다. 전화 드린다는 게 벌써 많은 시간을 보냈네요. 죄송해요. 소망이 생활 잘 봤어요. 이젠 내 딸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잘 적응한 거 같네요. 빨리 자리 잡는다는 것이 실은 제가 피부 알려지가 생기는 바람에 장기간 일이 힘들어졌어요. 쉬는 동안 소망이 보러 갈까 생각도 했는데 피부가 보기에 영~ 꺾꺾거거든요. 전염성이 있는 건 아닌데 소망이가 어떻게 볼까 선생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되구요. 애들 아빠랑은 연락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알고는 있는데 전화하기가 좀 그러네요. 제 사정이 이렇다는 것도 모르거든요. 돈 버는 게 너무 힘드네요. 애들 아빠가 벌어들여 주는 돈 우습게 보다가 빠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값진 돈이라는 걸... 우리 소망이 많이 컸죠? 보고 싶어요. 자주 전화 못 드려도 이해해주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스럽겠지만 애 좀 써주세요. 담에 또 글 올릴게요.

♥ 짜삭아!~ / 2003. 7. 13 / 대안가정 모

요즘 우리집 천사 무지 시끄럽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제는 무서운 것도 없고, 무서운 사람도 없다. 누구든 자기 잘못을 야단치면 몸을 흔들며 ‘엄마아아아~, 오빠아아아~, 언니이이이~’ 애교를 떠다. ‘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예사고 엄마를 부르는 소리도 얼마나 양갈지고 큰지... 이제는 우는 소리를 들어볼 수도 없다. 장난치고, 내 얼굴 갖고 놀면서 깔깔거리고... 밥 먹자고 하면 시키지 않아도 행주가지고 닦고, 제 의자 갖다놓고 식구들 부르러 가고, 수저 꺼내주면 챙기는 시늉하며 나를 거든다. 자기 말을 안 들어 주면 빠져서 현관문 앞에 서서 한쪽발로 바닥을 툽툽 차고 서 있다. 그 모습, 월때나 이쁜지... 너무도 변한 천사. 이제는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빠 죽~갔시오.

♡♡ 사진촬영 / 2003. 10. 1 / 대안가정 모

여러분, 토요일은 소망이가 세상에서 맞는 두 번째 생일입니다. (알아서들 허슈...) 돌사진도 없는 것 같아 첫돌이라 생각하고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4판 찍고 손 들었시유. 휴! 의상 하나씩 갈아입힐 때마다 울어서, 과자로 달래고, 아빠가 슈퍼로 달려가 오렌지 주스 사와서 달래고 해도 막무가내... 요상한 인형 하나 갖고 내가 지 옆에 앉아서 사진사와 마주보고 던지며 쇼를 벌이니 하하 웃는데, 그 순간 찰칵! 찰칵! 이 나이에 별짓을 다해 봤어요. 언니, 오빠 때도 안해 본 짓을... 사진사와 난 땀에 흠뻑 젖어 물에 빠진 생쥐 꼴... 휴우! 일주일 후에 사진 나오면 올리겠습니다. 어떤 표정 일지...

♡♡ 소망이 아빠랑 3일간 지내고 옵니다 / 2003. 10. 31 / 김명희

방금 소망이가 아빠랑 고모랑 같이 갔습니다. 3일간 지내다 오기로 했는데 대안가정에 오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라 걱정도 됩니다. 고모는 걱정이 많습니다. 자기 애도 세 명이나 되고 희망이까지 고만고만한 애들 넷을 거두고 있으니 장난이 아니지요. 고모가 넉넉하고 좋은 분 같았습니다. 이번 친가정 방문이 소망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지... 힘든 가운데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으니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소망아! 희망이 언니랑 재미있게 지내다 오너라!

♡♡ 소망이 대안가정으로 귀가 했습니다 / 2003. 11. 3 / 김명희

방금 소망이 대안가정에 데려다주고 왔습니다. 소망이가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은 대안가정 아빠는 하던 일을 접고 집으로 달려왔답니다. 눈물겨운 부녀상봉이 이루어졌지요. 아빠 목에 팔을 두르고 안겨서는 한참을 꼼짝도 않고 있더군요. 아빠랑 얼굴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제서야 안심한 듯 웃음 짓는 소망이를 보며 아이에게 왜 가정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이번에 소망이는 아빠랑 같이 가서 고모집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엄마도 만나서 시간을 보냈네요. 3일 동안의 외출(?)로 소망이가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겠습니까. 언젠가 엄마 아빠랑 살게 될 때까지 이런 왕래는 계속 되어야 하니까요. 양쪽 부모님들 모두 애쓰셨습니다.

♡♡ 이게 또 뭘 일어람 / 2003. 11. 4 / 대안가정 모

집에 돌아온 소망이! 아빠와 맛있게 점심을 먹고 조금 놀더니 잠이 오는지 베개를 가지고 거실로 나온다. 아빠를 꼼짝 못하게 끌어안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1분 간격으로 자꾸 놀란다. 아빠가 안고 토닥거리며 목소리를 들려주면 자다가 또 놀래며 깨기를 여러 번 하더니 눈도 안뜨고 아빠를 안고 얼마나

었던 낱말을 써주었더니 제법 기억을 하며 읽는다. 조금 쉬노라면, 공부하자며 얼마나 귀찮게 조르는지... 제 이불을 뒤집어쓰고 땀을 뻘뻘 흘리며 장난도 잘치고 밥도 이제는 제가 숟가락질을 한다. 소망이가 밥 한 수저 뜰 때마다 식구들은 박수를 치며 호들갑을 떨어야한다. 밥상 앞에서 뭐하는 짓인지... 양말도 혼자 신어보려고 애를 쓴다. 한쪽은 잘 신는데 다른 한쪽은 발바닥이 위로 간다. 이때도 웃으면 절대로 안되고 박수를 쳐줘야 한다. 어찌됐든 스스로 해보려 한다는 것이 참으로 대견하다. 조금 있으면 엄마에게 신문이나 책을 읽어주지 않을까?

아빠! 노래방 가자! / 2004. 4. 25 / 대안가정 모

길에 다니며 상가 간판을 읽고 다니는 소망이가 며칠 전부터 아빠를 조르기 시작한다. “아빠! 노래방 가자.” 깜짝 놀라서 되물었다. “어디 가자구? 노래방이 뭐하는덴 줄 알아?”하고 아빠가 묻는데 대꾸도 안하고 자꾸만 떼를 쓴다. 아마도 노래방 간판이 알록달록 반짝반짝 거리는 걸 보고 가보자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보니 노래방 안가본지 한 3년 된 것 같다. “히히히. 이놈이 별소릴 다하네”하면서 아빠는 가보자며 일어선다. 노래방 안으로 들어서니 눈이 휘둥그래져서 사방을 휘둘러본다. 한참을 분위기 파악을 하며 곰 세 마리, 얼룩 송아지, 뽀뽀뽀 등 몇 곡 부르고 나더니 춤을 추며 난리 났다. 오랜만에 소망이 덕분에 나도 기분전환 했다. 고마워!

아빠가 맥주를 알어? / 2004. 5. 9 / 대안가정 모

내 짝꿍은 술을 전혀 못 마신다. 나도 예전엔 그랬다. 시집 와서 집에 손님들이 오시면 남편이 술을 못 마시면 부인이 대신 마셔야 된다는 억측에 손님들 기분 맞춰주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 지금의 주량은 맥주 한 병 정도(절대 거짓이 아님...). 남편은 가끔 맥주 한 병씩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둔다. 피곤하고 힘들 때 한 잔 먹고 푸욱 자라고... 그런데 그 맥주가 소망이 눈에 띄었다. “소망이하고 엄마하고 맥주 마셔야 돼” 한다. 아빠가 말리면 “아빠가 맥주를 알어?” 에궁~ 나도 모르겠다.

어린이집 첫날 / 2004. 5. 19 / 대안가정 모

오늘 소망이가 어린이집에 갔다 왔다. 어젯밤 소풍가는 아이처럼 난 한숨도 못 잤다. 준비물이 빠진 것은 없나, 이름은 다 썼나, 보고 또 보고... 휴~! 좀 일찍 깨워 어린이집 차를 태우니 ‘빠이빠이’ 하고 잘 간다. 잘하고 있을까 걱정 속에 왔다갔다. 드디어 시간을 다 채우고 집에 온 소망이. 어린이집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어땠느냐며 여쭙보니, 노래하고 찰흙 가지고 놀더니 갑자기 엄마보고 싶다며 조금 울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보다 잘 놀았다며 괜찮을 거라고 하신다. 조금 있으니 평소 기분을 찾아 까불기 시작... 발레를 배웠다며 다리를 까딱까딱 거린다.

♥ 같이 살아야 돼 / 2004. 5. 20 / 대안가정 모

어제 내가 다니는 병원 원장님댁에서 내가 치료받을 동안 데리고 가서 놀고 오겠다며 소망이를 데리고 갔다. 잘 놀다온다고 인사 잘하고 가더니 좀 있으니 밖에서 소리가 났다. 그 집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려니까 안 들어간다고 울더라. 아무리 달래도 안되서 다시 데리고 왔단다. 왜 우냐고 물으니, “안가! 우리 아빠하고 엄마하고 오빠하고 언니하고 소망이 하고 같이 살아야 돼! 안가! 안가!”하고 소리를 지른다. 모두들 당황스러워했다. 집에 와서도 계속 아저씨 집에 안간다고 얘기한다. “알았어. 가지마! 네가 가기 싫으면 가지 마” 하고 얘기해주시 “엄마하고 소망이 하고 아빠하고 언니하고 오빠하고 같이 살아야 돼. 알았지?”하며 혼잣말처럼 얘기하며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던지... 이를 어찌, 아직도 소망이의 마음에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나 보다.

♥ 좀 조용히 살자! / 2004. 8. 23 / 대안가정 모

요즈음 우리 집이 너무 너무 시끄럽다. 이쁜 토끼(자칭) 노래 소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좀 조용히 하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다가 아빠가 노래를 부르면, “시끄러워!”하고 소리를 지른다. 못들은 척 계속 부르면 아빠 입을 틀어막으며 난리가 난다. 자기 소리가 더 시끄러운데...

♥ 소망이의 수다 / 2005. 1. 15 / 대안가정 모

“아빠! 아빠 이름은 뭐야?”(처음으로 이름을 묻는 말에 순간 당황한 아빠)

“아빠 이름? 아빠 이름은 아빠지.”

“엄마 이름은?”

“엄마 이름은 엄마구”

“으응! 알았다”

그 다음부터 엄마 아빠 이름은 ‘엄마! 아빠!’ 가 되어 버렸다. 이를 어찌...

♥ 소망이의 새해 인사 / 2005. 2. 9 / 대안가정 모

우리 성당 마당에는 키가 큰 성모님이 계신다. 그 앞에 선 소망이. 배에 양손을 대고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성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인사를 한다. 신부님과 수녀님들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니 얼마나 이뻐 하시는지... 어디 가든지 인사를 참 잘한다. 쇼핑가는 걸 즐기는데, 쇼핑카트에 앉아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아는 척을 한다. 매장 아가씨들한테 ‘아가씨! 안녕!’ 하며 손을 흔들니 아가씨들은 순간 황당해 하다가는 곧 배를 쥐고 웃는데, 어제는 설 인사한답시고 이 사

랍 저 사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란다. 시키지 않아도 어찌 이리 인사를 잘하는지... 울지 않으면 이렇게 이쁜 짓만 하는데... 소망이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밥 좀 먹자! / 2005. 2. 17 / 대안가정모

아침에 너무 곤하게 자는 소망이를 깨우기가 안쓰러워 실컷 자라고 어린이집은 보내지 않았다. 봄방학 한 언니가 자고 일어나는 소망이를 보고 “어! 너 어린이집 왜 안 갔어?” 하고 묻는데 아무 말 없이 ‘너는 왜 학교 안 갔는데’ 하는 표정으로 뺨히 쳐다본다.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을 안 하더니 점심 먹으면서 언니가 또 물었다. “소망아! 오늘 어린이집 왜 안 갔어?” 밥 숟가락 입에 넣으려다 말고 언니를 흘겨보며 “밥 좀 먹자!” 입장 곤란한 대답은 절대 안합니다. 그리고 언니를 지 밥으로 알고 절대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언니 왈, “너 조금만 더 커라”

안녕하셨습니다 / 2005. 2. 19 / 친모

너무 오랜만에 글 올리네요. 죄송하고 면목이 없어요. 저희도 이번에 비록 전세이긴 하지만 저희 집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 힘든 일이 설상가상으로 겹치는 바람에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소망인 잘 있나요? 글은 자주 보는데도 글 올릴 면목도 없고, 행여 만나더라도 금방 헤어져야하니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해서, 때 되면 글 올리자 작정 했던 게 돌이켜보니 큰 실수인거 같네요. 아이가 그 집 식구가 다 되었음을 이제야 알겠네요. 언제든지 찾아가서 엄마라고하면 안겨올 줄만 알았답니다. 못난 짓이었네요. 정신 차리고 다시 한 번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소망이 바로 데려 올 수 없다고 하신 말씀 들었어요. 얼굴을 익혀야 한다구...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자주 가려구요. 아직도 마니 불안한 상탠가요? 전화를 직접 드리려다가 글부터 올려 인사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요. 좋은 새해 되시구요. 내일 오후에 시간되시면 통화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자면 안 돼! / 2005. 2. 25 / 대안가정모

줄여왔던 약에 이제 조금 적응이 되는가 싶었는데... 어린이집에 갔다 오면 간식 먹고 한 두 시간씩 꼭 낮잠을 자야 했던 소망이가 며칠 전부터는 잠이 와서 눈이 수욱 들어가면서도 잠을 자지 않는다. “소망아! 한숨 자고 일어나지? 너 지금 많이 자고 싶은 것 같은데...”하니, 꾸벅 꾸벅 졸면서 몸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자면 절대로 안돼! 안자고 싶어!”, “알았어. 네 맘대로 해. 그러다가 저녁밥 먹을 때 또 울면 안된다”

소망이 친가족 / 2005. 3. 12 / 김명희

지난 목요일 소망이 친가족이 사무실에 왔습니다. 오랜 방황을 마치고 다시 가족이 합치게 되었답니다. 조그만 평수지만 전세집도 구했고, 곧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셨다네요. 엄마 아빠는 소망이에게 미리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익히도록 하는데 동의하셨습니다. 소망이가 엄마 아빠 언니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스럽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다시 복원되어서 아동이 귀가하는 경우가 저희들에게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소망이랑 헤어지는 아픔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안가정 가족들이 소망이에게 베풀어주신 것은 소망이의 삶 속에 소중하게 녹아날 것입니다. 소망이 언니가 요즘 소망이랑 헤어질 걱정에 맨날 소망이 끌어안고 눈물 삼킨다는 이야기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정신과주치의 선생님 뵈 때 친부모님들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 소망이를 위해 최선의 길을 찾아주도록 합시다. 그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소망이 친가정과 대안가정 가족들이 만났습니다 / 2005. 3. 15 / 김명희

벌써 다섯 살이 되어버린 소망이. 오늘 오랜만에 친가족을 만났습니다. 소망이 주치의 병원에서 함께 만나기로 했는데, 그전에 친부모님과 대안가정운동본부 직원들은 먼저 만나 조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2년간 소망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아이가 너무 똑똑하고 예민해서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거지요. 어른의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인데 치료받은 지 2년이 지난 지금 소망이는 표정부터 얼마나 밝아졌는지 거의 판 아이 같답니다. 친모는 소망이가 울까봐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답니다. 하지만 언니 희망이와는 금방 어울려서 진료실이 시끄럽도록 뛰어다니며 놀아 우리 모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최애정 선생님은 소망이가 친가정으로 귀가하기 전에 친해지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는 것이 좋다고 권유하셨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한 달간 친해지는 시간을 갖기로 합의하고 두 가족이 함께 대안가정으로 가시는걸 보고 저희는 돌아왔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소망이와 놀면서 아이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해주신 대안가정 부모님의 큰 마음에 존경심을 느낍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떤 일이든 결과에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너무 뛰어나서 (정신과 선생님은 천재라고 하셨습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소망이가 친가정으로 가서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난 우리집이 좋아! / 2005. 3. 16 / 대안가정 모

어제 친가족과의 상봉으로 낮잠시간을 놓친 소망이가 친가족이 돌아가고 나니 잠에 골아 떨어졌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잠깐 자고 일어나 울면서 하는 말 "아빠는 큰아빠가 아니구 그냥 아빠야, 아빠."

엄마는 그냥 엄마야, 엄마. 알았지?” 하면서 영영 운다. 그래 알았으니까 울지 말고 밥 먹자고 하니 씹는 둥 미는 둥 퍼먹으며 계속 운다. 밥 다 먹고 아빠를 끌어안고 한참을 누웠더니 좀 편안해지는지 슬그머니 일어나 장난을 건다. 소망이 엄마! 섭섭하더라도 크게 마음에 두지 말고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인내하고 소망이에게 시간을 주며 기다립시다. 어제는 만나서 반가웠고, 우리 집에서 놀다가줘서 고맙습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편하게...

 ^^;;; / 2005. 3. 22 / 친모

안녕하세요. 틈틈이 전화 드린다는 것이 어찌 쉽지가 않네요. 소망이 잘 지내죠? ‘우리 집이 좋아’ 라고 외쳐댄다니. 으이구, 앞날이 걱정이네요. 우리가 갔다 온 뒤 확인사살까지 하다니... 저희 고모네랑 200m거리라서 조카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저희집으로 온답니다. 일단 애들이 있으니 간식도 해줘야 되고 이래저래 쫓아다니며 떠들면 안된다, 싸우지 마라, 땀을 질질 흘리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저녁 먹고 돌아서면 밤인지라 자꾸 때를 놓쳐서 소망이에게 전화를 못하네요. 핑계라고 해도 할 말 없지 만 너무 바빠서 눈물이 날 지경이네요. 좋은 밤들 되시구요~ 내일은 진짜 전화할게요. 소망이도 잘자~

 오렌지 싸움 / 2005. 3. 25 / 대안가정 모

오렌지 두개와 커다란 배 한 개를 깎아 소망이 앞에 놔주니 신이 났다. 오렌지를 막 먹으려는데 학교 갔다 온 언니가 씻으러 들어가며 “소망아! 언니 오렌지 남겨줘 알았지?” 갑자기 인상이 찌그러지며 못 들은 척 한다. “소망아! 언니 오렌지 남겨달라고!” 마지못해, “응! 알았어. 씻고 와!” 그때부터 갑자기 먹는 속도가 빨라진다. 몇 조각 남지 않았는데 “소망아! 언니꺼 남겨달라고 했잖아.”, “싫어!” 결국엔 다 먹어버렸다. 씻고 나온 언니가 “소망아! 언니 오렌지 어딴어?” 혼자 오렌지 다 먹고 입 싹 닦은 소망이, 책 한권을 빼들고 읽는 척 웅얼웅얼... 사실은 언니꺼 미리 털어 놨지롱...

 쿵^@^;;; / 2005. 3. 30 / 친모

늦은 시간에 글 올리네요. 어제 오늘 전화를 넣었답니다. 어제는 소망양 낮잠 주무시느라 전화를 아니 받으시고 오늘은 운 좋게 통화를 했습니다. “내가 누구게? 아빠야? 엄마야?” 라고 대놓고 엄마를 유도했거늘... ‘아빠’ 랍니다. 뭐냐고... “소망아~ 엄마랑 희망 언니랑 아빠랑 소망이네 집에 또 놀러갈까?” 1초의 여유도 없이 “아니요” 순간 당황... 물론 좋은 대답을 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망이가 머뭇거릴 줄만 알고 있다가 너무도 당당한 “아니요”란 한마디에 말이 안나오더군요. 그래도 또박 또박 대답하는 소망이를 보니깐 어찌나 기특하던지, 한마디도 안하면 어찌나 걱정했는데 지 할 말은 다 하더군요. 말하다가 긴장을 한 탓에 애가 숨을 헐떡이더라구요. 이런 세상에... 한통의 전화에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다니... 소망아~ 엄마야, 엄마!! 미워하지 말고 언니랑 아빠랑 또 놀러갈게. 우리 소망이. 얼른 얼른 엄마랑 친해져서 같이 살자. 사랑해요~

♥ 이별 연습 / 2005. 4. 23 / 대안가정 모

주말에 소망이를 친가에 보내는 길로 이별 연습을 시작하기로 했다. 친아빠와 언니 희망이가 도착했다. “소망아!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놀러가자!”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들며 싫단다. 내가 점퍼를 걸치며 “아빠도 빨리 옷 입어요 우리 놀러가자. 빨리! 빨리!” 이렇게 바람 잡고 친아빠 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엄마는 아빠 차타고 뒤 따라 갈게, 먼지가. 알았지?”하고 보냈다. 밤 11시쯤 소망이 친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다. 밥 먹으라고 하니깐 안 먹는다고, “먹을 게 없네. 엄마! 아빠! 빨리 이리 오라고 해” 하더라. 사랑하는 우리 소망이! 배신해서 미안하다. 울지 말고 잘 놀며 가족들과 많이 친해져서 오너라. 나중에 힘들지 않게... 이렇게 우리는 이별 연습의 첫 발자국을 떠났다.

♥ 난 여기 12층에 살 거예요! / 2005. 4. 25 / 대안가정 모

친가에서 2박 3일을 지내고온 소망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안기며 잠시 빠죽 빠죽... “소망이 잘 놀았어? 언니하고 노니까 좋아?”, “응!”, “또 언니집에 가서”, “응!” 다행히 아이들과 재미있었나 보다. 밥을 정신없이 먹고 흐느끼며 “그런데요. 희망이 엄마가요. 계속 희망이 집이 소망이 집이라구 했어요. 계속 희망이집에서 살자고 했어요. 소망이세요. 희망이 집에서 놀고 여기 12층에 올 거예요” 한다. 지금 울고 싶은 거냐고 울고 싶으면 큰 소리로 실컷 울라고 하니깐 서럽게 운다. 저도 울고 우리도 울고... 한참을 울었다. 아이들과 놀 때는 신났는데 가서 놀고 집에 오는 줄 았았던 모양이다.

♥ 많이 먹어라 많이... / 2005. 5. 9 / 대안가정 모

예쁜 딸기도, 달콤한 케이크도, 고소한 과자도 다 마다하고 소망이가 유독 좋아하는 것은 이 엄마가 만든 감주다. 특히 그 안에 들어있는 밥알... “엄마! 너무 너무 맛있어요” 하며 정신없이 퍼 먹는 모습이 참으로 이쁘다. 큰 찹통으로 한 가득 만들어 놓으면 언제나 소망이가 제일 많이 먹는다. 많이 먹어라. 그 감주 언제 또 먹어보겠니. 많이 먹어라. 많이... 너와 이별하는 그날까지 너 좋아하는 것, 너 잘 먹는 것, 많이 만들어 줄게. 많이 먹고 가져라. 음식 만들며 섞는 이 엄마의 눈물이 너의 앞날에 큰 축복의 꽃가루 되어 언제 어디서든 늘 함께 하기를 바라며... 많이 먹고 가져라. 많이...

♥ 5월 21일(토) 소망이 친가정으로 돌아갑니다 / 2005. 5. 20 / 김명희

소망이가 2년 7개월간 대안가정에서 생활하다가 5월 21일(토) 친가정으로 돌아갑니다. 2002년 10월 16일, 막 돌이 지난 소망이를 처음 대안가정에 데려가던 날이 생각납니다. 당장 입힐 것이 없어서 할인 마트에 아기용품을 구입하러 갔었지요. 참으로 많은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소망이로 인해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오히려 더 사랑이 깊어지셨답니다. 소망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힘들었던 이유는 보통 아이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천재적인 아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망이를 치료해온 선생님 말씀이지요. 정말 잘 키워서 재능을 개발해줘야 한다면서 얼마나 당부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소망이는 엄마 아빠 언니와 함께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친부모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소망이가 받을 충격을 줄이기 위해 친가족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장을 허락해주신 대안가정 가족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지요. 이별의 과정을 내내 겪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아픔은 보통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답니다. 또한 소망이의 안정적인 귀가와 적응을 위해 본 기관의 방침을 따라주신 친부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길고 지루한 과정일 수도 있는데, 하루빨리 데려가서 함께 지내고 싶은 욕구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모두 소망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소망이가 친가정으로 돌아가서도 건강하고 밝게 잘 생활하기를 기원합니다.

놀다 올게... / 2005. 5. 21 / 대안가정 모

어제 늦은 오후, 아빠가 소망이 짐을 다 꺼내 묶는 걸 본 소망이가 “아빠! 소망이꺼 왜 묶어요?”한다. “저번에 소망이가 그랬지? 희망이 집에는 아무것도 없다구. 그래서 가지고 가서 언니랑 놀다 오라구”하니, “으응! 소망이 희망이집에서 놀다 오라구?”한다. 마침 군에 간 오빠에게서 전화가 와서 바꿔주니 “오빠! 소망이꺼 다 가지고 희망이집에 가서 놀다올게. 오빠! 사랑해!”한다. 간간이 희망이집 이야기를 했던 것이 먹히는지 생각보단 수월하게 짐을 싸다. 그래 네가 내 스승이다. 너는 나를 떠나는게 아니구, 놀러 가는거야.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다. 근데 놀러갔다가 시집 갈 때쯤 오려나?

소망이 귀가하던 날 / 2005. 5. 23 / 김명희

대안가정 아빠는 다시 일터로 나가시고, 대안가정 엄마랑 저희 셋은 한참동안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 보여주셨답니다. 대안가정 엄마는 소망이 보낸 후에 피정을 떠나시기로 했는데, 결국 어제 쓰러지셔서 못가셨답니다. 소망이의 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아니 소망이에게 아무런 계산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기 때문이겠지요. 2년 7개월! 태어나서 1년밖에 안되어 대안가정에서 그 세배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간 소망이도 다시 친가정에 적응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대안가정이 감수해야 할 몫이 여기까지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돌려보내고 나서 그 허전하고 막막한 아픔과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가는 그리움

까지... 거기까지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별 위로는 못될지언정 대안가정 부모님의 상한 마음과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부디 빨리 회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소망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 2005. 5. 26 / 친모

안녕하세요. 쓰러지시다니요. 상심이 생각보다 크셨나 봐요. 얼른 나으셔야죠. 소망이도 생각보다 무탈하게 지내고 있어요. 고집이 너무 세서 희망이가 고생이지만 어쨌든 우려와는 달리 빠르게 잘 적응하고 있어요. 다만, 잠자리에서는 종종 사건을 만들더군요. 자면서도 무슨 불만이 그리 많은지 '아니야. 안돼. 가지마. 하지마.' 죄다 불만투성이... 울면서 악쓰면서 잠꼬대를 해대는 아이를 보면서 이 울분을 어떻게 풀어 줘야할지 그 생각뿐이더군요. 이런 아이를 2년 넘게 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자다 말고 가끔씩 큰엄마 큰아빠를 찾아요. 울다가 아빠를 찾길래 애기아빠를 깨워서 "아빠 요기 있네." 했더니 "아니야. 이 아빠 아니야." 많이 그리운 모양이에요. 그 외에는 만사가 순탄해요. 노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언니랑 장난치는 것도, 같이 앉아 공부할 때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소망이한테는 큰엄마, 큰아빠가 비행기타고 어디 가서 나중에 온다고 거짓말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상야릇한 종이 갖고 와서는 비행기표라고 이걸로 비행기타고 따라 가자나... 아무튼 말로는 못 이겨요. 푹푹하고 야무져서 어른들도 이뻐 하세요. 소망이가 책을 줄줄 읽어 내려가니 책에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정성을 쓰셨으면 이 어린게 이만큼 배워서 왔겠나시면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 달라시더라고요. 저도 아이 아빠도 두 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너무도 바르고 푹푹하게 키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무실 국장님, 직원분들도 그간 애 많이 쓰셨구요. 소망이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많이 하지마시구요. 몸조리 잘하시구요. 담에 뵈게요.

♥️ 너무도 보고픈 소망아! / 2005. 6. 3 / 대안가정 모

사랑하는 우리 소망이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구나. 어린이 집에는 다니고 있니? 나이답지 않게 생각이 깊고 넓어 잘 견디리라 믿는다. 그런데 이 엄마는 아직도 널 보내지 못하고, 주방에 서서도 "엄마 뭐해!" 하는 네 소리에 깜짝 놀라 허둥대고, 음식을 먹을 때도 "아유 맛있다. 엄마! 너무너무 맛있어요" 소리에 눈물 펄펄 쏟으며 먹지 못하고... 이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다. 자그마한 너의 빈자리가 어찌 이리도 큰지 모르겠구나. 아침에 일어나 너의 마음의 평화만을 빌며 항상 하느님 안에서 살기를, 하느님께서 항상 너의 따뜻한 동행이시길 빌고 또 빈단다. 이 엄마 아빠의 사랑이었고 기쁨이었던 소망아! 이 엄마만큼 그리워하지 않기를, 이 엄마만큼 힘들어하지 않기를, 이 엄마만큼 눈물 흘리지 않기를, 이 엄마만큼 아파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때까지 건강하고 예쁘게 크는 거야 알았지? 소망아! 사랑해! 친엄마, 아빠에게도 사랑이고 기쁨이기를...

우리 가족 전부 다 모여서 조그마한 트리를 만들었는데,
조금 이른 감이 없잖아 있지만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에,
그리고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에 일찍 준비를 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희망이네집



♡♡ 희망이 이모! / 2002. 10. 31 / 김명희

희망이로 인해 위의 언니와 오빠가 많이 힘들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픕니다. 희망이는 이제껏 누려 보지 못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접하고 인격적인 대접을 받으니 기쁘고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위의 아이들로서는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갓난쟁이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동생이 나타나서 엄마 아빠의 관심을 끌고 있으니 말입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이 희망이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임을 스스로 확신하게 되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하지요. 어른도 누군가를 사귀어나가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아이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7살, 5살인데... 대안가정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기도 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어쭙잖은 충고를 들으며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희망이 이모! 힘내시고 화이팅!

♥♥ 희망이 엄마예요 / 2002. 11. 07 / 친모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신 것 같네요. 저도 예상 못한 건 아닙니다만, 희망이가 마니 힘들게 하나 봐요? 우리 희망이 고집이 좀 세고, 새로운 걸 마니 접해 보질 못해서 신기한 거 있음 머든지 자기 하려고 들고 그럴거예요. 책을 마니 좋아하구요. 나가 노는 걸 좋아해요. 뒤늦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일자리가 쉽게 구해지질 않아서... 조만간 제 연락처가 따로 생길 것 같으니깐,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해주세요. 마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이쁘게 봐주세요. 우리 희망이, 이쁜 짓할 땐 한없이 이쁘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자리 잡아서 우리 애들 한시라도 빨리 보고싶네요. 면목 없지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시구요. 나중에 또 글 남기겠습니다.

♥♥ 희망이 일기 / 2002. 11. 16. / 대인가정 모

희망이가 저희 집에 온지도 벌써 한 달이 가까워지는군요. 그동안 여러 차례 글을 올리려고 하였으나 접속이 되지 않아 지금에서야 올립니다. 의외로 우리 희망이는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관심만 받으려는 희망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가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희망이의 이모찾기 / 2002. 11. 26. / 대인가정 모

오늘 아침 희망이가 이유없이 한바탕 또 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고 나중에는 황당하고, 왜우냐고 물으니깐 이모가 좋아서 운단다. 내가 오늘은 희망이에게 부탁을 했다. 제발 이모는 어디까지 없으니까 나 좀 봐달라고. 이모는 희망이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모부 언니 오빠 이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챙겨야 한다고... 이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내손을 꼭 잡으면서 이모가 너무 좋아서 보고 싶어서 운다는 희망이로 인해 오늘은 행복하다는 생각과 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하는 착각에 웃음을 짓는다.

● Re:희망이의 이모찾기 / 2002. 11. 26 / 김명희

희망이가 이모를 너무 좋아해서 난리가 났네요. 희망이가 말로써 이모가 너무 좋다는 표현을 했더니 다행입니다. 말로써 표현하게 되면 행동으로 표현하는 일이 줄어들니다. 좋아하는 이모의 주의를 끌고 자기에게 관심을 묶어두기 위해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최근 일련의 희망이의 행동들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한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도 때론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 겨울 멋지게

보내도록 합시다. 봄을 기다리면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날 / 2002. 11. 30 / 대인가정 모

우리 가족 전부 다 모여서 조그마한 트리를 만들었는데, 조금 이른 감이 없잖아 있지만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에, 그리고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에 일찍 준비를 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요즘 애들에게 나쁜 일 많이 하면 산타할아버지가 너희들의 나쁜 일 한 수만크의 콩알을 준다고 했더니, 우리 유진이가 걱정이 태산이다. 이제부터 착한일 많이 하면 산타할아버지가 선물 주냐고 묻는 우리 애들. 아직까진 참 순진하구나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다. 작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쯤인데 유진이가 유치원에 갔다 와서 엉엉 운적이 있다. 내가 놀라서 왜 우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산타할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다고 거짓말이라고 했단다. 진짜냐고 묻길래 산타할아버지는 유진이 마음속에 있다고 얘길했는데 올해는 그런 친구가 없었으면 한다. 아직은 어리고 순수한 이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고 밝게 자랐으면 하는게 나의 조그마한 바람이다. 모두 행복한 하루하루이길 바라며~

희망이의 생일파티 / 2002. 12. 1 / 대인가정 모

오늘이 희망이가 우리집에 오고 처음 맞는 생일날이다. 희망이가 혼자만의 생일 파티라는게 무척 기분이 좋은 것 같아서 나도 행복하다. 희망이는 이모가 너무 좋다는데, 나는 희망이가 좋아하는 것만큼 못해주는 것 같아서 항상 신경이 쓰인다. 희망이가 이제는 언니 오빠 다음인걸 아는지 모르는지 예전만큼 보채지는 않는데 잘 모르겠다. 희망이가 우리집에 있는 동안 행복이라는 걸 느꼈으면 하는게 바람이다.

이모부와 희망이 / 2002. 12. 16 / 대인가정 모

요즘 우리집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왜냐고 라고 물으신다면, 이름하야 두 고집의 맞대결이라고나 할까. 처음에는 끝까지 잘못하고도 잘못했다는 얘기도 하지 않던 우리 희망공주도 이제는 이모부의 기에 밀리는 느낌이다. 이모부가 있음 희망이의 행동부터 달라진다. 밥알 세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반말도 하지 않고... 내가 애들과 스킨십을 많이 하는 편인데, 많이 안아주고 뽀뽀도 많이 해주고,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해주고 했더니 처음에는 안아주는 걸 어색해했던 희망이도 이제는 내가 '희망아!' 라고 이름만 불러도 활짝 웃으면서 안긴다. 아직 우리 민재는 많이 힘들어한다. '희망이 안아주지마. 뽀뽀하지마. 사랑해 하지마.' 기타 등등... 하지만 유진이는 귀가 안들린다고 고생한 후로는 희망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지나면 우리생활도 안정을 찾겠지.

♥️ 우리 희망이 많이 힘든거예요? / 2002. 12. 17 / 친모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희망이 많이 힘든건가요? 그럼 안되는데... 우리 희망이 어릴 때부터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며 자란 애라서, 더 이상 사람 눈치 보며 살면 안되는데... 최소한 우리집보단 덜 눈치보고 덜 힘들거라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아이 맡겨놓고 얼굴 두껍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희망이 당당하고 씩씩하게 클 수 있도록 눈치주고 그런 일 없었으면 하는데요. 위에 오빠가 우리 희망이 이모님이랑 이모부님 모르게 구박하는 건 아니겠죠. (이런 생각 하면 천벌 받겠죠?) 죄송해요. 너무 보고 싶고 걱정되고 힘들고, 그래서 말도 안되는 말을 하네요. 우리 희망이 잘 있죠? 마니 컸나요? 밥은 잘 먹죠? 보고 싶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는데... 잘 좀 부탁드릴게요.

♥️ 희망이는 너무너무 잘 적응하고 있어요 / 2002. 12. 17 / 대안가정 모

희망이 엄마 보세요. 희망이는 너무 잘 적응 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보다도 성격이 강한편이고 고집도 세고, 희망이는 날 너무너무 잘 따르답니다. 희망이 엄마에게 미안할 정도로... 희망이에게 엄마, 아빠 얘기를 하면 입을 다물어서 지금은 희망이에게 시간을 주고 있어요. 언젠가는 희망이가 먼저 엄마 아빠 얘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희망이 많이 컸어요. 희망이 엄마는 많이 보고 싶겠죠. 희망이가 이제는 조금씩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우리 애들은 밝은 편인데 언젠가는 희망이도 그렇게 되겠죠. 추운데 몸조심하시구요. 빨리 자리 잡으셔서 우리 희망이 엄마, 아빠, 소망이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 희망이 엄마아빠, 희망이 만나볼래요? / 2002. 12. 17 / 김명희

희망이 엄마 아빠! 희망이는 대안가정에서 너무나 잘 지내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얼마 전 이선희 선생님이 1박2일로 희망이가 있는 대안가정을 다녀왔습니다. 하룻밤을 대안가정에서 함께 머물며 가족들과 많은 대화도 나누고 무엇보다 희망이를 이틀 동안 지켜보며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가를 확인했지요. 희망이를 돌보는 대안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힘을 다해 희망이를 품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디 어린 언니 오빠도 희망이와 함께 어울려 놀며 챙겨주고 희망이가 떼를 쓰고 울면 달래주기도 합니다. 희망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예능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보육료가 굉장히 비싼 곳이지만 특별히 그곳을 선택했지요.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도 희망이가 잘 적응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생활을 즐긴다고 말했답니다. 전반적으로 희망이는 대안가정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안가정 이모가 애를 많이 쓰시구요. 희망이 보고 싶지요? 21일 희망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데리고 있어도 되구요. 이 글 보시는 즉시 전화 주십시오. 연락이 안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희망이는 대식가 / 2003. 1. 7 / 대안가정 모

희망이는 대구 할머니집이 좋은가 봐요. 우리친정은 대식가인 편인데, 먹는 걸 밝히는 희망이는 먹을 것에서 눈을 떼지 않네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만 먹이라고 애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꾀꾀이 먹은 희망이와 먹인 우리엄마. 결론은 희망이의 바지가 맞지 않고, 원피스의 지퍼가 올라가지 않는 사태로까지 발전했습니다. 희망이는 먹을 것이 있으면 화장실을 가지 않고 참는답니다.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먹을 것을 보면 제어가 되지 않나봅니다. 오줌을 참으면 병이 된다고 얘길 하는데도 계속 참고 있다가 끝에는 울어요. 한손에는 햄버거를 쥐고 한손으로는 밑에를 틀어쥐고 울고 있습니다. 3분 전에 오줌 누고 오라니까, 쉬마렵지 않다고 해놓고 읍니다. 누가 훔쳐가지도 않는데, 먹을 것이 눈앞에 있으면 씹지도 않고 삼키는 희망이에게 그러지 말라고 얘길 해도 언제 고쳐질러는지, 걱정 또 걱정입니다. 희망아 제발 예쁘게 자라다오. 이모가 부탁이다.

♥♥ 희망이의 반항 / 2003. 1. 16 / 대안가정 모

희망이의 마음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말은 맨날 이모가 제일 좋다고 하면서 이모 말은 죽어도 듣지 않네요. 나름대로 희망이에게 웃음도 찾아주고, 노력도 했다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자만인가 봐요. 희망이는 아빠를 만나고난 뒤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와서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던 걸 다시 하네요. 오늘은 속이 많이 상해서 울었어요. 우는 희망이와 오늘 같이 울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심란 하네요. 고슴도치사랑 이모마음은 이렇게 심란한데 저는 지금 언니 오빠랑 깔깔 난리도 아닙니다. 희망이의 웃음소리 들어보셨어요. 참 이뻐요. 처음 왔을 땐 인상 오만상 구기고 있었는데, 이게 희망이의 마지막 반항이었으면 하네요. 애들의 웃음소리는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보게 합니다. 우리 조금만 참고 좀 더 노력해 보고 힘내자. 이쁜 희망아.

♥♥ 희망이의 우와 / 2003. 1. 17 / 대안가정 모

우리 희망이가 가장 행복할 때, 아님 신기한 걸 봤을 때, 것도 아님 맛있는 걸 먹으러 갔을 땐 어김없이 나오는 말. '우와!' 다. 유진이 민재 공연장에서도 끊임없이 '우와'로 끝낸 희망이. 끝나고 레스토랑 가서도 '우와' 희망이 얼굴에 웃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나 이모랑 살껴예요. 나 이모 좋아요. 그러면서 웃는 희망이는 애들이 엄마에게 가지는 무조건적인 신뢰를 표출한다. 처음엔 부담이었는데 이젠 웃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희망이도 선생님들이 희망이 어머님이라는 소리에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응수한다. 민재는 오늘 기어다니는 남동생 데리고 오라고 난리다. 날 죽여라 죽여. 이눔~아.

♡♡ 미운 5살 / 2003. 1. 26 / 대안가정 모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서 늦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희망이가 언니방 앞에서 훌쩍거리고 있다. 왜 우냐고 물으니 언니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단다. 유진이를 부르는데 웬걸 뭔가 이상하다. 또 바지에 오줌을 싸고 그대로 놀러고 한 모양이다. 이제는 내가 저한테 조금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줌 싸고, 언니 오빠 짜려본다. 속상하고 화도 나고, 왜 자꾸 언니 오빠 짜려보냐고 물으면 이젠 안 할꺼라고 그러고 또 하고... 희망인 습관처럼 짜려본다. 처음에 와서 2달 동안 입이 닳도록 얘기해서 안한다 싶더니, 다시 반복하는 희망이가 이젠 날 힘들고 슬프게 한다. 희망아 제발 짜려 보지마라. 진짜 그건 너무너무 싫다. 내일은 나아지려나 기도하며 잠들어본다.

♡♡ 몸 따로 마음 따로 / 2003. 1. 29 / 대안가정 모

요즘 컨디션이 영 아니다. 기분도 꼴꼴하고, 이런 나에게 희망이는 어려운 숙제인 것 같다. 몸이 안 좋아서 요즘은 많이 누워 있는데, 희망이는 그것이 못마땅한가보다. 왜 그러는지. 앵무새같이 '이모 좋아요' 만 반복할 뿐, 좋으면 말 좀 들으라고 해도 대답뿐인 희망이. 이모 아프니까 도와달라고 해도 자기는 이모 아프던 말던 상관없단다. 그럼 이모 아프면 누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하나니깐 날 바라보는 희망이에게 내가 뭘 바라겠는가. 희망이가 밝고 행복하게 커주길 바랬는데, 이젠 기도 밖에 할 수 없게 된 것 같다. 공주야 예쁘게 자라다오.

♡♡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2003. 2. 5 / 김명희

희망이가 지금 대구로 오고 있겠네요. 그동안 참으로 아름다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선희 선생님께서 감사인사를 드렸겠지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잉태하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찌면 희망이로 인해 생긴 생명일 수도 있겠다 싶네요. 예기치 못한 임신일지라도 새 생명을 맞이하는 건 축복임에 틀림없지요. 희망이 친부가 오늘 저녁 본부에 들리셔서 희망이를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고모가 키워주기로 했다 하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 그동안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희망이가 친부에게 귀기했습니다 / 2003. 2. 6 / 김명희

2003년 2월 5일, 희망이가 친부에게 돌아갔습니다. 지난 2002년 10월 20일 대안가정에 가서 109일 동안 생활하다가 대안가정 모의 예기치 못한 임신과 건강악화로 위탁이 종료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5살이 된 희망이를 고모가 돌보아주겠다고 해서 친부가 데려갈 수 있었지요.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희망이와 함께 한 109일이 대안가정으로선 짧지 않은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보내놓고 나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던 경험이 저도 있으니까요. 저는 2년간 양육한 첫 아이를 귀가시키고 1년간을 마음에서 아이를 보내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더 잘 해줄 걸 하는 아쉬움과 아이에 대한 염려 때문에 참 많은 시간을 아이 생각으로 소진했었습니다. 방금도 대안가정 모가 전화를 해왔네요. 어떤 심정인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태중의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당분간은 희망이 생각 잊으시고 건강회복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좀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아이들이 많이 자란 다음에 다시 한 번 대안가정이 되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 동안 고맙습니다 / 2003. 2. 7 / 대안가정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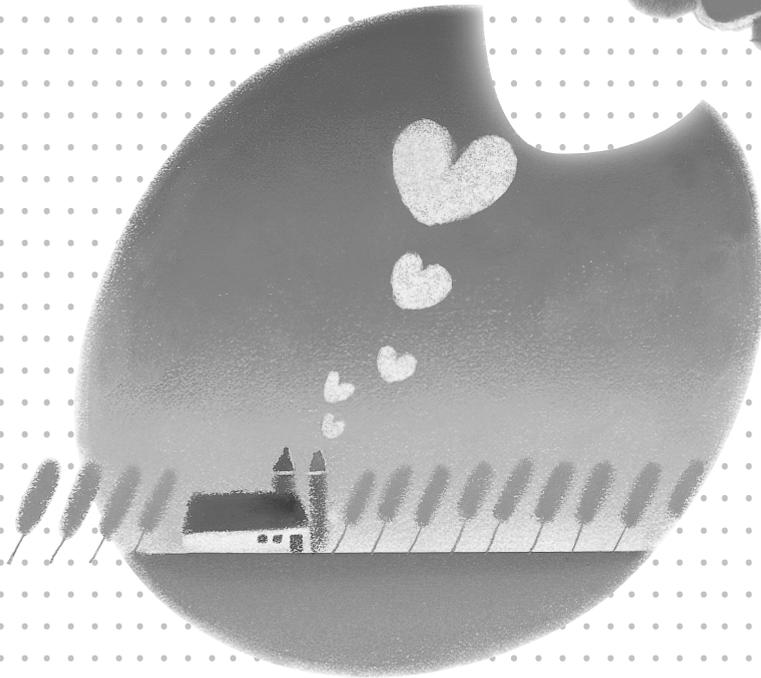
그동안 저의 푸념 들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구요. 이젠 담담합니다. 올 한 해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요즘 계속 잠만 자네요. 이제 털고 일어나야지요. 김명희씨 나중에 아주 나중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음으로는 많이 힘이 드네요. 희망이도 이제는 말 잘 듣고 예쁘게 컸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모두 파이팅!

희망이는 고모집에서 지냅니다 / 2003. 3. 30 / 김명희

며칠전 희망이와 통화를 했습니다. 말은 별로 많이 하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희망이 동생 소망이가 아직 위탁중인데 무슨 사정인지 엄마 아빠 둘 다 연락이 되지 않아 수소문을 했지요. 몇 번의 전화 끝에 동사무소를 통해 희망이가 있는 곳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고모네 집이었고 고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라고 하자 금새 알아듣는 걸로 봐서 그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위탁중인데 부모가 연락이 안되면 곤란하다는 말과 함께 본부로 연락해주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빠가 전화를 해왔고 4월 중으로 엄마 아빠랑 소망이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마 소망이는 엄마 아빠 얼굴 다 잊어버렸을텐데... 더 늦기전에 봐야겠지요. 희망이 고모는 파스한 분 같았습니다. 소망이까지 돌보지 못하는 것은 아마 갓난아기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화통화 하는 동안 아기 울음소리랑 아이들 소리가 들렸거든요. 희망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얼굴은 알지 못해도 마음도 알지 못하지만 이슬이로 인해
 우리 동행이었지 않나 싶어요. 잘 지내주길 간절히 바랐을
 것이고 잘 키우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오늘의 웃음이
 영원할 수 없고, 오늘의 눈물이 지속적이지 않듯이, 그때
 그 시절 아련한 추억으로 우리 두 사람에게 남은 아름다운
 동행이었지 않을까요. 이슬이로 인해 울고 웃었던 시간들,
 색 바랜 책속의 책갈피의 낙엽처럼 고이 감적할게요.

이슬이네집



♥ 이슬이를 기다리며... / 2003. 7. 30 / 대안가정 모

내일이면 이슬이를 보게 되네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지만 닥치면 최선을 다해 보려고 스스로
 에게 다짐해 봅니다. 이슬이 커가는 모습 사진으로 자주 올리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틈틈이 글도
 올릴게요... 이쁜 이슬이가 어떻게 커가는지 지켜봐 주시구요. 이슬이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 반갑고 고맙습니다 / 2003. 7. 31 / 김명희

이슬이가 오늘 대안가정 부모님들 품에 안겼습니다. 대안가정 아빠는 아예 휴가를 받아 집에서 이슬이를 맞아주셨습니다. 엄마를 처음 떨어지는 이슬이는 가는 동안 많이 울었지만 대안가정 엄마에게 안겨서는 울지 않고 방싯거리네요. 이슬이를 바라보는 아빠의 표정은... 예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표정 있죠. 내일 유모차랑 보행기랑 이슬이에게 필요한 물품들 챙겨서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전입 신고, 수급자 지정, 위탁가정 지정 등의 행정절차도 지원할 것입니다. 이제 이슬이를 정성껏 진료해주실 주치의 선생님을 찾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슬아! 내일 보자.

♥♥ 난 어카라꼬.. / 2003. 8. 1 / 대안가정 모

어제 이쁜 이슬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뽀얀 피부 방긋 웃는 웃음. 천사가 따로 없더군요. 그런데 잠투정이 많아 조금 힘들었어요. 환경이 낯설어서인지, 제 품에서 떨어지려고 하질 않더군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네요. 울 때만 빼고... 하하하. 애기 아빠와 아들은 나만 두고 휴가차 놀러 갔어요. 억울하고 따라 가고 싶지만, 며칠 이슬이랑 오붓한 시간 보내려구요. 첫애는 멋모르고 키운다더니... 이슬이는 잘 할 줄 알았는데, 역시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도 우리집에서 날 제일 따르 답니다. 이슬 엄마, 이 글 보면 걱정 마세요. 첫날 치고는 많이 안울었으니까요.

♥♥ 이슬이 기던 날... / 2003. 8. 6 / 대안가정 모

이럴 수가!! 이슬이두 오빠랑 똑같이 뒤로 먼저 기네. 하하하. 처음 왔을 때, 움직이기만 해도 땀굴면서 찾아다니더만. 오늘, 아니 어제는 처음으로 뒤로 기네. 얼마나 귀엽던지. 이슬이는 음악을 틀어놓으면 엉덩이를 흔들면서 무척 좋아한다. 동요보다 유행가를 더 좋아하니 나중에 유명한 가수가 되려나? 오빠가 유치원에서 배운 애국가를 지휘하면서 부르면 같이 웅알이로 부르는데 보고 있노라면 잔잔한 행복이 밀려온다. 아이들의 웃음이 폭염의 더위도 잊고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 이제는 이웃에서도 사랑도 많이 받고 이뻐해 주지만, 간혹 이웃 아주머니들이 안아주면 날 찾을 때... 몸은 힘들어도 내가 이슬이에게 어떤 존재일까 자문해보면서 파이팅 하곤 한다. 이슬아 제발 낮잠 좀 자라. 큰엄마 일 좀 하게... 하하하. 밤에만 잘 자지 말고...

♥♥ 더 예뻐진 이슬이 / 2003. 8. 17 / 대안가정 모

오늘 이슬이 사진 찾아와서 앨범에 꽂으니 이슬이 처음 오던 날이 생각난다. 많이 보채고 하더니... 낮잠도 잘 자고 오빠랑 장난하고 놀 때면 너무 보기 좋다. 남편이 쉬는 날은 이슬이를 안고 산다. 고만

안아주라고 하면 들은 척도 안한다. 아들 녀석이 더러 아빠는 나도 저렇게 안아 줬냐고 물어본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애기가 보고 싶은지 자꾸 한번 다녀가라고 하시다가, 애기 장거리가면 힘들고 모기가 많아서 안된다고 한다. 솔직히 이럴 땐 짜증 아니꼽다. 카~ 유모차 타고 밖에서 놀다가 얼굴에 모기를 물러왔는데 남편은 병원 안가본다고 닥달이다. 남편이 이슬이 너무 이뻐해서 다행이지만 한편으론 질투도 난다. 나도 쯤매 쳐다봐주지... 흐흐흐. 이슬이의 해맑은 웃음은 너무 이쁘다. 요즘 분명 더 이쁜 이슬이.

이슬이 첫 나들이... 시골 갔다 왔지요 / 2003. 8. 24 / 대안가정 모

‘순하다, 이쁘다’ 시골에 있는 동안 시어른들이 이슬이를 너무 많이 이뻐해주셨다. 생전 안내어 놓던 선풍기도 다 내어 놓으시고, 연로한 몸으로 업어주고 안아주고... 내내 애기보고 즐거워하시니 걱정이 짝 가시는 기분이다. 토요일 내 등에서 이슬이는 밤하늘의 별만큼 아니 더 많은 사랑으로 해맑은 웃음을 연신 지었다. 큰아빠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내내 차 밖으로 얼마나 신기해 하면서 보던지. 아들과 이슬이 그리고 우리 가족은 정말 한덩어리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아들도 이슬이에게 많이 양보하고 오빠로서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곤 한다. 이슬이 적응하는데 정말이지 너무 많이 힘들었다. 시기도 더울 때였고, 심적 갈등이 없었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많이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편이다. 이슬아 이 더위가 막바지로 향하는 것 같아. 큰엄마 힘내게 도와줄거지?

아싸리 이런 날도 있네. 키득키득 / 2003. 9. 18 / 대안가정 모

야~호~~ 룰루랄라~룰루랄라. 이슬이가 낮잠을 2시간 정도 잤어요. 나도 같이 잤지만... 하하하 그레도 기록이다. 구역예배도 잊어버리고 실컷 잤어요. 그리고 오후에 아들이 오니 난 쳐다도 안보네요. 오빠 등 잡고 서고, 귀 땡기고, 머리 잡아당기고... 그래도 아들 한참동안 참아주더니 나중에 하는 말... “엄마~양, 언제까지 대줘야 해?”, ”깁깁깁~ 나두 몰라. 니 맘이지 뭐. 나한테 묻지 마.” 하면서 속으로 는 “제발 나 찾지 마라. 오늘... 해방되어보자.”

오빠랑 안고 울고 불고 / 2003. 9. 24 / 대안가정 모

혼자일 때는 몰랐는데 애들이 서로 안고 양양양 우는데 난 왜 이리 우스운지... 아들 녀석이 요즘 들어 통 글자공부를 안하려고 해서 오늘은 날 잡았다. 회초리 들고 무서운 얼굴에 몰아붙이며 아들 녀석을 혼내고 있으니, 엄마가 웬일인가 싶어 어쩔 그리 서럽게 우는지. 소리 없이 훌쩍훌쩍... 그런데 이슬이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오빠에게 살금살금 기어간다. 그리고 얼굴을 만지고 잡고 일어나는데 내가 보기는 오빠를 위로하는 듯하다. 아들녀석 급기야 서러움에 영영영 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

가. 이슬이도 오빠 안고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내가 너보고 머라하다? 하하하. 필름이 없어 사진 못 찍은 게 아쉽다. 둘이 한참을 울고 나더니 이제는 오빠가 이슬이 눕히고 젖병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조금 뒤 신랑 들어오니 두 녀석 얼굴 범벅이 되어 둘 다 가서 안긴다. 큰아빠 오니 난 더더욱 찬밥. 사랑받고 좋은 건 큰아빠 다하고 난 맨날 악역만 하고... 억울해. 정말. 에공에공.

항상 감사합니다 / 2003. 9. 27 / 친모

이렇게 글을 올려도 되는지 김명희 선생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글을 올립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사정이야 어쨌든 이렇게 떨어져 있는게 이슬이에게 미안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만난다 해도 나중에 엄마를 원망할까 두려웠습니다. 이슬이를 받아주시고 이뻐해주시고 큰엄마도 해주시고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해도 지금 생각나는 말이 그 말밖에 없네요. 이슬이를 위해 도와주시는 분들을 생각하고 항상 힘내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구 항상 행복하세요.

● **Re: 항상 감사합니다 / 2003. 9. 27 / 대인가정 모**

이슬엄마다. 카~ 반가워요. 언제 글 한번 올라오나 목 죽~ 빼고 기다렸는데... 지금의 시련이 더 낫은 내일을 위한 인고의 시간이라 여기시고 항상 파이팅 하길 바래요. 요즘 이슬이 잼잼도 하고, 바이바이 그리고 곤지곤지도 잘 한답니다. 딸 키우면서 맛보는 재미는 내가 다 보는 것 같아 조금 미안할 때도 더러 있어요. 돌 때쯤 이슬이 만날거라 하던데, 그때 보면 정말 많이 컸구나 생각할 거예요. 활동량이 많아져서 살은 조금 빠졌는데 키는 얼마나 컸는지. 요즘은 자면서 먹는 우유 끊으려고 노력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잡고 걷는 것도 잘 걷고, 올 때 뒤집기만 했는데 이슬이 많이 컸어요. 이슬엄마! 아직은 세상이 아름다워요.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참, 이슬이 사진도 많이 찍어요. 돌때 갈 때 앨범도 같이 보낼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 2003. 10. 15 / 대인가정 모

며칠 동안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아들 녀석 피부와 밤 되면 심해지는 기침 때문에. 어제는 병원 갔다가 다른 볼일 보고 밖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서인지 몸이 영 시원찮다. 일부러 이불빨래며 빨래 삶는 거며 해보는데, 일을 잠시라도 놓으면 왜 이리 우울한지 모르겠다. 넌 잘하고 있어 자위해 보지만 간간히 찾아드는 낯설은 자신속의 나. 아들 샤워시킬 때 추워서 문 닫고 씻기면 이슬이는 문두드리고 넘어가고 내 옆에서 떨어지면 어찌 되는 줄 알고. 하루 이틀 들은 울음소리가 아니건만 언제쯤 이슬이 울음소리에 조금은 덤덤할 수 있을까? 밤이면 오빠랑 잘 놀다가도 싸우고, 둘이 아옹다옹 거리다 보면 이슬이는 오빠에게 맞아서 울고 아들은 나한테 혼나서 울고 아직은 7살인데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건

지. 이 줄어들지 않는 욕심주머니 때문에 어제는 힘든 하루를 마감했다. 조그만 일에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하루빨리 찾고 싶다.

힘들지라도.. / 2003. 10. 17 / 진솔이네 대안가정 모

이슬 큰 엄마~ 아이를 키운다는 것, 또 잘 키운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면서 가장 어렵지요. 아이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또 내 몸이 지칠 때, 저도 우울해질 때 있어요. 남들은 우리를 천사표라 하지만 이 세상에 천사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때는 아이에게도 감정적으로 야단을 치게 될 때도 있고, 그리고는 금방 또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키워요. 내 아이도 똑같이 그랬어요. 이슬 큰엄마 말대로 친모 친부가 걱정할까봐 미화해서 글을 쓸 때도 있구요. 속상한 얘기는 자제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힘내세요. 그래도 늘 씩씩해 보이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윗니 올라오다? 아니 내려오다? / 2003. 10. 20 / 대안가정 모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바쁜 나날들이었다. 조금 전에 보니 이슬이 윗니가 올라와 있다. 몸에 변화가 있으면 그때그때 일기를 쓰려고 하는데... 윗니는 언제 올라왔나 솔직히 모르겠다. 며칠 전 지인이 꿈틀이 과자를 싸와서 줘보니 뜯어 먹길래 설마 했는데 그때부터인가? 하여튼 이 네 개로 이젠 뭉든지 오물오물 씹어 먹는다. 이슬엄마. 앞에 글 보고 기분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지만, 걱정도 되고 뭐 묘한 기분이었겠죠. 누군가를 의식하고 글을 쓰려니, 또 항상 좋다고 하려니 웬지 위선인 것 같고 이슬 엄마도 애 키워봐서 알꺼예요.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론 힘들 때도 있다는 것. 힘들 때는 '나 이렇게 해서 힘들어 미치겠소' 이제는 솔직하게 쓰려고 해요. 아침 거르고 점심 거르고 김밥 사왔는데 이슬이랑 열심히 먹어야지... 총총총... 후다닥

엄마 만나고 온 이슬이 잘 있죠? / 2003. 10. 24 / 김명희

어제 이슬이가 대안가정에 간 지 석달만에 처음 모녀상봉이 이루어졌지요. 이슬이 엄마는 많이 안정되어 보기가 좋았습니다. 첫날 이슬이 보내놓고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전화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하루라도 빨리 딸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에 정말 열심히 일하셔서 이제 한 달 후면 이슬이는 다시 엄마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슬이 큰엄마! 그동안도 정말 애 많이 쓰셨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더 많은 정 나누시길 바랍니다. 생각없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는 말에 너무 마음 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원래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법이지요. 시간 내서 다시 한 번 들릴게요. 그날은 꼭 국수 끓여주세요.

 **이슬엄마 마음고생 몸고생 많았죠. 그리고 수고 많았어요**

/ 2003. 10. 24 / 대안가정 모

이틀 동안 나랑 떨어져있는 시간이 많아서인지 많이 불안해하고 어제 밤에는 자다 깨고 자다 깨고 하더라구요. 이슬엄마가 빨리 안정을 찾았다니 다행이고, 또 고맙고 무엇보다 이슬이에게 잘되었다 싶어요. 이제는 날 엄마로 알고 있는데, 친엄마에게 가서도 빨리 적응하고 잘 지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달 정도라고 하니 보내고 나서 못해준 것 마음에 걸릴까봐 오늘은 거의 안아주고 업어주고 하니 이슬이도 잘 웃고 좋아하더군요. 아마 이슬이 가고나면 '시원섭섭' 이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겪은 시행착오들이 나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한편으론 더 많은 세상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슬이는 날 잊고 살지라도 난 지난 몇 달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슬엄마. 그동안 열심히 산 것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시간만큼 이슬이와 더 큰 행복 누리길 바랄게요. 짧은 만남 긴 이별이 되지만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든 열심히 살아요. 우리 모두.

 **길들여진 것들(그 속의 방향) / 2003. 10. 28 / 대안가정 모**

더듬더듬 밤마다 날 더듬는 손길이 있다. 이슬이는 자다가도 깨어 내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버릇이 있다. '퍽퍽' 간혹 날 건어차는 발길이 있다. 이들의 몸부림이다. 이젠 샤워를 해도 문을 열고 하고, 이를 닦아도 문을 열어놓고 한다. 밥을 먹어도, 시장을 가도, 차 한잔을 마실 때도, 이슬이는 늘 나의 옆에 자리매김 한다. 처음에는 그런 행동의 부자유스러움이 날 힘들게 하더니 이제는 많이 적응이 되었나보다. 처음 힘들 때 끝이 보이지 않더니 이제는 이별을 준비하는 큰엄마는 또다시 길들여진 생활로 인해 이별에 적응될 시간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스폰지에 스며드는 물처럼 이슬이인 그렇게 내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는데... 이 새벽 두 아이를 위해 무릎 꿇는다. 주님 제 맘 아시죠? 제 맘 아시죠... 그 말만.

 **참 다행이에요 / 2003. 10. 29 / 친모**

처음 이슬이랑 헤어질 때는 너무 힘이 들었지요. 세상에 모든 불행이 다 나에게 덮치는 것만 같아 사느게 싫었어요. 그때 나 혼자 몸이라면 모진 생각했겠지만 내 옆에 이슬이가 있었어요. 이슬이랑 떨어져 있던 얼마동안 우리 모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거란 걸 알았지요. 세상에서 이슬이 만큼 센 약은 없단 걸 알았지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하구요. 우리 이슬이 사랑해 주셔서 큰엄마 너무 감사하구요. 지금 이렇게 만난 인연 정말 소중하게 지니겠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생기면 지금 만나 알고 도움 받은 모든 분들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다시 베풀 수 있다면 참 행복하겠지요.

● **Re: 참 다행이에요 / 2003. 10. 29 / 대안가정 모**

지치고 힘들었을 시간 지혜롭게 이겨낸 것 너무 다행이네요. 또다시 환경변화 때문에 이슬이가 힘들어할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핏줄은 당긴다고 하잖아요. 이슬엄마, 먼 훗날 지금을 뒤돌아보면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값진 것이 자식이 아닐까요. 자식으로 인해 누리는 행복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을거예요.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었기에 삶이 더 값지고 소중한 거예요. 추운겨울이 있기에 넉넉하고 풍성함으로 가득한 이 가을이 소중한 것 처럼요. 이슬이와 함께 아름다운 결실맺는 삶을 살 거예요.

♥ **이슬이는요... / 2003. 11. 10 / 대안가정 모**

이슬엄마, 이슬이는요. 식성이 좋구요. 많이 순한 편이에요. 잠도 이제는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그리고 동요나 클래식 틀어주면 좋아하구, 외출하는 것을 좋아하구, 목욕하는 것도 좋아하구요. 간식 먹다가 뻗으면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몰라요. 우는 모습이 이뻐서 장난으로 뻗으면 앙앙앙~ 울어요. 그리고 뭘 가르치면 진짜 빨리 배우는 편이구요. 그리고 요즘은 밤에 거의 안깨고 자요. 간혹 깨더라도 큰 엄마 있나 확인하는 정도. 요즘 잘 먹는 과일도 바나나와 귤이구요. 먹는건 수시로 먹거든요. 갑자기 시간 맞춰서 주면 이슬이 힘들어 할꺼예요. 그리고 분유도 많이 즐겼어요. 아마 밥을 어떻게 먹이나 걱정도 되겠지만, 변 상태 봐가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기에 식성을 이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사진을 6통 가까이 찍었던군요. 그중에서 추억이 될 만한 사진을 가려 나도 간직하려고요.

♥ **송고한 동행~(위탁모 끝자락에서) / 2003. 11. 10 / 대안가정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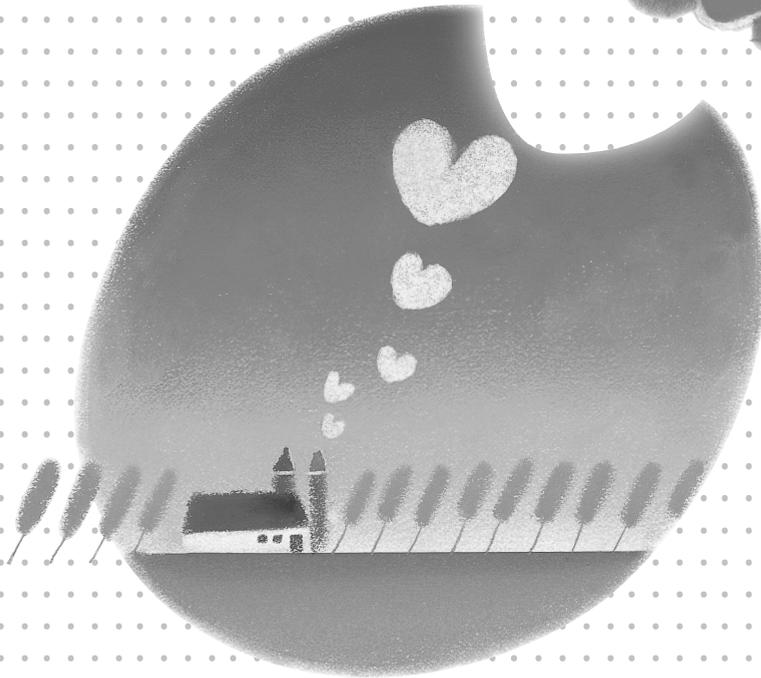
얼굴은 알지 못해도 마음도 알지 못하지만 이슬이로 인해 우린 동행이었지 않나 싶어요. 잘 지내주길 간절히 바랬을 것이고 잘 키우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오늘의 웃음이 영원할 수 없고, 오늘의 눈물이 지속적이지 않듯이, 그때 그 시절 아련한 추억으로 우리 두 사람에게 남는 아름다운 동행이었지 않을까요. 이슬이로 인해 울고 웃었던 시간들, 색 바랜 책속의 책갈피의 낙엽처럼 고이 간직할게요. 그리고 나의 모자란 부분을 말없이 채워주고 버팀목이 되어준 나의 신랑에게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구요. 또한 좌절과 절망과 우울함에 시달릴 때 나의 든든한 후원자요, 힘의 원천이었던 대견스러운 이들에게 엄마를 도와줬던 순간순간 너무 행복했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먹구름 위에 유유히 자리 잡은 태양의 기다림처럼 우리도 인내하고 사랑한다면 더 행복한 삶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글이 이슬이네집 마지막 일기가 되리라 싶네요. 송고한 동행의 매듭이 잘 지어져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잡았던 손을 놓으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중한 추억 잘 간직하겠습니다.

♥ 이슬이 친엄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 2003. 11. 15 / 김명희

오늘 아침 이슬이가 친엄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대안가정으로 이슬이를 데리러 갔지요. 친엄마에게 돌아가니 잘 된 일이라고 씩씩하게 말하면서도 막상 이슬이를 차에 태워 떠나려고 하자 대안가정 엄마 얼굴이 벌겍게 상기됩니다. 차를 몰면서 백미러로 보았지만 그새 숨어버리신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슬이 엄마는 벌써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지요. 계단을 내려와 이슬이를 안으며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네요. 하지만 이슬이는 차안에서부터 잠이 들어서 엄마 품에 안겨서도 쉼쉼 자고 있었답니다. 엄마는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4개월이네요.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대안가정 가족들은 더하겠지요. 대안가정 엄마 아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것 아시죠? 또 찾아뵙겠습니다.

엄지가가 더러운 듯 제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돌아가 살 집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니 극형 때 엄마아빠 만났던 얘기를 합니다.
 엄재도 이런 얘기 안했는데... 둘이는 그렇게 우리 모르게
 속앓이를 하였나 봅니다. 이후 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성재 · 성진이네집



♡ 성재, 성진이 방금 대안가정으로.. / 2003. 11. 19 / 김명희

대안가정 부모님들이 오셔서 성재와 성진을 데려 가셨습니다. 애들이 가고 나니 사무실이 아주
 라장입니다. 그동안 조용하게 사셨는데 개구쟁이들로 인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대안가정 아빠는
 말씀은 별로 없으셨지만 속정이 깊으신 분이랍니다. 성재, 성진을 보시는 눈길에 얼마나 다정하신
 지... 대안가정 엄마는 하도 오래돼서 어떻게 애를 키우는지 다 잊어버렸다지만 곧 적응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보다는 아마 새로 새댁으로 되돌아가시지 않을까 싶네요. 성재, 성진이 사는 개구쟁
 이들의 집에 격려를 보내주세요!

♡♡ 이모집에 왔어요 / 2003. 11. 19 / 대안가정 모

저희는 성재 성진이랑 저녁 7시 30분쯤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타고 성진이는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 못한 찢한 뽀뽀를 해주더군요.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던지... 눈물이 났습니다. 성진이는 밀려오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샌가 코를 골며 자기 시작했지만 성재는 한숨도 안자고 왔습니다. 긴장해서 그런지 오는 동안 차안에서 일곱 번 쉬가 마렵다고 하더군요. 잠이 깬 성진이는 집에 가고 싶다고 울더군요. 아이가 보채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당황되더군요. 성재는 7살이 되면 아빠가 데리러 온다고 하셨으며 몇 밤을 자야 7살이 되냐고 묻더군요. 말주변이 별로 없는 전 어떤 대답을 해줘야 할 지 난감했습니다. 이모부가 “집에 가면 치킨 사줄까?”하니 두 아이의 표정이 금새 밝아지더군요. 치킨을 시켜 밥과 함께 맛있게 다 먹고 두 녀석을 씻겼습니다. 기분이 좋은지 둘이 노래를 부르고 물장구를 치고 까르르 웃고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잠자리에 들자 또 작은 아이가 눈물바람이군요. 성진이는 자기는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안운다고 어른스런 말을 합니다. 성재 성진이 부모님! 아이들은 저희가 잘 보살필테니 걱정마시고 열심히 일 하세요.

♡♡ 지금 정신없으시죠? / 2003. 11. 20 / 김명희

아이들 방을 꾸미신다구요. 성재랑 성진이 엄청 좋아하겠는데요. 자기들만의 방을 갖는 것도 좋을 것이고 온 가족이 이뻐해주고 보살펴주니 빨리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어젯밤 늦게 와서 잠든 동생들 들여다보며 기뻐한 형아 이야기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형아랑 성재 성진이 얼굴 마주보고 인사했겠네요.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궁금하거나 힘든 점이 있으시면 꼭 연락주세요.

♡♡ 환영합니다. 새 식구 되심을 / 2003. 11. 22 / 진솔이네 대안가정 모

대안가정에 새 식구가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저는 진솔이 어매예요. 처음 시작하시는데 두 명이라 보람도 두 배가 되겠지만 보살피시기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남자 아이들이라 드세기도 하구요. 처음 몇 달 적응기간 동안은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연년생 자매를 키웠어요. 커서 온 아이들은 여러 가지 나쁜 버릇이 많이 붙어서 마음고생을 좀 했었어요.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으로 마음을 같이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언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뵙기로 하구 이곳에서 종종 인사드릴게요.

♡♡ 두 번째 외출 / 2003. 11. 24 / 대안가정 모

오늘은 성재, 성진이를 데리고 친하게 지내는 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젠 엘리베이터 숫자는 성재

가 맡아 놓고 누른답니다. 아줌마 아저씨가 얼마나 반겨주시던지 고마웠습니다. 성진은 나에게 하듯이 또 아저씨에게 애교작전을 하였습니다. 아저씨는 감동감동... 얼마나 이뻐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아들방에 가서 사탕을 가져와서 주시더니 꿀, 토마토, 빵, 우유, 호빵까지 데워주시면서 같이 놀아주셨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퇴근시간이라 차마 버스를 탈수가 없어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기사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성재가 빠지지 않고 한마디를 하더군요. 요즘은 여자도 운전을 많이 한테나? 재울려고 눕히면 성진은 늘 운답니다. 일찍 자면 키가 쑥쑥 자란다고 얘기해줬더니 금새 새근새근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 이모부와 마트에 갔었어요 / 2003. 11. 25 / 대인가정 모

이모부가 일찍 퇴근을 하셔서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답니다. 꼬맹이 손을 잡고 앞에 걸어가는 이모부를 보니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어색한 듯 하면서도 몹시 두터운 정이 느껴지는... 이모부가 성재, 성진을 위해 물건을 고르는 그 세심함에 정말 놀랐습니다. 원래 좀 섬세한 면이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아이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대학생 형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형아가 반갑다고 양쪽다리에 매달립니다. 형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한참을 아이들 때문에 걸을 수가 없어 그냥 있어야 한다니까요. 하여튼 난리랍니다. 저녁엔 맛있는 주먹밥을 해먹고 잠깐 외출할 일이 있어 나갔다 왔더니 형이 동생들을 깨끗이 씻기고 옷까지 갈아입혀 암전히 재워놓았답니다. 우리에게 이런 포근함을 느끼게 해주는 아이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성재, 성진에게 힘 닿는 데까지 잘 할 겁니다. 오늘 낮에는 성재가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우리 엄마는 이모보다 이마가 작다고 하더군요. 나에게서 엄마모습이 떠오르나 봅니다. 그래서 “엄마랑 이모랑 어디가 닮았지?” 하니까 눈썹이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 성재야 엄마는 이모 동생이니까 이모와 닮은거야...’ 성재는 그제서야 밝게 웃었습니다.

♡ 순서 정해놓고 먹어야지... / 2003. 11. 27 / 대인가정 모

아이들이 온 후로 저의 생활은 너무너무 바쁘답니다. 할일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살맛 납니다. 좀 날씬해져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빠지던 살이 절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우유대리점 하시는 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유를 주셨답니다. 이틀에 한 번은 주실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주셔서 냉장고에 우유뿐인 것 같습니다. 성재, 성진은 정말 먹을 것이 많이 생겨요. 과자도 엄청 많지요. 사과도 한 상자가 있지요. 고구마, 땅콩, 식힌 감, 쭈뼌... 어제는 이모부가 아이들 먹이려고 맛있는 언양 쇠고기도 사오셨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아이들한테 필요한건 엄마 아빠인데 저희도 그 자리만은 채워줄 수가 없나봅니다. 문득문득 정말 신중하게 얘기를 한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곱 살 때 데리러 온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다고... 자기가 백 살쯤 되면 데리러 올 것 같다고... 이 상처가 잘 치유되고 건강한 아이들로 무력무력 자라길 기도드립니다.

♡♡ 성재, 성진이는 바쁘답니다 / 2003. 12. 1 / 대안가정 모

어제는 처음 아이들과 교회를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의아하게 쳐다보곤 누구냐고 묻더군요. 우리 조카예요. 쑥스러워 머뭇거리던 성재, 성진이는 선생님이 다정하게 이끌어주니 금방 놀이기구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제는 형이 큰 돼지저금통을 두개 사주었습니다. 용돈 생기면 전부 돼지에게 주기로 약속까지 했어요. 많이 저금하여 일곱 살 되어 엄마 아빠 만나는 날, 성재는 아빠 드리고 성진이는 엄마 드린답니다. 집에 모아두었던 동전을 똑같이 나누어 저금통에 넣어주었더니 정말 신났습니다. 빨간 돼지저금통은 아이들 희망보따리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밤엔 보채지도 않고 잠들어버렸습니다.

♡♡ 성재 꿈 이야기 / 2003. 12. 8 / 대안가정 모

아침에 일어난 성재가 꿈 이야기를 하더군요. 꿈에 흰 눈이 내렸고 아빠가 로봇 장난감을 사서 이모 집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 성재야 아빠에게 안겼니?” 했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언젠가 언제 아빠가 데리러 오냐고 묻길래 흰눈이 내리고, 크리스마스가 오고, 설날 예쁜 한복을 입고 세배를 드리고, 유치원을 다니면 아빠가 오신다고 했거든요.

♡♡ 펄펄 눈이 옵니다 / 2003. 12. 8 / 대안가정 모

오늘 아침 아이들은 일어나 밖을 보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눈앞에 펼쳐진 색다른 풍경을 보더니 아이들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소리를 지르고 폴짝폴짝 뛰기도 하고 뒹굴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갈 때는 추울까봐 단단히 무장하고 갔답니다. 어린이집 마치고 놀이터에서 눈놀이를 했습니다. 동네 형들은 벌써부터 와서 놀았는지 옷들이 온통 진흙범벅입니다. 성재, 성진이도 얼마 안놀았는데 옷이 다 젖어 버렸습니다. 아이들 감기 들까봐 서둘러 집으로 가자고 했더니 몹시 서운한지 조금만 더 놀다가 가자고 합니다. 두 녀석이 벗어날 빨랫감이 머리에 그려집니다.

♡♡ 할아버지 할머니의 당부말씀 / 2003. 12. 10 / 대안가정 모

성재, 성진이는 좋겠다. 이렇게 든든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겨서... 어제 시골에 계시는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늘 다정다감하신 분이지만 성재, 성진이에게 허술하게 할까봐 얼마나 단단히 당부를 하시던지. 수화기를 들고 눈물이 났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눈 녹듯이 싹 녹아버렸습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 날이 어머님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더 멋진 아이들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성재, 성진이는 어린이집에서 실내놀이공원으로 놀러 갔답니다. 실컷 재밌게 놀다 올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우리집 우리가족 / 2003. 12. 10 / 성재 성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오늘 놀이기구 탔어요. 김밥도 먹었어요. 놀이기구 타러가서 성진이는 말을 안 들었어요. 내가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울었어요. 아빠! 오실 때 로봇 사주세요. 엄마! 성진이한테는 자동차로봇 사주세요. (성재가 엄마, 아빠에게 편지 쓰자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대로 적었습니다.)



오줌싸개 성진이 / 2003. 12. 13 / 대안가정 모

성진이는 요즘 오줌을 잘 싸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그런답니다. 이불과 요에다 지도를 그려놓고 부끄러워 방에서 나오지도 못한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이 피곤해서 그럴까요? 형아가 수퍼에 가면서 성재를 데리고 가더니 초코우유랑 바나나우유, 과자를 듬뿍 사가지고 왔답니다. 평소에 단돈 백원도 손해 안보는 형아라서 우유값을 주었더니 안받느군요. 역시 동생에게는 너그러운 형입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 2003. 12. 14 / 대안가정 모

교회를 이모부와 둘이서 갔다 오기로 하고 아이들은 그냥 집에 형아랑 있으라고 하니 형아가 독서실 간다고 데리고 가라 합니다. 둘은 신났습니다. 집이 떠나가라 좋아하면서 옷들을 잘 챙겨 입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성재가 집으로 가지 말고 놀러가잡니다. “성재야 어디로 갈까?” 물어보았더니 겨우 놀이터로 가고 싶답니다. 이모부가 로봇 장난감을 사러가자고 하니 아이들은 차가 부서지도록 뛰고 난답니다. 성재는 변신 로봇, 성진이는 커다란 로봇을 골라 얼른 나왔답니다. 성진이는 오는 내내 자기 로봇이 맘에 안든다고 칭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만지더니 로봇이 혼자 두 팔을 흔들며 앞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로봇에서 나오는 소리도 신이 납니다. 성진이는 기분이 좋아져 노래를 부르며 몇 시간 갖고 놀더니 그만 저녁에는 총을 부숩 버렸습니다. 우리는 미리 크리스마스 입니다.



우리들의 크리스마스 / 2003. 12. 24 / 대안가정 모

이모부는 성재, 성진이에게 이 좋은날의 감흥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아이스크림 케익과 모자, 풍선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어린이집에서 성재, 성진이를 일찍 데리고 와서 외출을 했습니다. 외식을 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워낙 말쑥꾸러기라 미련을 버리고 맛있는 음식을 포장해 왔답니다. 그래도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니 참 고맙네요. 좋은날 성재, 성진이는 엄마 아빠가 생각 나나 봐요. 다음에 엄마, 아빠 만날 때 오늘 케익과 똑같은 케익을 사달라고 얘기합니다.

♡♡ 이모는 누구세요? / 2003. 12. 25 / 대안가정 모

성재, 성진이가 어제 오늘 엄마, 아빠 생각이 많이 났나 봅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그랬고 선물을 받을 때도 그랬는데, 결국 이 저녁에 성재는 울었습니다. 둘 다 피곤하다고 일찍 자고 싶다가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성재는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 얼굴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모는 누구냐고 또 묻습니다. 왜 이모 이모부가 우리를 키워주냐고 합니다. 성재는 절대 소리 내어 울지 않습니다. 차라리 엉엉 소리 내어 울기라도 하면 내 마음이 덜 아플텐데 절대 소리 내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어린 속이 타나 봅니다. “성재야, 오늘은 엄마 꿈을 꾸자. 이모를 엄마라고 불러봐. 그럼 잠이 올거야” 했더니 싫은가 봅니다. 축축히 젖은 아이들의 눈가를 닦아주려니 저도 눈물이 납니다. 어서 빨리 마음을 짓누르는 이 눈물이 없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겨울바다 갔다오기 / 2003. 12. 27 / 대안가정 모

오늘부터 어린이집도 방학이랍니다. 성재, 성진이에게 어딜 가고 싶은지 물으니 바닷가에 가서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이 추운 날 바다라니... 큰형아는 롯데월드 보내달라고 하지 웬 겨울바다냐고 웃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바닷가를 몇 번 갔고, 배도 탔고, 맛있는 것을 먹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천 월미도를 갔는데 바다는 정말 추웠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었고 한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좋아하더군요. 아이들 가슴이 후련하게 뽕 뿜렸을 것 같군요.

♡♡ 너무나 어른스런 성재 / 2004. 1. 6 / 대안가정 모

저녁을 먹고 난 후 성진이가 저에게 묻습니다. 이제 5살이 되었는데 왜 엄마 아빠가 안 오시냐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성재가 대뜸 하는 말이 “넌 금방 5살이 되었다고 엄마가 오실꺼라고 생각하니? 한참 동안 5살이야. 여름 지나고 가을 겨울... 알았어? 그때 5살 말이야.” 합니다. 세상에... 저런 표현을 쓰다니. 저는 또 눈물이 고입니다. 어서 빨리 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와서 아이들이랑 마음껏 뛰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 성재는 정말 어른스러운 것 같아요 / 2004. 1. 7 / 김명희

조그만게 너무 철이 들어서 속 깊은 소리하면 마음이 아프시죠? 이모님이 마음이 어려서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얼마 전 성재 엄마 아빠랑 통화를 했답니다. 두 분 다 아이들이 대안가정에 완전히 적응된 다음에 만나겠다고 하시네요. 아이들을 만날 때는 엄마 아빠가 함께 만나야 된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대안가정에 보내놓고 나서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

있고, 또 어른들의 이해관계보다는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상황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셨으니까 성재, 성진이가 엄마 아빠 만날 때는 가능하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대안가정 일기를 통해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면도하다 혼쫓난 성진이 / 2004. 1. 10 / 대안가정 모

지난 연말부터 아이들은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모는 진짜엄마가 아니고 가짜엄마니까 그냥 엄마라 불러준다고 큰 선심을 쓴 것처럼 했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되고 보니 훨씬 더 힘이 듭니다. 뭘 하다가 좀 안되는 것이 있으면 “엄마!”하고, 화장실에서도 “엄마!”, 여기서 “엄마!”, 저기서 “엄마!” 들어서 경쟁하듯 부르니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간 성진이가 엄마를 찾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조용해서 뭘 하나 싶어 봤더니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형아 면도기로 면도하는 흉내를 내다가 그만 입술을 베인 겁니다. 그래도 이만하니 다행이다 싶어 조금만 혼냈답니다. 이모부나 형아가 면도하는 걸 한번도 보여 준적이 없는데도 성진이는 면도기를 아네요. 고녀석 참... 알진 다 알고 있네요.



성재 성진이 엄마 아빠에게... / 2004. 1. 15 / 김명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많이 그리워합니다. 특히 성재는 엄마 아빠 생각에 가끔은 우울해지기도 하지요. 또 대안가정 이모와 이모부가 좋아지면서 마음의 갈등도 심하답니다. 대안가정 이모 이모부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것이 친부모님에 대한 배신일 수도 있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매사에 친부모님과 대안가정 가족들을 분리하여 정리하는 습관도 생겼답니다. 좋은 것만 보면 엄마 아빠가 생각나나 봐요. 구정 전후에 부모님들이 함께 아이들을 만나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함께 만나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큰 기쁨을 줄 것 같습니다. 대안가정 이모는 성재가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때로는 심통을 부리기도 하는 것이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시네요. 이 글 읽으시면 두 분이 일정을 정해서 연락주십시오.



엄마라고 안 부를꺼야 / 2004. 1. 16 / 대안가정 모

오늘은 성진이가 저에게 이젠 엄마라고 안 부를꺼라고 합니다. 그럼 “이모라고 부를꺼야?”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응, 엄마.”입니다. 녀석들 3초도 못 지나고 엄마하면서... 어린이 집에서 그려오는 모든 것을 볼 때면 성재는 정말 미술에 대단한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표현해내고 싶은 모든 것을 마음껏 그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성재, 성진이 아빠! / 2004. 1. 20 / 김명희**

1월 23일(금) 오후 3시에 사무실에서 성재 성진이와 친부모님이 만나도록 했습니다. 아이들 엄마와는 통화를 해서 협의했는데 아빠와는 통화가 안되네요. 메시지도 몇차례 남겼는데 확인하는대로 전화주세요. 어렵게 잡은 일정이니만치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들 만나면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재는 조속해서 다 알아들을 것이고, 나름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불확실함 속에 있을 때가 가장 힘들 수 있거든요. 아이들의 궁금증과 걱정이 해소되고, 부모님과 반가운 만남이 되길 기원합니다.

♡♡ **성재가 할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 / 2004. 1. 28 / 대안가정모**

엄마 아빠를 만난 후 성재는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을 쉽게 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꽤 시간이 흘러야 잠이 든답니다. 성진이는 토닥토닥 자장자장 해주니 금방 잠이 들어버렸는데, 성재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걸 빨리 자자고만 했더니 결국은 울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우리 엄마 아빠 싸우지 말고 사이 좋게 지내라고 혼 좀 내주라고 하래요. 성재는 예민해서 생각이 많답니다. 할아버지가 성재 맘을 다 아시고 벌써 편지를 쓰셨다고 했답니다.

♡♡ **호랑이보다 무서운 꽃감, 그걸 먹은 이모 / 2004. 2. 4 / 대안가정모**

이모부가 꽃감을 사오셨는데 아이들이 뭐냐고 묻습니다.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꽃감이야 했더니 성진이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알고 있는가 봅니다. 저녁 먹고 너무 떠들길래 아이들 앞에서 꽃감을 하나 거칠게 먹으면서 이제 이모는 꽃감보다 더 무서워질꺼야 했더니, 아이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겁먹은 성진이는 저를 따라다니면서 “엄마 말 잘 들을꼬야” 합니다. 잠들 때까지 씨먹었습니다. “괴물로 변할라 그래...” 하면 푹! 조용해집니다.

♡♡ **배고플 땐 엄마배부르면 이모 / 2004. 2. 13 / 대안가정모**

오랜만에 치킨을 시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 성진이가 저보고 “이모” 합니다. 그 소릴 들은 성재가 “배고플 땐 엄마, 배부르면 이모” 이랍니다. 먹다가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성재의 너스레는 이모의 허를 찌릅니다. 도대체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처음 엄마와 이모를 섞어 부를 때 제가 한 말이었거든요.

♡ 유치원 오리엔테이션 / 2004. 2. 26 / 대안가정 모

오후에 성재랑 같이 유치원에 갔습니다. 성재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살펴보니 시설도 생각보다 좋았고 성재가 여기서 공부할 것이란 생각에 마음이 설레이더군요. 이 유치원은 컴퓨터를 없애버렸다고 하더군요. 아이들 창의성 개발에 오히려 좋지않다는 결론을 내려 독서실로 꾸몄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컴퓨터는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오후 내내 성재는 기분이 좋았답니다.

♡ 오늘 아침 성재는 유치원에 갔답니다 / 2004. 3. 8 / 대안가정 모

성재는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너무 좋은가 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제는 포크를 안쓰고 젓가락을 사용하겠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젠 좀 어른다와야겠다 싶은가 봅니다. 가슴이 뿌듯하니까요. 성진은 형에게 인사도 잘합니다. “형아! 잘 다녀와. 나도 잘 갈게! 이따가 만나!” 합니다. 기특하기만 합니다. 이젠 헤어지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었답니다. 한 살 더 먹고 봄이 되었다고 아이들이 훨씬 의젓하답니다. 성재, 성진이가 밝고 맑게 건강하게 자라준다면 더 이상 바랄게 뭐 있겠습니까.

♡ 못말리는 성진이 / 2004. 3. 10 / 대안가정 모

아침에 일어난 성진이가 부쩍 기침이 심합니다. 병원 가야겠다 하니 이모부 차를 타고 가야한다는 겁니다. 걸어서 가자고 해도 안된답니다. 할 수 없이 이모부가 태워주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돌아 나오는데 또 이모부차를 타고 집에 가야된다는 겁니다. 이모부는 일하러 가셨다 했더니 왜 성진이를 집에 안데려다 주고 가버렸냐고 나쁜 이모부라고 합니다. 자기가 무슨 왕자라구... 할 수 없어 성진이를 업고 왔답니다.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 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부러질 것 같이 흔들립니다. 성진아, 이모등에 꼭꼭 엮드려... 그래야 바람을 피하지... 넓은 이모의 등에서 성진은 상상의 나라를 팝니다.

♡ 흐린 날 / 2004. 3. 17 / 대안가정 모

지난 일요일 이모부한테 반항하다 혼이 난 성진이가 이모부가 담배 피우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러운 듯 제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돌아가 살 집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니 구정 때 엄마아빠 만났던 얘기를 합니다. 성재도 이런 얘기 안했는데... 둘이는 그렇게 우리 모르게 속앓이를 하였나 봅니다. 이후 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감기기운도 있는 것 같고 늘 식은땀이 납니다. 이모부는 긴 한숨을 토해 냅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이 듭니다. 우리 온 가족은 이렇게 지지고 볶으며 살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 2004. 3. 18 / 김명희**

아이들이 어려서 천진할 것 같아도 사실 다 느끼고 인지하는 것 같아요. 불안할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가 아이들에게도 가장 힘든 상태일 것입니다. 돌아가 살 집이 없다는 것을 이제 겨우 4살짜리가 알고 있으니... 그걸 지켜보는 대안가정 가족들의 마음은 또 어떨지... 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네요. 하지만 소중한 일하기에 힘든 가운데서도 함께 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지요.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앓고 일어나시길 바래요. 힘내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웬수같은 이모부만.. / 2004. 4. 14 / 대안가정 모**

애교가 많은 성진이는 형을 제치고 이모부의 귀여움을 훨씬 더 많이 차지하는데 어떨 땐 이모부랑 옥신각신 할 때도 있습니다. 들어보면 아이 눈높이와 어른 눈높이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데, 표현이 서툰 이모부와 아직은 아기인 성진이가 꼭 크게 감정을 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늘 마음 졸이며 그냥 좋게 넘어가도록 얼버무리려는 저는 속이 상합니다. 이런저런 이모부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지 성진이는 이모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퇴근해서 오시면 마지못해 인사는 하지만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늘 잘 놀았니?” 하고 물으면 “뭐요?” 합니다. 혼자 보기 아까운 장면들이 우리 집에서는 많이 생긴답니다. 이모부한테는 성진이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는 불륜가족 / 2004. 4. 17 / 대안가정 모**

4월 날씨가 여름 같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집에서 아이들과 하루 종일 있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모부가 집에 오자 우리는 또 산으로 갔습니다. 등산로를 걸어가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모부처럼 잘 걸질 못합니다. 그런데 성진이가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앞서가는 이모부한테 고함을 지릅니다. “이모부! 우리 엄마랑 같이 가세요. 혼자 가지 말구요” 아이가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던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서서 우리를 쳐다봅니다. 순간 이모부랑 저랑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럼 이모부는 처제랑 산에 온 거 아냐? 더 웃기는 건 사람들이 그냥 가면 되는 걸 안가고 우릴 이상하게 보고 서 있는 겁니다. 지난 겨울 장난감을 사러 갔을 때 가게 아주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못마땅하게 여기든지 물어도 대답도 안 해주시고 나올 때 인사도 없더니 오늘 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성진아 성진아 !! / 2004. 4. 21 / 대안가정 모**

아침에 성진이는 어린이집을 가다말고 제게 매달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엉엉 울어버리더군

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 울고 싶을 땐 실컷 울어버리는 게 약이라고 둘이 붙들고 울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성진이는 가끔 배가 아프다면서 병원에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진짜로 아파서 그런지 아니면 피병인지 지켜봤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거든요. 말로 표현은 못했지만 엄마가 보고 싶었군요. 제가 채워줄 수 없는 부분과 아이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 성진이는 속앓이를 했나봅니다.

♥️ 제주도 대안가정으로.. / 2004. 5. 15 / 김명희

성재와 성진이가 제주도에 있는 대안가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사연이 참 많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이 있는 제주도 지역의 가정에서 맡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제주도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마땅한 가정을 확보했으나, 아빠가 반대하며 직접 양육하기를 희망하여 대구에 있는 아빠에게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다시 제주도의 가정으로 보내는 것에 동의하여 제주도의 가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5월 18일 이후 성재와 성진이는 제주도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성재와 성진이가 새로운 대안가정에서도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번 일에 함께 협력하여 힘을 써 주신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모집에 놀러 와도 돼요? / 2004. 5. 15 / 대안가정 모

오늘 아이들이랑 같이 짐을 챙겼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과정을 함께 하는게 오히려 안정이 될 것 같기도 해서 재밌게 짐을 꾸렸습니다. 성재는 형이라고 이제 이모는 우리가 없어서 좋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있어서 우리 밥 챙겨줘야 하고, 목욕도 시켜줘야 하고, 동생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립니다. “그래 이제 이모는 맘대로 할꺼다. 맛있는 것도 혼자 다 먹을 수 있고, 밥도 안해줘도 되고, 빨래 안해줘도 되고, 이모부랑 들어서 놀러 다닐 수 있고 너무 좋다” 했더니 성재가 방긋이 웃으며 “다음에 이모집에 놀러와도 돼요?” 합니다. 그럼, 방학 때 놀러와!

♥️ 안녕하세요? / 2004. 5. 17 / 대안가정 모

아이들을 보내려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성재, 성진이가 우리 집에 온 이후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이후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발목이상으로 수술을 했고 아마도 이모가 아프니 아이들은 나름대로 더 불안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치원을 졸업시켜서 보낼 거라고 했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해 성재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제 성격이 무뎡뎡해 아이들에게 살갑게 대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도 처음 저희 집에 올 때 보다 참 많이 자랐어요. 귀가 따갑도록 아이들 재잘재잘 거리는 소리를 듣고 지냈는데 내일부터는 멍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계신 제주도로 가게 되어 무척 마음이 좋습니다.

저희 가정보다 더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맡아 주실 것 같은 생각도 들구요.

♥♥ 있을 때 잘하시지... / 2004. 5. 20 / 대안가정 모

어제 이모부가 애들 없으니 오랜만에 강아지랑 산책을 하자고 해서 따라나섰더니 산으로 가지 않고 시장으로 갑니다. 어디를 가도 아이들 소리가 들립니다.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나니 성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목놓아 떼쓰던 모습이 보이고, 분식집을 지나니 성재랑 긴 꼬챙이 오뎅을 들고 간장을 푹 찍어먹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또 한 곳은 토끼도 팔고 고양이도 파는 곳이 있는데, 성진이 같은 아이가 토끼에게 풀을 먹고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어디를 봐도 아이들과 함께 했던 기억밖에 없으니... 길가에 팔고 있는 선인장을 봐도, 예쁜 꽃나무를 봐도 아이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모부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자고 합니다. 그러더니 힘이 드는지 소주를 한 잔 하고 가자고 합니다. 술을 앞에 두고도 성재, 성진이 얘기만 합니다. 같이 있을 땐 애들하고 말다툼만 잘 하더니 이젠 보고 싶다고 저립니다. “우리 집보다 탁 트인 공간에서 자라니 훨씬 나으니까 더 잘된 거예요. 엄마도 볼 수 있고... 괜찮아요. 괜찮아...” 하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돌아오면서 도저히 못가겠다고 커피 한 잔 뽑아먹고 쉬었다 가자고 합니다. 전 그래서 견느라고 힘이 들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 남자 커피 마시며 울고 있는 겁니다.

● Re: 커피 마시며 우는 남자 / 2004. 5. 20 / 김명희

그동안 아이들이랑 정이 많이 들었나 봅니다. 성재 성진이가 이모부를 만만하게 보고 인사도 제대로 안한다고 하길래 지난번 가정방문 갔을 때는 둘이 앉혀놓고, 이모부가 이집 대장인데 인사도 안하면 쓰느냐고 혼내줬는데... 이모랑 이모부는 짝지기 때문에 둘이 같이 있는 본부가 있고, 안방은 본부니까 짝지가 아닌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락거리면 안된다고 교육시켰었는데... 성재, 성진이 심각하게 아줌마가 하는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라 그 이후에도 여전했다는 이야기 듣고 하! 고것들 참! 했었습니다. 사실 남자들이 강한 것 같아도 어떤 면에서는 더 약하고 여린 것 같아요. 이모부님도 예외가 아니네요. 길가에 앉아 자판기 커피 들고 앉아 눈물 흘리는 남자. 그냥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목이 메이는 남자. 이모부님 처음 뵈고 명계남 닳았다고 하니 아주 싫어하셨는데... 이모님 발목 수술 잘 마치고 회복되면 제주도 한번 다녀오십시오. 애들 핑계 삼아 부부가 데이트 한번 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때 되면 연락주세요.

사랑이를 처음 본 순간 가슴이 저려온다는 표현이 맞는지...
 아무튼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의 책임이 무거움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기도 잠시 오줌샐다고 엉덩이를 들썩이는 사
 랑이를 보니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믿음! 무슨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기가 자기 동생인지는 아는지 모르는지...

믿음 ·
 사랑이네집



♥♥ 믿음이네 집입니다 / 2004. 6. 22 / 김명희

내일이면 믿음이가 대안가정으로 갑니다. 믿음이가 대안가정을 찾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참 많답니다. 관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믿음이 아빠를 상담하시면서 가정위탁을 권유하셨고, 대안가정운동본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또 믿음이가 대안가정으로 갈 때까지 동네 주민들이 번갈아가며 돌보아 주시고 있답니다. 각박한 세상이라고들 하지만 훈훈한 온기를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동네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대안가정 부모님과 자녀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미 친자가 셋이나 있는데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믿음이를 맞이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온 가족이 믿음이를 맞이하기 위해 마음을 열고 기다리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일 뵙고 다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를 양육하는 동안 저희도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대안가정에 간 믿음 / 2004. 6. 23 / 김명희

믿음이 드디어 대안가정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반갑게 맞으며 안아주려 했더니 뿌리치는 겁니다. 누구에게 안기려고도 않더니, 대안가정 엄마가 마중 나와서 차에서 안아 내리자 가만히 안겨드네요. 한 손으로 목을 꼭 껴안고 품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모습을 보면서 동행했던 일행이 다 깜짝 놀랐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생명줄이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대안가정 보라네 엄마가 대구에 교육차 오셨다가 믿음이네 대안가정에 함께 동행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보라네와 믿음이네는 친자가 셋이라는 점이 같고, 매주 함께 합창연습을 하는 사이입니다. 이웃에 살면서 두 가정이 자주 만나기로 해서 마음 든든합니다. 믿음이네와 같은 아파트 옆 동에 사는 가정에서도 대안가정 신청을 하셨는데 믿음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놀러오셨답니다. 그런데 그땡 역시 친자가 셋이라네요. 하지만 막내가 지금 16개월이어서 갓난아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신청은 먼저 했는데 믿음이네 집에 아기가 먼저 와서 많이 섭섭해 하셨답니다. 믿음이네 대안가정 엄마는 믿음이 동생 사랑이도 함께 양육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히셨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 우려에 가까이에 있는 다른 가정을 우선적으로 찾아보기로 했답니다. 믿음이 엄마! 이제 믿음이 엄마로 부를게요. 고맙습니다.

♡♡ 믿음이와의 만남 / 2004. 6. 24 / 대안가정 모

설레임과 두려움의 시간들! 믿음을 만나는 순간 편안함으로 바뀌었어요. 이유는? 잠자는 믿음이의 모습을 본 순간 너무 예뻐서 감사를 드렸답니다. 서류가 끝나고 모두 가신 다음 처음에는 옆에 앉아서 조용히 노는 게 싶더니 이내 아이들의 본연의 모습이 나오더군요. 마주한 시간은 짧지만 믿음이가 음악을 좋아하는 걸 알겠더군요. 노래만 나오면 신나게 춤을 추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져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남자를 좋아하네요. 특히 아이들 아빠의 출현에 더없이 좋아하고 꼭 자기만의 아빠로만 알고 있는 듯... 아무튼 별 낯설음이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녁에 교회에 가서도 처음 만난 어른들과도 익숙한 만남처럼 보내고 왔어요. 밤에 잘 때는 아빠 옆에 꼭 붙어서 자더군요. 막내가 아빠를 빼앗긴 것 같은지 심술을 부리네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일기 끝!!!

♡♡ 사랑이가 믿음이 오빠가 있는 대안가정에... / 2004. 6. 30 / 김명희

대구아동복지센터에서 사랑을 처음 본 순간 너무 가녀리고 작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이는 이제 7개월에 접어드는데도 발육이 많이 느렸습니다. 기저귀를 떼지 못한 아이 둘을 동시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실까 걱정되었는데 오히려 갓난아기를 키우고 싶었다시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사랑을 보살피는 모습에 안도와 감사를 동시에 느꼈답니다. 또 사랑을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는 엄마의

표정에 저도 덩달아 행복한 느낌이었습니다. 사랑을 맞이하려고 일찍 퇴근하신 아빠는 우리가 도착하기 직전에 집을 비우셨답니다. 남자 선생님도 오시느냐고 물으시곤 여자 선생님들뿐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외출하셨다니요. 수줍음이 많은 분인 듯 했습니다. 아빠는 벌써 믿음에게 폭 빠져서 사랑의 포로가 되어버렸다니요. 다음에 만두 만드시는 날 꼭 연락주세요. 그날 찾아보면 아빠도 뵈 수 있겠죠? 내일 초기지원금 송금한 다음에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섯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되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 남매일기 / 2004. 7. 1 / 대안가정 모

사랑이를 처음 본 순간 가슴이 저러온다는 표현이 맞을는지... 아무튼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의 책임이 무거움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기도 잠시 오줌쌌다고 엉덩이를 들썩이는 사랑을 보니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믿음이! 무슨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기가 자기 동생인지는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튼 약간의 경계와 두려움이 있는 듯 보입니다. 사랑이의 첫나들이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이는 저와 나래와 함께 노래연습에 가고, 믿음이는 아빠를 따라 갔습니다. 참고로 믿음이는 아빠를 너무 따릅니다.(쌔이 날 정도로...) 사랑이의 첫 밤은 잘 지냈습니다. 다른 곳을 다녀서 그런지 크게 보채지 않고 잘 잤습니다. 자기 전에 우유를 주니 먹지 않고 잠이 들더군요. 새벽에 일어나서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침까지 계속 자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습니다. 엄마! 엄마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오전에는 청소년상담실에서 운영하는 상담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부족한 것이 많아 배워야 하겠기에... 마침 아이아빠가 쉬는 날이라 믿음이, 나래, 사랑을 집에서 보고 있었어요. 너무 잘 봐서 안심!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 보람된 일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 14일째 / 2004. 7. 6 / 대안가정 모

믿음이 우리집에 온지 오늘이 14일째!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난다. 지난주에 사랑이가 온 후로는 믿음이는 조금씩 변했다. 조금씩 표현과 행동들이 변해가고 있다. 울음을 시작하면 그치지 않는 것과 화가 나면 또는 마음에 안들면 그 자리에서 꼼짝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러도 대답이 없다. 가끔은 사랑이 옆에 앉아서 같이 웃어도 본다. 얼굴도 한번 만져보고, 동생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랑이는 인기 짱!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뻐한다. 만나는 사람들이 자꾸 안아줘서 누워있지 않으려고 한다. 지금은 우유를 먹고 놀고 있다. 우유양도 줄여서 좀 더 자주 먹인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위가 너무 커지기에 먹이는 방법을 바꾸었다. 지금 사랑이는 고개를 돌려서 안아달라고 힘을 주고 있다. 두 아이 다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 나래가 아침에 이런 말을 했다. 사랑이는 예쁘니까 우리가 계속 키우자고...(나래는 지금 6

살) 나래가 보기에 아이들 예쁘기보다. 아직 믿음이는 크게 웃는 것을 보지 못했다. 사랑이의 미소는 모두가 좋아한다. 오늘 일기 끝!

♥♥ 오늘은 일요일! / 2004. 8. 1 / 대안가정 모

꽤 오랜만에 갖는 일요일! 낮잠 자고 일어난 믿음이는 옥수수를 먹고 있고 준영이형은 컴퓨터게임을 하고 다른 아이들은 할머니를 따라 외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글을 올립니다. 사랑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것이 보입니다. 보행기 덕에 다리에 힘도 생기고, 조금 오래 앉아있을 수도 있고, 울음소리 웃음소리도 커졌어요. 그리고 예쁩니다. 크게 보채지 않고 잘 지내니 모두가 좋아합니다. 반대로 믿음이는 고집이 셉니다. 나래와 간혹 싸우기도 하고, 자기가 불리해지면 물기도 하고, 벌써 나래가 여러 번 물리기도... 어제는 교회를 가서 어린이 예배시간에 무언가 노래도 하려하고 손유희도 따라하고 귀여웠습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말을 많이 하는데 좀처럼 알아듣기는 힘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 휴가를 잘 보내고... / 2004. 8. 10 / 대안가정 모

울진 바닷가에서 1박, 현동 텐트촌에서 1박. 바다는 무서웠지만 계곡은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이 물놀이하기에도 딱이고, 믿음이는 바닷가에서는 물을 무서워 하더니 계곡에 와서는 튜브에서 내리지 않더라고요. 사랑이는 처음 나간 나들이에 힘이 들었나 봅니다. 집에서 쉬고 나니 언제 그랬냐고요? 이제 아이들이 하나씩 눈을 뜨네요. 사랑이는 자기를 쳐다보라고 소리를 내고... 아이들 먼저 보고 나중에...

♥♥ 시원한 바람! / 2004. 8. 15 / 대안가정 모

여름의 끝인가요? 날씨가 정말 좋아요. 넘 시원해요. 믿음이는 누워서 빈둥~빈둥~ 사랑이는 우유 한 병 푹푹! 딸랑이를 들고 놀고 있고, FM에서는 클래식이 흐르고, 정말 평안한 시간입니다. 믿음이가 말을 안해서 조금 걱정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엄마' 라고 하고 엄마의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네요. 믿음이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더욱 좋아지겠죠. 사랑이의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하나, 보행기를 타고 뒤로만 간다. 둘, 부르면 옆으로 굴러서 온다. 아직 기는 동작이 부족!

♥♥ 마실 / 2004. 8. 15 / 보라네 대안가정 모

오늘 믿음이네 마실 왔습더! 사랑이랑 믿음이가 잘 지내니 반갑군요! 울 집에 다녀 가신 것 같아 엄청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만나야 하겠죠? 조만간 연락이 갈 것입니다. 만나서 뉘집 아기가 제일인가 겨뤄

봅시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우리 보라 따라올 아기는 없는 것 같다... 모두 예쁘고 귀엽지만 우리 보라에 비하면 멀었죠. 히히히! 하여간 고맙습니다. 안뇽!

무척 오랜만이죠 / 2004. 8. 29 / 대안가정 모

안녕하세요. 무척 오랜만에 글을 올리네요. 집안에 일도 많았고, 조금 바빴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많이 컸습니다. 사랑이는 옆으로 구르기에서 앞으로 기기, 360도 회전, 이젠 자유롭게 다닙니다. 서는 연습도 하면서, 아이스크림도 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무척 예뻐요. 믿음이기도 궁금하죠. 말없이 장난을 치고 아무튼 묵직하면서도 개구진 아이입니다. 옥수수 특히 잘 먹고 두유도 종류대로 소화 시키는 튼튼한 아이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을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텃밭에 가서 고추를 따는데 믿음이는 우리와 다른 색의 고추를 따더라고요. 아무튼 잘 적응하는 아이들을 보니 즐겁습니다.

사랑이의 큰언니입니다 / 2004. 8. 29 / 대안가정 언니

안녕하세요. 사랑이의 큰언니입니다. 요즘 학교나 학원에 갔다오면 어떻게 문소리를 들었는지 믿음이가 달려와 저에게 안깁니다. 그러면 저는 믿음을 안아주고, 사랑이한테 달려갑니다. 그럼, 동생 나래는 저를 때립니다. '왜 나보다 사랑이를 더 먼저 안아주는데!' 라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사랑이를 내려놓고 나래를 안아줍니다. 방금 믿음이가 아빠와 밭에 갔다가 왔습니다. 과자를 들고 왔는데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도 달라고 해야지.^^

드디어! / 2004. 9. 9 / 대안가정 모

드디어 사랑이가 앉았습니다. 혼자서... 옆드린 다음 팔을 짚고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를 뒤로 빼서 앉기! 오늘 몸무게가 8kg이고, 밥과 분유, 두유를 골고루 잘 먹고 있습니다. 자, 사랑이를 알고 계신 모든 분들은 기뻐주세요. 사랑이의 혼자 앉기에 성공한 오늘을 위해 다같이 박수 짹짹!

믿음아! / 2004. 11. 10 / 대안가정 모

'믿음아! 재밌게 놀다가 와' 믿음이의 어린이집 나들이. 오늘이 나흘째. 믿음이는 보통 새벽 5시 40분쯤 일어난다. 새벽밥을 먹고 출근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빠르다. 아이 아빠가 일찍 일어나긴 하지만 거의 매일 믿음이가 먼저 일어나 자기의 위치를 알린다. 여러 가지 소리를 내서 형한테 혼나기도 한다. 시끄럽다고... 준영이 왠 '엄마, 믿음이는 잠도 없어!' 불일을 보고 씻고 밥먹고 하면 8시 30분정도. 오

늘은 응가가 늦어서 어린이집에 늦게 도착했다. 믿음이라도 여느 아이들과 같이 떨어지기를 싫어했다. 울며 발 구르면서도 친구는 좋은지 선생님을 따라 교실로 들어간다. 뒷모습을 쳐다보는 내 마음이 조금은 씩씩하다고 해야 할까...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잘되고 그러면 더 밝은 모습이 되리라 본다. 믿음 아, 화이팅!

생일, 추카 추카추카! / 2004. 11. 13 / 대안가정 모

생일 축하합니다. 믿음, 예지, 사랑 합동 생일!! 사랑이의 생일선물... 꽃바구니, 내복들, 외투 등. 그 중에 한 벌은 믿음이꺼. 나래의 샘내는 눈총을 받으며 이번에도 사랑이 또 사랑이... 손님들 가시고 나서 이들은 콧물감기로 고생하고, 지금은 낮잠을 자기 위해 큰언니하고 방에 누웠다. 아이의 모습에는 거짓이 없다. 단순한 믿음, 순진한 마음, 그 속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우리집의 고집불통 믿음이가 드디어 어린이집에서 한 건 했다. 여자아이와 싸워서 때리고 물리고, 이날은 응가도 바지에 묻고, 하여튼 정신없는 하루였다. 적응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은 걱정이 된다. 아침마다 작은 전쟁을 치른다. 남들이 들으면 큰일난 줄 알 것이다.

우리는 잘 있습니다 / 2004. 12. 22 / 대안가정 모

추운 겨울 잘 지내시나요? 우리 아이들은 잘 있습니다. 사랑이의 보행기 탈출기! 혼자만의 노하우를 터득하였습니다. 몸이 가벼워서인지 날쌔고 항상 바깥입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토하고 설사가 겹쳐서 며칠 고생했습니다. 몸살은 제가 나아 하는데 사랑이가 더 피곤했나 봅니다. 어제까진 죽을 먹고 오늘 아침부터 밥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옆에 누워서 놀고 있습니다. 믿음이는 며칠째 어린이집을 쉬고 집에 있습니다. 콧물도 나고 안되 보여서 데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낮잠을 즐기고 있습니다. 말을 안해도 불편이 없는지 통 말은 안 늘어요. 때가 되면 하겠지만 걱정이네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 2004. 12. 27 / 대안가정 모

보내주신 카드와 선물 감사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카드 한 장 못 보내드려 송구... 아무튼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었을테죠. 새해에도 대안가정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요. 수요일에는 나래의 발표회가 있습니다. 구경 한번 와 보세요. 믿음이는 잠시 어린이집을 쉬고 집에 있습니다. 왜냐고요? 무성의한 선생님들의 태도에 제가 화가 나서 화를 참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집에 있기에 제일 어린 믿음이지만 보내기가 이상하기도 하고, 감기와 장염으로 고생한 사랑이의 응석이 하늘을 찌릅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벌러덩 누워 울기 시작! 우리는 모두 놀라 웃기도 하고... 아무튼 한 가지씩 행동들이 늘어갑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4년도 잘 마무리

리 하시고 건강한 새해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세요 / 2005. 1. 21 / 대안가정 모

오늘은 아침부터 바쁘게 보냈습니다. 얼마 전 믿음이가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에게 물려왔는데 덧나서 피부과에 다녀왔어요. 크게 걱정할 것은 없는데 자꾸 손으로 만져서 흉이 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놀고 있을꺼예요. 울기도 많이 울고, 물러오기도 하지만 물기도 잘 한답니다. 다른 친구 손가락을 물어서 혼나기도 여러 번... 자라면서 있는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아무쪼록 아이가 밝게 자랐으면 합니다. 사랑이는 지금 제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먹는 것을 잘 아는지 너무 많이 먹어 걱정입니다. 응가해서 엉덩이 씻기러 가면 팔이 떨려요. 예전의 그 몸은 다 어디로 가고 두루 멍실해지려고 합니다. 웃을 때나 울 때나 믿음이하고 똑 같아요. 정말 많이 닮았어요. 건강한 새해가 됩시다.

사랑이의 걸음마! / 2005. 1. 31 / 대안가정 모

사랑이의 걸음마! 앞으로 세걸음 뒤로 세걸음. 그러다 중심 잃고 주저앉기. 또 일어서서 반복하기. 엉덩이 아프지도 않고 재미있는지 하루에 수십 차례나 반복합니다. 혹 넘어지면 방바닥을 때리기도 합니다. 넘어진 것을 방바닥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아이가 지금이 가장 예쁜 때인데, 큰 사랑을 못 받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걸음마할 때마다 박수를 보내고 같이 기뻐해야 하는데... 지금은 머리를 바닥에 대고 다리 사이로 얼굴을 보이며 웃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머리를 바닥에 대었는지 이마가 성한 날이 없습니다. 또 목청은 얼마나 큰지 나중에 들어 보세요. 사랑이는 잠시 조용하다 싶으면 벌써 일을 벌려요. 큰오빠 서랍만지기, 화장실 변기통에 손 넣기, 신발장에 서서 신발 만지기, 책장에 책 조사하기(모두 뺀다) 등등. 혼나는 것을 아는지 두 손을 머리에... 사랑이의 노는 모습이 예쁘지요.

봄이 왔어요 / 2005. 3. 16 / 대안가정 모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메아리 들리세요. 하지만 우리집은 겨울이네요. 왜냐구요? 두 아이가 웬 콧물! 날씨가 변덕을 부리니 코가 가만히 안있네요. 다행히 오늘은 조금 나아 보이네요. 아파도 장난은 너무 잘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쑤시고... 며칠 전에는 치과에 갈 일이 있어서 믿음을 데리고 갔는데 제가 치료받는 동안 계속 울었어요. 그것도 대성통곡을 해서 다들 긴장을 했답니다. 아프긴 내가 아픈데 지가 왜 우냐고요. 누나들이 사탕에 풍선에 갖은 방법을 다해서 달래고, 시끄럽긴 했지만 즐거웠어요. 흰 가운을 입은 선생님이 무서웠는지... 하긴 사랑이랑 소아과병원에 가도 믿음이는 울어요. 사랑

이는 너무 씩씩하고... 오늘은 이만!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아쉬움! / 2005. 3. 19 / 대안가정모**

아이들이 가야 한다는 것이 눈앞에 다가오니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믿음이는 그렇게 시켜도 안하던 말을 어제 아침엔 혼자서 하고, 더 친한 척도 하고... 큰딸이 아이들이 가면 또 아이가 오냐고 묻네요. 이왕이면 아기가 왔으면 한다고... 믿음이가 고집이 좀 세고 말을 잘 안 들어서일지도 모르겠네요. 아이들이 친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가서도 지금처럼 잘 웃고 잘 자랐으면 합니다. 믿음이는 이제 어린이집도 재미있어 하는데, 친구랑도 잘 놀고. 선생님들도 많이 아쉬워 할꺼예요. 교회 영아반에 아이가 4명인데 믿음이와 사랑이가 가면 2명밖에 없어요. 믿음이가 노래도 제일 잘하고, 기도할 때 아멘 소리도 제일 커요. 아마 많이 생각날꺼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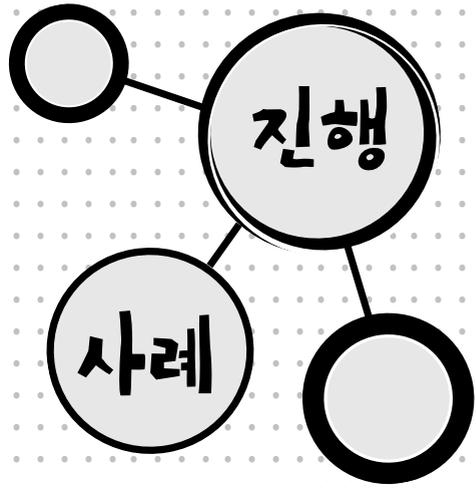
♥️ **믿음이와 사랑이 귀가했습니다 / 2005. 3. 30 / 김명희**

방금 믿음이와 사랑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안겨 떠났습니다.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듯 울지도 않고 잘 잤습니다. 밤에 엄마 찾으며 울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요즘 믿음이가 유난히 엄마에게서 안 떨어지려고 난리였거든요. 대안가정 어머니가 아이 둘을 데리고 혼자 사무실로 오셨을 때가 12시. 오랜만에 보니 살이 쏙 빠지셨는데 흑 애들 키우면서 너무 고생해서 그런 건 아닌지... 그럼에도 한 달쯤 쉬신 후에 다시 갓난쟁이를 양육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보통 가정이라면 좀 더 쉬셔야 한다고 하겠지만, 워낙 아동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이신지라 그러기로 했습니다. 미리 택배로 보내신 옷보따리가 얼마나 많은지 큰 박스로 4박스나 되었습니다. 믿음이는 귀티가 줄줄 나고, 사랑이는 우량아가 다 되었네요.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후 5시가 훨씬 넘어서 오시는 바람에 사무실은 업무가 마비되어 버렸답니다. 애 둘 쫓아다니느라 정민정 상담원 오늘 진이 다 빠졌습니다. 다행히 울거나 크게 보채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가서 데려오려고 했는데, 굳이 마지막 보내는 건 직접 하고 싶다고 하시며 고속버스를 타고 애 둘을 데리고 와주셔서 고맙고 죄송했습니다. 돌아가시는 차안에서 내내 주무셨다며 전화를 주시는데 제 마음이 참... 말이나 통하면 전화통화라도 할텐데, 그러지도 못해 많이 안타까우시죠. 당분간은 아무런 생각 마시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 공부도 시작하셨으니 공부에 몰두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심 없이 자신을 가꾸고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저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좀 지나다보면 적응이 되겠지요. 음악회에서 가족 모두 뵙겠네요. 그때까지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조건 없이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어주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 기분 / 2005. 3. 31 / 대안가정 모

지금 내 기분! 컨디션인가? 너무 이상하다. 배고프다고 보채는 사랑이도 없고,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는 믿음이기도 없다. 한쪽이 텅 빈 느낌!!! 아이들이 보고 싶고 생각나 컴퓨터를 두드려본다. 우리 아이들은 대단하다. 사랑이와 믿음이의 자리를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은 알밋기도 하고, 괜히 속상하고 슬프고 눈물이 난다. 오늘 나래 아빠의 생일이다. 음식을 놓고 또 한 번 울적해졌다. 상위에 아들이 올려놓은 사랑이 숟가락! 오늘은 지나고 보낼걸. 케이크를 보고 좋아하던 믿음이가 떠오른다. 지난번에 케이크 앞에서 노래 부를 때 끝나기도 전에 손가락으로 크림을 찍어 먹던 일... 낮 동안 정신없이 움직이다 저녁이 되니 아이들 생각이 더 간절하다. 지금쯤 잘 자고 있겠지. 보고 싶다. 두 아이의 자리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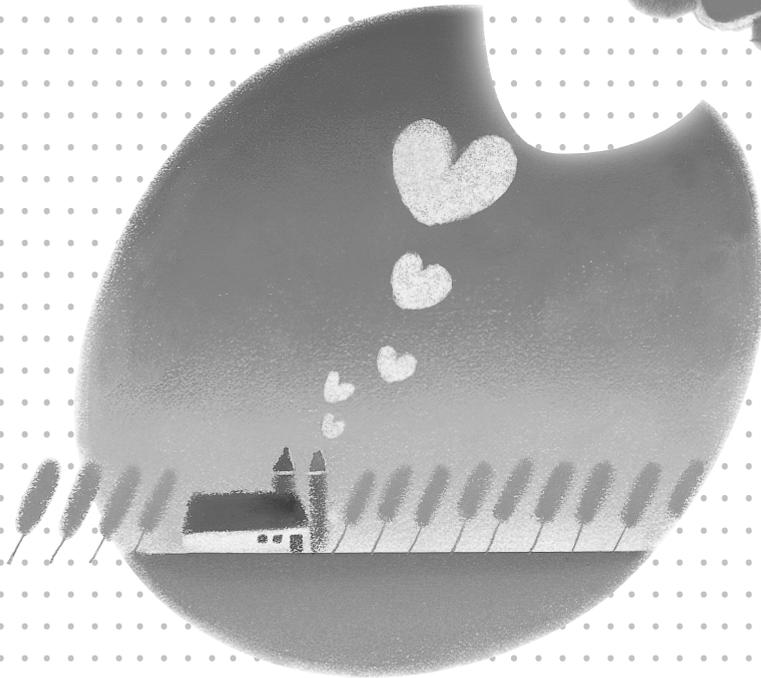
1. 한울이네집
2. 진솔이네집
3. 새날이네집
4. 보라네집
5. 가람이네집
6. 아름이네집
7. 하늘이네집
8. 새봄 · 초롱이네집
9. 으뜸이네집
10. 슬기네집



한울이가 아버지와의 짧은 만남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갈 줄 알았던 한울이가 물더군요. 누나랑 재웠는데 한참 후에 콧물이 나온다면 눈을 비비며 깨었어요. 콧물을 닦아주고 다시 재우는데 그때서야 묻지도 않은 아버지 이야기를 하네요. “아버지가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약해보이는 아버지가 어린 눈에 그렇게 비친 것 같아요.

한울이네집



♡ 개구장이 한울이 / 2003. 7. 8 / 대안가정 부

드디어 한울이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처음 마주한 녀석은 눈이 크고 통통한, 아주 듬직한 아이입니다. 누나가 오자 둘은 멧쩍은 인사를 나누고는 바로 놀이터로 내려가 한참을 놀더니 흙발로 들어왔네요. 이젠 둘이서 풍선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데 웃음소리가 얼마나 크고 우렁찬지... 집안이 시끌벅적 하답니다. 밝고 명랑한 아이라 잘 적응을 하리라 생각되네요. 한울이 아버님께서 아이의 옷가지 등을 메모를 하여 얼마나 정성들여 싸놓으셨는지 콧등이 찡하네요. 저희가 부족함이 많겠지만 그래도 많이 노력하여 잘 돌볼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하시는 일에 매진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한울이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찍 재우고 환영파티는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 한울이를 응원해 주세요.

 **팽이 돌리기 선수입니다 / 2003. 7. 9 / 대안가정 부**

비록 이틀밖에 안됐지만 한울이가 온 후부터 저희 집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은 얼마나 또박또박 유머있게 잘하는지 안 그래도 웃음 많은 집사람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동네 형아랑 팽이 돌리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 하더라고요. 퇴근해서 보니 누나랑 한판 하고 있길래 제가 나섰죠. 근데 이게 웬일! 거의 열판을 했는데 한 번도 이기질 못하고 결국 손들고 말았습니다. 더 웃기는 건 한참 덤벼들 때는 요령을 물어도 안 알려주더니 행복하니까 자상하게 손모양을 잡아주면서까지 알려주면서 한마디, “그래도 이모부는 내한테 안달끼다!” 참, 잠전에 케익에 촛불 켜고 환영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축하했습니다. 한바탕 떠들다가 양치하구 잘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 2003. 7. 10 / 김명희**

안녕하세요? 벌써부터 이집에 심상찮은 조짐이 보이네요. 한울이의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주셔서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며칠 전 한울이를 만났을 때만 해도 별로 말이 없고 관계형성을 안하려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모부님이 쓰신 글을 보면 완전히 딴 아이 같습니다. 참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기다려오셨는데 한울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상을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8월에 저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만들기 열흘의 이야기 / 2003. 7. 17 / 대안가정 모**

반갑습니다. 저는 한울이의 이모입니다. 한울이가 저희 집에 온지 벌써 열흘을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명랑하게 지내지만 거리를 두는 느낌을 받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과 잘 섞이고 있어요. TV를 볼 때는 누나를 침대삼아 올라가서 뒹굴뒹굴 장난도 하고,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허리를 조금만 굽히고 있으면 뛰어와서 업하곤 해요. 또 하나 다행인 것은 혼자 자란 제 딸이 과연 동생과 잘 지낼까 걱정이 많았는데, 동생에게 양보도 잘하고 놀이터도 같이 가고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아직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돼요. 특히 오늘은 극장에 가서 신바드 만화영화를 보고 왔는데 둘이 나란히 앉아 팝콘을 먹으며 종알종알 하면서도 끝까지 보더군요. 나중에 확인하니 저희부부만 결정적인 장면에서 졸았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도 딸이 동화를 읽어주고 간간히 한울이의 목소리도 들리더니 잠들었나 봐요. 이제 열흘밖에 안됐지만 한울이가 좀 더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 우리 한올이는요... / 2003. 7. 25 / 대안가정 모

한올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한올이 칭찬을 많이 하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예의가 바르고 친구관계도 원만하고, 비슷한 또래보다 말 행동 학습능력이 빠른 편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한올이는 책을 참 좋아해요. 잠들기 전 그림책 4~6권 정도 꼭 보고 자거든요. 한올이 나이에 읽을 수 있는 그림책엔 가족의 사랑을 그린 동화가 많은데,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는 한올이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과학동화나 사회성을 키워주는 동화를 주로 읽어주고 있어요. 누나는 어딜 가든 꼭 한올이를 데리고 가려 해요. 학교에서 단체로 1박 2일 야영이 있었는데 집에 말을 안해서 왜 그랬냐고 물으니 “내가 가면 한올이 심심하잖아.” 하면서 야영은 안간답니다. 좀 심하죠?

♥️ 이중 플레이를... / 2003. 7. 28 / 대안가정 부

한올이가 운동을 좋아해서 시간이 되면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에 가서 축구, 배드민턴, 달리기 등을 하는데 운동할 때는 저를 아주 잘 따르고 친한 척 합니다. 그런데 운동 끝나고 돌아올 때나 평소에 어딜 다닐 때에는 내가 손을 잡자고 내밀면 외면을 합니다. 그러구는 멀리에 있는 이모에게로 달려가서 손을 잡고 걷는데... 억지로 손을 잡으면 뿌리치고는 반대쪽으로 가버리죠. 아주 근엄한 얼굴을 하고 왜 내손은 잡지 않느냐고 하면 한 마디로 “내 마음” 하고는 어허허 웃습니다.

♥️ 심리검사 하느라 고생하셨죠? / 2003. 10. 29 / 김명희

한올이 심리검사 때문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리검사가 꼭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아동만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요즘은 자녀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가 함께 검사를 받는 일이 많답니다. 원래 아동상담은 부모상담을 병행해서 하거든요. 지금 현재 한올이를 양육하는 실제적인 양육자가 이모와 이모부기 때문에 같이 검사를 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양육하던 아동의 심리상담을 받을 때 같이 상담을 받았답니다. 주 1회씩 받으러 가던 상담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부담도 되었지요. 일주일쯤 후에 결과가 나오면 한올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 가을산행 / 2003. 10. 30 / 대안가정 모

지난 일요일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온 가족이 가까운 곳으로 떠났지요. 김밥도 싸고, 고구마도 삶아 산으로 올랐지요. 넓은 바위에 앉아 점심을 먹고 디저트로 사과를 먹을 때 어디선가 나타난 벌 때문에 여자들이 겁먹고 난리였는데, 한올이가 나서더니 자기가 벌들을 막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쪼끄만게 그래도 남자라고 얼마나 으시대던지... 이날도 어김없이 한올이가 한 마디를 남겼는데 들어보세

요. 능선에 올랐을 때 가을의 풀냄새가 너무 좋아서 “한올아, 가을 냄새 너무 좋다. 그지?” 했더니 의미도 모르면서 하는 한올이의 대답에 모두가 쓰러졌지요. “이모야, 나는 무슨 냄새는 안나고 콧물만 난다.”



낙살 좋은 아이 / 2003. 11. 10 / 대안가정 부

이제까지 한올이 목욕은 주로 집에서 했는데 어제는 가족이 가까운 온천엘 갔습니다. 이모랑 같이 여탕에 못가는 걸 못내 섭섭해 하는 한올이를 데리고 남탕으로 가서 먼저 옷을 벗기고 잠깐 기다리라고 했는데 돌아보니 아이가 안보여서 얼른 찾아봤더니... 흐뭇해하는 표정으로 탕 안에 떡하니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이한 건 목욕할 때 한올이는 때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그랬지만 온천에서 폭~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어깨와 손, 발 등 그리고 귀 뒷부분에서만 약간 나오더군요. 덕분에 때 밀어주는 사람으로선 엄청 편하죠. 여자들과의 약속시간은 정말 길었습니다. 음료수도 하나씩 마시고 TV도 보다가... 그래도 시간이 덜 되었지만 약속장소인 로비에 내려왔는데 한켠에 건강용품 판매하는 코너가 있더군요. 분식코너에 군것질할게 없나 찾고 있는데 어느새 한올이는 자동 마사지(안마)의자에 앉아서 “어 신기하다. 어 좋다.”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나도 거길 지날 때 앉아 보고 싶었지만 참았는데...) 진작부터 옆 의자에 앉아 있던 주인아저씨가 ‘고놈 참!’ 하는 표정으로 어이없어 하며 웃더군요. 다음 순간 한올이의 시선이 아저씨가 앉아있는 의자로 옮겨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발 마사지기도 달려있었거든요. 아저씨가 일이 생겨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얼른 옆으로 옮겨 앉으며 지가 앉았던 자리를 내게 권하였습니다. 키가 맞지 않아서 엉덩이를 의자 끝에 겨우 걸치고 발을 짝 빼어서 발 마사지에 올리고는 아주 흡족해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모랑 누나가 내려오니까 한 번 해보라구 하면서 자리를 비켜주었지요. 한올이 덕분에 온가족이 시원한 마사지를 받고 왔습니다.



즐거운 성탄과 보람된 한해 마무리를... / 2003. 12. 25 / 대안가정 모

아침에 일어나서 산타할아버지로부터 원하던 선물을 받은 아이들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퍼지네요. 오전에 누나랑 교회에 갔는데 한올이가 울고 왔더군요. 누나 말에 의하면 교회에서 오는 길에 얼음판이 있어서 거기서 놀다가 모르는 형이랑 약간 부딪쳤는데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요즘 들어서 한올이가 눈물이 많아진 거 같아서 걱정이네요. 자신의 주장을 울음으로 해결하려는 느낌이 자주 들어요. 오후엔 선물 받은 블레이드를 이모부랑 누나랑 같이 조립을 하고 셋이서 스타디움에서 게임을 하는데 박진감이 넘치더라고요. 목소리가 커지고 침을 튀겨가면서 노는데 애, 어른이 따로 없더군요. 한올이에겐 바쁜 하루였을 겁니다.

♥ 변 이야기 / 2004. 1. 8 / 대안가정 부

예로부터 변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에 비추어보면 한올이는 완벽한 건강체질 같습니다. 크기는 바나나보다 더 크며 색깔은 그야말로 누런 황금색인데, 텅어리 하나로 깔끔하게 끝내버리죠. 냄새는 아주 은근합니다. 더욱 가상한건 뒷마무리인데 휴지에 묻어 나오는데 없습니다. 이제껏 설사 한번 안하고 거의 하루 한번은 일을 치르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이모 지금 똥 해도 돼요?” 하고 대소 가리지 않고 허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말이 뒷처리를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스스로 닦게 하고 있는데 그날부터 “이모부, 있나 없나 봐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한올이가 일차로 닦고 휴지를 눈앞에 들이밀면 그 다음에 확인을 하는데 양쪽 휴지가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딸아이 키울 때는 병원에서 관장을 시킨 기억도 있어서 한올이의 쾌변을 볼 때마다 제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아무튼 이 글을 읽는 때가 식사시간 전후가 아니길 바랍니다.

♥ 한올이는 못말려!! / 2004. 1. 27 / 대안가정 모

언젠가 글을 올린 적이 있지만 한올이는 아이답지 않은 의외의 말을 해서 주위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이 가끔 있어요. 얼마 전에 쌀을 배달시킨 적이 있었는데 아저씨가 들어서자마자 한올이가 대뜸 “와! 대머리다.” 그러잖아요. 순간 우리 가족은 몸둘바를 몰라 하고 아저씨는 어이없어 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우스워요. 또 한 번은 억지로 우겨서 목욕탕 여탕에 갔는데 어떤 아줌마를 보고 “이모, 저 아줌마 진짜 똥똥하다. 그지요?” 해서 죄송하다 하고 얼른 자리를 옮겼어요. 오늘 저녁식사 때는 밥을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몇 번을 했더니 느즈막이 와서 식탁을 쓰~으 둘러보고는 “자, 미역국이 맛있나 한번 먹어보자.” 하는데 순간 긴장이 되더군요. 이모부도 식사하다 말고 한올이의 다음 말을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눈치구요. “어때?” 했더니 다행히도 “괜찮네” 하더군요. 암튼 요즘 웃음이 많아진 한올이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 집에 가고 싶어요 / 2004. 3. 5 / 대안가정 모

지난밤 한올이가 잠들기 전에 이모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 왜냐구 물었더니, “우리 집에 가면 과자를 혼자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한다. 사실은 오후에 장을 봐오면서 제법 큰 봉지의 과자를 하나 사왔는데 한올이가 먹다가 둔 것을 누나가 허락도 없이 몇 개만 남겨두고 먹어버렸다. 그 일로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그게 잠자리에 들면서까지 맘에 남아 있었나보다. 요즘은 가능하면 과자를 사더라도 하나를 사서 나눠 먹도록 하는데 아직 적응이 잘 안되는 것 같다. 한올이의 말에 이모부가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한올아!” 하고 부르며 과자를 많이 먹으면 안되는 이유와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 차분하게 일러준다. 한울이는 눈이 말뚱말뚱 제법 알아듣는 눈치다. 다행스러운 건 한울이가 딸기, 수박, 귤 등 과일을 아주 잘 먹는다. 과자는 조금씩 먹고 과일은 많이 먹자고 타이르며 잠자리에 든다.

♥♥ 한울이 이모님! / 2004. 4. 7 / 김명희

한울이 아빠랑 통화를 해서 한울이 만나는 날을 정했습니다. 4월 9일(금) 오후에 본부로 내방하시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방문해서 한울이를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다음날 이모님 댁으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울이 아빠가 아직도 많이 힘든 상태에 있는 것 같네요. 연세가 많으셔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가 힘드신 것 같습니다. 9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가면 밥 주실 거죠?

♥♥ 한울이 12일 돌아옵니다 / 2004. 4. 9 / 김명희

조금 전에 한울이가 아빠랑 같이 떠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4월 12일)에 본부로 데려오기로 하셨습니다. 차에서 잠든 한울이는 아빠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려고 한참 칭얼댔습니다. 아빠를 보고도 잠이 덜 깨서 그런지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별 반응이 없었구요. 그런 한울이를 보면서 한울이 아빠는 마음이 아프신 듯 했습니다. 그래도 아빠랑 손잡고 갈 때는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울이가 집을 비우는게 처음이지요. 그것도 나흘간이나... 한울이는 처음 대안가정에 갈 때보다 오히려 더 어려진 것 같아요. 아마 아이디어 온 순진한 표정을 되찾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한울이가 방바닥에 그냥 앉지 않고 꼭 이모나 이모부 무릎을 타고 앉네요. 모처럼 결혼기념일도 있고 하니 두 분이 그동안 애들 때문에 못한 데이트도 하세요.

♥♥ 아빠를 만나고 온 한울이는... / 2004. 4. 11 / 대안가정 모

한울이가 약 10개월 만에 아버지와의 짧은 만남을 마치고 일요일(10일) 오후에 김국장님과 유현이, 혜진이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갈 줄 알았던 한울이가 울더군요. 누나랑 재웠는데 한참 후에 콧물이 나온다면서 눈을 비비며 깨었어요. 콧물을 닦아주고 다시 재우는데 그때서야 묻지도 않은 아버지 이야기를 하네요. “아빠가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약해보이는 아버지가 어린 눈에 그렇게 비친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자도 많이 사주고 차도 많이 탔는데 우리아빠 돈 많이 썼겠죠?” 이제는 아버지 걱정을 하는 모습이라 너무 일찍 철이 드는게 아닌가 싶네요. 한울이가 이모를 잊고 가족의 사랑 속에서 사는 날이 어서 와야 할텐데... 손으로는 계속 눈을 비비길래 왜 그리 냐구 했더니 “눈물이 자꾸 나니까 그렇지” 합니다. 그러고는 전에는 하지 않던 “아빠 보고 싶다. 아빠

보고 싶어” 하면서 훌쩍입니다. 오랫동안 잠 못드는 한울이의 등을 두드려 겨우 재우고 나왔는데 마음이 착잡해서 이모부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별 말없이 뒤척이기만 합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아침에 자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봅니다.

달라진 한울이 / 2004. 4. 14 / 대안가정 모

아버지를 만나고 온 후 이틀정도 한울이는 조금 불안했어요.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와 흡사한 행동 때문에 온 가족이 긴장을 하며 지켜봤지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짧은 방향을 끝내고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아마도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 변한게 있나 확인하고 검증한 절차가 아니었나 싶네요. 오히려 그전보다 더 의젓해지고 자신의 일은 알아서 잘 하는걸 느껴요.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는 아침마다 한바탕 전쟁을 치렀는데 요즘은 일어나자 하면 짜증없이 잘 일어나고, 밥도 잘 먹고, 양치질도 옷 입는 것도 알아서 척척... 특이한 변화가 있다면 6월이 언제냐고 얼마 남았냐고 자주 물어봐요. 아버지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기다리는 눈치예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 한울이를 보면서 많은걸 생각하게 되네요.

이유있는(?) 고집 / 2004. 5. 25 / 대안가정 부

학원에서 돌아온 한울이의 기분이 최상이다. 어린이집에서 시장놀이를 했는데 연필이며, 지우개 그리고 빵과 여러 가지 과자를 사서 왔다. 빵을 먹으며 시장놀이에 대한 뒷얘기를 하느라 파편이 마구 날아온다. 이렇게 잘 놀던 한울이도 기분이 틀어질 때가 있다. 어른들이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다. 예를 들면 외출 후 씻을 때 누나가 욕실에 먼저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 “안씻어!”, 식사시간 물을 달라고 했는데 자기 컵이 너무 멀리 놓여있을 때 “밥 안먹어!”, 양치질을 하는데 칫솔에 물을 적게 발랐을 때 “치가 안해!”, 잠자리에 들어 지가 원하는 만큼 책을 안 읽어줄 때 “잠 안자!”, 다 열거할 순 없지만 너무 기발하고 참신한 핑계에 어이없어 헛웃음 지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제는 한울이의 행동에 따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서 날이 갈수록 버티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한울이의 이유 있는 고집을 말 몇 마디로 타일러 성공했을 때는 희열을 느낀다. 지금의 이러한 한울이의 고집이 성장하면서 소신과 집념으로 변하게 하여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게 도와줘야하는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지 않을까...

헛갈리는 하루 / 2004. 7. 1 / 대안가정 모

요즘 해가 길어져서인지 오후의 한울이 행적을 종잡을 수가 없네요. 미술학원 끝나면 가방도 안벗어 놓고 밖에서 노는 날이 많고 어떤 날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가방만 던지듯 하고는 밖으로 뛰쳐나가

요. 일곱 시쯤 해서 밥 먹자고 부르면 아쉬운 듯 들어와서 얼른 한 그릇 해치우곤 또다시 “놀다 오세요.” 하고는 사라집니다. 어제는 여덟시가 넘어도 안오길래 나가봤더니 친구들과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니며 놀더군요. 그냥 보기엔 별로 재미있는 일도 없는듯한데 마냥 깔깔대며 신이 났더라구요. 다른 애들도 다 집으로 보내고 겨우 데리고 들어와서 씻기지요. 근데 헛갈리는 건 지금부터... 갑자기 “왜 밥 안 먹어?” 하네요. 아까 저녁 먹었잖아. “이제 깜깜해졌으니 밥 먹어야지.” 결국은 하루 네 끼가 됩니다. 열심히 놀고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네요.

왜 여기서 자? / 2004. 9. 10 / 대인가정 모

이건 비밀인데... 옛날, 아주 옛날에 그것도 딱 한번 한울이가 잠자다 말고 쉬가 마려워서 화장실 간다는 게 거실 장식장 옆에다 시원스레 실례한 적이 있었지요. 요즘은 잠도 잘 자구 화장실도 아주 잘 찾아 가지요. 근데 흔석이 가끔씩 쉬가 끝난 후 번지를 잘못 찾아가는 일이 생겨요. 며칠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니 한울이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깨웠더니 화를 막 내는 겁니다. “왜 내가 여기서 자고 있어? 혼자만...” 그리고 요즘 한울이가 가장 즐겨 쓰는 말이 있는데, “이모야, 날 사랑한다면 양말 좀 벗겨줘.”, “날 사랑한다면 밥 좀 남기게 해 줘” 자기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만 써먹지요.

빵과 낚두리 / 2004. 12. 27 / 대인가정 모

해가 바뀌려니 한울이의 마음도 심란한가 보다. 전에 하지 않던 말을 불쑥불쑥 던지는데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다. 한살 많은 누나 둘이서 놀러왔는데, 한때 이모부가 마라톤에 빠졌을 때 받았던 메달들을 보고 이게 뭐냐구 물었다. 한울이의 빵이 시작되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거 우리 아빠가 상 받은 거다. 원래는 30개도 넘었는데 다 버리고 이것만 남겨 놔다” 사실은 4개가 전부인데다 완주만 하면 주는 건데 상으로 둔갑을... 얼마 전에 이모를 엄마라고 한다는 주위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침으로 이모부를 아빠라고 하는 걸 직접 들었다. 집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나보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하고 싶은대로 두는 게 옳지 않을까 싶다. 책읽기는 싫어하는 반면, 수학에는 관심이 많아서 기탄수학 쉬운 걸로 사줬더니 이틀 만에 다하고 다른 걸 사달란다. 좀 전에 합기도 갔다 오더니 특유의 목소리로 “기탄수학 사왔어요?” 아차... 오늘밤 시달리게 생겼다. 대인가정 가족 여러분, 올해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해 맞으시기 바랍니다.

아빠와의 만남 / 2005. 1. 2 / 대인가정 모

지난해 4월이었나 보다. 한울이가 우리 집에 와서 처음으로 아빠를 만난 것이... 아빠를 만나고 와서 심적인 변화가 있어서 한동안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괜찮겠지 기대를 하면서 거의 8개월만인 2004년의

마지막 날 31일 본부 사무실로 한울이를 데려갔다. 약간은 불안해 했지만 아빠를 만난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한울이와 작별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인데다 한울이의 빈자리까지 겹쳐서 딸아이가 집안이 너무 조용하여 이상하다며 침묵을 깬다. 그렇게 짧지만 긴 이별을 끝내고 다음날 국장님과 나타난 한울이! 가족의 우려를 말끔히 씻는 밝은 표정과 변함없는 호탕함에 마음이 놓였다. 지난번 만남과 달리 이번에는 후유증이 전혀 없는 듯 하다. 자신의 상황과 대안가정에 대한 인식을 조금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에 너무 일찍 철이 드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된다. 형편이 된다면 아빠와의 만남도 좀 더 자주 가졌으면 싶다. 지금 일기를 쓰는 중에 한울이가 이모부에게 떼를 쓰고 있다. 눈이 왜 이렇게 안내리냐구... 아빠 만나러 가는 날 세상이 하얗게 눈이 내렸는데, 눈밭에서 누나랑 놀아야 된다는 걸 데리고 가면서 아빠 만나고 오면 눈이 또 올꺼니 그때 놀면 된다고 했는데 맘대로 눈을 내리게 할 수도 없구 이모부가 맘 좀 빼게 생겼다.

별난 애정표현 / 2005. 2. 5 / 대안가정 모

한울이의 애정표현은 남다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초창기에는 누구나처럼 잠들 때 안아주고 배 아프다면 배를 만져주고(거의 피병이었지만) 이모부랑은 뒹굴며 장난치고 그랬는데, 그 다음은 궁둥이 때려 달라는 걸로 바뀌었다. 한번은 누나를 칭찬할 일이 있어서 궁둥이를 툭툭 치면서 “그래 그래 이쁜 딸 착하기도 하지”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 바빠졌다. 양치하고 나서도, 손 씻고 나서도, 숙제하고 나서도 툭하면 달려와서 엉덩이를 뒤로 쭉 내민다. 때려 달라구. 그럼 “에구에구 우리 한울이 잘했어” 하고 툭툭... 생글생글 웃으며 다음 칭찬거리를 찾으러 떠난다.

잘나가는 한울이 / 2005. 2. 6 / 대안가정 모

어제는 합기도 심사가 늦게 끝나서 밤 9시가 다 되어서야 돌아왔다. 7시가 넘으니까 걱정이 되는지 이모부는 바람 쐬다며 도장에도 다녀온 모양이다.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한울이는 안보이고 합기도복을 입은 여고생이 상장과 트로피를 내민다. “한울이는?” 했더니 그때서야 빙긋이 웃으며 누나의 등 뒤에서 나타난다. 체육관에서 빵과 음료수 등을 먹었다는데 그래도 배가 많이 고팠나보다. 평소의 두 배나 되는 밥을 먹으며 밥알 튀기는 무용담이 시작되었다. 어떻게 상장을 받았냐니까, 흰 띠에서는 20여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 혼자만 우수상을 받았다는 등, 심사에서의 술기, 낙법, 발차기 등을 밥 먹다말고 해 보인다. 누나는 1단인데도 상은 한 번도 못 받았는데 한울이는 벌써 두 번째 상을 받았으니 대단하다고 치켜세워주니 더욱 기세가 올라간다. 연말에 받은 시범상은 어린 나이에 열심히 하니깐 관장님이 이쁘게 봐주셨다지만, 어제 받은 승급심사에서의 우수상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대구지역 평무관 소속의 체육관이 다같이 모여서 하는 총관의 심사인데다 한울이의 관장님은 심사위원이 아니었다니 나름대로 소질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사실 상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른 마음

가짐과 인성을 중시하는 합기도를 열심히 함으로써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단련시켜 곧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초등학교 입학하다 / 2005. 3. 4 / 대안가정 모

어제 한울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였다. 입학식을 끝내고 배정된 교실로 들어가서 명찰을 받고 번호도 정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께서 아이들에 대한 간단한 신상파악도 했는데, 한울이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셨다. 바른 자세로 앞을 바라보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있으니까 몇 번이나 “한울이는 참 의젓하네!” 하시며 얼굴도 쓰다듬어 주셨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학교생활의 출발은 아주 무난할 듯하다. 지금껏 어린이집이나 합기도장에서의 경험을 보면 단체생활에 적응을 참 잘하는 것 같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울이에게 말을 걸었다. “한울아, 니네 반에 이쁜 여자 친구도 한 명 있더라?” 했더니 “나도 안다. 제일 뒤에 앉은 애 말하는 거 아이가?” 녀석, 선생님 말씀만 듣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이쁜 애는 다 챙겨봤네. 애타 한울이의 입학을 축하하고 보람된 학교생활을 해나가길 기원한다.

조용한(?) 나날 / 2005. 5. 10 / 대안가정 모

한울이의 걱정거리중 하나인 치아. 송곳니가 말썽을 부려 어제 치과에 가서 조용히(?) 뽑아버렸다. 가까운 치과에 갔는데 의사선생님과 간호사님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한지 한울이는 자기 이가 빠진 줄도 모르고 치과를 나와서야 물어본다. “이모야, 내 이빨이 한개 없어졌다.”, “한울아, 선생님 진짜 좋으시지 응? 하나도 안아프게 이를 뽑아주시고 그지?” 그랬더니 모든 정답은 저만이 알고 있다는 듯 큰 소리로 말한다. “교수님이니까 그렇지!” 교수라는 직함이 어디에 있었나 생각해봤지만 잘 모르겠다. 눈 작은 나는 못 봤는데 눈 큰 지는 봤나보다. 그래, 장하다!

감기가 한바탕 지나가고.. / 2005. 5. 27 / 대안가정 모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거의 감기를 안하던 한울이가 열흘쯤 전부터 잠자리에서 기침을 하더니, 급기야 열나고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들렀다가 학교에 가기도 하였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회복되었는데, 이번에는 주경이가 감기에 걸려서 학교도 하루 빼먹는 등 한동안 두 아이가 힘든 요즘이었다. 아침마다 힘들게 하는 한울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할 모양이다. 깨워놓으면 똥굴똥굴~ 밥먹자, 양치하자, 세수하자 해도 들은 척도 않고 그렇게 두어 달 버티더니 그래도 이모에게 미안한지 헛수가 줄어든다. 누나랑 같이 학교가려고 서두르는 뒷모습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그리고 집에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내려 보고 있으면 미소가 절로 나온다. 한울이가 세상구경 다하며 느릿느릿 걸음보를 하면 누나가 한울이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그래도 아랑곳 않고 이리저리 살피며 늦장

이다. 무슨 일이던 누나에게 지는 일도 없다. 티격태격 들어서 얼마나 다투는지... 누나가 누나답지 않는 욕심을 낸다든지, 당연히 알아야 할걸 모를 때는 호되게 나무란다. “누나야는 6학년인데 그것도 모르면 2학년 밖에 안된다!” 오늘은 학교에서 상을 하나 받아왔다. 교내 컴퓨터 검정대회 은상인데 이제 부터 슬슬 상이 늘어날려나 보다. 며칠 후엔 현재 다니고 있는 미술학원에서 참가하는 그림대회가 있는데 가지고 있는 실력을 잘 나타냈으면 한다.

안경과 인라인스케이트 / 2005. 6. 6 / 대안가정 모

지난주 토요일, 누나 시력검사 때 한울이도 한번 해보라며 검사를 했는데 이런... 오른쪽은 정상인데 왼쪽이 너무 안 좋다고 한다. 이번 주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왼쪽이 약시여서 안경을 끼고 한 달 가량 지켜봐서 회복이 안되면 눈막음 테이프를 붙여서 두 달 정도를 고생해야 된다고 한다. 컴퓨터 게임도 하루에 한 시간으로 정해놓고 철저히 지키게 했는데 그것도 너무 많은 게 아니었는지 아무튼 걱정이야.

정답찾기 / 2005. 6. 24 / 대안가정 모

아침에 학교 등교가 적응이 되어 가는지 일어나고 밥 먹고 양치질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이 잘 안 풀린다. 간밤에 확인했을 때 없었던 숙제랑 준비물이 꼭 학교가기 전에 등장하는 것이다.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서 울고불고 한바탕 난리가 나는데, 다시 한 번 알림장을 확인해보면 기록이 없거나 여유가 있는 것인데도 한번 부린 고집은 접어 넣기가 힘들어 보인다. 누나가 더 이상 못 기다린다고 현관을 나서면 가방도 안메고 같이 가자며 맨발로 뛰어나가는데 신발 들고 따라가서 신기고 엘리베이터에 태운다. 하교 후 다른 친구들 준비물 다 가져왔냐구 물어보면 배시시 웃으며 “네” 한다. 암튼 녀석의 능청은 끝내준다. 그리고 요즘 한 가지 더 늘어난 고민거리. 안경!! 안경 때문에 이모부의 잔소리가 엄청 늘었다. 아침에 난리를 피다보면 집에 안경이 남아있기가 일쑤다. 결국 며칠 전에 이모부가 현관 문에다 커다랗게 ‘안경’ 하고 붙여놓았다. 꾸준히 착용을 해야 시력이 회복된다고 했는데 보는 데는 큰 불편이 없고 끼는 게 불편하니 잊은체 하며 그냥 가는 눈치다. 날씨도 덥고 적응이 잘 안되어서 틈나면 벗으려 하고 이모부는 따라다니며 잔소리다. 안경 때문에 생겨난 잔소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벌써 2년이란 시간이... / 2005. 7. 11 / 대안가정 모

요즘 이런저런 일로 정신없이 살다보니 어느덧 한울이와 한 가족이 된지도 2년이란 세월이 지나갔네요. 하루가 늦긴 했지만 어제 오후에 애들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 준비해서 지났을 날들을 돌아보고 또 한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 초기에 서로를 몰라서 서툴렀던 적응기간과 치아 치료로 힘들어했던 시절, 그리고 어린이집 생활과 합기도를 배우면서 자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 이제 당당한 초

등학생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기만 하네요. 그러나 아직도 숙제는 많이 남아있지요.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 너무 착한 모범생이라는데 집에만 오면 아니니. 그래서 지금은 교육을 거꾸로 시키고 있어요. 학교가면 친구들과 장난도 많이 치라구 하고 시간날 때마다 놀이터에 나가서 놀라고 하는데 잘 안되네요. 우리 가족이 한울이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 아닌지,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건 아닌지, 앞으로는 한울이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끔은 가져야겠네요.

웃지 못할 우스운 이야기 둘 / 2005. 7. 12 / 대안가정 모

하나! 가족 신문을 만들어 오라는 숙제가 있었다. 이모부가 자료를 뒤져 샘플을 가져와서 같이 만들기 시작했다. 샘플엔 여럿의 작은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모저모]가 있었다. 그걸 본 한울이가 진지한 분위기를 일순간 바꿔버렸다. “난 이모라고 안할래. 엄마라고 할래.” 다들 무슨 뜻인가 하고 있는데 한울이가 제법 늘은 타자솜씨로 [이모저모]를 [엄마저모]로 바꾸어 적었다. 한동안 신문 만드는 일을 멈추어야 했다.

둘! 어젯밤 한울이가 푼 학습지를 누나가 배를 잡으며 들고 다녔다.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오랜만에 찾아가서 인사를 할 때 무슨 말을 하면 좋은가요?’ 이다. 근데 1학년에게는 정말 어려운(?) 주관식 문제였다. 그래서 한울이가 약간 틀리게 적었는데 누나는 그게 재미있었나보다. 한울이가 적은 답은, ‘잘 있었니?’ 였다.

개학 전날 풍경 / 2005. 8. 28 / 대안가정 모

너무도 짧은(애들에게) 방학이 딱 하루 남은 오늘은 아침부터 바빴다. 학습문제집, 식물관찰 일기, 쓱 쓱이학습지 등 조금씩 남은 숙제가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끝났는데 에피소드도 많다. 문제지를 풀 때 자기의 생각과 틀린 게 정답일 때는 엄청 우겨댄다. 가령, ‘체험학습을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가 문제인데, 보기에는 <가야할 곳, 지도, 음료수와 과자, 필기도구> 이렇게 있는데, 씩씩하게 음료수와 과자를 적었길래 그렇지 않다고 한참동안 설명을 했다. 공방전 끝에 그래도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마디를 한다. “그럼, 난 체험학습 안갈래.” 저녁식사 시간에는 TV를 봐야한다며 거실에 저녁을 차렸다. 이모부가 양반다리를 하고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한울이가 얼른 이모부 한쪽 무릎에 걸터앉았다. 이모부가 “한울아, 무릎 아파. 얼른 니 자리에 앉아서 밥 먹어.” 하니깐 조금도 망설임없이 대꾸한다. “남자가 이 정도도 못 참아요? 약간 아픈 건 참을 수 있어야 되요.” 한다. 평소보다 일찍 재웠는데, 내일 아침에 제시간에 일어날런지...

♡ 가을 운동회 / 2005. 9. 15 / 대안가정 모

아침에 일어나서 올려다본 하늘은 맑고 높아서 가을운동회 하기엔 그만인 날씨였다. 역시나 두 아이 모두 높은 하늘만큼 기분도 up 되어 학교에 갔다. 이런저런 의식과 단체놀이를 하고서 바로 1학년 달리기로 들어갔는데, 한울이는 1학년 1반에서도 첫 모듬에 뛰어서 카메라 꺼낼 틈도 없이 결승점을 통과해 버렸다. 놀랍게도 한울이가 가장 앞서 달려서 일등인줄 알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결승점을 불과 얼마 안남기고 뒤를 돌아본다. 어머, 재가 왜 저래 하는 순간 다른 친구가 먼저 들어가 버린다. 상품으로 노트를 받아온 한울이에게 “끝까지 열심히 뛰지 그랬어.” 해도 마냥 싱글벙글 즐겁기만 하다. 그래도 2등이 어딘가? 누나는 달리기를 아주 조금 못하는데 오늘도 뒤에 한 명 있었는지 아무도 없었는지 그렇다. 운동회의 재미는 역시 점심시간. 네 가족이 모여서 애들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해 먹었는데, 첫 운동회인 한울이에겐 기억에 남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다.

♡ 변해가는 아이 / 2005. 12. 10 / 대안가정 모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세월 참 빠르다는걸 실감하듯이 한울이도 점점 자라고 있다. 작은 일에도 신경질을 부리고 고집이 세던 아이라 생각했는데 요즘은 한 번씩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로 변해감을 확인할 수 있다. 바르지 않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눈에 띈다. 그래서 집안엔 한울이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학교 공부엔 아직 재미를 못붙이는 것 같은데 다행히 책읽기에 조금씩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한번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혼자서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던 적도 있고 보던 책을 졸음 때문에 다 못 보면 표시를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2주전부터 애들이 감기에 걸려서 누나는 아직도 기침을 하고 있고 한울이는 하룻동안 학교, 학원 다 못갈 정도로 기운을 잃었는데 바로 회복을 하여 며칠만에 완쾌가 되었다. 아마도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덕분이 아닌가 한다. 아이가 너무 일찍 철이 드는 것도 바라지 않고 밝게 바르게 그리고 튼튼하게 자라주었으면 한다. 요즘의 한울이를 보고 있으면 올 한 해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진솔이 누구랑 결혼 할거야? 엄마랑 할거야?”

“아니. 엄마는 아빠랑 결혼 해야지.”

“엄마는 진솔이랑 결혼하고 싶는데, 진솔이는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어?”

“영민이 형아하고!”

야! 이놈아. 엄마랑 결혼 안한다고 하더니

그래 영민이 형아랑 하나?

진솔이네집



♡ 진솔이네 집입니다! / 2003. 9. 15 / 김명희

드디어 진솔이가 대안가정을 찾았네요. 근 한 달 동안 상담을 진행하면서 어렵게 대안가정을 찾았
답니다. 진솔이가 아빠와 헤어지는 것은 안된 일이지만, 좋은 대안가정을 찾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
럽고 복된 일입니다. 진솔이를 맞이하는 대안가정은 가정위탁의 경험이 많고 친자녀가 이미 장성한
안정된 가정입니다. 진솔이네집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대안가정 어머니! 이제 진솔이
엄마로 불리시겠네요. 그동안 많은 아동들을 위탁양육하시면서 참으로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어리
디 어린 진솔이를 맡아주셔서 감사한 한편 죄송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뵙지 못했는데 내일이면 반
가운 얼굴을 뵙게 되어 너무 기쁘답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가 발족할 때도 큰 힘이 되어주셨고, 때

마다 큰 위로와 지지를 보내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있지만 마음은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부디 건강 상하시지 말고, 즐겁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뵈겠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 2003. 9. 17 / 김명희

오랫동안 목소리로만 안부를 전하다가 뵈게 되어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택으로 가는 차안에서 진솔이가 참 많이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대안가정 엄마를 보고는 대변에 착 달라붙어 버리네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친부모와 떨어져서 대안가정으로 이동하는 동안 대부분의 아이들이 많이 울면서 힘들어 하는데 막상 대안가정에 들어가서 가족을 만나면 한눈에 알아버리는 것 같아요. 누가 자기의 생명줄인지를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것 같아요. 진솔이 업고 나서니까 새댁 같으시던데 너무 고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한동안 찾아뵈기는 힘들듯 하지만 목소리로나마 자주 소식 전하겠습니다.

진솔이가 드디어 우리집에 오다 / 2003. 9. 17 / 대안가정 모

어제 진솔이가 드디어 우리 집에 왔다. 얼굴이 하얗고 예쁘게 생겼다. 가짜 젓꼭지를 꼭 물고 얄전한 모습으로 품에 안겨 있기를 좋아했다. 얼마나 낯설고 불안하겠니? 배가 고플 것 같아 분유를 타줘도 안 먹겠다 하고 이것저것 잘 먹으려 하지 않는다. 아빠도 일찍 들어오시고 누나도 일찍 들어와서 진솔이 관심을 끌어 보려 하지만 아직은 엄마가 그래도 낮이 익어서 엄마와만 붙어 있으려고 한다. 밤에 대여섯 번 깨어 우는 소리를 냈으나 토닥거리주니 금새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도 미동도 않고 누워 있어서 안아다가 내 베개 위에 함께 눕히고 뽀뽀도 해주고 배꼽도 간지럽혔다. 아침밥을 많이 먹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싱크대 문을 하나하나 열어보다가... 엄마가 화장실 가서 안 보인다고 울기 시작해 한참을 울더니 엄마 품에서 잠이 들었다. 오늘은 영민이 형이 오는 날이다. 다섯 살짜리 형인데 2년간 함께 살다가 친부모집에 갔다가 다시 오게 됐다. 형아가 오면 형아랑 재미있게 지내기 바란다.

바쁘다 바빠 / 2003. 9. 19 / 대안가정 모

진솔이가 오고 곧 이어 종민이가 와서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진솔이는 오늘 4일째인데 많이 적응이 되어 이제 누나와도 친해지고 아빠에게도 잘 간다. 잠이 오거나 저녁때가 되면, 저녁밥을 지을 때 설거지 할 때 안아 달라고 울어댄다. 다른 식구가 있어도 다 소용없고 그냥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놓질 않는다.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현관문을 몰래 열고 나가면 멀리 있다가도 어떻게 문소리를 알아듣고는 문 앞에서 울어댄다. 오늘은 우리 집에 오고 처음 멀리 외출을 했다. 차를 타고 교회에 가서 두어 시간 있다 왔는데 교회에서도 어찌나 얄전하게 있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내가 키워본 아이들 중에

가장 얌전하고 순한 아이인 것 같다. 종민이처럼 극성인 아이를 키우다가 이런 순한 아이를 맞으니 하나 님이 이번엔 조금 수월하게 키우라고 보내신 것 같아 감사하다. 종민이도 막내라 아직 동생이 없이 자라서 동생 잘 챙기고 돌보고 그러지는 못한다. 예쁘다고 장난감도 가져다주다가도 수틀리면 떠밀기도 하고 소리도 버럭 지르기도 한다. 진솔이는 장난감을 안뺏기려 안간힘을 쓰며 울곤 하지만 형아한테 지가 뺏기고 말지... 그래도 진솔아... 뺏아가는 형 밑에서 크는 네가 행복한거야. 시달려가며 커가는 게 네게 도움이 된단다. 알지?

웃기는 놈들 / 2003. 9. 21 / 대안가정 모

이제 진솔이가 우리 가족 모두와 익숙해져 가고 있다. 저녁이나 졸리는 시간이 아니면 아빠하고도 누나하고도 잘 논다. 토요일에 아빠가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엘 갔다 왔는데 맛이 들었는지 툭하면 현관 앞에서 신발 가리키며 나가자고 울어댄다. 종민이가 귀찮게 굴기도 해서 울기도 하지만 영민이 쫓아다니며 형아 하는데로 따라한다. 엉덩이를 흔들면 저도 엉덩이 흔들고, 헛바닥 내밀면 저도 같이 하고, 진솔이 웃긴다. 눈이 나빠져서 신문이나 책을 읽으려면 안경을 쓰는데 엄마가 안경만 썼다 하면 기질을 하듯 울어댄다. 그래서 식구들 모두가 번갈아 안경을 써 보았더니 다른 식구가 쓰면 해썬대며 웃어 대는데 다시 내가 썼더니 벌에 쏘인 듯 울어대는 게 아닌가?? 웃겨서... 어제인가, 아이들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종민이가 같이 탄 아줌마에게 “우리 얘기 생겼어요. 그런데요 얘기가 맨날 맨날 울어요. 안경 쓰면 더 울어요.” 묻지도 않는 말을 쏟아놓는 아이 말에 어른들 모두 만면에 웃음...

진솔아~ 왜 그렇게 우니? / 2003. 9. 25 / 대안가정 모

진솔이는 정말 울보다. 영민이는 너무 나대고 어디로 튈지 몰라 늘 노심초사 했는데 우리 진솔이는 엄마와 붙어서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안다. 밤에는 어찌 그리도 자주 깨서 큰소리로 울어대는지 하룻밤에 대 여섯 번은 보통이다. 이제 온지도 열흘이 되었다. 하루 이틀은 불안해서 그러겠지 했는데 아직 까지도 그렇다. 어제는 아이 둘을 데리고 카시트 위에 진솔이를 앉히고 운전을 했는데 불에 덴 듯 울어대서 이삼 분 운전하고 결국 포기했다. 친구를 만나 그 친구가 운전을 하고 나는 진솔이 안고 가야했다. 하루 종일 엄마와 붙어 있으면 얌전한데 어떻게 그럴 수만 있겠니?

하루가 왜 이리 길기만 한지... / 2003. 9. 27 / 대안가정 모

오늘은 토요일. 영민이 놀이방에 안가는 날이라 아침부터 두 놈들하고 하루 종일 전쟁 중... 영민이는 수틀리면 엄마는 얘기만 사랑한다고 빠진다. 얘기보다 저한테 얼마나 더 신경을 쓰는지, 진솔이가 자기 불럭 만든 것 망가트려 놔다고 울고 소리 지르고... 하루 종일 두 놈들 보고 있자니 너무 진이 빠진다.

진솔이는 저녁만 되면 붙어 있으려고 해서 밥하기도 어렵다. 내가 싱크대에서 일을 하면 내 발 밑에 드러누워서 울어재긴다. 아직도 진솔이는 밤에 몇 번씩이나 깨서 울어대서 엄마 너무 힘들다. 요즘 우리 남편이 될 수 있으면 일찍 들어와서 데리고 놀이터도 가고 아파트 앞마당에서 영민이 킥보드 타는 것, 자전거 타는 것 지켜보고 있다. 그런 남편이 참 고맙다. 진솔이 울어대지, 영민이 극성맞지 내가 자만했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한 아이만 잘 키울 걸 하는 생각... 우리 남편 왈, 조금 있으면 다 좋아 진단다. 그래, 아직은 모두 모두 적응 기간 중, 나도 영민이도 진솔이도. '진솔아! 아빠도 누나도 다 좋아. 엄마만 그렇게 좋니? 그렇게 딱 붙어야만 안심이 되니? 이눔아...'

보고 싶은 진솔이... / 2003. 9. 29 / 친부

이렇게 글을 올려도 되는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곳에 들러 사진도 보고 글 남겨주신 것도 보는 낙으로 지냅니다. 정신없이 힘들고 바쁘실텐데 자주 글을 남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직도 밤에 몇 번씩 깨서 운다... 집에선 저녁 8시에 잠들면 아침까지 한번 안깨고 잘 잤는데 아직도 그렇다니 죄송하기도 하고 걱정입니다. 모쪼록 진솔이가 잠도 잘 자고 빨리 적응해서 큰어머니 힘들게 하지 않아야 할텐데 많이도 불안했는지... 곧 나아질 거예요! 그때까지만 좀 더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감히 이런 말씀드리네요. 제가 해야 할 일인데 큰어머님이 대신 고생하시며 우리 진솔이를 돌봐주시니 저도 힘내서 군복무 열심히 하며 매일 이곳에 들러 진솔이 소식 읽으며 힘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하구요.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그곳 식구들 항상 건강하시고 자주 들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진솔아! 보고 싶다~

진솔 아빠 반가워요 / 2003. 9. 30 / 대안가정 모

진솔 아빠! 진솔이 만큼 힘드시리라 생각돼요. 진솔이가 저희 가정에 온지 2주가 되었어요. 아이는 아주 순한 아이예요. 저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어서 그렇지, 어제부터 별로 울지도 않고 아주 잘 놀고 있어요. 밤에도 한 번 깨서 엄마가 있나 확인을 하는지 한 번 소리 내어 울어보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어 가는지 별 재롱을 다 하는군요. 나무나 식물도 모종을 하면 한동안 시들어 있다가 다시 일어서잖아요. 2주 동안 진솔이가 마음고생을 했답니다. 이제 다시 일어서는 것 같아요. 진솔 아빠도 힘내시고 진솔이 잘 키울게요. 안심 하시구요. 시간 나는대로 진솔이 얘기 올릴게요.

어떤 일로 일찍들 자나? / 2003. 10. 7 / 대안가정 모

오늘은 어떤 일로 영민이가 일찍 잠이 들었다. 진솔이는 보통 9시쯤 자고 영민이는 11시나 되어야 잠이 드는데 오늘은 두 놈 다 일찍 잠이 들어 인터넷에서 듣고 싶은 강의 하나를 들었다. 진솔이가 요즘은 아주

까분다. 깔깔대고 웃고 제 맘에 안들면 마구 떼를 쓰고 형아를 엄마가 안고 있으면 샘을 내고 형아 밀쳐내고 발을 형아와 엄마 사이에 비집어 넣고 들어온다. 이제 아주 보통의 정상적인 아이가 하는 짓을 한다. 맨 처음 와서 너무 얌전해서 그게 사실은 걱정이 되었었는데 극성맞은 형아를 닮아 가세인지 점점 형아처럼 되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와 친한 친구의 농담 섞인 말... “너네 집에 오는 아이들 처음엔 얌전하다가도 나중엔 모두 다 한 성질들 하는데 왜 그러냐? 엄마 닮아서 그러는거야.” 그렇지만 너무 얌전하게 눈치 보고 사는 것 보다 나는 백배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 엄마가 시원찮아서 그렇다 왜!!

놀이방에 갔다 왔어요 / 2003. 10. 13 / 대안가정 모

우리 영민이는 집 앞에 있는 놀이방에 보낸다. 아침마다 영민이 놀이방 갈 때, 또 데려올 때 봐줄 사람이 없어 진솔이를 데리고 간다. 이제 우리집에 적응이 되어 잘 놀고, 또 나도 오전에라도 자유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영민이 데려 올 때 잠깐 들러서 진솔이와 30분 놀다가도 오고 또 20~30분씩 노는 사이 몰래 옆을 비워도 보고 며칠 연습을 했다. 처음엔 안 떨어지려 해도 조금 있으면 장난감이며 볼풀에 관심을 보여 놀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 이틀째 오전에 진솔이 놀이방에 떼어놓고 왔다. 혹시 많이 울면 다시 데려 가겠다고... 헤어질 때만 좀 울고는 이내 잘 논단다. 정말 이제 적응이 다 된 것 같다. 고맙다 진솔아.

보고 싶던 얼굴... 감사합니다 / 2003. 10. 21 / 친부

처음 진솔이 보내기 전날 미용실 가서 머리를 이쁘게 깎았는데 지금 보니 많이 자랐네요. 사진으로 보니 진솔이 많이 컸어요. 고맙습니다. 사진 자주 올려주셔서요. 진솔이 여전히 잘 먹고 잘 노는지요? 이제 밤에 깨서 우는 건 어때요? 아직도 큰어머님을 힘들게 하나요? 늘 걱정입니다. 두 아이 돌보시느라 큰어머니께서 늘 힘에 부치시겠어요. 사내아이들만 둘이라... 건강 조심하시구여. 매일 들르고 있습니다. 그럼 또 찾아뵙게요~

그래도 형아가 좋아~ / 2003. 10. 28 / 대안가정 모

영민이와 진솔이가 만나서 싸우며 지지며 산지도 한 달이 넘었다. 영민이는 22개월에 와서 2년을 지나다가 5~6개월 친부모와 함께 살다가 다시 왔다. 부모가 치킨가게를 하는데 늦게까지 아이를 데리고 장사를 해야 하고 밤이면 맥주 손님도 있어 아이가 있을 환경이 못 되어 다시 우리 집으로 왔다. 자기 부모에게 돌아가서 두 달을 울었다. 우리집에 가겠다고... 나도 두어 달 아이 땀에 울었다. 지금은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 큰엄마 큰아빠의 관계로 다시 전환되어 우리 진솔이와 함께 산다. 영민이는 정말

내 자식 같은 정을 느끼며 살았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어서 처음 왔을 때 발목이 땡겨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다녀야 하고 뒤로 넘어가는 성질을 받아가며 살았다. 오줌을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싸대고, 아무데나 자빠져서 울고, 그렇게 힘들게 키웠는데 지금은 정말 양반 되었다. 그래도 지금도 성질이 보통이 아니다. 진솔이와 살면서 엄마를 빼앗긴 것 같아 얼마나 샘을 내고 진솔이를 못살게 굴었는지 그래서 후회도 했었다. 두 아이에게 서로 안 좋은 것 같아서... ‘한 아이만 잘 키울 걸’ 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영민이도 진솔이가 한편 밉기도 하지만 자기만 졸졸 따라 하는 진솔이가 예쁘기도 하다. 며칠 전, 교회에 데리고 갔는데 진솔이 장난감을 어떤 아이가 뺏으니까 영민이가 ‘왜 우리 동생 장난감 빼아가는 거야’ 하면서 뺏어다 다시 가져다 줬다. 아이구, 기특해라. 우리 진솔이는 놀이방에서 나올 때 형아 빨리 나오라고 손짓을 하고 형아한테 가서 나오라고 뭐라 뭐라 한다. 처음보다 둘이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우리 남편 말대로 점점 좋아져 가고 있다. 영민아 진솔아, 싸우면서 크는 거란다. 많이 싸운 형제가 나중에는 더 친하더라. 그래도 형아가 조금만 더 양보하자. (알아들으면 좀 좋아?)

옆친데 덤쳤네~ / 2003. 12. 3 / 대안가정 모

진솔이 감기가 얼추 나았다. 그래도 밤에 서너 번 소리 질러 울기 때문에 아직 젓꼭지를 떼지 못하고 있는데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빠서 설치다가 저녁에 아이를 재우러 들어갔는데 젓꼭지가 보이지를 않는다. 아이는 계속 울고 일찍 퇴근한 남편이 온 집안을 뒤지고 다니며 찾아다니는데도 이놈의 젓꼭지가 없는거다. ‘아 이게 어딜 갔지?’ 쓰레기통까지 뒤져봐도 안 보인다. 오늘밤은 다 잤다. 남편에게 오늘은 탄 방 가서 자라고 하고, 어차피 뻔 거 이번 기회에 떼어버리자 생각하고 진솔이 거의 한 시간은 울었다. 얼르다가 안았다가 엉덩이도 한차례 맞았다가 어찌어찌해서 잠이 들었다. 밤 12시에 깨서 또 울기 시작해서 또 한 시간은 울었나보다. 이삼일 고생하면 떨어지겠지. 오래도록 빨면 이빨 모양도 좋지 않다는데 저랑 나랑 둘 다 컨디션이 좋을 때 떼려고 하니... 오늘은 하루 종일 집안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젓꼭지 나오면 어떡하지. 밤에 떼쓰면 물리면 편하긴 한데... 에라... 떼자... 떼...

남편 자랑 / 2003. 12. 15 / 대안가정 모

우리집 일요일은 좀 바쁜 편이다. 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맡고 있어 아침 일찍 집을 나서야 한다. 아침 여덟시에 집을 떠나며 남편에게 집안 좀 치워놓고 예배에 오라고 얘기해 놓고 떠났는데 집에 돌아오니 집안이 흰해졌다. 온 집안을 청소를 해 놓아서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남편 자랑은 팔불출이라던데...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는 남편이 너무 감사하다. 울 진솔이 전도사님 아들내미 두 돌이 된 아이보다 더 크고 얼굴도 크니 사모님이 자기 아이더러 ‘저기 형아 있네’ 해서 얼마나 웃었는지... 우리 진솔이는 또래보다 키가 엄청 크답니다. 밥도 잘 먹고 균것질도 잘하고 뭐든 잘 먹어서 퐁도 하루에 세네 번 싹답니다. 한 번에 다 해 치우면 좀 좋아?

 사랑하는 마음 / 2003. 12. 16 / 대안가정 모

참 감사하다. 온 가족이 진솔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좀 힘들어도 참을 수 있게 된다. 몇 명의 아이들을 키워 오면서,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한데도 말처럼 잘 안되는 아이도 있었다. 그러면 참 힘들다. 육체적인 수고도 수고지만 그 아이에게 충분히 사랑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 힘들게 한다. 진솔이 온지 벌써 석달이 되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더 사랑이 가기도 하지만 온 식구들이 진솔이를 사랑한다. 엄마는 맨날 진솔이랑 뽀뽀하고 싶어서 자는 얼굴에도 뽀뽀하고, 누나도 어찌나 진솔이를 이뻐하는지... 요즘 얼마나 진솔이가 아빠를 찾아대는지 아빠를 수도 없이 불러댄다. 그런 진솔이를 아빠도 너무 예뻐하신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진솔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요 / 2003. 12. 20 / 친부

안녕하셨어요? 날씨가 이젠 정말 겨울 날씨 같죠. 아이들 감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늘 이곳에 들려서 진솔이 소식 듣고 있습니다. 이젠 말도 조금씩 하나 봅니다. 많이 개구쟁이가 되어버려서 말두 이젠 잘 안 듣죠? 크리스마스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선물은 제가 챙겨야 하는데 큰어머니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진솔인 아직 산타할아버지를 모르겠지요? 이젠 모든 식구들을 다 잘 따르고 한다니 진솔이 귀여움 많이 받았네요.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 또 조심하십시오. 그럼 또 들릴게요.

 진솔이의 반격 / 2003. 12. 21 / 대안가정 모

진솔이가 하루가 다르게 약아지고 있다. 처음 올 때의 순하기만 한 아이가 아니다. 형아가 요즘은 예전보다 진솔이를 많이 봐주고 진솔이도 형아가 너무 좋지만 그래도 아직 진솔이가 일방적으로 당한다. 그렇지만 요즘 진솔이가 달라져 가고 있다. 형아가 자기 걸 뺏는다든가 자기를 때린다든가 하면 소리를 버럭 지르고 형아한테 대든다. 이러다가 진솔이 너무 약아져서 누구한테도 안지는 거 아냐? 혼자 크는 아이는 늦도록 사회성이 좀 뒤지거나 아이들과의 관계가 어리숙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진솔이는 안 그럴 것 같다. 강력한 경쟁자가 24시간 붙어 있으니, 그리고 또 놀이방에서 많은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어디서 읽은 얘긴데 위대한 인물이나 큰 리더쉽을 가진 사람은 첫째 보다 둘째, 셋째 아이에게서 나온단다. 우리 진솔이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 눈 흘기는 진솔이 / 2003. 12. 31 / 대안가정 모

요 며칠 동안은 놀이방 사정으로 진솔이가 놀이방을 못가고 집에 있다. 아침에 형아가 가방 메고 집을 나서면 저도 가방 메달라고 온다. 형아랑 저도 놀이방에 가고 싶은가보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짝 낀 누나에게 말기고 슈퍼에라도 가면 온몸이 땀범벅이 되도록 온다. 엄마가 있을 때는 식구들하고 잘 놀다가도 엄마만 없으면 온힘을 다해서 울어제낀다. 요즘 진솔이는 인상을 쓰고, 소리도 지르고, 눈 흘기는 법을 배웠다. 놀이방에서 배웠는지 원... 누구든 저에게 못마땅하다 싶으면 소리를 '뽕' 하고 지르고 눈도 하얗게 흘린다. 그러는 짓이 귀여운지 형아가 또 한 번 해보라고 부추긴다. 고놈들...

♡♡ 형아가 와서 너무 좋아 / 2004. 1. 15 / 대안가정 모

영민이가 열흘 이상 친가에 다녀왔다. 누나들하고 노는데 팔려 정작에 친엄마 아빠와는 서먹했다고 한다. 집안 식구 모두가 영민이 왔다고 안아주고 뽀뽀도 하고 난리가 났다. 진솔이는 잠에서 깨서 형아를 보고 너무 좋아한다. 형아가 있으니 진솔이가 활기가 있어 보인다. 형아 다니는 대로 졸졸졸 깔깔대고.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형아가 갑자기 너무 착해졌다. 진솔이가 딸기를 꼭지 붙은 채 먹자 딸기 꼭지를 자기 입으로 떼어내서 먹이고, 빵을 먹다가 흘리니까 부스러기를 줍고, 장난감을 가져다주고, 안아도 주고, 목욕할 때도 한 욕조에서 다정하게 놀고... 웬일이야~ 그러잖아도 이빠죽겠는데 진솔이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온 집안 식구가 영민이 너무 예쁘다고 흥분이다. 우리 새끼들 너무 예뻐~

♡♡ 너무나 의젓해진 진솔이 / 2004. 2. 21 / 친부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한참 몸이 안좋아 많이 앓았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구요. 한동안 이곳에 들릴 시간이 없어 사진이며 소식이 참 궁금했습니다. 사진이 많이 올라왔네요. 감사드려요. 너무 이쁘고 의젓해져서 뿌듯했습니다. 진솔이 그곳에서 사랑받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 보니 마음이 편합니다. 제 곁에 있었음 고생만 했을 텐데...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늘 건강하세요. 또 들르겠습니다.

♡♡ 영민이 우리 영민이 / 2004. 2. 28 / 대안가정 모

영민이를 보내려 하니 마음이 참 슬프다. 그곳 가게에선 영민이를 키울 환경이 못 되어서 누나들과 함께 두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외갓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했다. 거기서 시골이라 어린이집 보내기가 쉽지가 않다. 누나가 다니는 선교원에서만 차량이 운행되는데 거기선 이미 아이들이 다 차서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보내야 하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영민이는 지금 누나들 만날 생각에 감정에 동요가 없다. 거기서 며칠 지나고 나서 이곳 생각을 할까 걱정이 된다. 영민아 어찌겠니? 이제 누나들과 함

.....

께 적응해서 살아야 해. 네가 잘 적응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늘 기도 할거다. 22개월에 와서 이제 6살. 많이 똑똑해지고 또 이젠 진솔이도 사랑하고 봐줄 줄도 아는 형아가 되었는데... 우리 가족이 너를 참 사랑했단다. 너로 인해 힘들기도 했지만 그보다 많은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던 우리 영민이. 보내기가 싫다.

 **영민이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 2004. 3. 2 / 대안가정 모**

영민이가 드디어 외갓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나들 하고 노느라 우리랑 헤어지는 것도 하나도 슬프지 않았답니다. 진솔이랑 빼이빼이도 안하고 노는데 정신이 없었답니다. 외할머니께서 남의 자식 키워야 다 소용 없는 일이라며 미안해 하셨어요. 영민이는 그곳 누나가 다니는 학교에 병설 유치원이 있어서 거길 다니기로 했답니다. 잘 된 일이지요. 이제 영민이 잘 자라기를 기도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진솔이가 조금 심심하겠지만 이제 식구들 사랑을 독차지 하게 됐습니다. 다~ 잘 되겠지요.

 **엄마~ 이제 슬슬 변을 가려야 되지 않겠니? / 2004. 3. 14 / 대안가정 모**

우리 진솔이 곧 22개월이 되어간다. 영민이는 그맘때 대변도 곧잘 가리고 소변도 받은 싸고 받은 가렸었는데... 아~ 이놈은 어찌 된건지 응가를 할라치면 어디 으스스한데로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짹짹 하고 나온다. 꼭 저녁 준비 할 시간에 하는 바람에 현장을 놓친다. 가끔씩 대변보려는 기색이 있어 변기에 앉히면 펄펄 뛰고 일어나버려서 다시 기저귀를 채울 수밖에 없다. 두 돌 무렵이면 대개 다 가리던데... 영민이는 가리면서도 지금까지도 밤에 지도를 그리곤 하긴 했지만. 진솔아~ 이제 슬슬 변기에 앉아서 볼일을 보자. 평상시엔 대변 누는 척 소변 누는 척 흥내를 내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몰래 몰래 해버리니...

 **소대변 훈련 / 2004. 4. 14 / 대안가정 모**

진솔이는 고집이 센 편이다. 물론 아이들이 다 고집이 있기는 하지만 진솔이는 조금 더 센 것 같다. 이제 다음 달이면 두 돌이 된다. 충분히 소대변을 가릴 나이인데 요놈이 할 생각을 안 하네~ 대변을 보는 것 같으면 변기에 앉혀 놓고 응가를 시키는데 안하겠다고 뺨대고 울어서 중간에 그만 두기도 하고, 지가 중간에 끊어버리고 안 싸는 것 같더니... 드디어 어제 조금 싸 것 같기에 변쩍 들어다 변기에 앉혔더니 한참을 앉아 있다가 드디어 쏘옥~ 풍당. '아이구 이쁘기도 해라' 아빠한테 변기에 누었다고 자랑시키고 누나한테도 자랑하고... 잘 했다고 식구들 모두 난리... 집에 있을 때는 기저귀를 벗겨 놓는다. 하지만 입혀 놓고 소변을 시켜 보지만 아직은 반응이 없다. 소변이 나오는 것 알면서도 가리려 하지 않는다. 바지에 싸면 변기에 싸야 한다고 지적을 받는다. 어제부터 놀이방에 바지를 7개를 보냈다. 거기서

도 하지만 입히려고... 오즘도 가릴 때가 오겠지...

아빠는 곰.. 엄마는 햇님 / 2004. 4. 28 / 대안가정 모

어린 아이를 키우면 특별한 행복감이 있다. 밤마다 자기 전에 책을 읽어 주는데 그림책에 똥똥한 곰이 나오면 우리 진솔이 영낙없이 아빠라고 가리킨다. “엄마는 어디 있어?” 하면 진솔이는 방긋 웃는 햇님을 가리키며 엄마란다. 그림에 햇님만 나오면 엄마란다. 아이구, 황송해라. 햇님은 커녕 달님 같다 소리도 한 번 못 들어봤는데 우리 진솔이 엄마보고 햇님이라네. 고마워 진솔아. 야단도 칠 때도 있고 인상 쓸 때도 많은데 엄마를 햇님이라고 봐줘서...

엄마~ 이양해(사랑해)~ / 2004. 5. 3 / 대안가정 모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어떤 아이가 머리위에 하트모양을 만들고 “사랑해” 하니 우리 진솔이도 하트모양을 만들고 “이양해” 한다. 집에서는 진솔이 목을 껴안고 늘 “사랑해” 하고 말 하는데 하트 모양을 보며 “사랑해” 하고 말하는 품이 어찌나 예쁘던지... 집안 식구 모두 돌아가며 진솔이보고 “사랑해” 하라고 하니 엄마, 누나, 아빠, 할아버지 모두 진솔이에게 목을 감겨 “이양해” 소리를 들었다. 그래 진솔아. 식구 모두 너를 “이양해”

효자동이 진솔이... / 2004. 5. 16 / 대안가정 모

요즘 진솔이의 재롱이 한창이다. 아이가 커 가면서 가장 예쁠 때가 지금쯤인 것 같다. 할아버지랑 같이 산 지 2개월... 할아버지가 다리에 힘이 없셔서 실내에서도 지팡이 사용하실 때가 많은데, 지팡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꼭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할아버지 손을 잡고 방까지 모시고 가서 들어가시면 문을 꼭 닫아 드리고 나온다. 할아버지 실내화도 앞에 가져다 드리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우리 집 식구 예뻐서 난리가 난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제 조금씩 진솔이를 예뻐하시는 것 같다. 아이구, 예뻐라. 우리 새끼.

너무 많이 커버린 진솔이 / 2004. 5. 25 / 친부

안녕하세요? 진솔이아빠입니다. 진솔이 사진은 잘 봤어요. 이렇게나 훌쩍 커버렸네요. 할아버님이 오신 후로 바쁘시겠어요. 글에 보니까 진솔이가 할아버님께 이쁜짓 많이 하나 봐요. 다행이네요. 우리 진솔이 며칠 있음 생일인데 죄송하네요. 큰어머님께... 제가 챙겨야하는데요. 진솔이한테도 미안하구요. 매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게요. 건강하시구요!!

♥♥ 반가운 전화 / 2004. 7. 7 / 대안가정 모

어제 영민이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요즘 영민이가 있는 친정집에서 며칠 있다며 전화를 했다. 영민이가 며칠 전부터 서울 집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한다며 옆에 있다고 바뀐 주었다. 동해안에 가서 잠수함도 타고, 배도 타고, 상어도 보았다고 자랑이다. 방학하면 진솔이 데리고 보러 가겠다고 약속을 했다. 우리 집을 거쳐간 아이들이 벌써 여러 명 되는데 영민이를 가장 사랑으로 키웠다고 생각한다. 진솔이도 영민이 형아를 기억한다. 집안 곳곳에 영민이 사진이 있는데 영민이 사진 보기를 아주 좋아한다. “누구야?”하고 물으면 “으민(영민)”하고 대답한다. 여름 방학이 되면 어떻게든 짬을 내어 식구 모두 영민이에게 다녀오려고 한다. 영민아. 그때 까지 기다려라!!

♥♥ 영민이형 만남 / 2004. 8. 26 / 대안가정 모

우리집 식구 다섯 명이 무주 영민이가 사는 곳을 다녀왔다. 진솔이는 영민이를 아직도 기억하는데, 누나들 영민이랑 금방 어울려 잘 논다. 진솔이가 영민이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이양해(사랑해)” 한다. 영민이는 진솔이가 내 동생이냐고, 얼굴이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묻는다. 근처 호텔 큰방을 잡아 영민이네 삼남매 진솔이, 우리 식구 8명이 한방에서 밤을 보냈다. 영민이가 서울에 가서 살면 안되냐고 해서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안된다고 했더니 소파에 가만히 앉아만 있을거라고 한다. 이튿날, 아이들 데려다 주고 올라오려는데 영민이가 차에 먼저 올라탔다. 다음에 할아버지 안 아프시면 테리러 오겠다고 얘기했더니 시무룩해서 내렸다. 그곳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사를 하라고 재촉을 해도 인사도 하지 않고 손도 안흔들고 가만히 서있는걸 보니 올라오는 차속에서 자꾸 눈물이 났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은 분들이지만 농사일에 너무 바쁘셔서 아이들에게 손 갈 시간이 없으시다. 영민이 부모님 가게가 잘 되어서 아이들 데려다 잘 키웠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내 품에서 키운 또 다른 내 자식... 영민아~ 사랑해~

♥♥ 굴비 한 마리 / 2004. 10. 7 / 대안가정 모

진솔이는 육고기보다는 생선을 즐겨 먹는데 될 수 있으면 생선요리를 하는 편이다. 까다롭기가 할머니 할아버지 수준이다. 추석에 굴비 한 세트가 들어왔는데 엄청 비싸서 할머니 할아버지만 구워 드려고 하는데 이놈... 눈치도 없이 굴비를 또 달라고 또 달라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보기가 민망하다. 그렇다고 그 비싼 굴비 두 마리 굽기도 그렇고... 며칠 전, 다혜 친구가 영광에서 군생활을 하는데 다혜가 농담삼아 “너 굴비 좀 안 보내냐?” 했더니 정말 보내왔다. ‘참내~ 순진하기는...’ 2~3만원 정도 하는 조기새끼들이었다. 그래 진솔아, 우리 실컷 먹어보자. 아이구, 그놈의 비싼 굴비. 별 맛도 없구만... 고등어가 훨씬 맛있구만... 내 입에는...

♥ 영민이를 보면 마음이 짠해 / 2004. 10. 22 / 대안가정 모

남편 일로 들를 데가 있어 광주에 갔다가 영민이네가 하는 치킨 가게엘 들렀는데 아직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장사가 잘 안된다고 했다. 장사가 잘 돼야 아이들 데리고 함께 살텐데... 전주에서 하룻밤 자고 무주 영민이가 있는 외갓집에 갔다. 가는 날이 마침 영민이 유치원 운동회 날이라고 해서 가 보았더니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따라와서 함께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영민이는 게임에 열중하지 않고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영민이가 우릴 보자 반색을 하며 오랜만에 만났으니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다. 그러마고 약속은 했지만 딱 약속이 잡혀 있기도 하고 그 주변엔 장난감 가게가 없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오후 시간에도 몇 가지 게임이 있었는데 아빠가 나가서 하는 게임. 엄마랑 함께 하는 게임 몇 가지 하고 올라왔다. 유치원 선생님이 우리를 알아봤다. 서울엄마시냐고... 아이가 서울엄마, 광주엄마 이야기를 한다고... 엄마 없이 운동회에 참석하는 아이를 보니 어찌나 마음이 짠한지 우리 차를 타고 올라오고 싶어하는 아이를 떼어놓고 오는 마음이 아프다. 영민이 부모의 사업이 잘 되어서 부디 아이들 데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 너 죽을래? / 2004. 11. 16 / 대안가정 모

진솔이의 말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요즘은 우리집 전화 교환수이다. 어디서 전화만 오면 전화를 받겠다고 한다. “여보데요? 엄마 아꼬 두께요” 텔레비전 연속극을 좋아해서 엄마 보는 프로를 저도 즐겨 본다. 예전에 애정의 조건이 방영될 때 텔레비전을 틀면 ‘엄마 울고’ 를 보잔다. 채시라 우는 모습을 ‘엄마 울고’ 란다. 놀이방에서 이젠 아이들과 말싸움도 곧 잘 한다. 싸우면서 배운 말 한 가지. 엄마가 제 맘에 안들면 “너 죽을래?” 아니 이놈이? 더 귀여운 건, 다른 사람에겐 존댓말을 안 쓰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꼭 존댓말을 쓰는 것. 할아버지 진지 잡수시라고 말씀드려라 하면 “하래비, 밥 머어요.” 우리 진솔이 귀여워 죽겠네.

♥ 슈퍼맨 / 2004. 12. 6 / 대안가정 모

진솔이는 아주 아주 잘 자란다. 키가 어찌나 잘 크는지 세 살이라고 하면 곧이 들지를 앓는다. 어린이 집에서 세 살짜리 친구들과는 수준이 안 맞는다. 세 살짜리 친구들에게 얘기라고 부르고 네 살짜리 아이들과 잘 논다. 똑똑하기도 해서 네 살짜리 아이들이 하는 놀이도 함께 아주 잘 한단다. 형아들이 하고 노는 놀이를 흉내 내며 손을 벌리고 “우퍼 맨(슈퍼 맨)” 하고 달린다. 태권도 흉내는 또 어찌나 잘 내는지 “태권도, 태권도” 하며 주먹질을 하는데, 하는 건 좋지만 이게 엄마에게 주먹질을 해서 아파 죽겠다. 남자다운 놀이를 좋아하는 듯하다. 영민이가 공룡을 좋아하더니 진솔이도 공룡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고 공룡 동화책 읽어 주는 걸 좋아한다. 종이만 있으면 엄마보고 공룡을 그려 달라고 떼를 써서 공룡인지 노

루새끼지 수십 마리 그렸는가 보다. 아이들은 잘도 자란다.

형아가 가서 엉엉... / 2005. 1. 7 / 대안가정 모

영민이가 한 열흘쯤 우리 집에 와서 지내다 갔다. 영민이가 워낙에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닌데다가 진솔이도 이제 자기 의사 표현을 다하기 때문에 열흘 동안 전쟁을 치르다시피 살았다. 싸우고 뺏기고, 소리 지르고, 진솔이 우는 소리, 엄마한테 이르는 소리. 그래도 형아만 따라 다니며 재미있게 지냈다. 아빠가 어제 형아 데리고 가면서 놀이방에 영민이 내려줬는데 문 앞에서 형아 부르면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떼가 났다. 오전에 놀다가도 영민이 얘기만 하면 울었다. 집에 와서도 몇 번을 영민이 형아 보고 싶다고 울었다. '진솔아~ 형아가 그리도 좋으니? 백 밤 자고 다시 만나자. 착하지.'

축농증 / 2005. 3. 24 / 대안가정 모

거의 한달 전부터 진솔이 코가 막혀 있었다. 감기가 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잘 때 입을 열고 자는 것이 여간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아 이비인후과에 다니기 시작했다. 축농증 끼가 있으니 계속 병원엘 오라고 해서 다녔는데 약을 먹을 때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또 어느 날 코가 막혀 콧소리를 한다. 어젯밤에 또 코를 드르렁거리며 숨을 몰아쉬기도 하고 제대로 숙면을 취하는 것 같지가 않아 오늘 또 병원에 들러 약을 지어다 먹었다. 우리 아이들, 또 그동안의 아이들이 코 때문에 애 먹이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더니 아무래도 진솔이 코 때문에 고생할 것 같다. 아이구, 가여워라. 내 새끼.

부진아 지도 / 2005. 4. 22 / 대안가정 모

요즘 오후 시간에 초등학교 부진아 지도를 맡았다.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 일주에 네 번 나간다. 아무래도 집에서 살림만 하던 때보다는 하루가 바빠 돌아간다. 학교에서 오전 시간도 맡아 주었으면 하는데 진솔이도 있고 할아버지도 계셔서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받침도 엉망, 곱셈 나눗셈도 잘 못한다. 거북이처럼 조금씩 나아가야 할 듯하다.

진솔이 큰일 날뻔했네. 휴... / 2005. 5. 2 / 대안가정 모

오늘 오전에 놀이방에서 놀고 집에 와서 5시쯤 누나 터미널까지 데려다 준다고 진솔이도 함께 태워 갔다. 오는데 갑자기 우는 품이 멀미를 하는 것 같다. 점심 먹은 것이 안 좋았나? 어떻게 참고 집에까지 왔다. 저녁을 느즈막이 국에 말아 조금 먹이고 요구르트를 먹었는데 한 30분 있다가 또 다 토해냈다. 더 토할 듯이 계속 입을 벌리고 우는데 우는 모습이 너무 이상하다. 편도선까지 크게 확장해서 울고 있다.

집에는 아빠도 다해도 없고, 우는 아이 뒤에 앉혀 놓고 운전할 수도 없고... 혹시 코가 막혀서 그런가 하고 진솔이 코에 입을 대고 세계 붙고 옆으로 눕혔더니 코랑 토물이랑 범벅이 된 것이 나왔다. 토물이 코를 꼭 막고 있어서 숨쉬기가 어려워서 크게 울었던 것이다. 모르고 아이가 지쳐 잠이 들었으면 어떠했을까 생각하니 아찔하다. 진솔이가 말을 잘 한다고 해도 아직 토할 것 같은 느글거리는 것 표현 할 줄 모른다. 코에서 토물이 다 나오고 나니 거짓말처럼 금방 낫다. 7~8명의 아이들 키워 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솔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솔이 세 번째 생일 / 2005. 6. 10 / 대안가정 모

진솔이 15개월에 왔는데 이제 세 돌이 되었다. 얼마나 많이 컸는지...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요전에 누나가 폐에 바람이 찼다고 입원해 있었다. 누나랑 통화할 때 하는 말 “누나 아직도 아파? 어디가 아파?” 어떻게 어른처럼 그런 말이 나오는지. 며칠 전 진솔이 생일이라 누나가 예쁜 케익을 사들고 친구들과 함께 왔다. 우리 식구하고 누나 친구들하고 케익에 불 켜고 떠들썩하게 지냈다. 밥 먹는 게 까다로워서 살이 안찌서 조금 걱정은 되지만 키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많은 걱정은 안한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자라라.

아직도 불안한지... / 2005. 7. 27 / 대안가정 모

진솔이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있다. 요즘은 저녁 늦게 잠이 들어 아침에 늦잠을 잔다. 어린이집에 안가겠다고 떼쓰는 일 없이 잘 다녀 예쁘다.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리면 그냥 집에 안 오고 놀이터에서 놀고 온다. 놀 때 제 또래가 있으면 곧잘 어울려 노는데, 아직도 무슨 불안감이 남아 있는지 잠깐 놀고 엄마를 부르고, 또 잠깐 놀고 엄마를 부른다. 엄마 여기 있으니까 걱정 말고 그냥 놀라고 해도 그저 엄마 생각이 떠나질 않는가보다. 예전보다는 많이 안정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마음속에 불안감이 남아 있는 건지...

됐거든... / 2005. 9. 5 / 대안가정 모

진솔이 요놈이 이제 컸다고 아주 웃긴다. 지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엄마가 자꾸 하면 아주 싫어한다. 영민이가 간 후 진솔이가 영민이 형아 얘기를 하길래 형아랑 자꾸 싸우니까 형아가 갔잖아 했더니 “엄마, 그런 얘기 그만해” 하면서 성질을 낸다. 며칠 전 엄마랑 친구 가게엘 놀러 갔는데 듣기 싫은 얘기를 했는지... 진솔이 왈 “그만해. 됐거든.” 거기 있던 아줌마들이 배꼽을 잡았다. 집에서는 그 코미디 프로를 안 보는데 어린이집에서 형아들이 쓰는 말을 흉내 내는가보다. 고놈 웃기네. 정말.

♥️ 누나가 낫다 / 2005. 10. 19 / 대안가정 모

다혜 누나는 진솔이를 참 예뻐한다. 며칠 전에는 다혜 친구가 강화 전원주택에 사는데 고구마를 캔다 고 거기에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흙강아지처럼 아주 잘 놀고 왔다. 멀미를 하니까 멀미약 먹고 여벌 의 옷도 챙기고... 진솔이 날씨가 추워지면 코가 꼭 막힌다. 숨쉬기가 너무 답답하다. 코는 안 나오는데 코는 막혀 있다. 지난해는 이비인후과를 한참이나 다녔는데 그뿐이었다. 며칠 전부터 코가 막혀서 이비인후과를 가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누나가 진솔이 눕혀 놓고 코 깊은데 가득 들어 차 있는 코딱지를 거짓말 보태 한 숟가락은 파냈다보다. 나는 아이들 귀지도 손이 벌벌 떨려서 못 파주는데... 콧구멍을 청소하고 나니 진솔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숨소리가 시원하다. 아이고, 우리 딸 야무지네. 엄마보다 훨씬 낫다. 이다음 엄마 되면 애도 잘 키울 거야. 누구 멋진 남자 아이 없나. 우리 딸 참 괜찮은데...

♥️ 엄마랑 결혼 안 할거야 / 2005. 10. 26 / 대안가정 모

진솔이 많이 컸고 이제 아주 말을 잘한다. 그 나이 때 곧잘 아이들에게 물어 보는 말. “진솔이 누구랑 결혼 할거야? 엄마랑 할거야?”, “아니. 엄마는 아빠랑 결혼 해야지.”, “엄마는 진솔이랑 결혼 하고 싶은데.”, “나는 키가 작잖아. 아빠가 크니까 아빠랑 결혼 해. 나는 의자에 앉아서 볼거야.”, “진솔이 아빠처럼 클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 “.....”, “진솔이는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어?”, “영민이 형아하고!” 야! 이놈아. 엄마랑 결혼 안한다고 하더니 그래 영민이 형아랑 하나?

♥️ 진솔이 삼각관계에 빠지다 / 2005. 10. 29 / 대안가정 모

어제 어린이집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원이라는 여자 아이를 진솔이가 좋아한다. 예원이 옆에 앉고 싶은데 상원이가 예원이 옆에 앉았다고 울었다. 두 명이 손잡는 놀이가 있는데 예원이 가운데 두고 세 명이 손을 잡았다. 예원이를 부를때 ‘여보’ 라고 부른다. 나 미치겠네. 집에 데리고 와서 진솔이에게 물어봤다. 예원이가 예빠?? 응. 예원이도 진솔이 좋아해? 아니, 상원이만 좋아해. 입이 비죽 비죽. 예원이는 상원이 옆에 앉아. 선생님 보고 진솔이도 예원이 옆에 앉혀 달라고 해. 그 소릴 듣더니 생각난 듯이 선생님이 예원이랑 손잡게 해줬어. 진솔이가 사랑에 빠졌어요... 후후!! 아침에 누나가 진솔이 보러 들어왔는데 그 얘길 했더니 귀여워 죽는다. 예원이는 얼굴 잘 씻는 애를 좋아한다. 이 잘 닦는 아이를 좋아한다. 머리가 그러면 예원이가 싫어하니깐 예쁘게 빗자. 하기 싫은 것 시키려면 예원이를 들먹인다. 아침에 진솔이 어린이집에 갈 때 오늘 예원이 옆에 앉으라고 말했다. 선생님 보고도 “예원이 옆에 좀 앉혀 주세요!” 부탁도 했다. 사랑은 쟁취하는거야... 후후후. 아구 궁금해라. 예원이 옆에 조금 앉았을라나.... 선생님 왈... 벌써 머느리 보시게 생겼어요. 후후후....

♥ 잘 지내세요? / 2005. 11. 13 / 친부

늦은 새벽에 글을 남기네요. 전 요즘, 건강 악화로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우리 진솔이는 괜찮은지... 그것이 알고 싶다 봤습니다. 가슴 찡하고 저보다 안된 아빠들 보니 눈물이 나더라구요. 전 구안와사가 다시 듣는지 얼굴이 마비가 와서 일을 못하고 침을 맞고 다니고 있습니다. 추워지는데 우리 진솔이는 좋은 부모님들 곁에서 재롱부리며 잘 지내겠죠? 늘 뜬글로 걱정 아닌 걱정 끼치는것 같아 송구스럽네요. 늘 안좋은 글로 소식 전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심히 치료중 ^^ 아무튼 조만간 다시 글 남길게요.

● Re: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 2005. 11. 14 / 대안가정 모

진솔아빠~ 제대를 했을거고 직장을 구했는지 궁금했었어요. 글을 보니 건강이 안 좋네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심신이 쇠약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생긴다고 하네요.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혼자 있어서 먹는 것을 소홀히 하는건 아닌지, 과음을 하는건 아닌지. 잠도 제시간에 충분히 자야 하는데 새벽 늦도록 깨어 있는 것도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요. 챙겨 줄 사람이 없으면(아니 있다 해도) 스스로 건강에 유의해야 돼요. 진솔이 걱정은 미리 하지 마세요. 다 잘 될거예요. 진솔이와 진솔이 아빠에게 어떤게 최선인지, 최선의 방법을 찾아 갈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건 진솔아빠 건강이에요. 잘 먹고 쉬고. 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때를 기다려봐요. 진솔이를 위해서 또 진솔이 아빠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힘내세요. 걱정 미리 하지 마시고... 진솔이를 사랑하듯 진솔아빠도 사랑합니다.

♥ 사랑은 변하는거야 / 2005. 12. 5 / 대안가정 모

우리 진솔이 예원이 짝 사랑이 끝이 났는가보다. 어린이 집에 진아라는 아이가 들어 왔는데 아주 예쁘단다. 예원이보다 예쁘단다. 예원이가 지 옆에 안 앉는다고 속상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가 없다. 진아가 예원이 보다 더 좋다고 한다. 짓궂은 엄마 친구가 진솔이 보러 진아 손 잡아 보았어?? 진아랑 뽀뽀해봤어?? 하고 물었더니 손도 못잡고 뽀뽀도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진아가 예원이 보다 좋다고 한다. 그래 사랑은 변하는거라며. 어떤 CF에 의하면... 그런데 진솔아 너무 쉽게 변하는 것 같애.

♥ 진솔이 영어공부 / 2005. 12. 5 / 대안가정 모

그동안 거의 1년여 튼튼영어를 공부해왔다. 공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책 보고 비디오 보고 일주일에 선생님 한 번 왔다 가시고, 자기 전에 엄마가 영어동화책도 좀 읽어주고 뭐 그런 정도다. 신기한 것

은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면 싫어하지 않고 잘 듣는 것이다. 한글 동화책이나 영어 동화책이나 다 좋아한다. 백화점 문화센터에 일년 과정 영어 유치원이 있어서 등록을 했고 오늘 처음 다녀왔다. 일주일에 두 번 오전에 한 시간 반씩 미국에서 선생님 하시던 분이 하시는 건데... 오늘 진솔이 처음 다녀왔는데 아주 재미있다고 한다. 그동안 영어를 좀 접했기 때문에 그리 낯설어 하지는 않는 것 같다. 한 일 년 정도 다니면 간단한 말은 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우리 진솔이 글로벌한 인재로 자랐으면 하는 엄마의 바람. 그나마 일주일에 두 번을 데리고 다녀야 하니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

이틀 전에 새날이가 감기로 인해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6월말쯤에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갔다 오고는
 새날이한테서 잠시도 눈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날은 제 심장이 다 터버리는 것 같더군요.
 어제부터는 새날이 혼자 힘으로 뒤집기를 하네요.
 뒤집고 나면 혼자 힘들다고 고함을 지르고 야단법석입니다.



♥ 새날이네 집입니다! / 2004. 2. 19 / 김명희

새날이는 779g의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한참을 살았답니다. 새날이 엄마가 위암 수술을 해야 했기 때문에 빨리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뭘 병명이 그리 많은지, 또 왜 그리 듣도 보도 못한 어려운 말인지, 병명만 들어서는 도통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지요. 인큐베이터에서 나오고 난 후에도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답니다. 오랫동안 달고 있던 모니터를 떼고 나서 지난 15일 드디어 퇴원을 했답니다. 아빠는 위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엄마의 치료비 때문에 엄청난 빚을 진 상황이라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합니다. 새날이가 미숙아라 일반가정에 위탁을 보내는 건 위험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수시로 병원에 들락거리며 검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구요. 결

국 새날이의 고모님이 새날이를 맡아서 키워주시기로 했습니다. 고모네 언니와 오빠는 조막만한 새날이를 들여다보며 이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새날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새날이네 집에 자주 놀러오세요!

 **오늘 많이 속상하셨죠? / 2004. 2. 20 / 김명희**

새날이 고모님! 오늘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모든 위탁아동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하여 혜택을 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려고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검색해 봐도 [2004년 아동복지사업안내]가 안보이고,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아직 못받았다고 하네요. 어쩌면 아직 손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일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지침에 명시된대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타지역에서도 이런 문제로 일선 행정기관과의 마찰이 많다고 합니다. 조만간 현실성 있는 조치가 따르리라 봅니다. 새날이가 수급자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대안가정운동본부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할 것입니다. 힘내시고... 낮밤이 바뀌어 애를 먹이는 새날이도 이제 제 자리를 찾으면 좋을텐데... 내일 전화드릴게요.

 **새날이 고모님! / 2004. 2. 28 / 김명희**

어제 초기지원금 송금했습니다. 약소하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모로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새날이 아빠 부채확인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 발급받고, 다 되면 연락 주십시오. 이제껏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저도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몇 군데 확인한 바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방법을 존중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라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 편안하지 않을까 싶네요. 새날이 병원도 정기적으로 가야하고, 밤낮이 바뀌어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데 행정처리가 지연되어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모두 해보고도 안되면 그때 가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해보겠습니다. 어렵게 결심하고 시작하셨는데 처음부터 맥빠지는 상황에 부딪혀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힘내시고, 새날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조만간 다시 찾아뵙게요.

 **초기지원금 잘 받았습니다 / 2004. 3. 2 / 대안가정 모**

벌써 체중이 4kg이나 되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딸이 카메라폰으로 새날이 사진을 찍는다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이 신기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덕분에 새날이도 잘 먹고 변도 잘 보고 발길질도 열심히 차는 모습에 힘들지만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새날이 아빠도 새날이가 크는 모습에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모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새날이 참 예쁘지요~ / 2004. 3. 16 / 대안가정모

사진으로 보니 우리 새날이가 참 예쁘네요. 지금 이 시간에 새날이는 잘 자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깨어나서 새벽까지 저하고 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보채기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오후에는 송광익소아과에 가서 간염2차 예방접종을 하고 왔습니다. 의사선생님 너무너무 자상하시고 설명도 잘해주시고 친절하시네요. 그런데 제 사진 때문에 새날이 얼굴이 돋보이지를 안네요. 오른쪽 사진은 다른 곳으로 멀리 보내버렸으면 싶네요. 오늘 하루 일을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방접종 하던 날 / 2004. 4. 30 / 대안가정모

어제는 새날이가 예방접종을 했어요. 몸무게도 벌써 6kg이 되었어요. 고모로서 조카를 돌보는 일은 정말 힘이 들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동안 아무 탈 없이 키우는 우리 새날이가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오늘은 언제 열이 났나 싶을 정도로 잘 놀고 용알이도 잘 합니다. 하루하루 하는 행동들이 너무 신기할 정도로 잘 크는 우리 새날이가 대견합니다. 다음에는 많이 자란 새날이의 사진도 함께 올려 볼게요.

♡ 현실과 다른 사회 / 2004. 5. 24 / 대안가정모

새날이 위탁가정지정 문제가 거론 된지도 몇 달이 지났다. 정부에 큰 지원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뚜렷한 답이 없다. 4월 중순에 새날이가 의료보호대상자에 선정이 되었지만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새날이는 미숙아이기 때문에 특진을 받아야 되고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면 2/3이상이 비급여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혜택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예방접종과 수시로 새날이가 열이 나는 관계로 송광익소아과를 자주 찾아 많은 도움을 받는다. 고모라지만 새날이를 마냥 키우자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곤 한다. 그래서 월30~4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부업을 생각 중이다. 새날이를 보면 하루하루 키우는 모습이 기특하고 귀엽고 사랑스럽다. 새날이 아빠는 한 달 월급으로 대출이자며 여러 가지 지출을 빼고 나면 새날이 양육비는 엄두도 못 낼 형편이다. 하루 빨리 모든 어린이와 우리 새날이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랄 뿐이다.

♡ 위탁가정 지정이 곧 될 듯... / 2004. 7. 10 / 김명희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새날이네가 위탁가정으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 확인 결과 구청으로 서류를 올렸고, 곧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위탁가정으로 지정되면 새날이네로 연락한다고 하니 연락받으면 본부로 전화 한번 주십시오. 그래도 새날이가 수급자로 지정되지는 못한

답니다. 위탁가정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월 양육비 7만원을 지원받겠지만 그걸로는 새날이 양육비로는 어렵도 없겠지요. 대안가정운동본부에서 지원하는 양육비는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새날이가 청각장애에 다리까지 장애가 왔다니 정말 걱정입니다. 새날이를 양육하는 고모님도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의료보호 혜택은 보지만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라 사실상 혜택을 본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니 미숙아 관련 치료 외에 일반진료는 가능한 주치의병원(송광익소아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위탁대상아동은 기본적으로 수급자로 지정하여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일선 행정기관에는 이 조항이 별 영향을 못 미치는 듯합니다. 아마 관련법이 제정되면 이런 혼선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날이가 위탁된 이후 본부에서 계속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익을 제기하며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법 자체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위탁대상으로 지정된 것에 만족해야 할 듯합니다. 죄송합니다.

 **수급자 지정까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 2004. 7. 17 / 김명희**

이번에 새날이네 대안가정이 위탁가정으로 지정된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수급자 지정까지 되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날이의 특별한 사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특별히 수급자 관련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행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거기까지 배려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잡한 서류요청에 협조적으로 따라 와주신 새날이 아빠와 고모님의 정성도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는 새날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만 남았는데... 이미 새날이에게 청력장애와 몇 가지 장애가 확실시 되지만 전심을 다해 사랑으로 양육해주는 고모님과 가족들이 있으니 새날이에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요. 어제 동사무소로부터 수급자 지정을 확인하고 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딘가에도 대고 고맙다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적용되는 법조항들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있는 많은 분들의 자발적인 배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임을 알기에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새날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대안가정운동본부도 전심으로 돕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 2004. 7. 21 / 대안가정 모**

이틀 전에 새날이가 감기로 인해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6월말쯤에는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갔다 오고는 새날이한테서 잠시도 눈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주 글을 올려서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새날이가 커가는 모습이나 하루하루 지내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글을 못 쓰는 점 정말 미안하네요. 정말 그날은 제 심장이 다 타버리는 것 같더군요. 요사이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밤으로 많이 보채는 것 이외는 잘 자란답니다. 어제부터는 새날이 혼자 힘으로 뒤집기를 하네요. 뒤집고 나면 혼자 힘들다고 고함을 지르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아동보호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통지문을 받았답니다. 그동안 이 문제로 제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대안가정운동본부에서 격려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자로 지정될 것이라고 동사무소 사회복지과로부터 연락을 받았답니다. 정말 반갑고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편안한 오후 낮잠 / 2004. 8. 19 / 대안가정 모

8월 초부터 찌는 듯한 여름 날씨에 새날이도 어쩔 수가 없었나봐요. 제가 아무리 잘 돌본다 해도 아픔에는 이길 수가 없었나 봐요. 목이 부어오르고 헐어서 그날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밤에는 열이 삼십팔도 구분까지 오를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밤늦게 응급실에 가는 일까지 생겼답니다. 약도 먹지 않으려고 하고 물도 잘 먹지 않을 때는 제 마음이 타 들어가는 듯이 힘이 들었습니다. 저도 애를 키워 보았지만 이럴 때는 아무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그저 새날이가 아프다고 보채고 울 때는 나도 따라 울기도 하고 제발 빨리 낫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 보았습니다. 병원에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발 낫게 해달라고 떼를 써보기도 했지만 새날이 스스로 이겨내야만 하는 힘든 싸움일 뿐... 2~3일간의 시간과 노력 끝에 새날이는 아픔을 이겨내고 요즘은 잘 먹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새날이 혼자 뒤집어서 목도 잘 들고 잘 때는 엎어서 자기도 하고 앉혀 놓으면 제법 팔에 힘을 주어 앉아 있습니다. 또 기쁜 소식은 안과에서 눈에 시신경이 잘 자라서 새날이가 숫자를 알 때 시력검사만 받아 보라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귀도 소리를 느끼는 것 같아 며칠 있으면 청력검사를 하러 간답니다. 그때도 좋은 결과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린답니다. 병원에 갔다 오는대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기쁜 날 / 2004. 8. 27 / 대안가정 모

24일은 우리 새날이 뿐만 아니라 저 또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청력검사 결과, 앞으로 새날이가 자라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이 잘 들릴 것이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기쁘고 날아갈 듯이 행복했습니다. 이 소식을 빨리 새날이 아빠에게 알리면 얼마나 기쁠까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말은 안했지만 이 문제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태어났지만 앞으로 남들 못지않게 우리 새날이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랄 겁니다. 그리고 재활의학과에서도 새날이가 개월 수에 따라 정상적으로 잘 따라 오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재활치료는 안 해도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말 키우는데 하루하루 힘들고 했지만 갈수록 우리 새날이가 아무 문제없이 잘 극복하고 건강하고 귀엽게 커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요사이는 말을 배우려는지 웅알이도 많이 하고 낫도 가리고 일으켜 세우면 팔딱 팔딱 뛰고 뒤집어서 구르기도 한답니다. 그동안 새날이를 후원해주시고 지켜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 엄마 / 2004. 9. 7 / 대안가정 모

새날이가 말을 배우려는지 “엄~마”라고 이제는 또렷하게 하네요.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가슴이 메어지기도 한답니다. 벌써 제 손에서 큰지 7개월째. 그동안 남모르게 가슴앓이 한 날도 많았지만 새날이가 잘 자라주는 지금은 기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우리 애들이 서로 새날이한테 뽀뽀를 하려한답니다. 아침에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나면 우리 둘만의 시간도 보냅니다. 마주 보고 놀기도 하고 말도 배우고 잠도 같이 자기도 하면서... 일요일에는 시골에 별초하는데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새날이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생겨서 좋지요. 시부모님들께서도 반갑게 맞아 주시고 친손자처럼 안아주십니다. 지금 우리 새날이는 너무 행복할 거예요.

♥♥ 개구쟁이 / 2004. 12. 10 / 대안가정 모

제법 키가 컸다고 손에 잡히는 것은 죄다 끄집어 내리는 일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래서 바닥에 있는 물건들이 높이높이 자꾸만 쌓입니다. 여기 저기 기어 다니며 구석구석 뒤지면서 호기심이 발동해 입에 넣기도 하고, 우물우물 씹지를 앓나. 정말 정신이 없네요. 잠깐만 보지 않으면 탈이 난답니다. 얼마 전에는 새날이가 아빠와 함께 외출을 했습니다. 요사이는 자주 볼 기회가 없었는데 데리고 공원에 갔다 온다고 해서 보내긴 했지만 걱정이 되어 올면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저녁 무렵에서야 왔답니다. 생각보다는 울지 않고 잘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주 보지는 않지만 핏줄은 어쩔 수 없는가 보네요. 자주 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가고 울기만 하는데. 지금은 아빠, 엄마 소리도 제법 또렷하게 잘 한답니다. 사과를 잡고 옆으로 걷기도 하고 병원에서 매일 먹는 약도 점차 줄고 순조롭게 잘 크고 있습니다.

♥♥ 아빠와 같이~♥ / 2005. 1. 5 / 대안가정 모

새해에 시골로 가느라 새날이는 아빠와 이틀 밤을 보내게 되었다. 시골은 너무 추운 관계로 새날이를 데리고 가기는 힘들 것 같았다. 그래서 집에서 셋째 고모와 아빠와 같이 지내기로 했다. 새날이는 아빠를 자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낯을 가리지 않았다. 작년에도 감기에 걸려 크게 앓지도 않고 잘 키우는 새날이가 대견스러웠다. 어제는 카톨릭병원에 정기검진을 받는 날이었다. 의사선생님께서 별 탈 없이 커가는 새날이의 모습을 보시고 흐뭇해하셨다. 요즘에는 밥, 과일, 과자 등 주는대로 잘 받아먹는다. 언니, 오빠와 같이 장난도 치고 고모부께서 출퇴근하실 때는 손을 흔들며 반겨주는 모습이 집안 분위기를 환하게 만드는 듯하다. 올해에도 별 탈 없이 새날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길 바란다.

♡ **아빠만 외쳐 대는 새날이 / 2005. 1. 10 / 대안가정 모**

아무리 “엄마”라고 불러보라고 소리쳐 봐도 새날이는 목소리를 높여 “아빠, 아빠”만 부른다. 요사이 는 자기가 아쉬울 때만 엄마라고 부르면서 울곤 한다. 음악소리에 맞춰 앉아서 몸을 흔들고 손뼉을 치 는 그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요즘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간단한 볼일을 볼 때 언니 오빠에게 새날이 를 맡기곤 하는데, 돌아와서 현관을 들어서 는 나를 반기며 기뻐서 소리를 치는 모습이 귀엽다. 밥을 먹 어서 그런지 목소리도 커지고 기어다니거나 소파를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 힘이 넘쳐 보인다. 고모부가 서운해 하는 것은 잘 놀다가도 아빠가 와서 오라고 하면 뒤도 안돌아보고 아빠한테 안기는 모습이 제일 알밋다고 한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아빠”라고 소리치면서 노는 모습을 보니 많이 안되어 보이고 빨리 아 빠 품에서 커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든다.

♡ **새날이 돌 잔치 / 2005. 2. 23 / 대안가정 모**

2월 20일은 새날이가 엄마에게서 남들과 같이 10달을 다 채우고 태어날 예정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조촐하게 돌상을 차려주려고 여러 형제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반대하는 형제들도 있 었지만 새날이 아빠의 간절한 마음에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없이 돌잔치를 한다는 허 전한 마음은 있었지만 엄마를 대신해 뭐든 해주고 싶어하는 아빠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새날 이가 걸음마를 떼는 것을 보니 1년 전 새날이의 모습이 문득 떠오릅니다. 퇴원해 우리 집에 왔을 때 ‘앞 으로 잘 클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앞섰는데 벌써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컸다는 사실에 ‘세월이 참 빠르 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레 깨닫게 됩니다. 돌잔치 하는 날, 여러 사람들에게 새날이가 건 강하게 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겠죠?

♡ **오랜만이네요 / 2005. 4. 25 / 대안가정 모**

내일, 새날이가 최종적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는 날입니다. 평상시 생활하는 데는 별 이 상이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 검사결과는 별로 좋지 않아서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난감했었습니다. 의 사선생님이 기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니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하자고 했는데, 내일이 많이 기다려집 니다. 요즘 새날이는 날씨가 따뜻해져서인지 자꾸 밖에 나가려고 손가락으로 밖을 가리키며 졸라댁니 다. 아파트 마당을 돌아다니며 뒤통거리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손, 옷과 얼굴에는 먼지가 뒤범벅이 되곤 합니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려면 떼쓰는 새날이를 보면 언제 저렇게 컸는지 대견스럽 습니다.

♥️ **여린 가슴에 힘든 삶이 / 2005. 4. 27 / 대안가정 부**

세상이 아름답게만 보일
너의 조그만 가슴에 두 눈에
맑은 소리만 들려야만 할
너의 조그만한 그 귀에 ...

어이 이리하단 말이냐
가슴이 내려앉는다
즈며 즘
못내는 내 가슴이 내려앉는다
아스라이 지리개도
손끝이 감각을 잃어간다
가슴이 아려와
끝 가는 곳 없이
가마득히 내려앉는다

사랑한다
가슴이 시리게
널 사랑한다
늦은 내 삶에
네가 찾아 와
가슴 저미게 아프게 하는
널 사랑한다
내 가슴을 가라앉게 하는
무저갱 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널
무거운 가슴으로
심장을 요동치게 하는 널
사랑한다

못내 다주지 못하는 내 영혼으로 널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픈 가슴만큼 널
사랑한다

 **지천명에 느낀 내 안의 나 / 2005. 5. 3 / 대안가정 부**

사랑 받는 것 만큼만 사랑하자
줄 수 있는 것 만큼만 사랑하자
내 마음 가는 그 곳 끝
마디 마디 울어 터지는 그 만큼만
딱히 사랑 받고 사랑 하자으나
부러 터지고
미어 터져도
내 마음이 가는
딱히 그곳 그만큼만 정을 주자
새날아
하늘을 읽는다는
지천명에
내 너를 사랑하고
네 눈빛이
내 가슴에 닿는다
아직도 난
하늘을 느끼지 못한다
내 나의 삶의
한 가운데
지천명이 지났는데...

 **나 혼자 다닐래 / 2005. 5. 3 / 대안가정 모**

밖에 나가면 손잡는 것이 싫다고 무작정 앞만 보고 걷는 새날이. 나 원참. 잘 걷지도 못하면서... 뒤통 뒤통 넘어질 듯, 걷는 건지 뛰는 건지 발꿈치가 땅에 붙지도 않는 것 같다. 아파트 앞에는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한 눈을 팔 수 없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같이 바깥에 있다 오면 너무 힘이 든다. 4월 26일에 가톨릭 이비인후과에 다녀온 결과, 새날이가 난청이라서 보청기를 해야 하고 경과 봐서 인공 달

팽이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새날이를 키우는 나로서는 믿어지지 않았다. 말도 잘 따라 하는 것 같고, 요즘은 노래를 불러주면 울동도 따라하고 작은 소리에도 “새날아”하고 부르면 뒤로 돌아 본다.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다시 받기로 하고 예약을 해놓고 왔다. 검사를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서 두세 번은 서울에 올라가야만 할 것 같다. 검사받을 때 새날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기가 안스럽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다. 그래도 지금껏 새날이가 아픔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으니 조금만 더 참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새날아! 고모가 정성을 다 할게.

아빠~ 오빠~ / 2005. 5. 6 / 대안가정 모

어제 낮에 새날이가 밖에서 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오빠가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오빠도 새날이를 보았는지, “새날아!”하고 불렀다. 그러자 새날이가 “아빠!”하면서 오빠한테 달려가 안겼다. 그 모습을 보고 동네 아주머니가 너무 우스워했다. 도대체 말을 배우려고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뭐든 ‘아빠’로 통한다. 원하는 물건이 있어도, 그 물건을 가져다 줘도, 오빠 보고도, 기분이 좋아도, ‘아빠~ 아빠!’ 소리를 질러댄다. 새날씨! 아빠와 오빠는 다른 거니까 구분 좀 해주시와요.

깨우지 마세요 / 2005. 5. 12 / 대안가정 모

어제 아침, 서울 병원으로 출발했다. 새날이가 아침 10시부터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배고픔을 이겨낼지 무척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참아주었다. 도착할 때까지 잠도 많이 재우면 안된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안 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많은 주의를 해달라는 말이 있었다. 병원문을 들어서서는 앞도 보지 않고 걸어가는 새날이. 조금 있으면 약을 안먹으려고 발버둥을 칠텐데... 아는지 모르는지 마냥 돌아다니는데만 정신이 없다. 드디어 싫다는 약을 먹고는 깊은 잠에 빠진다. CT촬영실 안에 들어가서 검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려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다. 저 어린것이 언제까지 아픔을 겪어야 되는건지... 검사는 10분만에 끝났지만 수면제를 먹었으니 잠을 깨는지 확인을 해야 집에 갈 수 있다고 해서 억지로 흔들어서 깨워 보려고 해도 새날이는 비몽사몽 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린다. 할 수 없이 세면대로 데리고 가서 세수도 시키고 발을 물에 적시기도 여러 차례...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부시시 눈을 뜨는 모습을 간호사가 보더니 집에 가도 된다고 했다. 물을 조금 마시고 우유를 줬더니 단숨에 먹어버린다. 6~7시간 동안 먹지 못했으니...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서 검사를 받고 마지막 결과를 봐야 하는 일정이 남았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만을 고대하면서...

힘든 하루 / 2005. 5. 19 / 대안가정 모

어제 새벽에 우리 아이들을 뒤로 하고 좋은 결과만을 기대하며 새날이와 함께 삼성서울병원을 향해

출발했다. 병원에 도착해서 마지막 청력검사를 한 번 더 하고 결과를 기다릴 때는 보청기를 안하도록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 새날이도 약을 먹을 때 구역질과 함께 고통스러움에서 해방이 되었으면... 한 시간 뒤, 최종 진단은 대구에서의 검사결과와 닮았어 보청기를 달고 6개월의 경과를 봐서 효과가 없으면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을 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었다. 정말 힘들게 서울 병원까지 왔는데 결과는 보청기를 빨리 해주어서 말을 빨리 배우게 해야 되다니... 모든 상황을 빨리 받아들이고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대구 경대병원으로 가서 상담을 하기로 결정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대구로 내려왔다. 앞으로 새날이를 더 울리고 더 힘들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프고 답답할 뿐이다.



축하해주세요~ / 2005. 6. 21 / 대안가정 모

경북대병원에 새날이 보청기를 하러 갔다가 서울에도 없는 정밀검사가 있다고 해서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봤는데, 오늘은 그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오늘따라 더 초조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새날이의 이름이 불리고 정상에 가까운 수치가 나와 보청기는 안해도 된다는 결과였다. 그동안 고생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가고, 새날이와 함께 나누었던 고통들도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어느새 눈에는 눈물이 핑 돌고, '새날아!'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 병원에서 보청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서울의 병원에까지 갔지만 같은 결과에 마음을 굳히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참 운이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날이는 미숙아라서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줬으니 말이다. 튼튼하게 자라줄 것이라는 확신도 생긴다. 새날아... 이제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잘 먹고, 자고, 놀고,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잘 키워주기만을 바랄게.

어느덧 너를 만날 지도 뻔했어 흘렀구나.

조그마한 아기였는데, 이제는 제법 의사표현도 하고 고집도 늘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으로 자리매김할 너의 모습을 본다.

문득, 네가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의 아기였던 것 같구나.

귀여운 아가야! 너를 바라보면 엄마는 눈물이 난다.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난다. 네가 자꾸 커가서 눈물이 난다.

네가 자꾸 많은 것을 묻고, 많은 것을 알아야 하기에 눈물이 난다.

보라네집



♡ 보라네 집입니다 / 2004. 5. 12 / 김명희

보라는 나이에 비해 몸집이 작은 편이며, 아토피가 조금 있었으나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낮가림이 거의 없고, 불임성이 좋아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보라가 아직 어려서 아마 대안가정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보라 엄마는 목사님 가정이라 너무 좋으면서 감사해 합니다. 엄마의 병세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보라를 보낸 이후에는 자신을 보살피는데 전력을 다 하기로 했습니다. 참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는데 보라로 인해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보라네 집 / 2004. 5. 13 / 대안가정 모

보라 사진이 참 반갑네요! 사랑스러운 아이를 남의 집에 위탁하는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생각해 봅니다. 엄마 보다는 못하지만 무관심한 이웃 보다는 잘 대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이 설레입니다. 고마운 아이, 보라로 인해 우리 가정이 더 바빠지겠네요. 보라야, 내일 만나자!

오빠 / 2004. 5. 13 / 대안가정 오빠

보라야 내일오지? 하린이 언니가 널 보고 싶데! 오빠랑 작은 언니도 보고 싶어해! 내일 보자 안녕!

큰언니 / 2004. 5. 13 / 대안가정 언니

나는 배하린, 큰언니야! 내일 오면 잘 해줄께! 작은언니는 자고 있어. 안녕!

새가족을 기다리며 / 2004. 5. 13 / 대안가정 부

남들은 우리 가족을 보고 욕심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도 5식구가 재미있게 살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 6식구가 되겠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고 욕심이 너무 많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더 많은 욕심을 품고 살립니다. 보라야, 너로 인해 우리 온 가족이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야. 내일 만나면 정말 기쁠거야. 예쁜 모습으로 만나자. 잘 자.

보라는 좋겠다 / 2004. 5. 14 / 쪽방상담소 상담원

보라네를 옆에서 보아온 쪽방상담소 조재희입니다. 칠성동 쪽방에서부터 노숙인 쉼터, 대성원 등을 다니는 보라를 보며 늘 보라에게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아픈 외중에서도 기도만은 잃지 않았던 보라 엄마의 기도 덕인지 좋은 곳에서 자라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지만 앞으로 보라가 자라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구요. 목사님 가정 참 보기 좋고 본받고 싶습니다.

대안가정에 가서... / 2004. 5. 15 / 김명희

대안가정까지 2시간 정도 차를 달렸습니다. 가는 동안 차안에서 보라는 대안가정 엄마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쯤 잠이 깨더니 방긋방긋 웃습니다. 언니, 오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보라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가서 놀기 바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읍사무소에 가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돌

아오는 길에 드디어 보라가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우와! 고집이 보통이 아니네요. 온몸으로 악을 쓰며 버티기는데 엄마가 감당을 못하십니다. 앞으로 보라 한 고집할 때마다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보라네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넷째 딸 / 2004. 5. 16 / 대안가정 모

보라에게 엄마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친모에게 미안한 마음에 어색했는데 이틀 사이에 자연스러워졌지요. 보라는 잠도 잘 자고 어찌나 애교가 많은지 이쁩니다. 오빠랑 언니들이 참 귀엽다고 좋아하고 돌봐주어서 사실 제 손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보라를 만나는 친구와 이웃들이 누구냐고 묻지요. 우리집 넷째라고 하면 두 눈을 둥그렇게 뜨고 나와 보라를 다시 본답니다. 그리고는 금방 보라를 안아주고 뽀뽀하고 난리예요. 이건 내가 엄마인지 그냥 다 엄마인지... 그래도 모두가 사랑으로 환영해줘 기쁘고 행복하지요.

여섯 식구 목욕하기 / 2004. 5. 18 / 대안가정 모

어제는 온 가족이 온천에 갔다. 셋씩 나뉘었다. 온천욕을 마치고 나오니 아빠랑 보라는 벌써 나와 있었다. 왜냐고? 보라가 들어가자마자 울기 시작해서 헐레벌떡 씻고 나오기 바빴다고... 보라는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 남자 어른은 익숙치 않은가? 보라가 입을 옷 3벌을 사고 또 이웃에게서 신발이며 옷 등을 기증받아서 보라 옷장이 따로 있어야 될 듯 싶다. 처음부터 우리 집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편안하다. 그래도 잠자리에 들 땐 보라가 혼란스러운지 불려서 안아 침대에 눕혀야 잔다. 보라야! 여긴 너의 집이고 이젠 다른 곳에 안가도 괜찮으니까 먼저 와서 네가 맘에 드는 사람 옆에 가서 안겨서 자렴. 사랑해!

나는 엄마 / 2004. 5. 22 / 대안가정 모

보라는 나를 '엄미' 라고 부른다. '엄마' 라고 언니, 오빠가 가르쳐줘도 계속 '엄미' 라고 부른다. 그래 그냥 엄미 라고 해라. 뭐 어쩔노 그제 그거지. 우리 집에 온지 1주일이나 지났다. 시간 참 잘 가네. 보라는 낮에는 잘 논다. 정말 말 그대로다. 그런데 밤에는 자다가 몇 번씩 잠을 깨는데 어린것이 마음이 불안한가 보다.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잘 적응해 가고 있다. 사랑스러운 보라로 인해 어디가나 시선을 받는다. 우선은 아이가 넷이라서 그렇고 또 보라가 귀여워서도 그렇다. 내일은 친가에 간다. 경남 통영이다. 보라야 잘 해보자 파이팅!

♡ 보라 엄니~ / 2004. 5. 23 / 쪽방상담소 상담원

잘 지내고 계시죠? 물론, 몸이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전 아기 하나인데도 또, 직장 나간답시고 하루에 반 이상은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서도 힘드네 어찌네 그러며 사는데, 아이 넷을 다 거두시며 지내시니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보라 엄니 살아오신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예요. 보라가 잘 지내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외가에서도 너무 감사하고 계세요. 보라 친모에게는 다음 주중에 한번 들릴 생각입니다. 통영 잘 다녀오시고 어머니 몸도 꼭 꼭 챙기시면서 지내시길 바래요.

♡ 사진은 역수로 찍고.. / 2004. 5. 27 / 대안가정 모

지난 며칠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도 뵙고, 엄마 아빠 친구들도 만나고, 여기저기 재미있게 구경도 많이 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귀염을 떨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었답니다. 사랑은 그냥 물 흐르듯 흐르는가 봅니다. 조심스러웠던 나의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부모님의 넓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었습시다. 할머니 말씀 “보라야, 잘 먹고 잘 자고 쑥쑥 크거라” 보라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잘 웃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냥 웃지요!!

♡ 엄미에게 오기 / 2004. 5. 30 / 대안가정 모

보라는 누구에게나 잘 가고 잘 따르고 예쁜 짓을 한다. 지나가던 사람이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고 그냥 따라간다. 그럴 땐 짜금 섭섭(?)하다. 그런데 어제는 보라가 나를 기쁘게 했다. 같이 놀던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가자”며 안고 대문을 나서니 그냥 울어버리며 “엄미”를 찾는 것이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이젠 잠도 잘 잔다. 깨어서 우는 일도 줄어들고, 뒹굴 놀다가 잘 잔다. 언니 오빠가 예뻐해 주니까 무조건 떼를 쓰기도 하지만 엄미인 내 말은 잘 알아듣고 잘 따라준다. 나는 참 복이 많다! 요즘에 아기가 4명이 되는 집이 흔하지 않는데 4명이나 있으니! 결혼하고 아기를 4명을 낳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따라주어서 3명에서 멈췄건만 보라로 인해 4명이 된 것이다. 호호호! 상큼한 소백산 맑은 공기를 마시며 오늘 하루도 기분이 조오타!

♡ 보라는 귀여워! / 2004. 6. 7 / 대안가정 큰언니

나는 보라가 귀여워요. 보라야 건강해라! 언니가 잘 해줄게! 우리 모두는 너를 사랑해!

♥♥ **잘 해줄게!** / 2004. 6. 7 / 대안가정 작은언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보라도 건강해지고, 정말 나랑 잘 놀자. 엄마, 아빠, 우리 모두 사랑해!

♥♥ **오빠다 까궁!** / 2004. 6. 7 / 대안가정 오빠

보라야. 오빠는 너가 온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너가 언제 오나 늘 기대했지. 너가 왔을 때 너 무 기뻐한다. 이제도 너가 좋아. 사랑해! 그럼 빠이빠이!

♥♥ **빨래단상** / 2004. 6. 16 / 대안가정 모

우리집 빨래걸이엔
우리 가족이 있다.
아기양말
오빠야 바지
언니야 치마
아빠 티셔츠
엄마 바지

쨍쨍 내리쬐는 6월의 태양 아래
용기종기 우리 가족
행복이 넘친다.

누군가 우리 가족 빨래걸이를 구경한다면
참 '행복한 집' 이라고 느낄 거야!

지나가다 빨래걸이를 보면
멈추어 서서 미소를 짓게 된다.
나란히 마르고 있는 아기의 옷과 양말에
마음이 따스해진다.

오늘도 우리 가족 빨래걸이엔
빨래가 마른다.

♡ 나를 제일 반기는 막내! / 2004. 6. 21 / 대안가정 모

1박 2일 외출을 하고 오니 보라가 나를 제일 반긴다. 큰딸은 보조개만 쑥 들어가라 웃음으로 반기고, 둘째딸은 아빠 목마를 타고 있었고, 아들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다고 소리만 들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반가운지 아닌지 웃기만 하는데 보라는 두 팔을 귀 뒤로 딱 붙여서 만세를 부르듯이 와서 안기며 너무 좋아하는 것이다. 감동받았다. 정말 그 느낌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도 보라가 너무 보고 싶었다. 하룻밤인데, 어제 오전에 집을 나가서 오늘 오후 6시에 들어왔는데도 가족이 그립고 반갑다. '그대를 기다리는 10개의 눈이 있다'는 남편의 문자메세지보다 보라의 반깁이 나를 기분 좋게 했다. 그래서 집이 엉망인 것도 다 용서 되었고, 쓰레기더미 같아도 웃을 수 있었다. 난 너무 단순한가? 그래도 행복한 건 행복한 거니까. 하하하다!(아이들 네 명의 이름 첫 글자)

♡ 가방을 돌려메고 / 2004. 7. 7 / 대안가정 모

아침마다 오빠랑 언니들이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면 보라도 같이 나선다. 내가 안고 같이 배웅을 해 주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안 나갔더니 보라가 언니 오빠의 가는 모습을 보고는 서럽게 울고 있는 것이었다. 우는 모습이 가여워 아이들도 가다말고 그 자리에서 보라를 보고 서있고... 참 뭐라고 해야 할지. 오늘은 보라도 예쁜 가방을 메어 주었다. 신이 난 보라는 먼저 앞서서 나가는데 비가 내려서 나가지 못하게 했더니 또 서럽게 운다. 아이들은 우산을 쓰고 "보라야 언니 오빠 학교 갔다가 와서 놀아 줄게. 알았지?" 하고는 달래주고는 줄줄이 학교로 향했다. 아침마다 이렇게 우리 집은 한차례 꽃바람이 지나간다. 행복한 바람, 향기로운 바람, 늘 맞고 싶은 바람. 보라야, 언니가 그러더라 "난 유치원 갔다가 와서 보라를 만나면 그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 우리 가족 모두가 외출하고 돌아올 때 보라가 제일 반가운 것은 내가 우리를 기다려 주기 때문이야.

♡ 응가 / 2004. 8. 24 / 대안가정 모

보라는 지난 달 부터 쉬를 가린다. 낮에는 쉬가 하고 싶으면 '응가' 라고 한다. 응가도 하고 싶으면 역시 '응가' 라고 한다. 기저귀 하고 있기를 싫어하고 제법 '응가' 를 가린다. 어쩌다 실례를 하면 '이히' 하며 나를 데리고 가서 실례한 장소를 가리킨다. 그리고는 내가 수건을 주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깨끗이 닦는다. 귀여운 보라!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 나는 언니 팬 / 2004. 8. 27 / 대안가정 모

보라는 언니랑 오빠가 학원에 간다고 나서면 자기도 따라 나선다. 언니랑 오빠가 웃을 갈아입으면 방

금 입은 새 옷도 스스로 다 벗어던지고 다른 옷을 달라고 한다. 언니들이 머리를 빗고 있으면 옆에 와서 앉아 기다린다. 언니 오빠가 책을 읽으면 보라도 옆에 끼서 그림 구경한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면 보라도 기어이 크레파스를 얻어 한 구석에 낙서한다. 보라에게 하안이가 '따라쟁이' 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드디어 어제는 언니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까지 한 소절 따라 했다! 우리가족 모두 놀랐다. 와! 혹시 보라가 영재 아닐까?

언제나 새벽에 놀러오는 아이 / 2004. 9. 1 / 대안가정 모

우리집 맞은편 골목에는 할머니랑 단 둘이 사는 아이가 있다. 7살이고 우리 아이들 친구이다. 그 아이가 내 생활 속으로 들어온 것은 지난 3월이다. 들로 일 다니는 할머니를 따라 하루 종일 들판에서 혼자 놀다가 오는 아이, 손주를 어디 맡길 데가 없어 새벽부터 깨워 데리고 다니셔야 하는 할머니. 우선은 여러 기관을 문의해서 무상교육을 연결해 주었다. 아이는 자격이 되었지만 할머니는 사는데 바빠서서 모르고 계셨던 것이다. 깔끔하게 원복을 입고 가방을 둘러메고 학원으로 가는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어김없이 할머니는 새벽같이 일하러 가셨고 아이는 저 혼자 옷을 챙겨 입고 차려진 밥을 먹고 가방을 둘러메고 우리집으로 놀러왔다. 그런데 오늘은 오자마다 쇼파에 앉아서 밥하는 나를 보며 얘기를 한다 “나 어제 울었어요!”, “왜?”, “엄마가 보고 싶은데 안와요”, “그래서 보고 싶어서 울었어?”, “네!”, “할머니랑 울었어, 아님 혼자 울었어?”, “할머니 없을 때 혼자 울었어요” 아이는 혼자 마음을 다스린 듯 그렇게 말하고 앉아 있었다. 나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다음에 또 눈물이 나고 울고 싶으면 아줌마한테 와서 울어. 알았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눈물이 나서 얼른 화장실로 가서 눈물을 닦고 나왔다.

귀여운 보라! / 2004. 9. 30 / 대안가정 모

추석에 통영 시택에 온 식구가 모였다. 보라는 웃음보따리를 모두에게 선사했다. 모든 말끝에 ‘요’ 자를 쓰며 재롱을 피우니 안 웃을 사람이 없었다. 얼마나 말을 제법같이 하던지 나도 놀랐다! 보라는 이제 귀여운 막내로서 인정되었다. 밥도 잘 먹고,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재롱 피우고, 잠 잘 때도 할머니랑 놀다가 같이 자곤 했다. 동서는 보라 몫의 선물까지 안겨주며 예뻐해 주었다. 어떨 땐 당연한 것 같은 모든 일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에게 눈물이 나도록 고맙고 감격스럽다. 우리 부부의 선택에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고 협조해 주는 가족이 있음을 인해 너무 감사하다! 모두들 사랑해요!

샘쟁이들! / 2004. 10. 2 / 대안가정 모

셋째 딸은 요즘 들어 보라를 많이 샘한다. 보라는 처음부터 막내언니에 대해 약간의 경계를 가졌었고



샘도 있었다. 툭툭툭 싸우는 것도 역시 둘의 일이다. 막내 언니의 손에 뭉가 있으면 그걸 억지로라도 뺏으려 한다. 뺏길 리 없는 셋째는 나에게 와서 보라를 고자질한다. 무심한 듯 넘어가기도 해 보지만 어떤 신경전이 펼쳐지는 듯하다.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둘의 극적인 화해가 있기를 바라본다. 어제도 셋째가 나의 품에 안겨서 내 손에 뽀뽀를 하니 옆에서 놀던 보라가 얼른 와서 언니를 밀어내고 내게 안겨 언니 보다 더 많이 뽀뽀를 해댄다! 내참, 행복에 겹다고 해야 할지 어쩔지... 그러다가도 놀 땐 또 잘 논다. 알다가도 모를 아이들... 오늘은 또 어떤 일로 서로를 샘할까? 기대(?)가 되는군...

 **한쪽밖에 없는 눈썹... 흑흑 / 2004. 11. 20 / 대안가정 모**

보라의 앞머리를 눈이 보이도록 자르고 나니 지저분한 윗눈썹이 포착되었다. 어데 보자~ 눈썹 칼을 가지고 와서 누우라고 하니 보라도 미모에 관심이 많은지라 시키는 대로 발라당 눕는다. 살짝 살짝, 조심 조심... 허걱! 움직이지 말란 말야! 야! 야! 사건이 이미 벌어졌으니... 흑흑흑. 보라가 이마를 위로 움직이는 바람에 그만 눈썹이 밀려버렸다! 도저히 어찌 할 수가 없구나~ 우짜노~ 보라는 눈썹이 한쪽밖에 없는 미녀가 되었다는 전설이 소백산자락에 남아있다. 그래도 예쁘기만 하군!

 **보라에게 / 2004. 12. 12 / 대안가정 모**

너의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니 어느덧 너를 만난 지도 반년이 흘렀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조그마한 아기였는데 이제는 제법 의사도 표현하고, 고집도 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족으로 자리매김한 너의 모습을 본다. 문득, 네가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의 아기였던 것 같구나. 귀여운 아가야! 너를 바라보면 엄마는 눈물이 난다.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난다. 네가 자꾸 커가서 눈물이 난다. 네가 자꾸 많은 것을 묻고, 많은 것을 알아야 하기에 눈물이 난다. 사랑하는 아가야! 우리 함께 가자. 넓고 편안한 길은 아닐지라도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출발하자. 가다 보면, 꽃도 피고, 새도 울고, 싱그러운 바람도 불어오리라. 가다가 꽃밭을 만나면 꽃향기를 맡고, 별관을 만나면 함께 뒹굴고, 강물을 만나면 발을 담그며 함께 가자! 이제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왔던 것처럼... 너를 정말 사랑하게 되었구나!! 귀여운 나의 아가야.

 **무지개 / 2004. 12. 30 / 대안가정 모**

[내 마음에 뜨는 무지개]

내 마음의 하늘에는
날마다 무지개가 뜹니다.
동산에 해가 뜰 때 내 마음에는

일곱 색깔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빨간색 띠는 내 마음에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찾아내고

그것들과 함께 행복하라고 재촉합니다.

주황색 띠는 내 마음에 인내를 가르칩니다.

오늘이란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기다림으로

내일의 기쁨을 찾아가는 길목이라고 가르칩니다.

노란색 띠는 내 마음에 평화의 소식을 전합니다.

평화란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이므로 평화를 얻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라고 속삭입니다.

초록색 띠는 내 마음에 심터를 마련합니다.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보고 느끼면서

천천히 가볍게 걸으라 합니다.

여유와 여백의 기쁨이고 힘이 곧 힘이라고 말합니다.

파란색 띠는 내 마음에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수 있고

문득 허무할 때도 있지만

내일의 그림은 늘 밝고 아름답게 그리자고 합니다.

남색 띠는 내 마음에 겸손의 자리를 펴니다.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은 외롭고 위험하지만

남을 섬기고 겸손해 지는 것은

즐겁고 안전하다며 낮은 곳에 자리를 펴고 앉으라 합니다.

보라색 띠는 내 마음에 사랑의 단비를 내립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것은
가진 것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며
사랑의 빗줄기로 내 마음을 촉촉이 적셔줍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에 무지개를 띄울 수도
먹구름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고민이 생겼어요 / 2005. 1. 6 / 대안가정 모

보라가 이제는 의사표현도 알아듣게 잘 하고 또 상대의 이야기도 잘 알아듣는다. 솔직히 보라에게 어떻게 이야기 해야할 지 모르겠다. 보라를 안고 놀다가 가끔씩 보라의 친엄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림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말한다. “보라야, 이 엄마는 가짜엄마고 진짜엄마는 대구에 있어” 라고. 그러면서 또 내게 말한다. “엄마, 보라는 엄마가 진짜엄마만 줄 알걸?” 보라는 커가고 있고, 어떻게 해야할까?

편애 / 2005. 1. 15 / 대안가정 모

보라는 여전히 침대에서 나랑 잔다. 아침에 아이들 방에서 자고 일어난 언니, 오빠가 하나씩 내 침대로 올라오면 보라는 쫓아내기가 바쁘다. 이상한 것은 다 쫓아내면서도 큰언니는 오히려 “일루와 일루와” 하며 손까지 까딱까딱하는 것이다. “보라야, 그렇게 편애를 하면 신상에 안좋단다~” 보라는 그래도 큰언니만 졸졸졸... 큰언니는 보라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어쩔 그리도 죽이 맞는지 나도 궁금할 지경이다.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메우니 추운 칼바람이 맥을 못 춘다. 눈이 언제나 오려나? 눈 오는 날에 가까운 소백눈썰매장에 아이들과 가기로 했는데 아이들보다 내가 더 기다려진다.

허걱! / 2005. 1. 23 / 대안가정 모

보라가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맛나게 먹는지 도저히 뺏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도 뺏아야겠죠? 뭘 먹냐고요? 바로 바로... 치약! 어라~ 제가 방금 보라를 보며 다정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보라야!” 했길랑요? 그런데 바로 제자리에 갖다놓네요. 거 그놈 참, 싱겁긴... 저도 좀 싱겁죠? 그 엄마에 그 딸이 랍니다.

♥ 저 좀 도와주실래요? / 2005. 2. 7 / 대안가정 모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으신 누구라도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행사가 있어서 어제 대구에 다녀왔는데 저는 합창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잘 놀던 보라가 나를 보더니 손을 내밀고 안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안아주고는 엄마는 지금 나가야 하니 아빠와 있으라고 했더니 싫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부드럽고 진지하게 얘기했죠. 엄마는 지금 노래하러 나가야 된다고, 노래하고 와서 안아주겠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이... 아, 글썄 보라가 복도에 살짝 넘어라구요. 그래서 뭐하려고 저러나 했잖는데, 그 다음엔 본격적으로 소리 지르며 떼를 쓰는 거예요. 우... 땀글땀글 하면서 말이에요. 아무리 달래도 안 돼서 실컷 울고 나면 엄마한테 말해라 그러고는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서 있었죠. 퀴즈! 보라는 몇 분을 그러고 들어 누워 땀글었을까요? 결국은 다 울었노라고 손을 내밀기에 다시 데리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진이 빠지던지... 친구는 그런 우리 모녀를 보고 계속 웃어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재밌어하고... 와... 들어가는 고집에 잘 대처하는 방법을 조언 바랍니다. 안그러시면 보라맘 엄청 빼집니다요~

♥ 쉬~~하기^^* / 2005. 3. 29 / 대안가정 모

보라가 용변을 볼 때마다 변기에 앉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쓰던 방법을 다시 활용한답니다.

- 1단계 : 옷을 내린다.
- 2단계 : 발판을 밟고 올라선다.
- 3단계 : 엉덩이를 뒤로 밀면서 올라앉는다.
- 4단계 : 볼일을 본다.
- 5단계 : 조심해서 내려온다.

어찌 보면 쉬운 과정이지만 보라가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특한지...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가 보라의 '쉬' 에서 해방 되었지요. 만세!!

♥ 보라는 놀이방을 좋아하나 봐요~ / 2005. 4. 19 / 대안가정 모

지난 토요일 오후에 집 앞을 지나가던 놀이방 봉고차가 보라랑 우리 아이들을 보고는 잠시 멈춰서 인사하고 가더군요. 그런데 보라가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 오더니 놀이방 가방을 챙겨서 둘러메고는 다시 나가더군요. 잠시 후 보라의 통곡소리... 딸아이가 우는 보라를 달래 내게 데리고 오더군요. 보라는 놀이방 차를 보고는 놀이방 가는 줄 알았나 봐요. 그냥 가버린 봉고차. 참내, 놀이방이 그리 좋나? 모를 일 이야.

♡ 아기가 아플 때... / 2005. 5. 1 / 대안가정 모

그제 밤, 보라는 펄펄 끓는 몸을 주체할 수 없는지 먼저 잠이 들고 말았다. 잠깐 잠이 깨었을 때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니 아픈 얼굴에 살짝 미소를 흘려준다. 아마도 열감기를 하는 것 같았다. 놀이방에서도 축 쳐져서 보냈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렸다. 우리아이 세 명도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컸었건만... 마치 처음으로 아픈 아이를 보는 것처럼 내 가슴에 아리게 다가왔다. 내가 친모라면 차라리 마음이 덜 아플까?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남의 집'에 와서 아파 누워있는 보라가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보라야 아프지 마라. 니가 아프면 엄마도 아프다. 니가 아파도 울지도 않고 웃으면 내 가슴엔 눈물꽃이 핀단다.

♡ 보라가 더 바빠요~ / 2005. 5. 24 / 대안가정 모

오늘은 보라의 언니 오빠가 소풍을 가는 날이다.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은 설레임으로 분주하다. 덩달아 바쁜 보라. 언니들 머리 빗자마자 엉덩이를 밀고 들어앉아서 "언니머리도" 보라는 자기가 언니란다. 아이들이 옷을 챙겨 입자, 보라도 왔다 갔다 하며 "언니 바지? 언니바지?" 아이들이 가방에 물건을 주섬주섬 챙기자, 보라도 놀이방 가방에 과자를 넣으란다. 드디어 언니 오빠가 학교로 가고... 보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언니도 학교갈래~" 하며 따라나선다. 허걱! 보라는 더 있다가 놀이방 가자고 겨우겨우 달래고 바쁜 아침을 마무리했다. 가방을 메고 나서는 보라의 뒷모습에도 신바람이 가득했다. 넣어 가지고 간 과자 한 봉지는 어떻게 할꼬? 궁급하다.

♡ 오늘이 보라아빠 생일이걸랑요 / 2005. 7. 13 / 대안가정 모

아이들이 깜짝 파티를 한다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더군요. 불을 끄고는 케익에 촛불 켜고 고깔모자 쓴 아빠는 늦게 들어오게 해서는 들어오자마자 생일축하 노래 부르고, 편지 써서 읽고... 선물로 연필 4자루, 지우개, 작은 기념품들(부석사 앞에서 지난겨울에 산 것), 하트모양 장식을 건네던데, 재밌죠? 그리고 고는 서랍장 위로 넷이서 쪼루루 올라가더니 합창을 하더군요. 이만하면 세상에서 젤 근사한 생일파티 아닐까요?

♡ 보라의 예쁜 목소리 / 2005. 8. 14 / 어린이집 교사

보라는 차를 타면 노래를 곧 잘 부르고 한다. 친구들은 거기에 맞추어 박수를 쳐주고 선생님은 보라 최고라고 칭찬을 해주신다. 늘 우린 등원 차량에서 노래자랑을 하고 하원 차량에서는 오늘 재미있었던 모든 것을 이야기 한다. 우리 놀이방 친구들은 보라 어머니님과 아버님을 너무 좋아한다. 항상 웃으시며

보라를 등원시키고 하원할 때는 “잘 다녀왔어? 우리 보라” 하며 안아주시는 모습은 늘 항상 행복해 보인다. 웃음이 있는 가정, 그래서 보라는 얼굴에 미소 항상 띄우며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짱인가 보다. 할머니 댁에서 재미있게 보내고 있을 보라를 보고 싶어하는 선생님이...

 **찾아보세요~ / 2005. 9. 5 / 대안가정 모**

엄마랑 아빠는 노래한다고 무대에 서 있고 언니랑 오빠는 아이들 올라오란다고 벌써 올라갔고... 언니가 보라는 다른 언니랑 논다고 안 올라왔다고 했는데 사진을 정리하다보니 보라가 빼꼼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비디오표 보니 어디서 헐레벌떡 뛰어 오더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아마도 관중석 저 끝에서 언니랑 놀다가 아이들이 무대로 올라가니 덩달아 이게 된 일이고 하고 뛰어왔을텐데... 사진을 보고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언니들이랑 오빠도 “어? 보라 올라왔네?” 하며 대견해 하더군요. 이젠 엄마 아빠 없어도 언니 오빠 없어도 잘 놀아요. 보라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젠 많이 컸걸랑요. 호호호...

 **보라의 새신발 / 2005. 10. 11 / 어린이집 교사**

오늘은 보라가 자랑을 말도 못하게 한다. 뭐가 저리 좋을까. 그건 다름이 아닌 머리에 달린 리본 방울과 새로 산 신발. “선생님, 이걸 아빠가 머리 묶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신발은 엄마가 사주셨어요. 이쁘죠?” 수업을 하다가도 눈은 신발장으로, 놀다가도 신발장으로, 아이들이 건들이기라도 하면 가만히 안보고 있는 보라. 오늘 기분이 만땅!! 보라 땀시 옛날 검정 고무신 생각이 문득 난다. 그것 신기 싫어 강물에다 띄우고 아님 돌에다 문질러 다 닳아 없애려고 했던 철이 없던 시절. 나도 저렇게 좋아했을까. 보라는 아마 며칠 자랑을 할 거랍니다. 친구들이 다 알 때까지는 말이예요. 보라야! 사랑해.

 **엄마 조심해~ 앓찌? / 2005. 10. 21 / 대안가정 모**

보라 바지를 세탁기에 넣는데 뭐가 툭하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주워보니 보라가 오기 오래전에 찍은 가족사진이었다. 열쇠고리로 만들어진 것인데 망가지기도 하고 오래 되어서 굴러다니던 것이었다. 보라가 그걸 호주머니에 넣고 있었나보다. 보라는 사진을 줍는 나를 보고 “엄마 조심해! 앓찌?” 한다. “응 알았어! 보라 호주머니에서 사진이 떨어졌어”, “응~ 그렇구나! 그래도 조심해. 앓찌?” 어느날 벽에 걸린 (보라가 없는) 가족사진을 보더니 하안이 보고 자꾸 보라란다. 예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에 아기가 있으면 보라란다. 보라랑 가족사진 찍어야지 하면서도 여태 제대로 찍지 못하고 지나온 것이 못내 미안했다. 보라야, 우리 품 잡고 가족사진 한판 박자! 앓찌?

♡ 보라의 예쁜 목소리 / 2005. 10. 29 / 어린이집 교사

오늘아침 등원시간, 보라 아버님만 문앞에 서 계셨다. 선생님 오늘 보라가 안보여요. 그 짧은 순간 보라가 많이 아픈건가 어째서 그렇지 별 생각을 해 보았다. “오늘 보라 늦잠자서 이따 데려다 드릴게요.” 휴~ 안도의 한숨. 어디 아픈건 아니니 다행이네. 조금 늦게 도착한 보라는 오늘 장구 수업시간 힘차게 노래를 불렀고 큰 목소리 예쁘고 가냘픈 목소리로 산도깨비를 불러 본다. 며칠 힘이 없어 하던 보라가 오늘은 ㅎㅎㅎ 기운이 나나? 선생님께서는 너무 잘 했다며 칭찬하시고 사탕을 보라 입에 넣어 주신다. 우쭐 친구들에게 자랑한다. 주방으로 들어와 선생님에게 사탕 받았다고 자랑한다. ㅎㅎㅎ 저리도 좋을까. 그래, 보라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커야 돼. 니가 힘이 없으면 우리 선생님 모두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힘이 빠진다는 걸. 그럼 월요일 감기 걸리지 않는 모습 보여 주기다 자 우리 꼭 손가락 잡고 약 ~숙.

♡ 씽씽이 / 2005. 11. 7 / 대안가정 모

아빠가 사준 씽씽이를 계속 타면서 보라가 아주 신이 났다. 언니한테 빌려주라고 해도 절대로 안된다더니 두 언니한테 한 번씩 타라고 인심도 썼다^^* 주말엔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가 와서 재밌게 놀다갔고 집에 일이 있어서 좀 바빴다. 보라는 지금도 씽씽이를 끌고 이방 저방 순례를 한다. 한시도 손에서 놓지를 않으니... 아마도 잘 때도 옆에 끼고 자겠지? ㅋㅋ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이 많은 우리 보라^^ 사랑한다...

♡ 보라를 보며 / 2005. 11. 16 / 쪽방상담소 상담원

보라 어머니~ 안녕하시죠? 저 누구냐면, 쪽방상담소의 조재희입니다. 기억하실지^^ 사무실 일할 때마다 짹짹 시간을 내어 보라네에 들어오지만, 이렇게 글을 남기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보라 언니, 오빠들도 다 잘 지내는 것 같네요. 그 누구보다 보라가 너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 너무 감사하고, 그냥 축복이다 싶습니다. 2002년 겨울, 칠성동에서 만났던 생후 한 달의 보라가 떠오르며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게 되네요. 그냥 말하기만 한 것 같아 늘 죄송합니다. 보라네에 늘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구요. 또 놀러 올게요~

♡ 사진 없는 보라 생일 / 2005. 11. 29 / 대안가정 부

28일이 보라 생일이었다. 27일 작은고모가 결혼을 하느라 바빠 온 가족이 정신이 없었다. 사진기는 고모가 신혼여행 가는데 가지고 가서 생일 사진을 찍지 못했다. 그래도 아침에 구구마케익을 사서 멋지

게 찯불 켜고 노래 부르고 케익 자르고 밥 먹고 케익을 한 접시 떠주었더니 보라와 언니들이 별로 안 먹는다. 고구마가 많이 들었나보다. 나름대로 비싸기도 하지만 건강에 좋으라고 한건데, 잘 됐다. 덕분에 엄마 아빠가 케익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에도 또 고구마 케익을 사야지. 보라는 미리 할머니 집에 가 있느라 며칠을 놀이방에 가지 못했는데 오늘은 즐거운 모습으로 친구들에게 갔다. 생일날 보라가 오지 않아서 섭섭하다는 선생님의 전화가 있었는데 오늘은 선생님께서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보라는 우리집에 와서 지낸 시간이 보라의 현재까지의 삶의 절반을 지나고 있다. 이제 36개월을 지나 아동기의 삶을 살 보라를 위하여 많은 사랑과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열린놀이방 김장 담그기 / 2005. 12. 9 / 어린이집 교사

오늘은 열린놀이방에 김장 담그기를 하는 날이다. 드디어 친구들과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수건을 하고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김장 담그기를 준비한다. “자 오늘은 배추의 옷을 얼마나 입히느냐에 따라 김치를 많이 가져 갈수 있으니 많이 옷을 입혀라” 배추는 새빨간 옷을 입고 우리 친구들 얼굴에도 새빨갭게 고춧가루를 발라가며 배추에 옷을 입혀본다. 다람쥐도 겨울 준비를 하듯이 이 추운 겨울 우리들도 김치를 많이 버무리 겨울나기를 한다고 이야기 한다. 김치를 버무리는 순간 보라 왈 “혜혜 선생님 하나 먹어도 되요?” “응 그래 먹어 보세요” 한 줄기의 김치를 먹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선생님 매워요” 하더니 친구들의 말에 억지 눈물을 참으며 “안매워요” 하는 것이다. ㅎㅎㅎ 친구들에게 용감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일까. 모두들 안매다네... 오늘 저녁 반찬에는 우리 친구들이 만든 김치가 식탁에 올려져 있겠지요. 우리 친구들의 고사리같은 손으로 버무렸으니 맛도 역시 좋을 거예요. 보라야 저녁 맛있게 먹구 월요일날 보자. 보라를 사랑하는 선생님이.

걱정거리 / 2005. 12. 19 / 대안가정 모

우리집 강아지 슈가 4일째 보이질 않아요. 여친을 따라 집을 나갔는지... 그래도 가끔은 얼굴을 보여야 정상인데... 영 보이질 않네요. 보라는 오메 가메 슈가의 빈집을 쳐다보며 “엄마, 슈가 없어? 슈가 없다!” 라고 찾지요. 슬슬 걱정이 되서 동네를 돌아보기도 했지만 흔적이 없어요. 이 추운 날, 슈가는 어디를 갔을까...? 온 식구가 슈가 걱정에 맘이 무겁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면 가람이가 먼저 말한다.

“큰아빠 혼람 벗을까요?”

“그럼 혼람 벗고 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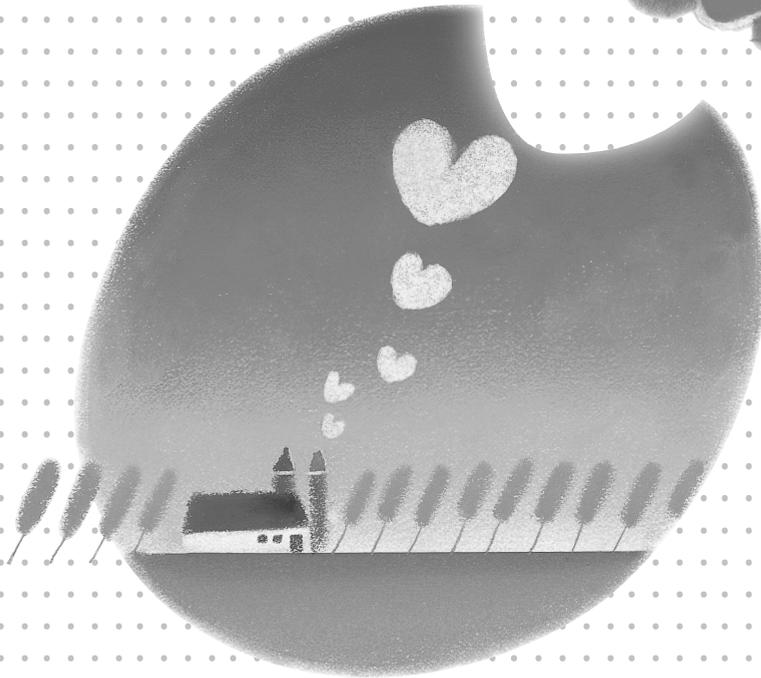
가람이는 이제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아이 둘을 키울 때는 매를 들어가면서 키웠다.

그러나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것처럼 너그럽게,

사랑을 가득 실어서 하루하루를 산다.

가람이네집



♥ 가람이 데려다 주고 방금 돌아왔습니다 / 2004. 8. 3 / 김명희

오후 늦게 출발하다보니 이제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걱정하실 것 같아 이렇게 글 올립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돌아오는 길 군위휴게소에서 대안가정 어머니님의 전화를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가람이가 그렇게 예쁘던가요? 물론 이쁘게 생겼지만 대안가정이 되고자 마음먹고 준비한 기간이 있었기에 그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참 희한하지요. 대안가정 엄마랑 가람이라 어찌 그리 닮았는지... 가람이가 밝고 명랑하게 잘 적응한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이제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더 밝아지겠지요. 가람이 아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얼마나 가람이를 반기고 이빠하는지... 열심히 일하셔서 하루빨리 빛도 갓고 가람이와 함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정신없이 바쁜 하루였습니다. 휴가가 오늘까지인 아빠. 내일부터 가족휴가를 떠나는 대안가정 가족들. 그리고 임시로 돌봐주는 가정에서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상황. 오늘이

.....

아니면 가람이가 대안가정으로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어쩔 그리 척척 맞아들어가는지 저
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가람이가 가정위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양쪽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가람이와의 첫 만남 / 2004. 8. 4 / 대안가정 큰누나

안녕하세요? 저는 가람이의 새로운 큰누나 입니다. 어제 바쁜 상황에서 가람이를 만나 처음에는 정신
이 없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가람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가람이는 정말 밝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동생은 필리핀에 있기에 저희 가정은 예전부터 아이를 데려와 키우려 했습니
다. 그런데 그 꿈이 이렇게 이뤄져서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예쁜 남동생이 생기다니... 저희 가정에 있
는 동안 부모님들과 정성껏 돌보겠습니다. 가람이 아빠! 힘내세요. 파이팅.

가람이 아빠입니다^^ / 2004. 8. 10 / 친부

안녕하세요. 가람이 아빠입니다. 올리신 글과 사진은 잘 보았습니다. 가람이가 좋은 분 만난 것 같아
정말 좋구요. 가람이가 고집이 굉장히 센 편인데 아마도 엄마, 아빠와 떨어져 지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착한 아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열심히 힘내서 좋은 아빠가 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
다. 대안가정의 덕분에 정말 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이 잘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람이 아빠 보세요 / 2004. 8. 14 / 대안가정 모

가람이 아빠 안녕하세요? 가람이네 집입니다. 많이 궁금하셨죠? 가람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
난 힘들고 어려웠던 날을 많이 잊은 것 같습니다. 밥도 잘 먹고, 또 한글 공부를 시작했는데 너무 잘
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 가정예배를 통해 배운 노래는 지금은 상당한 수준급이랍니다. 가람이 아빠,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큰 어려움도
있죠. 이제 그 걱정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들어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용기 잃
지 말고 힘내세요. 가람이는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마세요. 우리 가정
에 가람이를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람이 아빠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
니다.

♥ 가람이의 생일 / 2004. 8. 26 / 대안가정 모

가람이의 생일! 가람이가 네 번째 생일을 맞았다. 아빠께서 우리 가람이 건강하고, 슬기로운 아이가 되기를 바란다는 권면의 말씀을 주셨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생명의 탄생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우리 모두는 가람이의 행복을 위해 두 손을 모아 기도드렸다. 아빠의 선물은 츄리닝, 엄마의 선물은 예쁜 운동화. 맛있는 케익과 가람이가 좋아하는 생선, 미역국을 먹었다. 맛있게 잘 먹는 가람이가 너무 예쁘다.

♥ 추석-부산가는 차 안에서 / 2004. 10. 1 / 대안가정부

추석에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갈 때는 4시간 올 때는 무려 11시간이나 걸려서 다녀왔습니다. 가람이는 때때로 빨리 집에 가자고 졸랐지만 휴게소에서 맛있는 음식도 사먹고 친구 만나는 재미도 있어서 즐거워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 분양 받은 토끼들도 이번에 함께 갔는데, 가람이는 무척 토끼를 좋아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 2004. 11. 4 / 친부

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안 바빠서 소홀히 했네요. 죄송합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가람이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정말로 감사하구 잘 부탁드립니다. 가람이 생일이 꽤 지났지만 늦게나마 축하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가람아 어른들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지내라. 고집이 센 가람이가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네요. 그럼 다음에 다시 적도록 하고... 가람아 사랑한다.

♥ 가람이네요? / 2004. 11. 5 / 대안가정 모

안녕하세요? 가람이 아빠. 가람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람이가 어린이 집에서 기차 여행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너무 너무 행복하답니다. 우리집에 와서 잘 적응하며 지내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뭐든지 가르치면 잘 따라하고, 기억력이 좋아서 한 번 가르쳐 준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영어 노래랑, 가족예배를 통해 배운 노래 실력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니 가람이 아빠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새 가정을 이루어 하루 속히 안정을 찾게 되기를...

♥ 큰 아빠의 일기 2004 / 2005. 2. 13 / 대안가정 부

■ 초기

여름 캠프 중에 아내에게서 아들이 생겼다고 전화가 왔다. 이 나이에 아들이 생겼다고 하니 잠시 멍해졌다. 아내는 당황해 하는 내 눈치를 살피고는 자기가 아들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대안가정이 필요한 아이가 생겼는데 데려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캠프를 마치고 오니 가람이가 와 있었다. 가름한 얼굴에 무척 여위었고, 오른쪽 대문니는 빠졌고 헛바닥은 감염으로 흉한 흠이 나있었다. 그러나 눈동자가 크고 동글어 잘생겼고, 사람들은 엄마(아내)를 많이 닮았다고 했다. 처음에 가람이는 엄마와 달리 나를 경계의 눈빛으로 대했다. 친엄마는 모르지만 친아빠는 기억하고 있어서 나와 쉽게 어울리지 못했다.

■ 가람이의 습관들

가람이는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집, 어린이집 등을 옮겨 다니면서 눈칫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고집이 세고 울기를 잘했다. 지난 여름, 물가에 놀러 갔는데 가람이는 통 물 속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았다. 물에 몸을 적시다가 옷이 젖는 것을 혼날 일로 여겨서, 결국 물에 들어가는 것은 실패했다. 가람이는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한다. 양치질, 옷입기, 밥먹기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혹 잘못해서 혼나지 않을까 두려워서 못한다. 가람이의 좋은 습관은 학습 습관이다. 지나가는 말로 가르친 것도 혼자서 다시 응얼거리면서 반복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노래들과 영어들이 참 많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참 좋다. 착 달라붙어서 온갖 재롱을 다 떨어가면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편이라 사람들은 가람이를 참 좋아한다.

■ 교육

또래 아이들에 비해 성장이 좀 뒤떨어지는데, 안정적인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가람이에게 한글학습지를 하게 하면서 학습지를 아끼지 말고 닳도록 갖고 놀도록 했더니, 공부로 여기지 않고 놀이로 생각해서 잘 갖고 논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처음에는 가기 싫어했는데 지금은 재미있어 한다. 너무 개구쟁이고 아이들을 못살게 굴고 짓궂다. 상처도 나고, 흑도 붙여 오고, 명도 들어서 염려도 되지만 이젠 당당한 가람이를 보게 되어 기쁘다. 물을 두려워하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물에서 노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함께 놀며 가르쳤다. 우리는 둘이서 욕실에서 흘랑 벗고 신나게 물장구도 치고 물싸움도 한다. 이제 제 녀석이 되면 가람이가 먼저 말한다. “큰아빠 흘랑 벗을까요?”, “그럼 흘랑 벗고 놀자!” 가람이는 이제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아이 둘을 키울 때는 매를 들어가면서 키웠다. 그러나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것처럼 너그럽게, 사랑을 가득 실어서 하루하루를 산다. 처음에는 참 어려웠지만 지금은 가람이도, 우리도 사랑을 배운 것 같다. 우린 관계가 참 좋다. 처음에 엄마가 없으면 울던 가람이가 이제는 나와만 있어도 잘 지낸다.

■ 가람이로 인한 부담

가람이를 위해 따로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약간의 부담이 된다. 그리고 가람이가 다칠까봐 염려도 된다. 내 아이면 내가 책임을 다 지겠지만, 대안가정운동본부와 친부모에게 설명이 되어야 하니 때때로 염려스럽고 두렵다.

■ 가람이를 키우면서 얻는 기쁨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다. 받는 사랑은 만족할 수 없지만 주는 사랑은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 가람이를 키우며 주는 사랑을 배운다. 불행한 환경에 처한 아이가 나를 만나, 나의 사랑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곧 행복이다. 그것은 가람이의 행복이요 나의 행복이다. 나는 가람이를 키우며 이런 기쁨을 누린다.

♥ “엄마 나 행복해” / 2005. 2. 21 / 대안가정 모

영어 비디오를 보던 가람이가 “엄마 나 행복해” 하며 품에 안겼다. 엄마와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는 가람이를 보며 나도 행복해했다. 한글 깨치기를 하고, 어린이집을 다니지 이제 만 5개월이 되었다. 이름도 쓰고 숫자와 받침이 없는 글을 읽기 시작했다. 교육을 시키는 보람이 있다. 서두르지 않는다. 아직은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있는 것 같아 답답하지만 조금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 우리 부부는 가람이의 이런 모습을 보며 따뜻한 봄을 느낀다.

♥ ~^^~ / 2005. 3. 17 / 대안가정 모

안녕하세요? 모두 모두 행복해 보이네요. 너무 오랫동안 찾아보지 못해 죄송한 마음... 저희도 행복하구요. 우리 가람이 많이 자랐습니다. 오늘은 조금 피곤한지 일찍 잠이 들었네요. 가람이를 키우면서 “예 빠지셨네요” 혹은 “짧어지셨네요” 부쩍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베푸는 사랑이 이렇게 저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주네요.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 하는가 봅니다.

♥ 이럴 수 있나요? / 2005. 7. 9 / 대안가정 모

지난밤에 뭐든지 잘 먹겠노라고 굳은 약속을 했는데, 아침밥을 먹던 가람이가 밥 안에 든 콩을 다 가려냈지 뭐예요. “너 먹기로 약속 했잖아?” 했더니 “내가 먹으려는 콩은 파란 콩이야” 라며 끝내 먹지 않습니다. 저녁에 다시 콩을 바꿔 넣었는데 이제는 파란 콩이 아니라 빨간 콩을 먹겠다며 먹지 않는 거예요. 콩 잘 먹일 수 있는 좋은 비법은 없을까요? 우리 가람이를 위해 도움을 주실 분은 안 계신지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표정놀이 / 2005. 7. 24 / 대안가정 큰누나

안녕하세요? 큰누나입니다 방학동안 집에 잠시 와있죠.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카메라만 들면 가람이가 끼어든답니다. 가람이 표정놀이 엄청 좋아합니다. 신난다네요. 방학동안 요놈이랑 계속 같이 있으려니 사실 싸울 때도 있어요. 제 친구들은 6살짜리 꼬마애랑 싸우는 저를 보며 철없다 구박 하는데 저도 그럴듯한 이유는 있다구요. 하루는 자기 혼자 신나게 만화 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좀 보려고 그랬더니... 자기 만화 7개 밖에 못 봤다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치사쟁이... 이런 일로 싸워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제가 이기죠.

♡♡ 딱 걸렸네~ / 2005. 8. 28 / 대안가정 모

햇살이 너무 따가워서 낮에 가려했던 시장을 저녁 먹은 후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이제는 가람이가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여우를 피해가면 곰을 만난다고. 따라가겠다고 나선다.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다. 할 수 없어 '내일 가야겠다' 하고 내가 포기를 했다. 가람이를 데려 가지 않으려는 데는 이유가 다 있다. 함께 가면 갈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돌아올 때가 문제다. 보는 것마다 사달라고 하거나, 집으로 올 때 걷기 싫다고 길에서 업어달라고 고집을 피운다. 여하튼 이런 저런 이유로 시장 본 물건을 들고 가람이를 데리고 오기에는 나에게는 조금은 버겁다. 그때, 내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이 아빠가 산책을 가자며 가람이를 데리고 나갔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 얼른 뒤를 따라 나섰다. 그런데 이게 웬일?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갔으면 만나지 않았을텐데 서로가 반대로 갔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서 딱 마주쳤다. 우리는 서로 마주 보고 박장대소를 하며 배를 움켜잡았다. 결국 이날 시장 보는 것 포기했다.

♡♡ 추석 잘 보내셨나요? / 2005. 9. 18 / 대안가정 모

대안가정 가족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추석은 잘 지내셨나요? 모처럼 가족이 한데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송편도 빚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가람이는 한복을 입고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더니 옆집 아주머니께서 멋있다고 했더니 아주 좋아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보면 가깝이다.

고래고래 깨워서, 바둑바둑 씻기고, 꾸역꾸역 메달 다음,

바둑바둑 머리를 땀겨 머리핀으로 멎들어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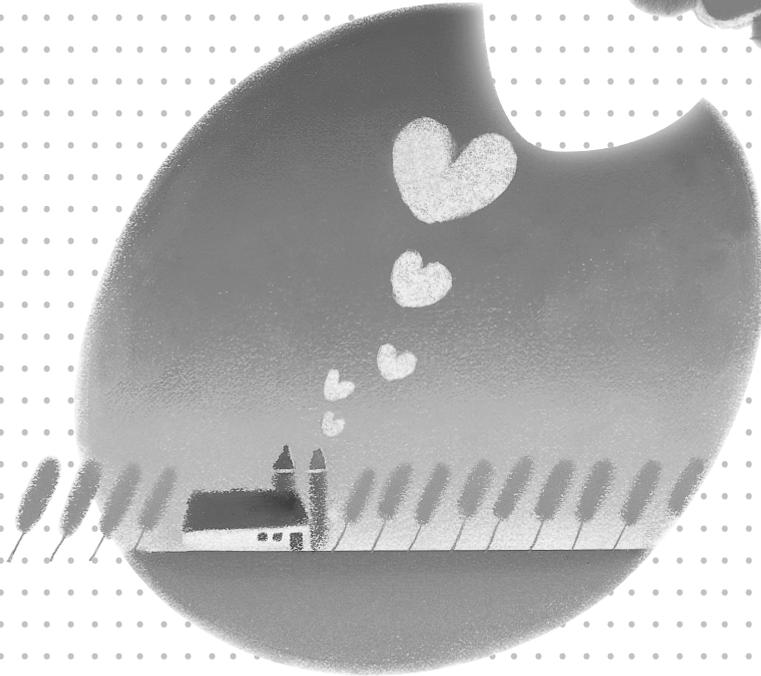
장식하면 준비 끝이다.

이쁘게 해준다고 참고 있는 것이 기특하다.

그래도 그 사이에서 자기 할 것 다 하고

놀 것 다 노는 아름이를 보면 분명 엄마보다 한 수 위다.

아름이네집



♡ 아름이네 집입니다! / 2004. 12. 2 / 김명희

드디어 내일 아름이가 대안가정으로 갑니다. 지난번에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다가 위탁이 취소되어 몹시 섭섭해 하셨는데 드디어 대안가정의 대열에 합류하셨네요. 이번에는 아무데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기로 하셨다는 말씀 전해 듣고 죄송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습니다. 하긴 지난번 불발로 끝난 환영파티를 생각하면 사실 좀 아찔하긴 해요. 기초부모교육에다 APT부모교육까지 이미 다 수료하셨으니 내일은 행정절차만 지원하면 될 것 같네요. 관할 동사무소 선생님도 지역 내에 대안가정이 생기는 것이 처음이라시며 호의적인 자세로 맞아주셔서 무난하게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름이라... / 2004. 12. 2 / 보라네 대안가정 부**

아름이를 기다리는 마음은 지난번 마음보다 더 짠하겠지요. 이번에는 환영파티 안합니까? 멋지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경북 윗마을에 새 가정이 참여하게 되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제 경북 윗마을 대안가정들이 한번 모임을 가져야겠습니다. 멋진 크리스마스를 계획해 볼까요, 아니면 희망찬 새해를 꾸며 볼까요... 아름이 가정, 많은 글 올려 주시고 환영합니다.

 **아름이가 왔어요 / 2004. 12. 3 / 대안가정 모**

우리 집에 공주님이 왔어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 준비를 해도 막상 오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와 어떻게 사귄다 걱정이었는데 뜻밖에 아름이가 금새 다가와서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빠가 싸주신 옷함 속에서 아름이가 좋아하는 옷을 꺼내서 입고 교회에 갔답니다. 우리 공주님은 붉은색, 핑크색을 좋아하는답니다. 밥도 잘 먹습니다. 오늘 첫날밤을 잘 잘까요? 내일 알려드릴게요.

 **아름이 둘째 언니예요♡ / 2004. 12. 3 / 대안가정 작은언니**

저는 아름이 둘째언니입니다. 지난번엔 거의 2주 동안을 설레이면서 서울에서 옷도 사서 보내고 여기 저기 소문도 내고 좋아서 방방 뛰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오게 되어서 많이 서운했었어요. 이번에는 글썄, 엄마가 어제 갑자기 통화중에 내일 집에 아기가 온다는 거예요. 저번처럼 못오게 될까봐 조바심이 나셨나 봐요. 어쨌든 이렇게 예쁜 아름이가 오게 되서 너무나 기뻐요. 지금은 학교 다니느라 아름이를 직접 보지 못하지만, 방학 동안에 집에 있으면서 아름이랑 재미난 시간을 보낼꺼예요. 벌써부터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우리 아름이 이쁘게 커가는 모습 지켜봐 주세요.

 **아름아! 반갑다! / 2004. 12. 4 / 대안가정 큰언니**

저는 아름이의 큰언니 지혜라고 해요. 어제 아름이가 온다고 해서 하루 종일 수업이 귀에 안들어 오더라구요. 그리고 오후 3시, 수업을 마치자마자 집으로 전화를 했지요. 반갑게도 아름이가 집에 왔더라구요. 전화로 "지혜언니" 하는데 어찌나 귀엽던지요. 빨리 아름이를 보러 집에 가야겠어요. 아름이가 좋아할만한 이쁜 선물을 사들고 말이지요. 우리 가정에 아름이로 인해 웃음이 더 넘쳐 날 것 같아요. 기대해도 되겠죠?

♡ 아름이 대안가정 가던 날! / 2004. 12. 4 / 김명희

12월 3일 아침 일찍 아름이가 사무실에 왔습니다. 아빠가 사준 과자를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표정은 굳어 있었죠. 아빠랑 헤어지면서 조금 울려고 했으나 이내 울음을 멈추고 포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 여러 번 엄마 아빠랑 떨어졌기에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익혀버린 것 같습니다. 아름이네 대안가정에서는 혹 이번에도 번복이 되는 일이 있을까봐 아무데도 아름이가 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네요. 지난번에 온 집을 꾸며놓고 환영파티를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취소되어 민망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말입니다. 축하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대안가정 엄마 품에 안기면서 아름이의 표정이 처음으로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대안가정 아빠 무릎에 서슴없이 몸을 안기면서 '여기가 내 집이다' 하는 걸 아는 듯 했구요. 대안가정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생명을 맞이하기 위해 참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아름이로 인해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이 가정에서 아름이가 받을 사랑을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합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일상 많이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당신과 나 사이에! / 2004. 12. 8 / 대안가정 모

당신과 나 사이에 아름이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뭘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구요? 아름이가 온 날부터 우리 집엔 부부가 별거(?) 중이랍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서 글썽 아름이가... 깔깔...

♡ 예천문화원에서 / 2004. 12. 13 / 대안가정 모

지난 토요일 예천문화원에서 음악발표회가 있었답니다. 품 잡은 아름이. 사진 찍을 때마다 퍼보이는 품이 있답니다.

[아름이 버릇]

1. 자다가 발차기 - 나는 이불 덮어주기
2. 고집부리기 - 나도 줄다리기
3. 아침에 늦잠 자기 - 나도 같이 자기(?)

아직도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 줄다리기 시작되었나요? / 2004. 12. 15 / 김명희

처음엔 말도 안하던 아름이가 이제 그렇게 말이 많다면서요? 아마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전개될

듯한데... 전 별로 걱정 안합니다. 어머님이 잘 대처하시리라 믿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목사님이 협조가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아람이에게 너무 빠져서 엄마 몰래 아람이가 좋다는거 다 해주고는 시침 때실 것 같기도 하고, 과자 많이 사다줘서 밥 잘 안 먹게 됐다고 엄마에게 잔소리 듣기도 하실 것 같고... 하지만 엄마가 워낙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을 다 이수하신데다 원칙과 예의를 중시하는 분이라 일관성 있게 흔들림 없이 아람이를 잘 양육하실 거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아람이 표정도 말할 수 없이 환하게 밝아질 것 같아요. 아직은 웃는 모습이 찡그린 인상으로 보일 때가 종종 있지만 말이에요. 아이가 고집을 피운다는 건 그만큼 신뢰감이 생겼다는 신호이기도 하니까, 엄마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아이 입장에서서는 그만큼 편안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벌써 아람이네 집 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알콩 달콩 재미있는 일상들이 들려주세요!

 **따스한 겨울 / 2004. 12. 23 / 대안가정 모**

오늘 뜻밖의 선물을 받고 너무 고맙습니다. 정성껏 만드신 성탄카드 하트의 선물 상자 속에 담긴 대안가정 본부의 선생님들의 따스한 마음들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니다. 바쁘신데 언제 이런 고마운 선물을 만드셨는지요. 아람이는 사탕을 보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사탕 먹는 일을 자제했거든요. 보자마자 너댓 개를 푹딱 해치웠답니다. 하루에 먹을 양을 정하고 고개는 꼬덕였는데 글썽... 그게 쉽게 될런지요. 아무튼, 행복합니다. 선생님들도 좋은 성탄 되세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 2004. 12. 25 / 친부**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저 아람이 아빠예요. 아람이에게 이렇게 잘해주셔서 뭐라 감사에 말씀을 올려야 할지... 참으로 감사드려요. 전 여러 곳에서 일하러 오라고 하네요. 잘 되려나 봅니다. 열심히 해서 마음으로나마 보답드릴게요. 수시로 아람이 보러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길 빌게요. 못난 아빠가...

 **저렇게 늙어도 애기 나? / 2004. 12. 29 / 대안가정 모**

외할머니 생신에 아람이와 함께 큰 이모집에 다녀왔답니다. 뜻밖에 아람이를 만난 아이들마다 누구냐고 물었고 '이모 딸' 이라는 말에 제일 막내 녀석... 자기 엄마한테 가서 귓속말로 "저렇게 늙어도 애기 나?" 아무튼 하루 잘 어울려 놀았답니다.

♥ 첫 걸음마부터 / 2005. 3. 4 / 대안가정 모

요즘은 어떻게 더 아람이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많답니다. 아니 그 반대일지도 모르지만... 아람이가 가까이 온 것 같다가도 한 순간 멀어져 보일 때 속이 상한답니다. 평소에는 여시(?) 같다가도 일 저지른 다음에는 은근슬쩍 넘어가는 심보는 무엇인지... 어제는 빵반죽 하느라 바쁜데, 아람이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오면서, “엄마, 뭐해? 빵 만들거야? 나 티비 볼거야” 얼마 있다가 처음으로, “엄마 나 업어줘” 하면서 뒤에서 매달리기에 이젠 마음을 여는가보다 하고 얼마나 기뻐는지 눈물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 밖에 나갔던 남편이 돌아와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이거 뭐야?” 아람이가 응아가 급했던지 발판과 바닥에 질펀하게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벗겨보니 속옷에도... 그러면서도 능청을 부린 것을 생각하면... 이런 일까지도 엄마에게 솔직히 말할 수 있도록 마음이 열어야 되는데, 아직도 다가오기가 멀기만 한가 봅니다. 그냥 혼자 속이 상합니다. 너무 제가 성급한 마음으로 달려왔나 봅니다. 이제 좀 천천히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이면 유아원에 입학한답니다. 이번 주에 미리 가서 가방과 옷을 받아와서 입어보고, 입이 찢어졌답니다. 자면서도 히히덕거렸답니다. 옷이 좀 흘러덩 큰 것 같은데, 저는 딱 맞다니요?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 아람이 어린이집 가기 / 2005. 3. 29 / 대안가정 부

여시가 따로 없다. 아침에 잠꾸러기를 깨운다. 이젠 혼자 세수도 하고 옷 갈아입는 것도 제법이다. 그동안 엄마의 갈고 닦은 솜씨 때문이리라! 아침에 보면 가관이다. 고래고래 깨워서, 바둑바둑 씻기고, 꾸역꾸역 메긴 다음, 바둑바둑 머리를 땡겨 머리핀으로 멋들어지게 장식하면 준비 끝이다. 이쁘게 해준다고 참고 있는 것이 기특하다. 그래도 그 사이에서 자기 할 짓 다하고 놀 것 다 노는 아람이를 보면 분명 엄마보다 한 수 위다.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엄마의 훈시(?)를 받는 아람이는 ‘엄마 어제 한 이야기 말고 딱 거 없어’ 하는 표정이다. 다음은, 기다렸다는 듯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훈련받은 인사법이다. 그리고 신나게 어린이집으로 출발!

♥ 아람이 공주가 되었어요 / 2005. 5. 7 / 대안가정 모

처음에는 매일, 아니 적어도 매주에 한두 번은 일기를 쓰기로 맘먹었는데 그게 잘 안되네요. 할머니가 오셨거든요. 아무튼 앞으로는 자주 우리 아람이 소식을 올릴려고 합니다. 지난 어린이날, 어린이축제를 강변에서 성대하게 하였습니다. 거기서 왕관도 만들고 사탕목걸이도 만들고, 핸드프린팅도 하고, 종이공예도 하고... 재미있는 하루였답니다. 저도 덕분에 재미있었고요. 할머니하고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모른답니다. 할머니는 아람이 찾고, 아람이는 할머니가 길눈이 어두우신데 도와드릴답니다. 둘이 좋은 친~구!

♥♥ 머리끝에 올라와요 / 2005. 5. 18 / 대안가정 모

지난 일요일에 아람이는 서울 언니들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언니들이 사준 분홍구두 때문에 입이 함박꽃입니다. 멋낼 때, 이쁘게 해준다면 고생도 감내(?)합니다. 언니하고 타는 자전거는 부서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냥 즐겁습니다. 언니들이 많이 이뻐해 줍니다. 오랜만에 모든 식구들이 기숙사 정원에서 사진을 찍는데, 사진 찍을 땐 눈을 크게 떠야한다고 엄만 말합니다. 아람이 요즘 애교만점입니다. 엄마가 좀 봐주면 머리끝에 올라서 호령합니다. 어떻게 하오리까!

♥♥ 예뻐진 우리 아람이♥ / 2005. 5. 20 / 대안가정 작은언니

우리 아람이, 요즘 들어 웃는 얼굴이 부쩍 예뻐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신호니까요! 앞으로 자주자주 예뻐지는 아람이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좋겠네요. 학교 생활에 치여, 너무 오랜만에 들렸네요. 모두에게, 우리 아람이가 지금만큼 가득 가득히 행복이 넘치면 좋겠네요.

♥♥ 아람이 나들이 / 2005. 5. 31 / 대안가정 부

지난 일요일 아람이 나들이를 했습니다. 아침에 안 일어나려고 꿈지락거리려도 어디 간다고 하면 벌떡 일어난답니다. 보라네 식구하고 다른 목사님들 식구들이 문경 나들이를 했습니다. 공룡관에도 갔는데 쪼그만 벌레도 무서워 벌벌 떠는 아람이가 공룡 앞에서 의젓한 모습이었죠. 문경석탄박물관 채석동굴 안에서는 울고불고... 거기 아저씨들 귀신같다니까... 진남역 철도 자전거도 탔는데, 오전 10시에 표를 샀는데 3시에 탔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다리는게 여행이라지만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박물관 도자기 전시장을 돌아봤기에 망정이지... 아무튼 신나는 하루였습니다.

♥♥ 역시 아람이 / 2005. 7. 4 / 대안가정 부

요즘 날이 꾸물거리 걱정이입니다. 모두 잘 지내시겠지요? 우린 요즘 부부싸움이 한창(?)입니다. 왜 그러냐구요? 난 그냥 봐두라고 하고, 우리 집사람은 너무 완벽(?)하려고 하고, 오늘은 아람이 입이 하늘에 걸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입고 싶었던 옷을 입었거든요. 교회 갈 때 입는 옷(?). 더운 것도 모르고... 아무튼 이런 저런 일이 아람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 **아름이 남자친구 사귀다! / 2005. 7. 13 / 대안가정 모**

아름이가 드디어 남자 친구를 사귀었어요. 어린이집에 현빈이라는 친구랍니다. 우리 뒷집에 사는데 신이 났습니다. 친구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가꾼 들꽃정원하고 귀염둥이 예뻐가 재주를 부린답니다. 요즘 아름인 토마토 따먹는 재미가 솔솔 납니다. 토마토 먹으러 오세요. 늦게 오시면 아름이가 다 따먹어도 몰라요.

♡♡ **아름이 여름나기 / 2005. 7. 24 / 대안가정 모**

불더위가 계속 되는군요. 우리 아름이는 새옷 입고 폼잡다보면 더위도 모른답니다. 요즘은 어찌나 시끄럽게 구는지 모른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목소리가 제일 크다니요. 언니들이 방학해서 와있는 동안 물놀이를 갔는데, 물놀이를 안 해봐서 처음에는 '얼떨떨' 하더니 이내 적응합니다. 이젠 아주 매일 오후마다 나간다니까요. 가끔 너무 정신없이 까불다가 엄마한테 혼나기 일쑤... 아름이가 좋아하는 노래는 '엄마가 섬 그늘에' 인데, 아마 옛날에 언니하고 불렀던 노래인 것 같아요. 머리 쓰는 공부는 아예 뒷전~ 그래, 실컷 놀아라. 널 하면 되~지롱.

♡♡ **가을 나들이 / 2005. 10. 9 / 대안가정 모**

'나 잡아봐라!' 둘째 언니 나이팅게일 헌신회(간호사 가관식) 가서 언니들하고 놀다 왔습니다. 이젠 언니들 학교 교정도 낮설지 않은 듯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도토리도 줍고 다람쥐도 쫓아가고 제 멋대로 랍니다. 키는 좀 컸는데 몸무게는 영 시원찮네요. 요즘은 하트에 관심이 많다니까요. 왜 그럴까? 아무튼 가을도, 아름이도 익어갑니다.

♡♡ **야! 너무 찐하잖아! / 2005. 11. 23 / 대안가정 모**

벌써 아름이와 한 술밥 먹은지도 1년이 다가오네요. 지난주에 생일을 맞이하였구요. 웬지 가슴이 찡하게 저며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보라하고 함께 할려고 했는데 연말이 되니 이것저것 바쁜 일이 많아 약속을 하였다가 시간을 낼 수 없어 각자 하기로 하였답니다. 우선 교회 친구들과하고 1차 파티 장면입니다. 친구들이 생일선물로 뽀뽀하는데 너무 리얼합니다. ㅋㅋㅋ 옆에 관객(?)들 '부러버라' 하고... 아름이 표정도 만만치 않죠? ㅎㅎㅎ 밑에 케이크는 제가 전에 만든 것인데 자랑하려고 올려봤습니다. 옆에 아름이 키만하죠? 아름이 지금 2차 생일 파티-어린이집-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에서 고집이 늘었다고 선생님이 걱정입니다. 고집만 빼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ㅎㅎㅎ 오늘 저녁 그동안 아름이가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준다는 그 발표회 시간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 감사해요 / 2005. 12. 23 / 대안가정 모

엣그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 같은데 벌써 일년이 지났네요. 어제 도착한 선물바구니를 보니 세월이 빠르다는 걸 실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얀 눈이 세상을 밝혀주네요. 폭설로 인해 많은 염려가 있는데 사무실 모든 분들 더욱 건강하시고 언니들 더욱 예뻐지세요. 아름이가 온지도 훌쩍 1년이 지난 것이 실감나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집은 아침이면 빨리 빨리 소리가 끊기질 않는답니다. 아름이는 세월아 네월아 마냥입니다. 다른 집도 그런지 ㅎㅎㅎ 아름이 엄마 아빠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두 분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모두 행복한 날을 꿈꾸며....

우리집 귀염둥이 하늘이의 일과를 공개합니다!

7:00 기상, 식사시간(찬 그릇 똑딱!!)

8:00 아빠, 언니 배웅-배꼽인사, 워크, 이쁜 짓 켤 수 없음

10:00 오빠와의 전쟁(하늘이가 이김ㅋ)

13:00 낮잠 후 일어나 점심식사(그야말로 식사)

19:00까지 물놀이, 책읽기, 노래듣기, 춤추기, 할머니랑 전화

19:00 저녁식사. 식사 후 놀면서 소화시키고 샤워

20:00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등 굽어주면 바로 잠들.



하늘이네집



♥ 하늘이네 집입니다 / 2005. 6. 23 / 김명희

오늘 오후에 하늘이 대안가정으로 갑니다. 방금 하늘이랑 아빠랑 동대구역에 도착하셨네요. 하늘이랑 아빠랑 같이 밥 먹고 본부로 오면 마지막 상담을 한 후 대안가정으로 가게 됩니다. 하늘이가 대안가정에서 사랑 많이 받고, 행복하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하늘이 가정위탁과 관련한 행정절차도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대안가정 가는 날^^ / 2005. 6. 23 / 정민경**

잠든 하늘이가 아빠 품에 안겨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이는 곧 아빠와 떨어질 것을 예감했는지 아빠에게서 좀처럼 떨어지려하지 않더라고요. 잘 갈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아나니 다들까 차를 탈 때까지만 해도 괜찮더니, 출발하는 순간 울음을 터뜨려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 드디어 대안가정 도착! 대안가정 엄마에게 안겨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 대안가정 아빠를 보자 덩석 안겨서 얼굴을 묻고, 울음도 그치더니 잠시 후 생글생글 웃더군요. 대안가정 부모님과 함께 동사무소에 가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돌아오다 하늘이를 보려고 학교 마치고마자 뛰어오는 오빠를 만났습니다. 하늘이는 오빠에게 그만 폭 빠져버렸습니다. 오빠에게 과일을 포크로 집어서 갖다 주면서 미소 짓는 하늘이. 오빠의 팔을 손가락으로 폭 짚러보더니 딱 붙어서 앉더군요. 하늘아! 대안가정 언니, 오빠들과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

 **하늘이가 책상위에서 / 2005. 6. 25 / 대안가정 모**

하늘이가 온 첫날부터 잠도 잘 자고, 아침에도 울지 않고 일어나네요. 그런데 언니, 오빠가 학교에 가려고 문을 나서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웁니다. 그러나 금방 그칩니다. 밥도 잘 먹고 잘 놀고 있습니다. 공갈젓꼭지(?)는 밤에 잠들 때만 잠깐 물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놀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하늘이의 웃음소리 / 2005. 7. 5 / 대안가정 모**

하늘이는 우리집에서 목소리가 제일 큼니다. 울 때보다 웃을 때가 더 큼니다. 처음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언니, 오빠가 안 일어나면 방마다 다니면서 깨우는 것도 하늘이 몫입니다. 식탁에서는 꼭 기도를 먼저 하려고 두 손을 모으고 '아멘' 하고 따라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손을 높이 듭니다. 가끔씩은 떼를 많이 써서 힘들게도 하지만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아빠, 오빠, 엄마" 하면서 부를 때면 '언제 재가 젓꼭지를 물고 그렇게 울었던 아이인가' 하고 새삼스럽습니다. 하늘이가 더 건강하고 밝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뽕깡공주 하늘이 / 2005. 7. 12 / 대안가정 모**

하늘이는 하고 싶은 대로 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울고 뽕니다. 그리고 들어주면 금방 웃습니다. 이제는 그 속셈을 다 압니다. 밖에 나가고 싶을 때라든가, 졸릴 때는 막무가내로 떼를 씁니다. 특히 시장에 나가게 되면 정말 통제불능일 때가 많습니다.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고 만지고, 만약 못하게 하면 대성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시장에 다니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자고 하니
까 좋은데... 그리고 엄마가 다른 아이를 안고 있으면 껌싸게 와서 밀쳐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
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이를 안이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빨리 기저귀나 뺐으면 하는 바람
인데...

하늘이는요(자랑거리) / 2005. 7. 29 / 대안가정 모

휴가를 인천에 계신 할머니네로 갔는데요. 무려 4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는데 짜증도 내지 않고 얌전
하게 갔고요. 처음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거리감을 가지더니 조금 후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여간 하늘이 때문에 많이 웃었습니다. 요즘 하늘이는 말을 많이 배워서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항상 중얼거리고 다닙니다. 먹는 것도 걱정스러울 정도로 잘 먹고, 또 잘 자고, 잘 놀고... 너무
뛰어다녀서 아래층에서 올라 왔었습니다. 어제는 바닷가에 가서 놀다가 바닷물도 좀 먹었습니다. 그래
도 자꾸만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잡으려고 오빠가 애 좀 썼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더 건강하고, 더
밝게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늘이가 / 2005. 8. 3 / 대안가정 오빠

하늘이가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했습니다. 다행히 얌전히 있더군요. 파마하니 좀 더 귀엽더라고요.
요즘엔 땀띠 때문에 하늘이도 기저귀를 안차려고해서 기저귀를 떼려고 노력중인데... 잘 안되네요. 아
시는 분이 변기통을 선물해주셨는데 변기통에 안앉으려고 하더군요. 여기저기에 싸고 다녀서 엄마한테
혼도 나고 그래요. 언젠간 뭐 어떻게 되겠죠. 아참! 요즘 하늘이가 이쁜짓을 많이 해요. 링크도 하고, 양
볼에 검지손을 대면서 웃네요. 하늘이 고집만 어떻게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늘이네 / 2005. 8. 17 / 대안가정 모

하늘이가 대소변 가리기가 참 힘든가 봐요. 오늘도 바닥에 한 번, 이불하고 베게에 한 번... 땀띠 때문
에 빨리 가렸으면 좋겠네요. 헉! 방금도 바닥에 대변을! 발로 가지고 놀고 있네요. 그렇게 많이 먹는다
했더니... 요즘 하늘이 밥을 너무 잘 먹습니다. 먹는거 만큼은 가리지 않고 먹어서 착하구요. 특히 하늘
이가 고기종류랑 콩, 두부를 잘 먹더라고요. 제가 먹기도 힘든 콩을... 너무 너무 잘 먹어요. 우유는 잘
때 한 번씩 먹고 거의 밥을 먹어요. 과일도 좋아하구요. 특히 포도 보면 콩 인줄 알고 “콩! 콩!” 이러면서
아주 어눌한 말투로 “주~세~요” 근데 막상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중얼중얼 대면서 손
을 포개고 내밀고 있죠. 아! 하늘이 키가 컸나 봐요. 형광등 스위치도 컸다 꺾다 해요.

♥♥ 하늘이 하루일과 / 2005. 8. 21 / 대안가정 언니

우리집 귀염둥이 하늘이의 일과를 공개합니다! 7:00 기상 / 7:40 식사시간(한 그릇 푹딱!!ㅋ) / 8:00 야빠, 언니 배웅하기-배꼽인사, 토끼, 윙크, 이쁜 짓 셀 수 없음 / 10:00 오빠와의 전쟁(하늘이가 이길 ㅋ) / 10:30 우유 젓병 하나(250ml) 비우고 주무심 / 13:00 일어나 점심식사(그야말로 식사) / 19:00까지 물놀이, 책읽기, 노래듣기, 춤추기, 할머니랑 전화하기(요즘 할머니랑 대화를 해요) / 19:00 저녁식사 식사 후, 놀면서 소화시키고 샤워 / 20:00 잠자리에 누워서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등 굽어주면 바로 잠들.

♥♥ 아기돼지 프로필 / 2005. 8. 21 / 대안가정 언니

이름 / 나이 / 키 / 몸무게 : 하늘 / 3세(23개월) / 100cm / 15kg (아기돼지-ㅁ-;;)
 제일 좋아하는 반찬 : 콩자반(사실 못 먹는게 없음. 가끔 애라는 생각이 안뜸)
 제일 싫어하는 반찬 : 없음
 제일 좋아하는 놀이 : 오빠랑 숨바꼭질하기
 제일 싫어하는 놀이(?) : 머리감기
 특징 : 요즘 한창 말이 늘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요구사항이 엄청 많음
 앞으로 해야 할 일 : 기저귀 떼기
 개inki : 윙크, 배꼽인사, 토끼, 호이짜(엉덩이에 손대고 오리걸음, 자세 제대로 나눔), 울다가 바로 웃기, 예배 잘 드림 등 등 다 이빠요~

♥♥ 너무 예뻐진 하늘이^^ / 2005. 9. 1 / 장효점

하늘이네 가족 모두 잘 지내시나요? 하늘이랑 어머니는 지난주에 뵈기는 했지만 오늘 하늘이네 일기장을 다시 보다가 문득, 지난주에 만났던 너무 예뻐진 하늘이 모습이 생각나서요. 요 녀석, 폴짝폴짝 어찌나 씩씩하게 뛰어다니던지... 너무 건강해서 5세 사이즈 옷을 입혀야 한다는 어머니 말씀대로 한 덩치하는 이쁜 아기돼지. 새날이랑도 사이좋게 잘 놀고, 정말 몰라보게 밝아지고, 뽀얗게 예뻐진 하늘이를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듣던 대로 밥도 너무 잘 먹고~ 이제 오빠랑 언니도 개학하고 어머니 혼자 많이 바쁘실텐데 팽깡공주가 협조를 좀 잘해줘야 할텐데 말이죠. 하늘아~ 고집은 좀 줄이고, 배변훈련에 힘써서 완벽한 공주님으로 거듭나렴! 핫팅!

♥♥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 / 2005. 9. 21 / 친부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하늘이는 어찌 지냈는지도 궁금 하구요. 처음으로 명절이란 걸 인식했을텐데... 다음 추석은 함께 지낼 수 있게 꼭 그리 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가내 평온 하시고 대입을 치루는 하늘이 언니,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실을 맺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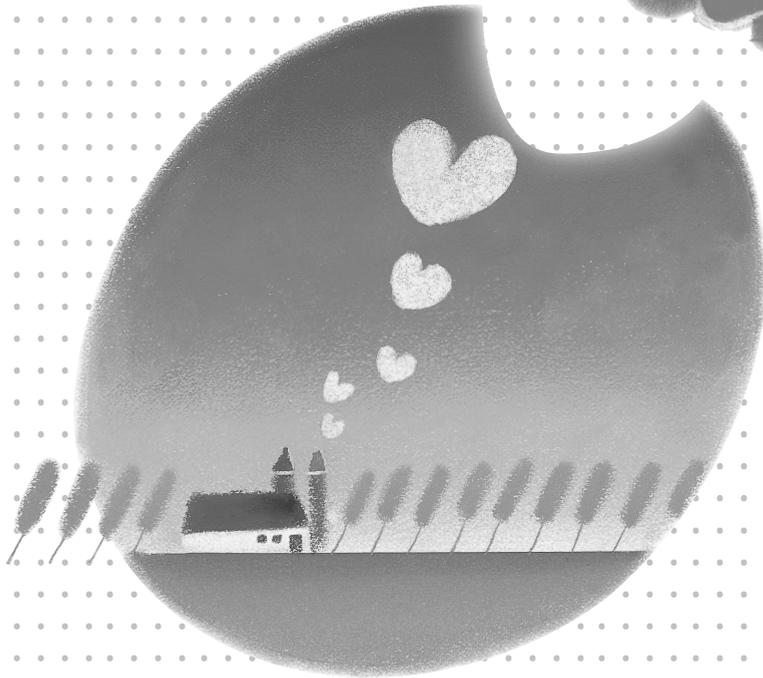
♥♥ 하늘이 아빠~ / 2005. 12. 13 / 대안가정 모

잘 지내시고 계시죠? 보내주신 것 잘 받았습니니다.^ 감사하구요. 하늘이는 요즘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갈수록 이뻐지구요. 너무 걱정마시고요~ 추운데 건강조심하세요~

p.s. 하늘이 어린이집도 잘 다니고 있어요^^ 다닌지 얼마 안돼서 벌써 대장노릇하고 다닌다고 선생님께서 그러시던데요? 말도 많이 늘었지만 아직 기저귀는 못뺏어요.

새봄이의 옆자리가 비워졌네요.
 아는지 모르는지 새봄이의 울음소리만 커지고...
 초롱이를 그리워하나?
 새봄이의 마음도 커와 같은지...
 약정일을 마치지 못하고 보내게 된
 초롱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더군다나 치료를 끝내지 못해 마음 한구석이 아프네요.
 언제나 잘 웃는 모습으로 자랐으면 합니다.

새봄 ·
 초롱이네집



♡♡ 새봄이!! 대안가정 가는길~!! / 2005. 6. 17 / 장효점

오늘은 새봄이가 대안가정으로 가는 날!! 애써 눈물을 감추며 서둘러 돌아나가는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잠든 채로 새봄이는 엄마와 짧은 이별을 나누었습니다. 태어난 지 이제 겨우 20일 된 새봄이를 위해 대안가정 어머니께서 아침부터 대구까지 와주셨답니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새봄이는 다시 대안가정 엄마 품에 안겨 영주로 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어른들이 휴게소에서 점심 먹을 때까지만 해도 새록새록 깊은 잠에 빠져있던 새봄이는 도착할 무렵부터 조금씩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우유 먹을 시간이 됐거든요. 오만상 미간을 찌푸리며 마치 '우씨~ 어른들은 다 점심 먹어놓고 나는 왜 밥 안줘요!'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 절차를 위해 들린 동사무소에서 우유 반통을 푹푹한 새봄이는 대안가정에 도착하자 다시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 새봄이와의 만남! / 2005. 6. 17 / 대안가정 모

아기가 좋아서 신청은 했는데. 막상 만나려하니 겁도 나고 걱정이 앞섰는데, 새봄이를 보고나니 그런 것들이 없어지네요. 아이가 좀 작고 어리니 더 잘 봐야겠지요. 두 언니와 오빠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아는지 모르는지 잠만 자네요. 큰딸은 연신 아이의 손가락을 만지고 눈 한 번 떠보라 신호를 보내지만... 소식이 없네요. 오늘 아침까지 거의 두 시간에 한 번씩 깨서 기저귀 갈고 우유 먹고, 새봄이는 아무렇지 않는데 저만 구름위에 떠있네요. 잠이 부족! 며칠 지나면 적응이 되겠죠. 방금 목욕하고 우유 한 병 푹딱! 또 잡니다.

♡ 예방접종 / 2005. 6. 22 / 대안가정 모

오늘 아침은 바빴습니다. 세 아이 학교 보내고 새봄이 목욕시키고 보건소에 가야 하나니까. 주사 맞고 오면 그날은 목욕을 못하니 미리 하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물속에서 두 다리를 쭉 뻗고 시원해 합니다. 3.25kg의 몸무게와 58cm의 키의 새봄! 오늘 드디어 BCG 접종을 했어요. 저는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간호사 언니들이 새봄이를 붙잡고... 새봄이는 크게 울었죠. 말은 못하지만 많이 아팠을 꺼예요. 이곳에 온지 일주일째네요. 이제 제법 적응이 되어서 다행인데, 만나는 사람들이 귀엽다고 예쁘다고 안고 흔들어서 잠자고 나면 어깨를 들썩이고 안으라 하네요. 말이 안되니 울음으로...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어요.

♡ 초롱이가 위탁가던 날!! / 2005. 7. 28 / 정만경

출근하자마자 초롱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기를 안고 먼 길을 가야해서 부랴부랴 약정서를 쓰고, 초롱이를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품과 달라서 끄끙거리면서 불안해하더니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다행이다. 제발 도착할 때까지 깨지 말고 무사히!!' 를 외쳤습니다. 영주에 다 와서야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하더군요. 초롱이를 안고 있던 저의 팔도 부들부들... 새봄이네집에 도착하니 할머니와 큰언니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어느새 초롱이와 새봄이를 나란히 눕혀놓고 언니 오빠들은 요리조리 아기들은 보면서 야단이 났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초롱이를 안고서 우유를 먹이셨습니다. 할머니의 품이 편안했던지 잘 먹더라구요. 서둘러 대안가정 엄마와 동사무소에 가서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대구 도착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방금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고 하네요. 둘 중에 하나가 울음이 터지면 같이 운다나요. 그래도 대안가정 엄마의 목소리에서 흐뭇함이 전해져 오더라구요. 갓난쟁이가 둘이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쌍둥이처럼 예쁘게 잘 자라겠지요. 새봄이와 초롱이네 대안가정 파이팅!!

♥♥ 벌써 보고싶구나 / 2005. 7. 28 / 친모

벌써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초롱이를 보내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눈물밖에 안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초롱이를 돌봐주신다는 고마운 어머니님. 초롱이가 힘들게 하더라도 많이 예뻐해 주세요. 너무 예쁜 아이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 잘 적응 합니다 / 2005. 7. 31 / 대안가정 모

걱정이 많으시지요. 이곳에 온 첫날은 많이 보채고 힘들었는데... 이젠 제법 안정을 찾아서 잘 먹고 잘 잡니다. 새봄이와 초롱이 둘이 다 건강하게 잘 자라서 엄마 품으로 갔으면 합니다. 지금 두 아이는 잘 자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시길 바랍니다.

♥♥ 새봄! / 2005. 8. 10 / 대안가정 모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잘 먹고 이젠 눈도 맞추어 웃기까지... 먹는 시간외에는 아주 조금 놀다가 잠을 잡니다. 하루에 먹는 양은 140에 6~7번 정도! 지난 7월 29일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주위에서 모두들 예뻐해 주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좋아해서 좋습니다.

♥♥ 초롱! / 2005. 8. 10 / 대안가정 모

눈망울이 또렷해서 예쁩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모두를 긴장시킵니다. 참! 초롱이가 모유를 먹었나요? 진작에 물었어야 하는데 지금은 분유를 잘 먹지만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자는 시간 외에는 자꾸 안으라 보채기도 해서 안고 어르고 유모차도 타고... 웃는 모습은 참 예쁘네요. 방긋방긋 잘도 웃고... 지금은 잘 자고 있습니다.

♥♥ 모두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 2005. 9. 15 / 대안가정 모

지난해 추석, 시어른이 서울에 계셔서 우리가족이 그 험난한 고속도로 정체대열에 끼쳐 고생한 일이 새삼 떠오르네요. 이번 추석은 아이들 작은집이 내려오기로 해서 큰 걱정이 없답니다. 대안가정 가족 여러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당히! 즐거운 시간이 되세요. 지난 화요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정상이고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데 지금은 재채기에, 콧물에, 감기 초기인가 봐요. 우리집 두 아이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울음소리도 많이 커졌고 눈도 초롱초롱 하답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뿌리를 뽑습니다. 할머니는 새봄이 소리가 더 크다고 하시네요. 아무튼 우리집은 사람이 많습니다. 좀 시끄럽긴

하네요. 오늘은 여기 까정! 모두들 즐거운 추석 되세요.

♡ 초롱이래요 / 2005. 10. 4 / 대안가정 모

안녕하세요. 초롱이에요. 보행기를 타면 뒤로 아주 잘 갑니다. 손에 쥐는 장난감도 재미있어 하고요. 주로 입으로 가져갑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자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가 내려는지 자꾸 오물오물 거리네요. 눈에 힘도 있고... 다른 때는 잘 웃더니 사진 앞에서는 굳어버렸어요.

♡ 새봄이고요 / 2005. 10. 4 / 대안가정 모

새봄입니다. 아직도 힘에 부치는지 목을 들기도 힘들니다. 그래도 웅얼이는 늘었어요. 제법 소리내고 웃을 수도 있네요. 조그만 주먹이 입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17일 전에 별이가 하던 것을 꼭 따라하는 것 같네요. 참고로 별이가 17일 빨리 태어났답니다. 편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좋습니다.

♡ 초롱이가 귀가하였습니다 / 2005. 10. 10 / 정민경

초롱이가 오늘로 위탁이 종료되었습니다. 엄마가 초롱이를 시댁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 달 전, 새봄 초롱이네 대안가정에서는 양육을 도와주셨던 시어머님이 더 이상 두 아이의 양육을 같이 할 수 없어 늦게 위탁된 초롱이의 재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대안가정을 찾으며 대기중인 상황에서 초롱이가 왼쪽 겨드랑이 밑에 혹이 생겨서 영주의 큰병원에서 진료했으나 병명을 모른다고 하여 대구의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기로 했습니다. 친모와 일정을 잡기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계속 기다려오다 지난 금요일, 갑자기 병원을 예약하지도 못하고 부랴부랴 진료를 받게 되었고, 병원의 도움으로 비용을 지원받아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친모는 초롱이의 간호를 위해 며칠 회사를 쉬면 직장을 잃게 될까봐 걱정을 하던 중 시댁에 연락을 하였고, 시댁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만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초롱이를 키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모와는 통화가 되지 않아 초롱이 이모와 통화를 했는데 초롱이는 주말에 할머니댁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초롱이가 할머니댁에 가서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합니다.

♡ 쓸쓸 / 2005. 10. 11 / 대안가정 모

새봄이의 옆자리가 비워졌네요. 아는지 모르는지 새봄이의 울음소리만 커지고... 초롱이를 그리워하나? 새봄이의 마음도 저와 같은지... 사실 한동안 외출을 거의 못했어요. 두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 주말에 우리 아이들에게 보게 하고 잠깐씩 불일을 보았답니다. 약정일을 마치지 못하고 보내게 된

초롱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더군다나 치료를 끝내지 못해 마음 한구석이 아프네요. 언제나 잘 웃는 모습으로 자랐으면 합니다. 믿음이와 사랑을 보내곤 몇날 며칠을 많이 울었는데, 지금도 아 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초롱이는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가버려서 조금은 황당하고 아쉽네요. 하여튼 초롱 이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답답합니다. 딱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초롱 이가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길 기도합니다.

♥️ 예비접종 / 2005. 12. 8 / 대안가정 모

아침 일찍 나래를 학교에 내려주고 새봄이와 병원에 갔다 왔어요. 진찰할 땐 웃기도하고 웅얼이도 하 더니 주사 맞는 것을 아는지 우렁찬 목소리로 반응하더군요. 예방접종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약 먹고 잠이 들었어요. 이달 초부터 제가 많이 바뻐어요. 우리집 두 아이가 잠시 멀리 가는 바람에 준비해서, 데려다 주고 왔거든요. 며칠간 할머니께서 봐 주셨어요. 아무튼 큰 아픔없이 잘 자랐으면 하는 바람입 니다.

♥️ 새봄이 진료 잘 받았습니다 / 2005. 12. 22 / 장효점

얼마전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심장소리가 심상치 않으니 검사를 받아보라는 의사 선생님의 소 견을 얻은 새봄이. 오늘 새봄이가 추운 날 대구까지 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동 심장질환 분야의 전 문가라고 주치의 송광익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한창호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종합병원에 갔 더라면 접수하고, 검사 예약하고, 기다리고... 등등 여러 가지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을 덕분 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새봄이는 '심방중격결손'이라는 질환으로 선천적으로 좌우 심방 사이에 구멍이 난 상태인데 현재는 자연히 구멍이 조금 좁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구멍이 잘 막힐 수도 있으니 돌까지 경과를 지켜보고 이후에 만약 더 이상 구멍이 좁아지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조기에 발견했고 심장 질환 중에서는 위험이 적은 약한 병으로 새봄이가 생활하거나 발육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야 했는데 원래는 아기들은 울 거나 움직여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가야 검사를 하는데 우리 새봄이는 5분정도 검사를 하는 동안에 순하게 잘 협조(?)해 주어서 의사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답니다. 오늘 검사를 위해 대안가정 엄마와 새봄 이의 친엄마가 함께 동행해주셨는데 작은 아기가 아프다고 하니 두 분 다 마음이 많이 아프셨으리라 생 각합니다. 부디 새봄이가 돌때까지 튼튼하게 심장에 난 그 구멍을 잘 막아서 수술은 받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검사를 모두 지원해주시고 자상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한창호 선생님!! 감사합니 다. 그리고 새봄이가 조기에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심장 이상을 발견해주신 영주의 의사 선생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으뜸이가 땀을 내기 시작했어요.
 양복에 넥타이 구두를 신고 폼을 잡더니
 거울을 보면서 뭔가 부족할 듯?
 아니. 머리를 이리저리...
 큰엄마의 손길로 왁스를 바른 후 머리를 세워
 폼을 잡고 교회를 갔지요.
 그런데 멋진 으뜸이... 인기는 짱인데 이걸 어한담.
 참바람에 콧물이 아~ 찡피.

으뜸이네집



♥️ 대안가정 부모님과 으뜸이 / 2005. 9. 28 / 김명희

드디어 대안가정 부모님과 으뜸이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안가정 엄마랑 으뜸이가 닮았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참 희한하게 아이들이 대안가정 가족들과 닮아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으뜸이가 부끄럼이 많아서 아직은 별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안가정 아빠랑 으뜸이랑 죽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으뜸이는 대안가정 부모님을 큰아빠 큰엄마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누나들은 벌써부터 남동생 줄 선물 챙기느라 바쁘다네요. 으뜸이네 대안가정으로 인해 많은 대안가정들이 생겨나길 기대해봅니다. 으뜸이로 인해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보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으뜸이의 소식 / 2005. 9. 29 / 대안가정 부

으뜸이 가족이 되어 참 기쁘며 행복합니다. 어제는 너무 늦어 글을 올리지 못했구요. 오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컴퓨터 실력이 없어서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에 좋은 소식 드리겠습니다.

♡♡ 으뜸이의 하루 / 2005. 9. 30 / 대안가정 부

아침 일찍 일어났으나 아직 낮이 설어 어색하기만 하다. 수줍은 모습이 귀엽다. 아침밥을 잘 먹어서 감사하기 한이 없다. 오늘은 토마토 밭에 일이 있어 같이 가기로 했다. 토마토를 만지고 좋아하는 으뜸이. 빨간 방울토마토를 먹어보라고 하자 너무 좋아하며 한 열 개쯤 먹었다. 오후에는 사과밭에서 같이 지냈는데 사과가 왜 초록색이냐고 묻는다. “익으면 빨간색이 된단다.”

♡♡ 도전자 으뜸이 / 2005. 10. 1 / 대안가정 부

수줍음의 으뜸이가 본색을 드러냈어요. 낮이 익자 장난으로 큰아빠께 도전을 슬슬 해오는군요. 업어 달라고 하고, 어깨위에 올라 무등을 타고, 안고 누르고 레슬링에 씨름을 혼합하여 큰아빠에게 도전을 하니... 어쩌면 좋으리이까. 하지만 개구쟁이 큰아빠가 어찌 가만히 있으리요. 주특기 간지럼으로 금방 으뜸이의 행복을 받아내고 승리했지요. 오늘은 교회에서 나이는 같지만 9개월이 빠르고 덩치도 더 큰 아이에게 이렇게 도전 했지요. 으뜸왈, “나이가 똑같으니 말 놓아도 되겠네.” 우리 모두는 이 말을 전해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도전자 으뜸이, 인생의 모든 일에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도전하길... 으뜸이 파이팅!!

♡♡ 으뜸이의 최고의 날! / 2005. 10. 7 / 대안가정 모

어제는 서울에서 큰누나가 내려왔습니다. 누나는 서울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으뜸이의 장난감을 한보따리 가지고 왔습니다. 평소에는 맨날 큰아빠 큰엄마와 놀다가 장난감이 오니 하루 종일 밥 먹을 생각도 안하고, 큰아빠도 찾지 않고, 장난감만 갖고 놀았습니다. 오늘은 큰엄마가 으뜸이 옷을 한아름 사오셨습니다. 멋진 양복도 사고 겨울에 입을 잠바도 사고 바지도 여러 벌 샀습니다. 으뜸이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여기 와서 처음으로 노래도 불렀답니다. 저녁에는 떡볶이도 먹었습니다. 오늘은 으뜸이의 최고의 날입니다.

♥️ 눈높이와 으뜸 / 2005. 10. 11 / 대안가정 모

으뜸이가 공부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눈높이 수학, 국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온 선생님이 주고 가신 국어와 그리기 이야기 책자는 항상 가지고 다니며 밤늦게까지 읽고 쓰고 하고 있습니다. 공부에 얼마나 열심인지 큰아빠와 숫자놀이 하고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으뜸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큰 엄마는 벌써부터 큰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으뜸이 화이팅!

♥️ 장난꾸러기 으뜸 / 2005. 10. 12 / 대안가정 모

장난꾸러기 으뜸!! 저녁을 먹고 나서 지금까지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온 집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큰아빠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남자답게 행복하고 도전하고, 행복하고 도전하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납니다.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어찌나 열심히 노는지 감기 걸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할머니 잡도 못 주무시고... 아무튼 큰아빠도 덩달아 아주 신이 납니다.

♥️ 멋쟁이 / 2005. 10. 23 / 대안가정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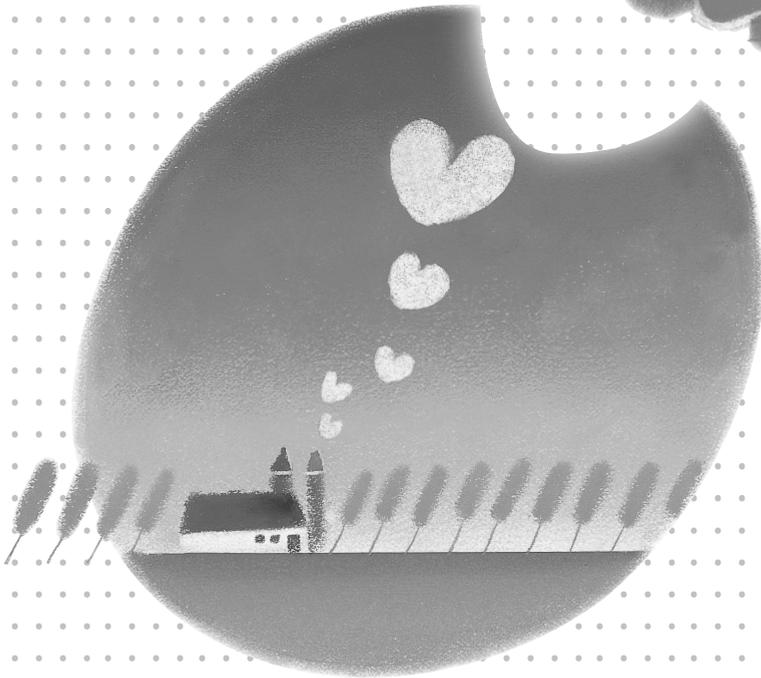
으뜸이가 멋을 내기시작 했지요. 양복에 넥타이 구두를 신고 폼을 잡더니 거울을 보면서 뭔가 부족한 듯? 아니. 머리를 이리저리... “큰엄마 왁스 발라주세요. 머리를 올리고 싶어요. 멋지게 보이고 싶어요.” 큰엄마의 손길로 왁스를 바른 후 머리를 세워 폼을 잡고 교회를 갔지요. 그런데 멋진 으뜸이... 인기는 짱인데 이걸 어쩐담. 찬바람에 콧물이 아~ 창피. 멋쟁이 으뜸이, 못 말리는 으뜸이, 파이팅!!

♥️ 으뜸이의 생일잔치 / 2005. 11. 27 / 대안가정 모

오늘은 으뜸이의 5번째 맞이하는 생일이 랍니다. 할머니께서 으뜸이를 위해 으뜸이가 좋아 하는 맛있는 떡을 해주시고 그동안 오지 못하던 둘째누나가 으뜸이를 만나려고 시간을 내어 내려 왔습니다. 으뜸이가 기분이 좋아 어찌할 줄 모릅니다. 오후에는 고모집에서 큰고모네 가족 작은고모 가족, 또 할머니들이랑 함께 큰고모가 사오신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10명의 어른이 생일 축하해주니... 으뜸이의 말할 수 없는 행복한 표정 필름에 담지 못한 아쉬움. 생일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큰아빠 케익 사가지고 집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큰아빠 생일 축하.

슬기는 깊이 안자고 짧게 여러 번 잡니다.
 엄마가 옆에 누워주면 더 잘 자구요.
 그리고 집안 청소하고, 점심먹고, 슬기 참습 더 자고,
 집에서 40분가량 쉬다 작은언니 데리러 가고,
 작은언니가 오면 슬기랑 좀 놀다보면, 큰언니가 옵니다.
 그때부터 아시겠죠?? 전쟁터입니다.

슬기네집



♡♡ 대안가정 엄마랑 슬기랑 / 2005. 11. 1 / 김명희

고모랑 헤어지면서 울었는데 정민경 상담원에게 안겨서 금새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러다가 금새 잠들어버렸지요. 잠든 슬기를 대안가정 엄마가 안아서 내리자 슬기가 살포시 눈을 떴답니다. 울었느냐구요? 대안가정 엄마가 미리 준비해놓은 인형이랑 대안가정의 딸기(강아지)를 보더니만 금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슬기가 너무 이뻐 어쩔 줄 모르는 대안가정 엄마를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동사무소에 행정절차를 하는 동안도 잘 놀았답니다. 조금 있으면 언니들이 학원에서 돌아올텐데... 대안가정 아빠는 오늘 벌써 몇 차례나 슬기 왔냐고 전화를 하셨고, 언니들도 며칠 전부터 슬기 빨리 오면 좋겠다고 기다렸답니다. 언니들이 오면 슬기는 더 행복한 웃음을 지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포데기 들고 한번 찾아갈게요. 오늘 밤을 무사히 잘 넘겨야 할텐데... 고맙습니다.

♡ 슬기가 대안가정으로 왔습니다 / 2005. 11. 1 / 정민경

슬기가 대안가정으로 왔습니다. 예쁘게 단장을 하고 아빠와 고모, 고모부와 함께 와서 아빠가 약정서를 쓰는 동안 과자를 먹으면서 고모와 잘 지냈습니다. 오늘 집에서 머리를 잘랐다는데 국장님께서 보시고는 더 예쁘게 해준다고 가위로 앞머리를 조금 잘랐더니 "으앙~" 울어버리더군요. 혹시나 대안가정으로 가는 도중에 울면 어쩌나 내심 걱정이 이만저만... 다행히도 차를 타기 전에 조금 울더니 차가 출발하자 울음을 툭 그치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차를 보면서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곤 좋아하는 인형을 안고, 장난도 치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대안가정에 다 와서는 잠이 들어버려서 슬기를 마중 나온 대안가정 엄마에게 안기자 자연스레 안기더라고요. 대안가정 엄마가 슬기를 위해 준비한 인형과 예쁜 옷 등을 보면서 좋아하는 슬기를 보니 저의 마음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대안가정에서 키우는 강아지 '딸기'에게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사무소로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행정절차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이해를 잘 해주셔서 무리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슬기야! 언니들과 즐겁게 잘 지내라~ 더불어 딸기와도... 대안가정에 함께하게 된 대안가정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슬기 잘있어요 / 2005. 11. 2 / 대안가정 모

슬기 잘 잤어요. 잘 때 짝뿔 잠투정을 했지만... 그래도 잘 잤습니다. 낮설어서 그런지 자다가 몇 번 눈을 떴지만 그런대로 수월하게 지나갔어요... 어젠 아빠한테 뽀뽀도 해주고, 막내딸이 살살 녹인다면 아빠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언니들도 유치원에 가기 싫다며 슬기랑 놀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도 옆에서 뭐라고 웅얼이를 하며 놀고 있습니다. 걱정마세요. 너무 잘 놀고 있습니다.

♡ 슬기 / 2005. 11. 3 / 대안가정 모

이틀째 슬기와 보내고 있습니다. 아빠를 너무 좋아합니다. 사진보고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가 오시면 뽀뽀도 너무 잘해줍니다. 엄마한테는 너무 비싼 뽀뽀를 아빠에겐 남발합니다.ㅠ.ㅠ 그래도 너무 이쁜 슬기. 오늘도 슬기랑 엄마랑 외출했답니다. 슬기 옷 사려요. 외투도 사고 상하복도 사고 내복도 3벌 사고... 너무 이쁩니다. 저희딸 키울 때랑 또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걱정이 있어요. 밥과 간식 과일은 너무 잘 먹는데, 맘마를 안먹어요. 이번기회에 젓병을 뽀뽀도 해보았지만 맘마는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가서 24개월까지는 필수인데... 걱정이예요. 근데 밥이랑 다른 건 너무 잘먹어요. 슬기랑 보내는 하루가 넘 짧답니다. 이번 주말은...시댁 가족이 모두 모인답니다. 우리 슬기를 빨리 보고 싶다고 고모들은 성화이십니다. 너무 착하고 순한 슬기. 지금도 웅얼웅얼... 너무 이쁩니다.

3일째 / 2005. 11. 4 / 대안가정 모

막간을 이용하여 글을 올립니다. 오늘도 짧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슬기는 둘째 언니랑 스티커 붙이기 합니다. 잘하면 박수 쳐주구 하니깐 좋아합니다. 슬기 웃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지 모르실 꺼에용... 후훗. 낼은 봉평에 놀러 갑니다. 1박2일로요. 우리 슬기가 좋아해야 할텐데... 봉평에서 사진 마니 찍어 올리겠습니다. 참 슬기를 데리고 나가면 주위에서 이쁘다구 한마디씩 하십니다. 그럼 저는 “울 막내딸이에요. 녀 이쁘죠?” 한답니다. 슬기를 진작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주말 잘보내 시구요.

슬기는 감가중 / 2005. 11. 9 / 대안가정 모

주말에 여행은 잘다녀왔습니다. 고모들 봤을 때 침엔 앙 울더니 금새 친해져 웃고 애교 떨고 뽀뽀하고... 이쁨을 독차지 하구 왔어요. 펜션 갔다가 오크밸리 갔었는데 거기 잔디밭에서 녀 신나게 놀았나 봐요. 저녁부터 콧물에 열에 예효... 계속 병원 다니고 있어용. 빨랑 나아야 할텐데... 후훗. 좋은 구경시켜줄려다 감기만 달고 왔네요. 아파서 그런지 밥도 맘마도 신통찮게 먹고 있어요. 사진은 아빠가 올린 다구 했는데 시간이 통 나질 않네요. 기대하세요. 사진 마니 찍었어요.

밥 씹는 연습 시키다 / 2005. 11. 23 / 대안가정 모

감기로 훌쩍해진 슬기. 닭백숙도 해주고 전복죽 사골... 근데 시큰둥합니다. 그리고 밥 먹을때 입안에 음식을 오래 넣고 있는 버릇이 있어 요즘은 남남 찹찹 교육을 시킵니다. 물도 잘 안마실려구 하구요. 맘마는 잘먹습니다. 처음 와서 환경이 낯설어 맘마를 먹지 않더니 맘마는 잘 먹구 있어요. 근데 아기때부터 씹는 연습을 안해서 그런지 음식을 입안에 가득 넣고만 있어요. “슬기야! 빠빠를 그렇게 먹으면 안되지??” 하면 “응”이라고 합니다. 대답은 너무 이쁘게 하는 슬기. 좀 많이 먹고 살 좀 많이 찼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엄마랑 씹는 연습중입니다.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집중력이 있어 장난감이나 신기한 물건을 보면 오랫동안 앉아서 가지고 놉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커가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슬기랑 엄마랑 딸기랑 / 2005. 11. 16 / 대안가정 모

하루가 눈 깜짝할 새라는 말 요즘 실감하고 있어요. 후훗.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출근하고, 슬기 일어나서 맘마 먹구, 뒤이어 언니들 일어나고, 언니들 유치원 가면, 슬기는 조금 놀다 또 잡니다. 한 30분정도... 슬기는 깊이 안자고 짧게 여러 번 잡니다. 엄마가 옆에 누워주면 더 잘 자구요. 그리고 집안 청소하고, 점심먹고, 슬기 한숨 더 자고, 언니 가방 갖다 주고 와서 집에서 40분가량 쉬다 작은언니 데리러

가고, 작은언니가 오면 슬기랑 좀 놀다보면, 큰언니가 옵니다. 그때부터 아시겠죠?? 전쟁터입니다. 개성이 강한 우리 둘째랑 우리 슬기랑 자주 부딪히는 편인데 제가 중재를 해야 합니다. 저녁을 하다가 몇 번은 중재를 해야 되구요. 저녁을 먹고 과일을 먹고 나면 언니들 공부하고, 슬기 책 좀 읽어주고 나면 언니랑 슬기랑 씻는 시간. 그리고 슬기는 맘마를 먹으면서 잠이 듭니다. 에효... 슬기랑 엄마랑 보내는 하루입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대안가정 사무실에도 한 번 놀러 가야 되는데... 후후. 이번 주는 충주로 놀러갑니다. 결혼식이 있어 겸사겸사 놀러갑니다. 우리 작은 고모가 슬기 입을 옷을(작은고모가 인터넷에서 아동복하심) 많이 주셔서 결혼식에도 이쁜 원피스를 입고 갈 예정입니다. 엄마가 컴맹 아닌 컴맹이라 사진 올리기가 쉽지 않을듯... 아빠가 곧 올릴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참... 요즘 딸기의 수난시대인거 아실라나... 슬기가 아주 딸기를 장난감 다루듯 한답니다. 딸기의 껍질거리는 소리, 지금도 들리는데요. 후후. 슬기 언냐를 무서워하는 딸기. 아무튼 알콩달콩 잘 살아 가고 있어요. 마치 예전부터 슬기랑 함께 했는거 같아요. 며칠 감기를 앓아서 그런지 한 쪽 눈에 예쁘게 쌍꺼풀이 생겼어요. 돈 벌었네요. 남은 한쪽이 더 생기길 바라며...

따뜻한 오후 / 2005. 11. 24 / 대안가정 모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마저 느껴지는 오후 한가로운 시간입니다. 어제 캡순이를 다운시켜 사진을 올려보려 했지만 맘대로 되진 않네요. 피곤한 신랑을 붙잡고 더 해보라고 할 수 없어 그냥 “주말에 할까?” “응~”이라 대답하며 얼른 잠들어 버리는 신랑. 몇 장 거둬 실패하고 겨우 한 장 완성했어요. 다른 건 올려지지가 않더라구요. 주말에 한 번 더 시도해 볼게요. 슬기 아버님이 보고 싶어 하실텐데 마음은 조금해지고 그렇네요. 근데 슬기 잘 있으니 걱정마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주말에 충주 결혼식 다녀오고, 이리저리 바쁜 엄마를 쫓아다니느라 바쁜 슬기. 근데 말이죠. 밖에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어제도 백화점에 갔었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애기가 어찌 이리 잘 옷나고 한마디씩 하셨어요. “슬기야 엄마랑 우야 갈까?” 신발 먼저 신고 있는 슬기. 후후. 저희 친정부모님들이 다녀가셨는데 할아버지를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친정아버님이 아기를 너무 이쁘하시는데 아기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더군요. 금방 할아버지와 친해져서는 “하비”라고 하면서 좋아 했어요. 친정부모님도 슬기가 너무 이쁘다며 예쁘게 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보고도 아기 잘 보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선 가셨습니다. 요즘은 이유식을 사서 맘마를 줄때 같이 넣어서 준답니다. 침에 변이 아주 새노랑더니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한참 크고 있는데 엄마가 영양분을 골고루 챙겨줄 수 없기에 이유식에 맡길 수밖에요. 에효... 슬기 온지가 한 달이 다되어 가네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들려고 노력중이구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마세요. 작은 언니 올 시간이네요. 그럼

♥♥ 겨울바람이 많이 차죠? / 2005. 12. 6 / 대안가정 모

하루가 어찌 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네요. 대안가정 가족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신지... 이번 주에 찾아뵈라구 했었는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네요. 바쁜 엄마를 따라다니느라 슬기도 텅달아 바쁘답니다. 큰언니 학교 원서내려 다니고 한다고 조금 바빴네요. 그래서 슬기는 콧물이 마를 날이 없네요. 줄줄... 엄마 맞나?? 근데 말이죠.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제가 버릇 잘못 들었나 봐요. 날씨가 너무 매서워 마트에 가서 플라폴리스로 된 상하복과 두꺼운 스키바지를 사줬답니다. 참 부츠도요. 그 부츠를 집에서 신고 다니다가 광 넘어져 이마에 멍이 들고 말았답니다. 하얀 얼굴이라 멍이 너무 선명해보입니다. 그래서 부츠를 치우기로 했답니다. 1월에 스키장에 갈 예정인데 슬기가 너무 좋아할 것 같네요. 슬기 덕분에(?) 엄마 스키도 못타겠지만 요즘은 슬기 즐거워하는 모습이 좋아서 뭐든 신난답니다. 그래서 외출을 자주하게 된다는 핑계도 생기구요. 근데 슬기는 너무 얌전해서 어디 데리고 나가도 수월해서 제가 편하답니다. 저번 주는 언니야들이 감기에 걸려 일주일 집에 있는 관계로 엄마가 쌍코피 터질뻔 했습니다. 다행히 언니들은 유치원에 가게 되었구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구요. 저도 슬기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대안가정 일기모음집

우리집은 대안가정 이에요!

- 발행처 : 사단법인 대안가정운동본부
 - 발행인 : 이수형
 - 발행일 : 2005. 12. 30
 -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96-20
 - 전 화 : 053-628-2592
 - 전 송 : 053-628-2594
 - <http://www.fosterhome.or.kr>
-

※ 비매품 / 대구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출간되었습니다.